

경기도 역사여행

【인물 편 - 교사용지도서】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경기도 역사인물과의 만남!

○ 2016년은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해입니다.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현재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자유학기제를 설계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찾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과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자유학년제를 통해 다양한 교실 수업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 천년에 즈음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찾아보는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이 살아온 경기도는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집필진은 모두 경기도의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 인물, 문화유산, 사건 등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역사를 공부한 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1학년을 지나 2학년부턴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자연스럽게 역사를 연계하여 공부할 교육 내용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자유학년제에 적용 가능한 역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 가지 대주제 중에서 '경기도의 인물 편'을 개발하였습니다. 인물 편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의 역사 인물이 살아온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내면화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도 인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는 **풍요로운 오늘을 만든 경기도 사람,**

둘째는 **외세의 침략에 맞선 경기도 사람,**

셋째는 **문화를 창조하고 즐긴 경기도 사람,**

넷째는 **자기 삶을 찾아 떠난 경기도 여성입니다.**

○ 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교 학생들이 본 교재를 활용하여 경기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 이 교재를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단원

풍요로운 오늘을 만든 경기도 사람들

1차시

정도전 조선왕조의 설계자 12

2차시

채제공 올바른 신념을 실천한 재상 26

3차시

정약용 내일의 기틀을 마련한 실학자 41

4차시

여운형 한발 앞서 내일을 준비한 민족의 지도자 56

2단원

외세의 침략에 맞선 경기도 사람들

5차시

서희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외교관 72

6차시

권율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늑각이 장군 86

7차시

최익현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의병을 일으킨 유학자 99

8차시

이정근 3·1운동으로 세상을 바꾼 경기도 사람들 114

3단원

문화를 창조하고 즐긴 경기도 사람들

9차시

전곡리 사람들 한반도의 첫 사람 140

10차시

나옹화상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153

11차시

이이 조선 성리학을 펼친 유학자 173

12차시

김정희 붓 천 자루, 벼루 열 개를 모두 닳아 없애고 195

4단원

자기 삶을 찾아 떠난 경기도의 여성

13차시

나혜석 남녀평등을 외친 신여성 214

14차시

명성황후 흥선대원군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본 여성 239

15차시

최용신 잠자는 조선을 깨운 교육자 265

16차시

김향화 3·1운동에 참가한 기생 284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전체 구성은 연표, 생각 열기, 역사 속으로, 생각 나누기, 생각 더하기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 표

이야기 속 경기도 인물의 생애 중 주요한 일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인물이 살았던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제시하여 그 인물의 삶과 사상이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생각 열기**

학생들이 경기도 인물에 대해 친근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화와 글로 구성하였습니다. 생각 열기의 내용은 인물과 관련된 경기도 지역, 문화유산, 인물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역사 속으로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경기도 인물의 삶과 사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물의 생애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연대기적 구성에서 탈피하여 그 인물의 역사적 행위와 판단 근거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이나 문화유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와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 생각 나누기

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 논술과 토론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인물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생각 더하기

인물을 통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인물을 통해 습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나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1단원



풍요로운 오늘을 만든 경기도 사람

- 1차시 정도전 조선왕조의 설계자
- 2차시 체제공 올바른 신념을 실천한 재상
- 3차시 정약용 내일의 기틀을 마련한 실학자
- 4차시 여운형 한발 앞서 내일을 준비한 민족의 지도자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1. 활동 개요

고려말은 권문세족들의 탐욕으로 인해 백성들이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이며, 나라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유학적 소양을 가진 신진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합니다. 정도전이 대표적인 인물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이성계와 협력하여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웁니다. 또한 조선의 제도와 국가정책을 설계합니다. 정도전이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통해 신념과 꿈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 인물 학습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에 역사의 중심에서 새 왕조를 설계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꿈꾸던 성리학 이상 세계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끝내는 정적의 칼에 단죄되어 조선 왕조의 끝자락에 가서야 겨우 신원 되는 극단적인 삶을 살았다.

가.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다져진 민본사상

정도전의 집안은 본래 봉화 지역의 향리였다. 고려 시대까지 향리는 우리가 아는 조선조의 향리와는 그 격이 달라, 지방의 토착세력을 말한다. 정도전 집안은 경상도 봉화지역의 토착세력인 셈이다. 부친 정운경의 뒤를 이어 과거에 급제한 정도전은 22살 때 충주 사록에 임명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또한 정도전은 공민왕의 유학 육성 사업에 참여해 성균관 교관에 임명되었다. 이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몽주·이승인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도전에게 시련의 시작이었다.

공민왕의 뒤를 이어 우왕이 즉위하였는데, 우왕이 재위하던 때는 정도전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인임 등이 정

국을 주도하였다.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하였고, 결국 원나라 사신의 마중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정도전은 오늘날의 전라도 나주에 속해 있는 회진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회진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정도전은 그곳에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는 위민의식(爲民意識)을 키웠다.

정도전이 회진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들녘에서 한 농부를 만났다. 그 농부는 정도전을 보고 당시 관리들이 ‘국가의 안위와 민생의 안락과 근심, 시정의 득실, 풍속의 좋고 나쁨’에 뜻을 두지 않으면서 헛되이 녹봉만 축내고 있다며 질책하였다. 촌로의 이러한 발언은 정도전에게 백성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기 충분하였을 것이다. 결국 그가 제시했던 민본사상은 허울 좋은 이름뿐이 아니었다. 실제 백성의 삶을 목격한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것으로 진정성이 담보된 것이었다.

나. 천명을 읽고 장자방을 자처하다

계속된 정치적 시련에 대장부의 거대한 야망이 꺾일 만도 하지만, 오히려 정도전은 더욱 강해졌다. 관직에 다시 등용된 정도전은 전의부령, 성균제주 등의 관직을 지내다가, 이성계의 추천으로, 성균대사성에 임명되었다. 성균대사성은 성균관의 책임자를 말하는데, 당시 학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사실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은 그보다 앞선 1384년(우왕 10년)에 이루어졌다.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정도전이 여진족 호발도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함경도에 있던 동북면도지휘사 이성계를 찾아가면서부터였다. 이성계의 군대를 본 정도전은, 이성계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해줄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리고는 군영 앞에 서 있던 노송에 아래와 같은 시를 남겨 놓았다.

아득한 세월에 한 그루 소나무
푸른 산 몇만 겹 속에 자랐구나
잘 있다가 다른 해에 만나볼 수 있을까
인간을 굽어보며 묵은 자취를 남겼구나

이 시에 대해 조선 초에 만들어진 [용비어천가]에서는 정도전이 이미 천명의 소재를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정도전은 평소 취중에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이용하였다”라고 말하고는 하였다. 한고조를 이성계에 대비한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자신이 이성계를 이용했다는 말이 된다. 한 대장부의 거대한 야망을 느끼게 한다.

위화도회군으로 이성계가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정도전의 야망은 급물살을 탔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때 고려 조정에는 한편에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세력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정도전, 조준과 같이 급진적 개혁세력이 있었다. 이성계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은 그는 이미 급진적 개혁세력의 맹주가 되어 있었다. 정몽주가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에 의해 선지교(후일의 선죽교)에서 피살되면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꺾멸하였다.

이제는 그야말로 이성계 천하가 된 것이었다.

정몽주가 피살된 후 이성계를 추대하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드디어 1392년, 5백 년 고려 왕조는 역사 속에서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조선 왕조가 들어섰다. 조선이 개국된 후 정도전의 활약은 눈부셨다.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을 비롯해 현재의 경복궁 및 도성 자리를 정하였고, 수도 건설 공사의 총책임자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 건설이 마무리되면서는 경복궁을 비롯한 성문의 이름과 한성부의 5부 52방 이름도 지었다. 서울을 구성하던 각종 상징물에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대부분 유교의 덕목이나 가치가 담긴 표현이었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유교적 이상을 담은 곳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다.

그는 또한 《조선경국전》을 지어 태조에게 올렸다. 이 책은 조선의 통치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후일 조선의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이 나오게 되는 출발이었다.

이 책에서 정도전은 자신이 꿈꾸던 요순시대를 건설하기 위한 거대한 정치 구상을 제시하였다. 요순시대처럼 임금과 신하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왕도정치를 전면적으로 표방한 것이었다.

다. 요동정벌 주장과 표전문 사건

정도전은 조선 개국 후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가 주창한 요동정벌 문제는 조선과 명나라의 주요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당시 명나라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방하였다. 다만, 여진과 제휴한다든지, 요동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요동 진출 문제와 관련해서 정도전은 명나라에서 보면 요주의 인물이었다. 정도전은 태조에게 외夷(外夷: 중화질서 속에서 중국 이외의 민족을 지칭하는 개념)로서 중원에 들어가 왕이 되었던 사례가 있음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중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었다.

급기야 1394년(태조 3년)에 이른바 ‘표전문사건’이 일어났다. 표전문이란 표문과 전문의 합칭으로, 조선이 중국의 황제와 황태자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를 말한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조선에서 파견된 유구와 정신의가 가지고 간 표문을 문제 삼았다. 유구 등은 결국 명나라에 구속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된 표문의 작성자로 정도전이 지목되었다. 명나라에서는 당장 정도전의 소환을 요구하였다. 명나라의 요구를 둘러싸고 조선 조정에서 설왕설래하였다. 논의 결과 표문을 작성한 사람은 정충이고, 전문을 작성한 사람은 김약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지로 정도전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정충은 병을 이유로 가지 않고 김약항만이 명나라로 가게 되었다.

명나라의 요구가 거세었지만, 정도전이 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당시 정치를 주도하던 조정 관리들이 대부분 정도전 계열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후일의 태종 계열인 하륜만이 정도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었다. 조정의 결정에 따라 김약항이 파견되었으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명나라에서 다시 정도전을 압송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때도 역시 정도전은 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국내에 있으면서 진법(陣法) 훈련을 강화하며 요동정벌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병 혁파를 둘러싸고 왕자 및 공신들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라. 이상과 현실의 갈등, 정도전과 이방원

정도전은 개국 후 태조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 소생 방식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에 관여하였다. 태조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첫째는 신의왕후 한씨이고, 둘째가 신덕왕후 강씨였다. 신의왕후 소생 아들은 방우·방과(정종)·방의·방간·방원(태종)·방연 등이 있었다. 이들은 신덕왕후 소생의 아들보다도 아버지 태조가 왕위에 오르는 데 공도 많았다. 그런데 정도전이 이를 다 무시하고 방식을 세자로 책봉하게 하였던 것이었다.

정몽주를 선지교에서 살해함으로써 조선 건국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이방원 등 첫째 부인 한씨 소생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더구나 사병 혁파 문제로 서로 갈등을 보이던 중 1398년(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고, 정도전은 이방원이 이끄는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도전은 조선훈 내내 신원 되지 않다가 고종 때 관직이 회복되었다. 고종 때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건국 초에 설계 등에 참여한 정도전의 공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제1차 왕자의 난 발생 원인은 개인적인 불만이 표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방원과 정도전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이상의 차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체제를 어떻게 편제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차이인 것이다. 정도전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표방하였다면, 이방원은 그와는 달리 강력한 왕권에 바탕을 둔 왕조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서 현실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정도전이 꿈꾸던 이상 세계가 구현되어 갔으니, 정도전의 꿈은 꿈에서 그친 것이 아니리라…….

[출처] 정도전 (네이버캐스트, 인물한국사)

마. 정도전 연보

1342 | 충청도 단양 삼봉에서 출생
1357 | 개경의 이색 문하에 들어감.
1362 | 진사시 합격
1363 | 충주 사록으로 첫 벼슬길에 오름.
1366 | 부모상으로 3년간 여막살이
1371 | 태상박사 겸직으로 특진함.
1375 | 성균사예, 예문응교, 지제교로 승진함. 친원정책을 반대하다 유배됨.
1383 | 이성계를 찾아가 만남.
1388 | 밀직부사(정3품). 전제개혁운동 시작함.

1392 | 이성계를 임금으로 추대하여 조선 왕조 창업함. 개국일등공신에 봉해짐.
1394 | 『조선경국전』 완성함. 경상 전라 양광 3도도총제사에 임명됨.
1395 | 『고려사』 37권 및 『경제문감』을 완성함.
1398 | 8월 26일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참수 당함.

3. 교수-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학습 목표	- 정도전이 추구했던 삶을 말할 수 있다. - 조선왕조를 설계했던 정도전의 이상과 선택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 내용	- 정도전이 추구했던 삶 - 조선왕조의 설계		

나. 본활동

단 원 명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학습 목표	1. 고려왕조를 개혁하려고 하였던 정몽주와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의 삶과 선택을 알 수 있다. 2. 신념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동기유발 글 읽기(5분) : 경기도의 이름에 담긴 뜻 알기		
전 개	1. “정도전과의 만남” (40분) (1) 정도전의 신념 (2) 조선왕조의 개창 (3) 조선왕조의 설계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정도전과 관련한 개념을 이해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생각 나누기(20분) : 정몽주와 정도전의 생각 비교	정몽주 vs 정도전 - 정도전과 정몽주의 삶을 파악하여 좌우명을 지어주고, 내가 그때 사람이었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하여 보기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3. 생각 더하기(20분) : 내가 만난 사람들과 만날 사람들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키므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여 보기	모둠 별로 마주 보도록 자리 재 배치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4. 학생 활동지 해답

[생각 나누기]

• 정몽주 vs 정도전

함께 공부하며 자란 정도전과 정몽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정도전은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개국하였으며, 조선왕조 500년을 설계하였으나 태종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개혁하려 하였으나 역시 태종의 손에 죽음을 당하나 충신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 정도전과 정몽주의 삶을 잘 생각하여 보고, 그들의 좌우명을 지어주세요.

정도전의 좌우명	정몽주의 좌우명
새 술은 새 부대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 여러분은 정도전과 정몽주 중 누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1) 내가 선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도전

(2)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삶과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

(3) 그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방원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그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조선왕조가 안정기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내가 정도전이었다면 이방원과 협력하여 조선왕조를 더욱 안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차츰 신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생각 더하기]

• 내가 만난 사람들과 만날 사람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만나 그 들의 삶이 변하기도 합니다.

정도전은 이색이라는 훌륭한 스승과 정몽주라는 친구를 만나 유학자로서 성장합니다. 권문세족을 만나 유배를 가는 등 고난을 겪었으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야 하겠다는 마음을 더욱 크게 키웁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을 만난 것이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그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반대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름	나와의 관계	나 ↔ 상대방이 서로에게 주는 영향
5	아버지	나에게 용돈과 많은 것을 제공해주신다. 하지만 용돈은 항상 부족하다.
0	친구	나를 항상 pc방으로 유혹한다.
***	동생	특하면 내가 하는 일을 부모님께 일러바친다.
**8	친구	아주 착하다. 가끔 이녀석의 영향으로 길거리에 있는 자선냄비에 돈을 넣기도 한다.

◆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요?

(1)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착하고 노력하며, 돈 많은 사람

(2)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떻게 변하고 싶은가요?

노력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어 잘 사는 사람

◆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노력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

〈정리하기〉

지금까지 정도전이 고려말 부패했던 정치상황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의 선택은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과 신념을 믿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정도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그 선택에 따라 어떻게 실천해야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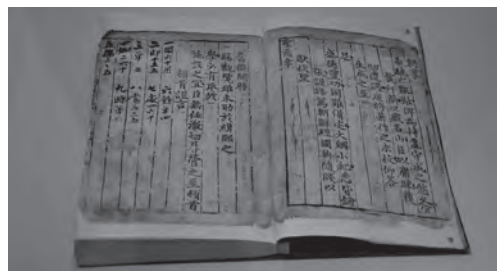
6. 교사 참고 자료

(1) 정도전 생가

영주에 있는 삼판서고택으로 정도전이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다.



(2) 정도전 관련 유물



조선경국전 : 수원화성박물관



삼봉집 : 국립중앙박물관

7.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정몽주[鄭夢周]

본관 영일(迎日). 자 달가(達可). 호 포은(圃隱). 초명 몽란(夢蘭)·몽룡(夢龍). 시호 문충(文忠). 영천(永川)에서 태어났다. 1357년(공민왕 6) 감시에 합격하고 1360년 문과에 장원, 예문검열(藝文檢閱)·수찬·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냈으며, 1363년 동북면도지휘사 한방신(韓邦信)의 종사관으로 여진족(女眞族) 토벌에 참가하고 1364년 전보도감판관(典寶都監判官)이 되었다.

이어 전농시승(典農寺丞)·예조정랑 겸 성균박사(禮曹正郎兼成均博士)·성균사에(成均司藝)를 지냈고, 1371년 태상소경보문각응교 겸 성균직강(太常少卿寶文閣應教兼成均直講) 등을 거쳐 성균사성(成均司成)에 올랐으며, 이듬해 정사(正使) 홍사범(洪師範)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1376년(우왕 2)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이인임(李仁任) 등이 주장하는 배명친원(排明親元)의 외교방침을 반대하다 언양(彦陽)에 유배, 이듬해 풀려나와 사신으로 일본 규슈[九州]의 장관에게 왜구의 단속을 청하여 응낙을 얻고 잡혀간 고려인 수백 명을 귀국시켰다.

1379년 전공판서(典工判書)·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예의판서(禮儀判書)·예문관제학·전법판서·판도판서를 역임, 이듬해 조전원수(助戰元帥)가 되어 이성계(李成桂) 휘하에서 왜구토벌에 참가하였다. 1383년 동북면조전원수로서 함경도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 다음해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올라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긴장 상태에 있던 대명국교(對明國交)를 회복하는 데 공을 세웠다.

1386년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고 이듬해 다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수원군(水原君)에 책록되었다. 1389년(창왕 1) 예문관대제학·문화찬성사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옹립하고, 1390년(공양왕 2)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도평의사사병조상서시판사(都評議使司兵曹尙瑞寺判事)·경영전영사(景靈殿領事)·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익양군충의백(益陽郡忠義伯)이 되었다. 이성계의 위망(威望)이 날로 높아지자 그를 추대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 이성계 일파를 숙청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392년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황주(黃州)에 드러눕자 그 기회에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방원(芳遠·太宗)의 기지로 실패, 이어 정세를 엿보려고 이성계를 찾아보고 귀가하던 도중 선죽교(善竹矯)에서 방원의 부하 조영규(趙英珪) 등에게 격살되었다.

의창(義倉)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고, 개성에 5부 학당(學堂)과 지방에 향교를 세워 교육진흥을 도모했다. 그리고 성리학에도 밝아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사회 윤리의 기반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1392년(공양왕 4)에는 고려의 기존 법률 체계와 원나라의 법률, 1367년에 새로 제정된 《대명률(大明律)》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율(新律)》을 편찬해 고려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하려 했다. 나아가 외교와 군사에도 깊이 관여하여 국운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신흥세력인 이성계 일파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다.

시문에도 뛰어나 시조 〈단심가(丹心歌)〉 외에 많은 한시가 전해지며 서화에도 뛰어났다. 고려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1401년(태종 1) 영의정에 추증되고 익양부원군(益陽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중종 때 문묘(文廟)에 배향되었고 개성의 숭양서원(崧陽書院) 등 11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문집에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몽주 [鄭夢周] (두산백과)

태조 [太祖]

본관 전주(全州). 자 중결(仲潔). 호 송헌(松軒). 성 이(李). 휘(諱) 성계(成桂). 시호 지인계운성 문신무대왕(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즉위 후 휘를 단(旦), 자를 군진(君晉)으로 고쳤다. 비(妃)는 한경민(韓敬敏)의 딸 신의왕후(神懿王后), 계비는 강윤성(康允成)의 딸 신덕왕후(神德王后)이다. 함경도 영흥(永興)에서 아버지 이자춘(李子春)과 어머니 최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1335년(충숙왕 4년)에 출생하였다. 그의 선조는 전주에 살았으나 고조부 이안사대에 간도지방으로 이주해서 증조부 이행리, 조부 이춘, 부친 이자춘까지 원나라 지방관리를 지냈다. 원나라가 쇠퇴하자 이자춘이 고려에 귀화하였다. 1356년(공민왕 5) 아버지와 함께 고려에 내부(來附)한 뒤 이듬해 유인우(柳仁雨)가 쌍성총관부를 공격할 때 이에 내응(內應)하여 공을 세웠고, 후에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받아 금오위상장군(金吾衛上將軍)·동북면상만호(東北面上萬戶)가 되었다.

1361년 반란을 일으킨 독로강만호(禿魯江萬戶) 박의(朴義)를 토벌하였으며, 같은 해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으로 개경(開京)이 함락되자, 다음해 사병 2,000명을 거느리고 수도 탈환전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워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승진되었다. 그리고 원(元)나라의 나하추(納哈出)가 함경도 홍원(洪原))으로 침입하자 함흥평야에서 이를 격파하였다. 1364년 원나라 연경(燕京)에 있던 최유(崔濡)가 충숙왕(忠肅王)의 아우 덕흥군(德興君)을 추대하고 1만 명의 군대로 평안도에 침입하여 공민왕을 폐하러 하자 최영(崔瑩)과 함께 이들을 달천강(악川江)에서 대파하고, 이어 여진족(女眞族)의 삼선(三善)·삼개(三介)가 함경도 화주(和州)에 침입한 것을 격퇴하였다. 이 성계는 출정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여 무인으로서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해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익대공신(翼戴功臣)에 책록되었다. 1368년 동북면원수(東北面元帥)·문하성지사(門下省知事)로 승진, 1372년(공민왕 21) 화령부윤(和寧府尹)이 되고, 1377년(우왕 3) 왜구가 개경을 위협할 때 서강부원수(西江副元帥)로서 이를 격퇴하였다. 1380년 양광·전라·경상도도순찰사(楊廣全羅慶尙道都巡察使)가 되어 운봉(雲峰)에서 왜구를 소탕하고 1382년 찬성사(贊成事)로서 동북면도지휘사가 되었다. 다음해 이지란(李之蘭)과 함께 함경도에 침입한 호바투[胡拔都]의 군대를 길주(吉州)에서 대파하였으며, 1384년 동북면도원수·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가 되었고 이듬해 함경도 함주(咸州)에 침입한 왜구를 격파하였다.

1388년(우왕 14)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올라 최영과 함께 권신(權臣) 임견미(林堅味)·염흥방(廉興邦)을 처형, 이때 명(明)나라의 철령위(鐵嶺衛) 설치 문제로 요동정벌이 결정되자 출정을 반대했으나 거절당했다.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북진하다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한 후 창왕(昌王)을 세웠으며, 자신은 수시중(守侍中)으로서 도총중외제군사(都摠中外諸軍事)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였다. 다음해 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恭讓王)을 세웠다. 1390년(공양왕 2)

삼사영사(三司領事)로 승진하였고, 1391년 삼군도총제사(三軍都摠制使)로서 조준(趙浚) 등과 함께 구신(舊臣)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전제개혁(田制改革)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구신들은 경제적 기반을 잃었고, 그의 일파인 신진세력은 경제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1392년(공양왕 4) 정몽주(鄭夢周)를 제거, 그 해 7월 공양왕을 양위시키고 스스로 새 왕조의 태조가 되었다.

이듬해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정하고 1394년(태조 3)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옮겼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방과(芳果:定宗)에게 선위한 뒤 상왕(上王)이 되고, 1400년 방원(芳遠)이 즉위하자 태상왕이 되었다. 1402년 왕자들의 권력 다툼에서 빚어진 심뇌로 동북면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돌아왔고 불가(佛家)에 귀의하여 여생을 보냈다. 사대주의(事大主義)·배불숭유(排佛崇儒)·농본주의(農本主義)를 건국이념으로 삼아 조선 500년의 근본 정책이 되게 하였고 관제의 정비, 병제(兵制)와 전제(田制)의 재조정 등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업적을 남겼다. 묘호(廟號)는 태조, 능은 건원릉(健元陵)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태조 [太祖] (두산백과)

왕자의 난

1398년(태조 7) 8월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을 방원(芳遠:태종)의 난, 무인정사(戊寅靖社)의 난, 또는 정도전(鄭道傳)의 난이라 하고 1400년(정종 2) 1월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을 방간(芳幹)의 난 또는 박포(朴苞)의 난이라고도 한다.

태조는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와의 사이에 방우(芳雨)·방과(芳果:정종)·방원 등 여섯 형제를 두었고,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와의 사이에 방번(芳蕃)·방석(芳碩)을 두었다. 난의 발단은 태조의 후계자 책정에 있었다. 태조는 첫째부인 한씨 소생의 왕자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총애하던 강씨 소생의 여덟째 아들 방석을 세자에 책봉했다. 한씨 소생 왕자들은 이를 못마땅해 했고, 특히 정몽주를 비롯한 개국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왕대비 안씨(安氏)를 강압하여 공양왕을 폐위케 하는 등 조선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방원의 불만이 가장 컸다.

조선 건국의 최대 공신(功臣)인 정도전·남은(南閔) 등이 왕실의 힘을 약화시키고 유교(儒敎)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왕실 권력의 기반인 사병(私兵)을 혁파하려 하자 수세에 몰린 방원은 한씨 소생 왕자들과 함께 1398년(무인년) 8월 25일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남은 등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이 제1차 왕자의 난이다. 거사에 성공하자 하륜(河崙)·이거이(李居易) 등 방원의 심복들은 그를 세자로 책봉하려 했으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방원의 뜻에 따라 둘째인 방과가 세자가 되었는데 이가 곧 정종(定宗)이다.

이후 정종과 그의 정비 정안왕후(定安王后) 사이에 소생이 없자, 세자의 지위를 놓고 방원과 방간(회안대군)은 또다시 미묘한 갈등에 싸였다. 이때 공신 책정문제로 방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박포가 방간을 충동질하여 1400년 1월 방원과 방간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났고, 개경에서 벌어진 싸움은 수적으로 우세한 방원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이다.

이후 지위가 확고해진 방원은 1400년(정종 2) 11월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태종(太宗)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왕자의난 [王子—亂] (두산백과)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상하 2권 필사본. 조선왕조의 헌법(憲法)이라 할 수 있는 책으로서 개국 초 정도전(鄭道傳)이 지었다. 《경국전(經國典)》이라고도 하며 《삼봉집(三峯集)》(권 7, 8)에도 수록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집권 이후 발표한 수교를 모으고, 여기에 정도전 자신이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첫 부분은 서론으로 정보위(正寶位), 국호(國號), 정국본(定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 등으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서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인(仁)으로 왕위를 지켜나갈 것, 국호를 조선으로 한 것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계승이라는 것, 왕위계승은 장자나 현자(賢者)로 하여야 한다는 것, 교서는 문신에 의한 높은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본론 부분에는 치전(治典), 부전(賦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헌전(憲典), 공전(工典) 등 6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소관업무를 서술하였다.

치전은 이전(吏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신의 직능과 관리 선발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부전은 호전(戶典)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국가수입을 늘리기 위해 군현제도와 호적제도의 정비와 농상(農桑)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의 지출로는 상공(上供), 국용(國用), 군자(軍資), 의창(義倉),惠民전약국(惠民典藥局)을 들고 되도록 지출을 억제하고 예비경비를 많이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예전은 항목이 가장 많은데, 외교와 학교를 비롯하여 조회(朝會), 종묘(宗廟), 사직(社稷) 등과 문묘(文廟), 제사, 악(樂), 역(曆), 경연(經筵), 관례(冠禮), 상제(喪制), 가묘(家廟) 등 예제(禮制) 관련 조문이다.

정전(政典)은 병전에 해당하는데, 군제(軍制), 군기(軍器), 상벌(賞罰)을 비롯하여 숙위(宿衛), 둔수(屯戍), 공역(工役), 마정(馬政), 둔전(屯田), 역전(驛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농일치제, 무기개량과 훈련개선, 둔전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형전에 해당하는 헌전(憲典)에서는 <대명률>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형벌과 법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예방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도적조에서도 민이 항심(恒心)이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토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민생안정이 교화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전은 궁원, 창고, 병기, 성곽, 노부(鹵簿) 등과 공장(工匠) 제도에 관한 글인데, 각종 공사에 있어 사치를 금지하여 재정낭비를 경계할 것, 백성을 지나치게 소모하여 피로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강조되었다. 마치 막에 정충(鄭攄)이 쓴 후서가 있다. 이 법전은 《경제육전》, 《경국대전》 등 여러 법전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두산백과)

8. 참고 문헌

[도서]

한영우(1999).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이한우(1999). 『왜 조선은 정도전을 버렸는가』. 21세기북스.

조유식(2014). 『정도전을 위한 변명』. 휴머니스트.

조열태(2014). 『정도전과 조선건국사』. 이북이십사.

정도전(2013). 『삼봉집』.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정도전 : 네이버캐스트- 새 왕조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2798

2차시

올바른 신념을 실천한 재상, 채제공

1. 활동 개요

채제공은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를 펼칠 때의 대표적인 재상입니다. 그의 정치적 기반은 약했으나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채제공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해통공, 화성건설 등 채제공의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고, 그가 추구한 삶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아보시다.

2. 인물 학습



한국사에서 18세기는 중흥과 개혁을 대표하는 시기 중 하나였다. 정치에서는 그동안 정계를 지배해 온 소모적인 당쟁을 지양하고 통합의 논리인 탕평을 추구했으며, 경제에서는 생산력을 확대하고 수취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사상과 문화에서도 북학(北學)과 새로운 문체·화풍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양 전체가 그랬지만, 그런 노력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고, 조선은 서구가 주도한 근대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그런 18세기를 대표하는 신하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79세의 긴 생애 동안 영조와 정조라는 뛰어난 두 국왕이 이끈 국정의 중심에서 의미 있는 여러 개혁을 주도했다. 정치적으로 그는 소수파인 남인, 특히 서인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 청남(淸南)이었다. 그가 주목할

만한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성공시킬 수 있었던 데는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파에 소속되었던 까닭도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왕권을 강화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견결한 정치적 의리를 구현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가. 출생과 성장

채제공은 자가 백규(伯規)고 호는 번암(樊巖)이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본관은 평강(平康)으로 아버지는 지중추부사를 역임한 채응일(蔡膺一)이고, 어머니는 이만성(李萬成, 본관 연안)의 딸로 선조 때 이조판서·호성(扈聖)공신·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을 지낸 이광정(李光庭)의 5대손이다.

그의 직계 조상은 그리 현달하지 못했다. 주목할 만한 경력은 조부 채성윤(蔡成胤)이 문과에 급제하고 참판·좌윤에 올랐으며, 5대조 채진후(蔡振後)의 형이 효종 때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채유후(蔡裕後)라는 사실 등이다.

채제공은 숙종 46년(1720) 4월 6일에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공식적 생애는 상당히 일찍 시작되었다. 그는 15세 때 향시에 급제한 뒤 23세(1743, 영조 19) 때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했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는 평균 나이가 30세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시점에 합격한 것이다. 그는 국왕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 종9품)로 벼슬을 시작했다.

채제공은 숙종~영조 때 대사헌·대사간·예조참판 등을 역임한 오광운(吳光運, 1689~1745)을 스승으로 모셨다. 오광운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가 조선 후기 경제론의 중요한 저작인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에 서문을 썼다는 사실이다. 스승의 이런 면모는 채제공의 개혁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채제공은 17세 때 오광운의 형인 오필운(吳弼運, 본관 동북(지금의 전라남도 화순))의 딸과 혼인했다(1737, 영조 13). 이런 혼맥은 그가 스승에게서 상당한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나. 본격적인 출세

채제공은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출세하기 시작했다. 영조 24년(1748, 28세) 11월에 사관인 예문관 한림(翰林)을 선발하는 시험이 열렸는데, 그는 거기서 수석을 차지했다. 그 뒤 30세(1750, 영조 26) 때부터 5년 정도에 걸쳐 채제공은 이조·병조좌랑(정6품), 사헌부 지평(정5품)·집의(종3품), 사간원 정언(정6품), 홍문관 부수찬(종6품)·부교리(종5품)·동부승지(정3품)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영조 29년(1753, 33세)에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는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무렵 그는 젊은 나이로 상처(喪妻)하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1751, 영조 27, 31세).

다. 중견 관료로 활약하다

채제공은 38세(1758, 영조 34) 때 도승지에 임명됨으로써 핵심적 신하의 대열에 진입했다. 4년 뒤 사도세자가 사사된 임오화변(壬午禍變, 1762, 영조 38)이 일어난 데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시기는 정치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국면에서 국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도승지에 발탁된 것은 그의 위상과 국왕의 신임을 보여준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가 소속된 남인의 정치적 지향은 왕권을 강화해 개혁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인은 다음 국왕으로 오를 위치에 있는 사도세자의 폐위를 강력히 반대했는데, 채제공은 그런 노선을 앞장서 실천했다. 그는 도승지가 된 해에 사도세자를 폐위시키려는 영조의 비망기(備忘記 :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 게 전하던 문서)가 내려오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았다. 훗날 영조는 이런 면모를 기억하면서 정조에게 “참으로 채제공은 나의 사심 없는 신하이자 너의 충신”이라고 말했다. 그 뒤 그가 정조의 가장 중요한 신하가 된 까닭은 이런 태도가 깊은 인상을 준 것이 크게 작용했다.

3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채제공은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대사간과 도승지(1759. 39세)를 시작으로 대사헌·경기도 관찰사(1760)·공조참판·예조참판(1761)·함경도 관찰사(1768)·병조판서·예조판서·호조판서(1770)·예문관 제학(1771) 등을 거쳐 좌참찬(1775. 55세)에 오른 것이다. 사관은 이 무렵 “다른 신하들은 율허 받지 못한 일도 그가 나서면 허락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위의 경력에서 약간 공백이 있는 것은 탄핵을 받아 파직되거나 물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친상(1762)과 부친상(1765)을 잇따라 당해 삼년상을 치른 결과였다.

1776년(영조 52) 3월 52년에 걸친 영조의 긴 치세가 끝나고 정조가 등극했다. 그때 채제공은 노년에 접어든 56세였다. 그러나 그의 본격적인 활동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채제공은 정조가 즉위한 직후부터 개혁 정책을 보좌하고 추진했다. 첫 사안은 시노비(寺奴婢: 각 관서에 소속된 노비)의 폐단을 시정하는 절목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 골자는 도망간 노비를 국가에서 추쇄(推刷 : 추적해 체포함)하는 제도를 없애고 시노비를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뒤 시노비를 해방(1801, 순조 1)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다. 정조 초반 채제공은 병조·예조·형조판서(1777, 정조 1)·한성판윤(1778)·호조판서(1780) 등으로 활동했다.

라. 시련의 세월

그러나 지금까지 순조롭던 그의 경력은 60세(1780, 정조 4) 때 큰 시련을 맞았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인 홍국영(洪國榮, 1748~1781)과의 친분 때문이었다. 널리 알려졌듯이 홍국영은 정조가 세손일 때 가장 가까이서 보필한 인물이었다. 그런 공로로 그는 정조 초반 커다란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홍국영의 월권이 지속되자 정조는 그를 축출하고 영조 후반 자신의 대리청정에 공로를 세운 소론 준론 계열을 등용했다. 영의정에는 그 정파를 대표하는 서명선(徐命善)이 임명되었다.

이런 정국의 변화에서 채제공은 그동안 홍국영과 가까이 지내면서 결탁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았다. 그는 사직했고, 노량(鷲梁 : 오늘날의 노량진 일대)과 명덕산(明德山) 일대에서 7년 동안 은거했다(명덕산은 동대문 밖 10리 쯤에 있다고 하지만 분명치는 않다. 채제공의 호인 번암은 번계(樊溪)라는 개천에서 유래했고, 그것은 오늘날 도봉구 번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번동 일대의 산으로 추정된다).

마. 정승으로 개혁을 주도하다

실의의 세월을 보낸 뒤 채제공은 정조 10년(1786)에 평안도 병마사로 다시 관직에 나왔다. 당시로서는 사망했

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66세의 노령이었다. 그러나 이때 이후 그는 재상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되는 중요한 업적들을 산출했다.

우선 채제공은 복직한 지 2년 만에 우의정(1788, 정조 12, 68세)에 발탁되어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좌의정으로 승진했고, 3년 동안 영의정과 우의정이 없는 독상(獨相)으로 재직했다. 이것은 100년 동안 없던 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여러 중요한 개혁들을 추진했는데, 먼저 그동안 당쟁의 핵심적 원인 중 하나였던 이조전랑(吏曹銓郞)의 통청권(通淸權 : 정3품 이하 주요 문신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과 자대권(自代權 : 후임을 자신이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혁파하자고 주창해 율허를 얻었다. 이것은 일찍이 동서 분당(1570, 선조 8)의 원인이 될 정도로 중요한 관직인 이조전랑의 권한을 줄임으로써 당쟁을 완화하고 탕평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가장 중요한 업적은 신해통공(辛亥通共, 1791, 정조 15)일 것이다. 이것은 육의전(六矣廛 : 비단·무명·종이·모시·생선 등 여섯 가지 주요 물품을 국가에 독점적으로 납부하던 상점)을 제외한 시전(市廛)의 특권을 박탈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당시 활발하게 성장하던 상업과 상공업의 변화를 인정하고 촉진한 이 정책으로 조선 후기의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된다.

채제공은 남인의 정치적 목표인 왕권 강화와 관련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그는 경연에서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극(皇極)’을 세울 것(建皇極)을 포함한 여섯 가지 일을 아뢰다. 정조가 야심차게 추진한 화성(華城) 성역에서도 실무를 주도했다. 그는 수원에 조성하는 현릉원(顯隆園 :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묘)의 공사를 총괄하는 총리사(摠理使)로도 임명(1788)된 데 이어 수원 유수(留守)·장용외사(壯勇外使)·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1793)함으로써 화성 건설과 운영의 대부분을 책임졌다.

채제공은 정조 17년(1793) 5월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에 올랐다. 73세의 노령이었다. 이때 그는 사직소를 올리면서 임오화변 때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에게 책임을 물어 사도세자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해 큰 정치적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그 뒤 우의정과 좌의정(이상 1795)으로 옮겼다가 정조 22년(1798) 6월 노병을 이유로 사직한 뒤 이듬해 1월 18일에 세상을 떠났다.

[출처] 채제공 (네이버캐스트, 인물한국사)

바. 채제공 연보

1720 | 충청도 홍주 출생
1743 | 문과 급제
1753 | 충청도로 암행어사를 나감. 균역법 시행의 문제점을 상소함.
1758 | 도승지로 임명
1780 | 홍국영과 결탁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아 사직.
1776 | 평안도 병마사로 다시 관직에 나옴.

1788 우의정으로 발탁
1791 신해통공 추진
1793 영의정이 됨.
1799 별세

3. 교수 - 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올바른 신념을 실천한 재상, 채제공		
학습 목표	- 채제공이 추구했던 삶을 말할 수 있다. - 탕평책, 신해통공, 화성건설 등 영정조시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 정도전이 추구했던 삶 - 조선왕조의 설계		

나. 본활동

단 원 명	신념을 지킨 재상, 채제공		
학습 목표	1. 봉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탕평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채제공이 추구했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동기유발 글 읽기(5분) : 채제공의 초상화에 나타난 이상한 점 찾아보기		
전 개	1. “채제공과의 만남” (40분) (1) 채제공의 신념 (2) 채제공의 개혁정치 (3) 채제공의 화성건설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채제공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생각 나누기(20분) : 탕평책의 장점과 단점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탕평책은 장점과 단점을 안고 있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롭게 탐구하여 보기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3. 생각 더하기(20분) : 용기가 필요한 때	용기란 실천하는 힘이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용기를 가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하기	모둠 별로 마주 보도록 자리 재배치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중앙을 바라보고자리를 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4. 학생 활동지 해답

[생각 나누기]

• 탕평책의 장점과 단점

탕평책은 여러 봉당의 신하들을 골고루 등용함으로써 신하들의 권한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채제공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정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연 채제공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아래 생각할 점을 참고하여 탕평책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여 적어보세요.

생각해 볼 점

- 탕평책을 시행하였지만 영조는 봉당의 이간질로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정치가 어떤 자질을 가진 왕이냐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으로 이전 시대에 비해 정치가 안정되었으며, 백성들의 삶도 향상되었습니다.

◆ 체제공이 정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해통공, 화성건설, 이조전랑의 권한 제한

◆ 탕평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왕권의 강화, 정책의 안정, 고른 인재의 등용

◆ 탕평책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느 한 봉당의 편을 들게 되고, 이러한 점이 오히려 더욱 더 봉당간의 경쟁을 부채질하게 됨. 올바른 비판보다는 봉당의 이익을 더 생각하게 함.

[생각 더하기]

• 언제 용기가 필요한가?

체제공이 평생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일이 아무리 하기 힘들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용기가 있나요?

◆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이 생각하는 용기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을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이나 돈,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주는 행위이다. 작은 도움이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도움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 해야 하는 일인데 귀찮아서, 하기 힘들어서, 또는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두려워서 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한 친구를 불러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에서 나가거나 친구들을 말리지를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친구들이 나까지 놀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 훗날 용기를 잃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된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세요.

안녕! 난 과거의 너야.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아마 니가 힘든 일이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일 거야. 그 일을 포기하고 나면 너는 마음이 편해질까?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 후회하지 않을까? 한발만 더 앞으로 걸어가면 힘들어 보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렴. 나는 미래의 나인 네가 꼭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정리하기〉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을 실천한 체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체제공이 추구한 삶을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 교사 참고 자료

(1) 채제공의 또 다른 초상화



65세 때의 초상화로 금관조복을 입고 있으며, 서양화법에 따른 명암법을 구사하고 있다.



쌍학홍배의 흑단령포를 입고 있는 초상화로 73세의 시복본과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채제공 뇌문비와 묘소 : 용인시 역북동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76호



경기도 기념물 제 17호

7.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사도세자[思悼世子]

사도세자(1735~1762)는 이름은 선(愼), 자는 윤관, 호는 의재이다. 어머니는 영빈 이씨이며, 부인은 영의정 홍봉한의 딸 혜경궁 홍씨이다. 이복형인 효장세자[진종(眞宗)으로 추존됨]가 일찍 죽고 영조가 나이 40세가 넘어 선을 낳자 2세 때부터 세자로 책봉된다. 10세 때 혼인하여 별궁에 거처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문장과 글을 잘 읽고 지었다. 정치에도 일찍부터 안목이 있어 노론의 행적(신임사화)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15세 때부터는 부왕을 대신하여 서정(庶政)을 대리하게 되자 그를 싫어하던 노론과 이에 동조한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이 그를 무고하였다.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세자는 격간도동이라는 정신질환에 걸려 궁 내외에서 비행을 저지른다. 계비김씨의 아버지 김한구와 그의 노론계 일파의 사주를 받아 나경언이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하였다. 영조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 결국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한다. 자결을 명하였으나 듣지 않자 뒤주 안에 가두어 8일 만에 죽게 하였다. 사도세자는 18세 때 낳은 아들인 정조가 왕에 오른 뒤 장헌(莊獻)으로 추존되고, 1899년에 다시 장조(莊祖)로 추존되었다.

장조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749년(영조 25)에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남인, 소론, 소북 세력 등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자 이에 불안해진 노론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영조에게 온갖 모략을 고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었던 극한의 처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도세자 [思悼世子] (한국민족신앙사전 : 마을신앙 편, 2009. 11. 12., 국립민속박물관)

홍국영[洪國榮]

본관 풍산(豊山). 자 덕로(德老). 1748년 홍낙춘의 아들로 태어났다. 1771년(영조 47) 정시로 문과에 급제, 승문원 부정자(副正字)를 거쳐 세자시강원 설서(說書)가 되어 사도(思悼)세자를 죽이는 데 주동역할을 한 벽파(僻派)들이 세손(世孫:正祖)까지 해하려고 음모를 꾀하자 이를 막아 세손에게 깊은 신임을 얻었다. 이어 사서(司書)에 승진, 이때 세손의 승명대리(承命代理)를 반대하던 벽파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김구주(金龜柱) 등을 탄핵하여 몰아내고 1776년 정조를 즉위시키는 데 진력하였다. 이어 홍상간(洪相簡)·홍인한·윤양로(尹養老) 등의 모역(謀逆)을 적발 차단하였고, 이어 동부승지에 특진, 숙위소(宿衛所)를 창설하여 그 대장을 겸임, 정조의 신변 보호에 힘쓰고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승정원 도승지에 올랐다. 이때부터 모든 권력이 홍국영에게 집중되었고 횡포와 전횡을 일삼아 정후겸 못지않다 하여 대후겸(大厚謙)이라 불렸다.

1778년 왕비에게 소생이 없자 겨우 13세된 자신의 누이동생을 빈(嬪)으로 들여보내 세도정권을 굳게 다졌으며, 이듬해 훈련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후궁으로 원빈(元嬪)이 1년 만에 병사하여 왕의 외척(外戚)으로서 집권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왕이 새로 빈을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극력 반대하고 왕제(王弟)인 은언군(恩彦君)인(裒)의 아들 담(湛)을 죽은 원빈의 양자로 삼아 완풍군(完豐君)이라 하였다. 홍국영이 정계에서 물러난 후 완풍군은 상계군(常溪君)으로 개봉하였으며, 1786년(정조 10)에 죽었다. 홍국영은 완풍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정권을 장

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780년 왕비 김씨가 앞서 원빈을 살해한 것으로 믿고 왕비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가 발각되어 가산을 적몰(籍沒)당하고 방축(放逐)되어 이듬해 강릉에서 죽었으며, 5년 후 상계군이 음독 자살하였다. 실각할 때까지 도승지·이조참의·대제학·이조참판·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홍국영 [洪國榮] (두산백과)

신해통공[辛亥通共]

1791년(정조 15)에 각 시전(市廛)의 국역(國役)은 존속시키면서 도가(都價)상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난전권(禁亂廛權)을 금지시킨 조치이다. 1791년이 신해년이었으므로 신해통공이라 한다. 조선 중기 이후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도시 상업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시전상인의 도가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영세사상인층(零細私商人層)의 부단한 공세와 세궁민(細窮民)의 반발 및 도가상업의 폐단으로 도가상업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좌의정인 채제공(蔡濟恭)은 도가상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육의전(六矣廛) 이외의 모든 시전에게 금난전 전매권(禁亂廛專賣權), 즉 도가권(都價權)을 허용하지 말며, 설립 30년 미만의 시전은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조치는 조선의 상업 발전사상 한 계기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해통공 [辛亥通共] (두산백과)

탕평책[蕩平策]

탕평(蕩平)이란 《상서 尙書》의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제5조인 〈황극설 皇極說〉의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무편무당 왕도탕탕 무당무편 왕도평평)”에서 나온 말로서, 본래는 인군(人君)의 정치가 편사(偏私)가 없고 아당(阿黨)이 없는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지경(皇極)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송대(宋代)의 주자(朱子) 또한 그의 붕당관(朋黨觀)을 피력한 〈여유승상서 與留丞相書〉에서 붕당간 논쟁의 시비(是非)를 명변(明辨)함에 의한 조정의 탕평을 말하였다. 따라서 탕평이라는 말은 특정 시대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인군정치의 지공무사(至公無私)를 강조하는 보편적인 의미로 쓰여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처음 사용되는 용어로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선조말 동서분당 이후부터 시작된 당쟁은 왜란이 수습되면서 더욱 어지럽게 전개되어갔다. 파당간의 싸움에서 당론은 국가의 안위(安危)나 민생의 휴척(休戚)에 관계되는 정강(政綱)이나 정책이 아니었다.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왕실의 복상제(服喪制)와 같은 의례적인 문제 또는 세자책봉·왕비책립과 같은 궁중의 변동을 계기로 삼아 다른 정파(政派)를 배제해 정권만 장악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대립하는 파당간의 싸움은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파당간의 싸움에서 성공하면 권세를 누리고 실패하면 찬축(竄逐：귀양보냄)과 주륙(誅戮)이 뒤따르는 것을 알면서도 당쟁은 계속되었다.

군주전제(君主專制)가 확립된 왕조시대는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군주의 자의(恣意)

가 정국의 변동에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리고 당인(黨人)은 이러한 면을 틈타 그 감정을 격동시킴으로써 정국의 변동을 가져오는 예가 적지 않았다. 그것은 당쟁의 폐습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군주의 태도 역시 당쟁을 조성하는 데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조선 후기로 오면서 당파의 세력이 서로 강화되면서 일당의 전제(專制)로 진행되는 정국현상도 일어나 왕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국하에 ‘탕평’이라는 용어를 정치무대에 처음 제기한 사람은 1683년(숙종 9) 박세채(朴世采)다. 그는 1694년에 영의정으로 또다시 탕평을 제기하였다. 그는 격렬해져 가는 노·소론간의 당쟁을 조정하려는 목적에서 파당(派黨)의 타파를 주장하였다.

그는 파당타파에 대한 이념을 〈황극설〉의 탕평에서 구하고 실천 방법으로 동서분당 초기 이이(李珥)가 주장했던 시비(是非)의 조정과 인물의 등용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가 곧 병사하자 당쟁조정을 위한 하나의 이념과 원칙으로 탕평을 처음 제기했다는 의미만 남겨놓았다. 그 뒤 소론의 재상 최석정(崔錫鼎)이 한 때 남인들을 조정에 등용시키려는 구실로 탕평을 표방했고, 또 숙종 자신도 비망기(備忘記)를 통해 여러 차례 탕평을 펼쳐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숙종은 구호에만 그쳤으며, 그나마 1714년(숙종 40) 가례원류시말(家禮源流始末)로 노·소론간의 당쟁이 극대화된 이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때는 탕평하려는 의지는 있었으나 그것을 하나의 이념이나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은 조성되지 못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탕평이 다시 강조되고 그 이념을 하나의 정책으로까지 추진하는 정치집단이 형성되어서 탕평이 하나의 역사적인 용어로 확립된 것은 영조대였다.

영조는 당쟁의 폐해가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실감하였다. 그리고 세제책립과 대리청정(代理聽政)의 시비로 노·소론간의 분쟁이 격심해 신임사화라는 당화(黨禍)를 몰고 온 폐해를 직접 경험한 장본인이다. 따라서 탕평책은 이것을 반성하는 입장에서 나온 정치이념이요, 예방책이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한 때는 자신의 세제책립과 대리청정을 바라지 않던 소론의 영수 이광좌(李光佐)가 정권을 잡고 있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바로 탕평책의 서곡인 당쟁의 폐해를 하교하였다. 이어 소론의 영수 김일경(金一鏡), 남인의 목호룡(睦虎龍) 등 신임옥사를 일으킨 자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1725년(영조 1) 을사처분(乙巳處分)으로 노론을 다시 조정에 불러 들였다.

그러나 영조 자신이 의도한 탕평정국(蕩平政局)의 바람과는 달리 노론의 강경파들이 소론을 공격하는 등 노·소론의 파쟁이 다시 고개를 들자 1727년에는 노론의 강경파들을 축출하였다. 곧 이어 1729년에는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노·소론내 온건론자들을 고르게 등용해 초기의 탕평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때 인사정책으로 타당을 견제시키는 쌍거호대(雙擧互對)의 방식을 취하였다.

즉, 노론을 영의정에 앉히면 좌의정은 소론으로 하여 이를 상대하게 하면서 그 밑의 청요직도 이와 같은 인사정책을 써서 서로를 견제하였다. 그리고 이들 인물의 기용도 각 파당내의 강경론자들을 배제하고 탕평론자들로 구성시켰다. 그 뒤 영조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국면이 수습되자 이제는 쌍거호대의 인사방식을 지양하였다. 즉,

격렬해지는 당론을 수습하고자 인물의 현능(賢能)에 관계없이 파당에 따라 고르게 인물을 등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정국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유재시용(惟才是用)의 인사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국이 전개되자 노론·소론·남인·소북 등 사색을 고루 등용했고, 이제 영조대 중반에 탕평국면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1742년(영조 18)에는 '붕당이 대개 홍문관의 관원을 뽑는 데 한 원인이 있다.'하여 그 전선(銓選)의 방법을 고치기도 하였다. 이것을 처음 주장한 자는 조현명(趙顯命)의 추천으로 경연에 들어간 실학자 유수원(柳壽垣)이었다. 그는 이조(吏曹)의 관원 가운데 승문원에 들어갈 만한 자를 뽑아 시험을 보여 성적대로 차례로 홍문관정자에서부터 요직에 등용시키고, 모든 관제는 3년마다 차례로 승계시킨다는 관제서승도설(官制序陞圖說)을 주장하였다.

주장대로라면 홍문관의 이름 있는 관직에 대한 각 파당간의 경쟁도 없어지고 이조전랑의 통청권(通淸權)도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탕평론자 조현명은 이러한 서승법을 일반 관직보다는 이조의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제학이나 교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인사기록)과 대간(臺諫)의 통청에 특히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종래 이조전랑이 행사하던 언관의 통청권은 이조판서에게 돌아가고, 한천법(翰薦法)은 회권(會圈)으로 변해 재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조전랑 통청권의 폐지와 한천법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선조대 이래 지속되어온 파당정치의 사실상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1742년 영조는“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원만해 편벽되지 않음은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해 원만하지 않음은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라는 문구를 친히 지어 비(碑)에 새겨 성균관 반수교(泮水橋) 위에 세워 '탕평비(蕩平碑)'라 하였다. 한편으로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당론을 금하도록 계책하여 자신의 탕평정책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영조는 초·중반기에는 완론탕평으로 파당간의 병진을 기본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탕평정책기반의 확보과정에서 노론의 우위를 피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탕평책은 노·소론간에 청류(淸流)를 자처하는 강경파들의 반대 에 부딪혔으며, 영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혼인관계를 통해, 특히 온건한 노론계 대신들과 유대를 맺어 지지세력을 삼게 되었다.

영조는 파당간의 격심한 대립을 일단 수습했으나, 수습의 직접적인 수단을 혼인관계에서 찾았기 때문에 정국 운영에 척신(戚臣)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척신들은 영조대 중반에 '남당(南黨)'이라 불리면서 청류 세력인 '동당(東黨)'과 대립하였다.

한편, 장헌세자(莊獻世子 : 思悼世子)가 죽은 뒤 영조대 후반에 세손(世孫 : 뒤의 정조)의 보필 임무를 맡은 홍봉한(洪鳳漢) 등도 척신으로 '북당(北黨)'이라 하여 남당과 대립하였다. 북당은 세손 보필의 임무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남당으로부터는 노론 우위를 방기하고 시세에 편승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리하여 탕평정국을 다져온 가운데서도 내면으로는 당쟁의 파란이 계속되었다. 일례로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노론을 정계에 등장시켜 탕평정국을 급히 서두르다가 1728년에 정계에서 밀려난 소론·남인들의 반발세력이 주

동이 된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겪었다. 1755년에는 을사처분 때 귀양을 가서 20여 년 동안이나 한을 품어온 소론 윤지(尹志) 등이 주동이 되어 나주괘서사건을 일으켰다.

또, 이듬 해 토역과(討逆科)를 시행할 때 답안지에 소론계 인물들이 조정을 비방하는 글을 써서 물의를 일으켰다. 그 뒤 1762년에는 탕평책에 따라 다시 조정에 들어온 남인과 노론정권 위에 미약한 자리를 차지해온 소론 등이 장헌세자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으려다가 이를 간파한 노론의 계교로 뒤주 속에 세자를 가두어 죽이는 참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영조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척신으로 당을 이룬 남당과 북당, 그리고 청류를 자처하는 동당이 정국 구도를 이룬 가운데 즉위한 정조는 노론의 우위 여부를 문제삼는 기존의 두 척신당의 틈바구니에서 왕정체제확립의 한계를 직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정조는 그 동안 두 척신당에 비판을 가해온 청류를 조정의 중심부로 끌어 들여 이른바 청류 탕평을 펼쳤다.

청류는 영조말에 동당을 이루어 척신당을 비판하던 노론계인사, 즉 김종수(金鍾秀)·김치인(金致仁)·유언조(兪彦造)·윤시동(尹蓍東)·송인명(宋仁明)·정존겸(鄭存謙) 등이 주축이었다. 그러나 다른 당색도 배제하지 않은 채 정조 스스로 규장각 및 초계문신제도(抄啓文臣制度)를 통해 비노론계의 진출을 활성화시켜갔다.

1788년(정조 12)에는 체제공(蔡濟恭)을 비롯한 남인세력을 본격적으로 등용해 노론과 남인의 보합(保合)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에 호응한 영남 남인들이 1792년에 그간 노론의 우위 아래 금기시해 온 임오의리문제(壬午義理問題)를 제기해 노론을 크게 당혹시키는 형세 변동이 일어났다. 노론내부의 시파(時派)·벽파(僻派)의 분열은 이러한 형세 변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조는 조제(調制)·보합의 인재 등용을 골자로 하는 탕평책을 계승하면서 사대부의 의리와 명절(名節)을 중시해온 청류들을 대폭 기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노·소론 중에 온건론자들이 함께 지지하는 완론 탕평을 이끌어온 영조가 파당간의 병진을 기본 바탕으로 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1788년에서 1795년 사이에 시·벽파가 표면화된 뒤 사색은 명색만 남고 정국이 완전히 이 두 파로 재편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분립이 공공연해졌다. 특히 정조의 정책을 지지하는 시파의 부각에 위기를 느낀 벽파의 결집 및 공세가 두드러지는 경향이였다.

위와 같이 정조는 선왕의 뜻을 이어 받아 탕평의 조화에 힘썼으며, 그의 침실을 '탕탕평평실'이라 명명하고 사색을 고르게 등용해 당론의 융화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영·정조대에 꺾해진 탕평정책은 전제왕조대에 격렬한 파당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정국을 이끌어 나갔다는 점에서 전대보다는 발전된 정책운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척족 세력을 한 수단으로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왕 자신이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였다. 더욱이 사색등용정책에 따라 배제된 구 정치세력을 다시 불러들여 새로운 정쟁(政爭)을 낳게 하였다. 즉, 한 파당의 대립된 갈등을 근절하지 못했기에 후대에 세도정치(勢道政治)의 빌미를 마련해준 것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탕평책 [蕩平策]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8. 참고 문헌

[도서]

KBS 역사저널(2016). 『역사저널 그날 7』. 민음사.
박시백(2015). 『조선왕조실록 16』. 휴머니스트,
백승호(2016). 『정조의 신하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이태호(2016). 『사람을 사랑한 시대의 예술, 조선 후기 조창화』. 마로니에북스.
장강(2015). 『왕의 책사들』. 글로북스.

[사이트]

채제공 : 네이버캐스트- 뛰어난 경륜으로 정조의 개혁을 보필한 재상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27088

3차시

내일의 기틀을 마련한 실학자, 정약용

1. 활동 개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조선은 농토의 황폐화로 인한 식량 부족과 인구 감소, 전염병 발생 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의 문제는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여러 계층,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부류가 오늘날 실학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입니다. 실학자들은 토지제도, 세금제도와 같은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개혁과 상업과 공업을 진흥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학을 집대성한 분이 정약용입니다. 이 장에서는 18년의 유배기간에도 오직 백성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고 실천했던 정약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물 학습



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이다. 실학자로서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주장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가 한국 최대의 실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을 떠올리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귀양살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귀양살이라는 정치적 탄압까지도 학문을 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 학문적 업적을 이뤄낸 인내와 성실, 그리고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이 유배기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더욱 연마해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일표이서(一表二書 : 經世遺表·牧民心書·欽欽新書)》 등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 저술을 통해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가. 공부와 관료생활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광주군 마현에서 진주목사의 벼슬을 지낸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마현은 한강의 상류로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정약용은 어릴 적부터 영특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4세에 이미 천자문을 익혔고, 7세에 한시를 지었으며, 10세 이전에 이미 자작시를 모아 《삼미집(三眉集)》을 편찬했다. 어릴 적에 천연두를 앓은 약용의오른쪽 눈썹에 그 자국이 남아 눈썹이 셋으로나뉘어'삼미(三眉)'라 불린 이유로, 큰 형 약현이 '삼미집'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어릴 적 스승은 부친이었다. 10세 나이에 경사(經史)를 읽기 시작하고, 16세부터 성호 이익 선생의 유고를 읽었다.

마현에 터를 잡은 그가 서울 출입을 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15세에 서울 회현동 풍산 홍씨 집안으로 장가들면 서부터이다. 본격적인 입신의 생활은 20대부터였다. 22세에 초시에 합격하였고, 성균관에 입학하여 교유 관계를 넓혔다. 성균관 재학 시에 이미 정조에게 인정을 받았고 28세에 마지막 과거시험인 대과에서 2등으로 합격하여 벼슬길로 나갔다.

정약용은 23세에 이벽(李穡)으로부터 서학(西學)에 관하여 듣고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서학에 심취했던 과거로 인해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정약용은 20대 초반에 서학에 매혹되었지만, 이후 제사를 폐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딪혀 끝내는 서학에 손을 끊었다고 고백했지만, 천주교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해를 받았다.

천주교 문제가 터지기 전, 그의 관료생활은 탄탄대로였다. 정조의 최측근으로서, 관직은 희릉직장(禧陵直長)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주서(假注書), 지평(持平), 교리(校理), 부승지(副承旨) 및 참의(參議) 등으로 승승장구하였다. 주교사(舟橋司)의 배다리 설계, 수원성제와 기중가(起重架) 설계 등 빛나는 업적도 많았다. 한때나마 외직으로 내몰리기도 했으나 좌절하지 않고 고마고(雇馬庫) 개혁, 가좌부(家坐簿) 제도 개선, [마과회통(麻科會通)] 저작 등 훌륭한 치적을 남겼다.

정약용은 가장 이상적인 관료가였다. 배다리와 기중가의 설계에서 이미 재능을 펼쳤지만, 그의 저작에서 엿보는 정치관은 기본적으로 민본(民本)이었다. 정약용은 왕정시대에도 주민 자치가 실현되기를 소원한 인물이다. 조선후기를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소박하게나마 민주주의를 지향한 인물이었지 않았을까.

나. 기나긴 유배생활

정약용의 가장 큰 후견인은 정조였다. 정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큰 환란이 없었지만,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승승장구하던 정약용도 정조 사후에 완벽히 정계에서 배제되고 잊혀져 갔다. 사실 정약용은 관직에 나간 지 2년 만에 당색(黨色)으로 비판된 것에 불만을 품었다가 해미에 유배되었으나 정조의 배려로 열흘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한 이듬해 1801년(순조 1) 신유사화가 일어나면서 주변 인물들이 참화를 당했고, 손위 형인 정약종도 참수를 당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정약용은 그해 2월에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11월에는 강진으로 옮겨졌다. 18년 동안 긴 강진 유배생활의 시작이었다.

유배 생활 처음에는 천주교도라고 하여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천주교인이라는 소문으로 나자 모두 정약용을 모른척했다. 유배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려 혜장(惠藏) 등과 교유(交遊)하고, 제자들을 키우며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담배 역시 유배의 시름을 덜어주는 벗이었다.

강진에 도착해서 처음 머무른 곳이 사의재(四宜齋)라는 동문 밖 주막에 딸린 작은 방이었다. 그곳에 기거하면서 예학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후 고성사(高聲寺)의 보은산방(寶恩山房)과 목리(牧里)의 이학래(李鶴來) 집으로 전전하면서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러다가 1808년 굴동의 '다산초당'에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천여 권의 서적을 쌓아 놓고 유교 경전을 연구하였다. 그의 이른바 주석 학문인 경학(經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다. 귀향과 여유당전서의 완성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인 마현으로 돌아온 것은 1818년 가을, 그의 나이 57세 때였다. 57세에 해배되어 1836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고향인 마현에서 자신의 학문을 마무리하여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였다.

해배되었다고는 하나 오랜 기간 지냈던 강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자신이 지은 많은 저술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기위해서였다. 초로의 나이에 더 이상 관직에 나갈 수 없었던 다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저술들을 널리 소개하여 읽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곧 경세(經世)의 길이었다. 이후 자신의 호를 다음 시대를 기다린다는 뜻의 '사암(俟菴)'을 즐겨 사용한 것 역시 그런 의미였다. 그는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자신의 저술에 대해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는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고, 일표(一表)와 이서(二書)는 천하와 국가를 위함이니, 본말(本末)이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육경과 사서에 관한 저술이 근본이라면, 《경세유표(經世遺表)》와 《목민심서(牧民心書)》·《흙흙신서(欽欽新書)》는 경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었다.

해배 이후 학문적 교제를 했던 대상은 신작(申綽, 1760~1828)·김매순(金邁淳, 1776~1840)·홍석주(洪奭周, 1774~1842)·홍길주(洪吉周, 1786~1841)·김정희(金正喜, 1786~1856) 등 당시 저명한 노·소론계의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정권을 잡은 노·소론계였지만 고정된 정론이나 학설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들과의 토론을 통해 경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경세관을 펼쳐 나갔다.

정약용이 가진 국가개혁의 목표는 부국강병이었다. 국가개혁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경세유표》에서 그는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이 종합된 개혁사상을 전개하였다. 정약용의 개혁안은 장인영국(匠人營國)과 정전법(井田法)을 중심으로 한 체국경야(體國經野)라 평가할 수 있다. 통치와 상업, 국방의 중심지로서의 도시건설(체국)과 정전법을 중심으로 한 토지개혁(경야)을 바탕으로 세제, 군제, 관제, 신분 및 과거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를 고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안의 주요 골자이다. [주례(周禮)]의 체국경야 체제를 기본 모형으로 삼아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상공업의 진흥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경세유표》를 후대에도 계속해서 갖고 닦아야 할 '초본'이라 했다. 그가 펼친 국가개혁사상은 사후에도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생명력을 가진 근대적 사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던 정약용은 양반제자 18명과 중인제자 6명이 각각 별도로 그의 아들과 더불어 자기가 경영하던 전답을 기본재산으로 다신계(茶信契)를 조직하였다. 또 초의(草衣)선사를 비롯한 만덕사의 스님들은 전등계(傳燈契)를 조직하게 하여, 길이 우의를 다지도록 했다. 그는 귀향 이후에도 옛 제자들과 서로 내왕하면서 강진에서 있을 때와 다르지 않게 저술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산의 저술활동은, 물론 다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제자들과의 공동작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다산의 많은 저서에는 공저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한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저작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목민심서》는 정용편(丁鏞編)으로 되어 있는데, 저술의 체계를 잡고 조목마다 편자의 의견을 붙이는 일은 다산 스스로가 행했지만, 각종의 전적(典籍)에서 자료를 수집·분류할 뿐만이 아니라 다산의 구술을 기록하고 정서(精書)·제책(製冊)하는 일은 모두 제자들이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8권 16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목민심서》가 단 1년 이내에 저술될 수 있었던 것이다.

회갑을 맞은 1822년 다산은 인생을 정리한다. 자신의 장지를 정하고, 스스로 묘지명을 짓는다. 별호도 후대를 기약한다는 뜻의 ‘사암(俟菴)’을 사용한다. 그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기존 저술에 대한 종합과 문집의 편집으로 나타났다.

《자찬묘지명》에 따르면, 그의 저작은 경집 232권과 문집 267권으로 모두 499권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었다. 이후 별세할 때까지 15년 동안 그는 《매씨상서평》을 개정하거나,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을 개수하고 합편하여 《상서고훈(尙書古訓)》으로 정리하는 등 저작에 대한 분합, 필삭, 윤색에 온 힘을 기울여 182책 503권의 가장본 《여유당집》을 완성하였다. 아들 정학연은 추사 김정희(金正喜)에게 《여유당집》의 교열을 부탁했으며, 1883년(고종 20)에는 왕명에 따라 《여유당집》이 전사되어 내각에 수장되었다.

[출처] 정약용 (네이버캐스트, 인물한국사)

라. 정약용 연보

1762	ㅣ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 출생
1765	ㅣ	4세,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
1768	ㅣ	
		‘山’이란 제목으로 오언시를 지음(최초의 詩)
		천연두를 앓았다. 그로인해 ‘삼미자(三眉子)’란 별호를 가짐.
1771	ㅣ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 있게 된 부친에게 경서(經書)·사서(史書)를 수학
		10세 이전의 습작들을 묶어 〈삼미집(三眉集)〉을 만들.
1776	ㅣ	
		홍화보(洪和輔)의 딸 풍산 홍씨(豊山洪氏)와 결혼
		부친이 복직되자 집을 세내어 한양에서 살게 됨.
1777	ㅣ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유고(遺稿)를 처음으로 보고, 학문의 준칙으로 삼음.
		채제공, 이가환, 권철신 등 성호학파 인사들과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등과 교제 시작.
1783	ㅣ	생원시에 합격하여 정조와 최초로 만남.
1789	ㅣ	
		대과(大科) 급제. 3월 초계문신(抄啓文臣)이 되어 정조에게 『대학』을 강론.
		겨울에 배다리(주교;舟橋)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어, 그 규제를 만들어 바침.
1792	ㅣ	
		부친 진주공의 상(喪)을 당해 광주에서 여막살이.
		왕명으로 수원 화성의 성 쌓는 제도를 정리하여 바침.
1794	ㅣ	경기도 암행어사(10.29~11.15) 명을 받아 연천, 삭녕 등의 고을을 암행
1801	ㅣ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
1807	ㅣ	〈상례사전〉 50권 완성
1813	ㅣ	〈논어고금주〉 40권 완성
1817	ㅣ	〈상의절요〉〈방례초본〉〈경세유표〉49권 완성
1818	ㅣ	
		〈목민심서〉 48권 완성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현 본가로 돌아옴
1819	ㅣ	〈흠흠신서〉 완성
1822	ㅣ	회갑을 맞아 스스로 ‘자찬묘지명’을 지음
1836	ㅣ	2월 22일 별세

마. 평가와 의의

정약용의 사상은 당시 사회가 직면해 있던 봉건적 질곡을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학계에서는 그를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이자 조선 후기 사회가 배출한 대표적 개혁사상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당시 사회가 직면해 있던 각종 해체 현상을 직시하고, 사회개혁을 위한 여러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찾아 나갔다.

나아가 그는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안은 정조와 같은 성군(聖君)이 왕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왕도정치의 실현에는 창의적이고 강직한 신하의 보필이 필요하며, 아마도 자신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정약용은 정조의 치세기였던 자신의 젊은 시절에는 한때 관직에 있으면서 직접 개혁 정사를 실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애의 대부분은 개혁의 현장과 유리된 상태에서 보내게 되었고, 오랜 귀양살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피폐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그는 이상적이며 참신한 개혁안들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그는 개혁안을 자신이 직접 추진할 수 없었고, 관직에 대한 경험 부족은 그의 개혁안에 현장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안겨주었다. 즉, 개혁의 목표와 개혁된 사회상에 대해서는 뚜렷이 제시하고 있지만, 개혁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여기서 그의 개혁안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특성과 함께 실천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드러나게 된다.

한편, 그의 개혁안은 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민본주의에서는 민을 객체화하여 통치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할 뿐, 민 자신을 통치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약성은 그 개혁안의 실현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정약용은 18세기를 전후하여 우리 나라 사회에서 강력히 제시되고 있던 개혁의 의지를 집대성했고, 개혁의 당위성을 명백히 해주었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에게는 개혁을 향한 열정과 함께, 빈곤과 착취에 시달리던 민에 대한 애정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시대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과감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뇌하던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다.

그는 이상적인 왕도정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그 방대한 개혁사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는 그의 개혁안이 묵살되거나 좌절되어가는 과정에서 조선왕조의 몰락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정약용 [丁若鏞]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교수-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더 나은 내일의 기틀을 마련한 실학자 정약용		
학습 목표	- 정약용이 추구했던 삶을 말할 수 있다. - 정약용의 저술한 책과 그 속에 나타난 사상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학습 내용	- 정약용이 추구했던 삶 - 정약용의 저서		
준비물	하피첩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나. 본활동

단 원 명	항일 의병 투쟁의 전개		
학습 목표	1.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선 경기도 의병운동의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경기도의 의병 운동을 최익현, 이인영, 허위 등의 인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3.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선 양평 의병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동기유발 글 읽기(5분) : 기네스북과 기록, 우리나라 책 쓰기 기네스북 기록보유자와 정약용		
전 개	1. “정약용과의 만남”(40분) (1) 정약용의 삶 탐구 (2) 정약용의 학문탐구 목적 (3) 위대한 스승 정약용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정약용과 관련한 개념을 이해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2. 생각 나누기(20분) : 하피첩 만들기	정약용의 하피첩 만들기 - 대상을 선정하고 편지, 인형,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3.생각 더하기(20분) : 오늘날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 찾기	환경, 교통, 인구, 전쟁,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악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안하게 한다.	모둠 별로 마주 보도록 자리 재배치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 중앙 을 바라보고 자리 를 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4. 학생 활동지 해답

[생각 나누기]

• 나만의 하피첩만들기

하피첩은 붉은 노을빛 치마로 만든 편지라는 뜻이야.

1810년 다산 정약용이 신유사옥으로 전남 강진으로 귀양을 가면서 부부간의 이별이 시작되었단다. 유배 7년째가 되던 1806년 부인 홍씨는 특이한 선물을 귀양지로 보내는데, 시집을 때 입었던 붉은색 비단치마였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를 담은 선물임을 알아차린 다산은 치마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차에 치마를 재단해 4년에 걸쳐 두 아들과 후손들이 간직할 당부의 경구(警句)를 기록해 보낸단다.

하피첩 중 두 아들에게 쓴 글이야.

“나는 벼슬을 하지 않아 너희한테 남겨줄 게 없다. 오직 두 글자의 놀라운 부적을 줄테니 행여 소홀히 여기지 말거라. 한글자는 근면할 근(勤)이고, 또 다른 글자는 검소할 검(儉)이다.”

◆ 나만의 하피첩을 쓸 대상을 선택하세요.

친구 ***

◆ 하피첩을 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세요.(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편지지나 인형 등을 준비해도 좋고, 영상편지를 선택해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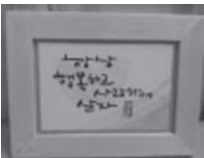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친구 sns에 올리기

◆ 소중한 마음을 담아 ‘나만의 하피첩’을 제작하세요.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아, 너랑 만나서 친구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 그동안 내가 약속도 잘 안지키고, 너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 하지만 내 곁에 지금까지 남아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 하피첩을 전달한 후 느낌을 적어보세요.

마음을 전달하고 나니 더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생각 더하기]

• 함께 찾아봅시다!

※ 다음 문제를 읽고 정답을 아래 표에서 찾아 표시해 봅시다.

- 가. 제도를 개혁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내용의 책
- 나.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지켜야 할 기준과 사무를 제시한 책
- 다. 정약용이 형조참의를 지낼 때 무죄를 밝혀주었던 사람. 살인죄로 7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
- 라.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을 기록한 의학서적
- 마. 제자들에게 역학을 강의하고 함께 토론을 벌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책

바. 정조의 명에 의해 세워진 성. 정약용이 이 성 건설에 적극 참여했다.

사. 붉은 노을빛 치마로 만든 편지라는 뜻. 정약용은 부인이 보낸 치마를 이용해 두 아들과 후손에게 전하는 글을 적어 보냈다.

방	다	산	문	답	트	와	이
샘	탄	목	유	마	과	회	통
경	총	무	민	학	함	각	연
세	두	진	년	심	년	봉	경
유	소	년	단	줄	서	정	련
표	쁘	김	연	아	면	조	문
안	위	하	피	첩	싸	안	화
녕	화	성	사	랑	해	요	돼

〈정리하기〉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불우한 삶마저 내일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었던 정약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생활 속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은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약용처럼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6. 교사 참고 자료

(1) 다산정약용 생가 및 묘소



(2) 실학박물관



(3) 다산초당



7.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이익 [李瀼]

조선 후기 실학자로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자신(子新), 호는 성호(星湖)이다. 아버지는 사헌부 대사헌을 지낸 이하진(李夏鎭)이며, 어머니는 권씨이다. 아버지가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 때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그를 낳았고, 1682년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로 인해 일찍 홀로되어 어머니와 함께 선산이 있는 경기도 광주 침성리(瞻星里, 현재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에서 살았으며,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10세까지도 글을 배울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형 이잠(李潛)에게서 글을 배워 25세가 되던 해인 1705년(숙종 3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하였다. 이듬해 형 잠(潛)이 장희빈(張禧嬪)을 두둔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당쟁의 제물로 장살(杖殺)되자 벼슬할 뜻을 버리고 침성리로 낙향하여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1727년 그의 학문이 높다는 명성을 듣고 조정에서 선공감(繕工監) 가감역(假監役)을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않

았다. 1763년(영조 39) 83세 때 조정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예에 따라 첨지중추부사의 자급(資級)을 내렸으나 그해 세상을 떠났다. 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그의 학문은 아버지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수많은 서적들이 밑바탕이 되었으며, 처음 성리학(性理學)에서 출발하였으나 차차 경직화된 학풍에서 벗어나 사회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학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율곡 이이(李珥)와 반계 유형원(柳馨遠)의 학문에 심취하였고, 특히 유형원의 학풍을 계승하여 천문·지리·율산(律算)·의학(醫學)에 이르기까지 능통하였다. 이러한 관심분야는 한문으로 번역된 서학서(西學書)들을 접하면서 더욱 영역이 확대되고 깊이가 심화되었다.

그는 투철한 주체의식과 비판정신을 바탕으로 그의 주요 저서인 《성호사설(星湖僿說)》과 《곽우록(藁憂錄)》을 통해 당시의 사회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비판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농사상(重農思想)에 입각하여 전제개혁(田制改革)의 방향을 개인의 토지점유를 제한하여 전주(田主)의 몰락을 방지하려는 한전론(限田論)에서 찾았으며, 사회신분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노비를 점차적으로 해방시켜 양친합일(良賤合一)을 주장하였고, 정치적으로 당쟁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利害)가 서로 상반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분석하여 양반도 산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사농합일(士農合一) 이론을 주장하였다.

인재등용에 대해서는 과거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훌륭한 인재를 천거해서 채용하는 공거제(貢擧制)를 함께 실시할 것과 병역문제는 향병제(鄉兵制)를 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기의 개발과 군마(軍馬) 양성, 성지수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일대 혁신을 주장하였다.

그의 학문은 후손으로 종자(從子)인 이병휴(李秉休)와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李重煥)·이가환 등으로 이어졌고, 문인으로는 안정복(安鼎福)·윤동규(尹東奎)·신후담(愼後聃)·권철신(權哲身)·정약용(丁若鏞) 등으로 계승·발전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성호사설》과 《곽우록》 이외에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이선생예설(李先生禮說)》《사서삼경》《근사록(近史錄)》 등이 있고, 편저에 《사칠신편(四七新編)》《상위전후록(喪威前後錄)》《자복편(自卜編)》《관물편(觀物編)》《백언해(百諺解)》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익 [李瀼] (두산백과)

정약전 [丁若銓]

어릴 때부터 매우 재주가 있고 총명했으며 성격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아 거리낌이 없었다. 소년시절부터 서울에서 이윤하(李潤夏)·이승훈(李承薰)·김원성(金源星) 등과 깊이 사귀면서 이익(李瀼)의 학문에 접하여 심취하였다. 이어 권철신(權哲身)의 문하에 나아가 학문을 더 깊이있게 배웠다.

1783년(정조 7)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자,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하여 1790년 증광문과에 응시,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전직·병조좌랑의 관직을 역임하게 되었다.

또, 서양 학문과 사상에 접한 바 있는 이벽(李穡)·이승훈 등 남인 인사들과 교유하고 특별히 친밀하게 지냈는

데, 이들을 통해 서양의 역수학(曆數學)을 접하고 나아가 천주교에 마음이 끌려 신봉하기까지 하였다.

1801년(순조 1)에 신유사옥이 일어나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박해를 입게 되자, 아우 약용과 함께 화를 입어 약용은 장기를 거쳐 강진에 유배되고, 그는 신지도(薪智島)를 거쳐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되었다.

여기서 복성재(復性齋)를 지어 섬의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틈틈이 저술로 율적인 심정을 달래다가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16년 만에 죽었다. 저서로 《자산어보 茲山魚譜》를 비롯, 《논어난 論語難》·《동역 東易》·《송정사의 松政私議》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자산어보》만이 전해오고 있다.

《자산어보》는 그가 유배되었던 흑산도 근해의 수산생물을 실지로 조사, 채집하여, 이를 어류(魚類)·패류(貝類)·조류(藻類) 및 해금(海禽)·충수류(蟲獸類) 등으로 분류, 각 종류의 명칭·분포·형태·습성 및 이용에 관한 것까지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우리 나라 최초의 수산학 관계 서적이라 할 수 있는 명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약전 [丁若銓]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약종 [丁若鍾]

세례명 아우구스티노. 본관은 나주(羅州). 경기도 광주(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출신. 진주목사 재원(載遠)의 아들이며, 약현(若鉉)·약전(若銓)·약용(若鏞)의 4형제 중 셋째이다.

일찍이 이익(李瀼)을 사사하여, 천성이 곧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 하는 성품을 지녀, 서학서(西學書)를 접하게 되자 이에 심취하여 가톨릭 교리를 연구함으로써 당대에서 가장 교리지식이 뛰어났다. 1791년(정조 15) 천주교박해로 형제와 친구들이 모두 배교 또는 멀리 하여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주문모(周文謨)신부가 입국한 뒤로는 명도회장(明道會長)으로 임명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교하는 데 큰 구실을 하였는데, 특히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문본교리책에서 중요한 것만을 뽑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우리말로 『주교요지』라는 책을 써서 전교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 뒤 교리서를 종합, 정리하여 『성교전서(聖敎全書)』라는 책을 쓰던 중 박해를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01년 주문모의 입국사건에 연루되어 2월에 체포되고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져, 2월 26일 이승훈(李承薰)·최창현(崔昌顯)·홍낙민(洪樂民) 등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약종 [丁若鍾]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유박해 [辛酉迫害]

천주교회는 1785년의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 등으로 순교자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1794년 말에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를 영입하는 등 조직적인 교회활동으로 1800년에는 교인 1만 명으로 교세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천주신앙의 전파에 대하여 천주교를 공격하는 공서파(攻西派)의 세력에 의한 성토·상소·박해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조는 “사교(邪敎)는 자기자멸(自起自滅)할 것이며 유학의 진흥에 의해 사학을 막을 수 있다.”고 적극적 박해를 회피하였다. 또한 천주교를 신봉하는 양반 남인 시파(時派)의 실권자인 재상 채제공(蔡濟恭)의 묵인도

있었다. 그러나 정조와 채제공이 죽자 정계의 주도세력이 벽파(僻派)로 바뀌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정순왕후 대왕대비 김씨가 어린 순조의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벽파는 남인 시파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대왕대비를 움직여 시파와 종교적 신서파(信西派)에 대하여 일대 정치적 공세를 취하게 되었다.

벽파는 천주교를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멸륜지교(滅倫之敎)로 몰아붙여 탄압을 가하였다. 또한 그의 배후 정치 세력을 일소하고자 1801년 대왕대비 언교(諺敎)로 박해령을 선포, 전국의 천주교도를 수색하였다.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동원한 수색에서 많은 교인들이 체포되었고 300여 명의 순교자가 생겼다. 신유박해의 대표적 순교자로는 중국인 주문모와 초대 교회의 창설자인 지도적 평신도들이었다. 주문모는 한때 피신하였다가 스스로 의금부에 나타나 취조를 받은 뒤 새남터에서 군문효수(軍門梟首)되었다.

그리고 초기교회의 지도자이던 이승훈(李承薰)·정약종(丁若鍾)·최창현(崔昌顯)·강완숙(姜完淑)·최필공(崔必恭)·홍교만(洪敎萬)·김건순(金健淳)·홍낙민(洪樂敏) 등은 서소문 밖에서 참수(斬首)되었고, 왕족인 송씨(宋氏 : 정조의 庶弟인 恩彦君의 부인)와 신씨(申氏 : 恩彦君의 며느리)도 사사(賜死)되었다. 한편, 지방교회 지도자들도 다수 순교하였다.

내포교회(內浦敎會)의 사도로 불리던 이존창(李存昌)은 공주에서, 전주교회의 지도적 교인이던 유항검(柳恒儉)·관검(觀儉) 형제는 전주에서 순교하였다.

신유박해는 한국천주교회에 가해진 최초의 대대적인 박해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살아남은 교도들은 위협을 피하여 경기도의 아산지대나 강원도나 충청도의 산간지방, 태백산맥·소백산맥의 심산유곡에 숨어, 천주신앙의 전국적 확산을 촉진하였다. 한편, 종래 지식인 중심의 조선천주교회가 신유박해를 전후하여 서민사회로 뿌리를 내리게 된 점도 신유박해와 관계되는 천주교회 발전의 모습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유박해 [辛酉迫害]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8. 참고 문헌

[도서]

김상홍(2009). 『다산학의 신조명』. 단국대학교 출판부.

이문원(1982). 『한국현대교육사상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무영(1989). 『다산의 실학적 교육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만길(1984).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신천식(1995). 『한국민족사』. 형설출판사.

조동걸 외(1994).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상)』. 창작과비평사.

박석무(2014). 『다산 정약용 평전』. 민음사.

4차시

한 발 앞서 내일을 준비한 민족의 지도자, 여운형

1. 활동 개요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락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운형은 일제강점기를 오직 독립을 위해 살았으며, 해방 이후에도 나라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사업과 계몽운동 등 치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런 여운형이 추구했던 삶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2. 인물 학습



독립운동가·정치가. 호는 몽양(夢陽). 경기도 양평 사람. 15살 때 배재학당에 입학했다가 관립 우체학교에 들어갔으나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학교를 그만두었다. 190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종문서를 불태우고 종들을 모두 해방시켰다. 이 무렵 기독교에 귀의, 평양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14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남경(南京) 금릉(金陵)대학에서 공부하고 17년 상해로 가서 신한청년당을 조직,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했다. 20년 고려공산당에 가입하고, 다음 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석했다. 29년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3년간 복역, 출옥 후 33년 봄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신문은 36년 7월 5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폐간되었다.

44년 비밀결사인 건국동맹(建國同盟)을 조직, 독립을 준비해 가던 중, 45년 8월 15일 정무총감 엔토(遠藤隆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항복 후 조선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통괄하게 되었다. 이에 안재홍 등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미군진주 이전인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

으나 미 군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해 12월 인민당(人民黨)을 창당하고, 46년 29개 단체를 규합, 민주주의 민족전선(약칭 민전(民戰))을 결성했으며, 근로인민당을 조직, 좌우 중간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던중 47년 7월 19일 우익청년 한지근(韓智根)에 의해 암살당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운형 [呂運亨]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가. 출생과 독립운동

경기도 양평 출신.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회숙(會叔). 호는 몽양(夢陽). 아버지는 여정현(呂鼎鉉)이며 어머니는 경주 이씨이다. 14세 때에 유세영(柳世永)의 장녀와 혼인하였으나 사별하고, 충주의 진상하(陳相夏)와 재혼하였다.

1900년 배재학당(培材學堂)에 입학하였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흥화학교(興化學校)와 통신원 부설의 관립 우무학당(郵務學堂)에서 수학하였다. 1911년 평양의 장로교회연합 신학교에 입학하여 2년을 수학하고, 1914년 중국 난징(南京)의 금릉대학(金陵大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1907년 경기도 양평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지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무렵 개신교에 입교하였다. 1908년 미국인 선교사 클라크(Clark, C. A) 목사의 조수로 있으면서 기호학회에 참여하여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시 계몽운동을 주도하던 승동교회(勝洞教會)를 출입하였다. 1911년 강원도 강릉에서 남궁억(南宮億)의 후원으로 운영되던 초당의숙(草堂義塾)의 교사가 되어 청년교육에 힘썼다.

1914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南京)에서 활동하다가 1917년 상하이(上海)로 활동무대를 옮기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8년에 상해고려민친목회(上海高麗民親睦會)를 조직하였으며, 같은 해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조직을 주도하고 총무간사로 활동하였다. 1919년 재일유학생의 2·8독립선언과 3·1운동에 관여하고, 김규식(金奎植)을 상하이로 초빙하여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로 결정하였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에 힘썼으며 임시의정원 의원과 외무부 차장으로 활동하였다. 상하이에서 아동들에게 독립사상과 애국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 인성학교(仁成學校)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일본을 방문하여 일제 고위관리들과 여러 차례 회담하면서 일제의 자치제 제안을 반박하고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

1920년 사회주의 계열의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피압박민족대회(極東被壓迫民族大會)에 참석하였다. 같은 해 김구(金九)·손정도(孫貞道) 등과 함께 한인노병회(韓人勞兵會)를 조직하여 노농병 양성과 군비 조달에 힘썼다.

1923년 임시정부의 진로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에 참석하여 임시정부의 개조를 주장하였으며, 1925년 쑨원(孫文)의 권유로 중국국민당에 가입하고 중국혁명운동에 참여하였다. 1926년 중국혁명운동이 실패한 후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9년 상하이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32년 출옥하였다.

1933년 조선중앙일보사(朝鮮中央日報社) 사장직에 취임하였으며, 1934년 조선체육회 회장직을 맡았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孫基禎)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신문이 폐간되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942년 치안유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44년 8월 일제의 패전을 예상하고 독립운동과 국가건설을 위하여 조선건국동맹(朝鮮建國同盟)을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건국동맹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농민동맹(農民同盟)·부인동맹 등을 조직하였으며, 옌안(延安)의 독립동맹(獨立同盟)과 제휴하여 연합작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나. 해방 이후의 활동

1945년 해방이 되자 건국 준비를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의 결성을 주도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해소되고 수립된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의 부주석(副主席)이 되었으며, 김구·이승만·안재홍·송진우 등과 만나 국가건설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11월에 건국동맹을 모태로 조선인민당(朝鮮人民黨)을 결성하여 당수직에 맡았으며, 미군정 장관의 고문을 맡기도 하였다.

1946년 2월 북한을 방문하여 조만식(曹晩植)과 김일성(金日成)을 만나 미소공동위원회의 대처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좌파 세력의 연합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후 김규식 등과 함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에 기반을 둔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와 성공을 목표로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 8월 조선인민당 당수직을 사임하였으며, 9월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 3당 합당문제를 포함한 남한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11월 사회노동당(社會勞動黨)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과 합동을 제의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1947년 1월 우파 세력의 반탁운동과 좌파 세력의 편협성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계에 복귀하였다. 3월 신당 결성을 위한 준비 활동에 착수하여 5월에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을 창당하고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김규식·김창숙(金昌淑)과 함께 통일적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펼치는 등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십여 차례 테러를 당하였다.

1947년 7월 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韓智根)에게 저격을 당해 서거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운형 [呂運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여운형 연보

1886 경기도 양평 출생
1907 광동학교 설립
1908 집안의 노비를 해방
1910 강릉 초당의숙 교사로 초빙되어 계몽교육 실시

1886 | 경기도 양평 출생
1907 | 광동학교 설립
1908 | 집안의 노비를 해방
1910 | 강릉 초당익숙 교사로 초빙되어 계몽교육 실시
1919 |
신한청년당 대표로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
상해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도쿄를 방문하여 제국호텔에서 독립 연설
1929 |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 서울로 압송
1933 |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
1936 | 손기정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 폐간
1945 | 조선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넘겨받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
1946 | 좌우합작위원회 구성
1947 | 7월 19일 테러로 서거

3. 교수-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한 발 앞서 내일을 준비한 민족의 지도자, 여운형		
학습 목표	- 여운형이 일제강점기와 해방된 나라에서 한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여운형이 추구했던 삶을 말할 수 있다.		
학습 내용	- 여운형이 한 일 - 여운형이 추구한 삶		

나. 본활동

단 원 명	독립운동과 통일운동		
학습 목표	1.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모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여운형이 추구한 삶을 통해 독립운동가가 추구한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동기유발 글 읽기(5분) :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과 여운형의 관계 알아보기		
전 개	1. “정약용과의 만남” (40분) (1) 여운형의 애국계몽 운동 (2) 여운형의 독립운동 (3) 민족의 지도자 여운형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여운형과 관련 한 개념을 이해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 를 배치한다.
	2. 생각 나누기(20분) : 여운형의 선택	일본 강점기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운형에 대해 일본의 회유는 끈질기면서도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 만 오로지 독립이 삶의 전부였던 여운형의 판단에 대한 탐구	
전 개	3. 생각 더하기(20분) : 여운형 어록	민족과 청년에게 던진 여운형의 말들은 현재의 우리에 게도 유효한 말이다. 오늘의 우리에게 좌우명이 될 수 있는 말로 바꾸어보기.	모둠 별로 마주 보도록 자리 재 배치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 중앙 을 바라보고 자리 를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4. 학생 활동지 해답

[생각 나누기]

• 여운형의 선택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운형은 항상 민족을 위한 선택을 하였으며, 이는 고난의 길이었습니 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길을 조금도 주저없이 걸어갔습니 다. 그의 선택에는 어떤 이 유가 있었는지 함께 생각하여 봅시다.

◆ 집안의 노비를 해방하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사람은 귀천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였고, 생각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창동학교를 설립하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나라의 힘이 약해 일본에게 휘둘리는 것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교육은 나라의 힘을 크게 할 수 있는 근대학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도쿄를 방문하여 독립연설을 하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나 일본에게 조선의 독립의지를 밝히고, 일본의 조선점령이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해쳐 결국 일본의 손해로 돌아갈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 손기정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를 자진 폐간하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일제강점기에 힘든 조선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일장기를 지웠으며, 일제의 의도에 맞는 신문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 계속되는 테러의 위협에도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목숨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하는 죽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생각 더하기]

여운형선생님의 어록을 나의 마음속에!

여운형선생님의 하신 말씀에는 그분의 치열했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가. 나는 혼자요, 저놈들은 방대한 무력을 틀어쥔

대적(大賊 : 큰 도둑)이니 힘으로는 대비가 안 되지.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는 저놈들에게 빚진 것도

죄진 것도 없는 정당한 사람이요

저 놈들은 조선에 대죄를 지은 강도들이다.

나는 정의요 저놈들은 부정의(不正義)이니

내가 저놈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지.

세상에 정의와 진리만큼 강한 무기는 없는 거야.

나. 피를 흘리면서도 싸우고 다운되어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권투정신은

우리 청년들이 의당 본받아야 할 훌륭한 정신이다.

남성답게 씩씩하게 싸우라, 비겁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스포츠맨십으로 싸우라.

나는 청년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

무릇 청년은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불가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다. 젖은 사람은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내 뜻대로 살다가 잡혀죽을지언정 시골에 은신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

라. 절망은 마음의 자살이라고 하였네.

밤이 지새면 새날이 밝는다는 거야.

엄연한 진리가 아닌가.

너도나도 작은 힘이나마 합쳐나가면 새날은 앞당겨질 거네.

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하든지 거기에 대해 기뻐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정당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를 악평해도 내가 정당할 것이요.

내가 참으로 정당치 못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찬양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이다.
내 사람 됨됨이에 대해 참으로 알고자 한다면
나를 평하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라.
자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이지 참새떼들의 입방아는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네.

선생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뜻을 잘 생각하여 봅시다.

◆ 여운형 선생님의 말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을 말로 바꾸어 봅시다.

아무리 많이 실패한다하여도 다시 도전하는 것은
나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실패에도 당당하라, 비겁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끝까지 도전하라
실패는 패배가 아니며 포기할 때 그것이 패배이다.
나에게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으며, 나는 성공할 것이다.

〈정리하기〉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와 해방된 조국에서 독립과 통일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던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밀하면서도 치열했던 여운형 선생님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여운형 선생님의 삶을 통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포기나 절망보다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어떻게 극복할 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6. 교사 참고 자료

(1) 여운형 생가와 기념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

http://www.mongyang.go.kr/page/museum3_con11.asp



(2) 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http://www.mongyang.org/>



7.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김규식[金奎植]

부산 동래(東萊)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지성(智性)이 동래 부사 막료로 재직 중일 때,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하여 상소하였다가 그 일로 귀양을 갔다. 그 후 1887년 어머니마저 사망하여 6세 때 고아(孤兒)가 되었다. 마침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 있던 선교사 H.G.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원한경[H.H. Underwood] 박사의 아버지)가 그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 아래에서 서양교육과 기독교교육을 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미국으로 유학하여 1903년 로노크대학교 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이듬해 프린스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05년 귀국하여 경성청년회 총무·경신학교 교감·연희전문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23년 모교인 로노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1935년 중국 난징[南京]에서 민족혁명당을 창설하는 한편, 1940년에는 베이징[北京]·난징·쓰촨[四川]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1918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약소민족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총장직을 맡아 파리강화회의에 전권대사로 참석하여 일본의 한국침략을 규탄하였다. 그 해 학무총장·구미위원부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파리에서 조선혁명당의 이름으로 항일전선을 구축하고, 조선공보국을 설립하여 회보를 발간한 뒤,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홍보를 하였다. 한편,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 명의로 탄원서를 작성,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동방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하여 상설기구를 세우고, 1927년에는 그 회장직을 맡아 기관지인 『동방민족』지를 창간하였다.

1935년에는 중국에 일본군의 진격이 예상되자, 중국에 있는 한국인의 통일독립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5개 독립운동단체 대표들과 남경에 모여, 신익희(申翼熙)·조경한(趙擎韓)·양기탁(梁起鐸) 등과 민족혁명당을 조직하여 의용대원을 모집하는 한편, 기관지 『민족혁명』, 『우리의 길』 등을 발행하였다. 1943년 1월 중경(重慶)에 들어갔으며, 1944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이 되어 김구(金九) 주석과 함께 광복군 양성에 힘썼다.

1945년 8·15광복 후 귀국하여 우익 진영 지도자가 되었으며, 모스크바3상회의(1945. 12)에서 신탁통치에 관한 의견이 전해지자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앞장섰다. 미·소공동위원회(1946~1947)가 실패로 돌아가자, 중도 우파로서 민족자주연맹 위원장, 입법의원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에는 국제연합에 의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구(金九)와 함께 북한에 가서 남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그 후 정치활동에서 은퇴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 남북(拉北)되었다가 만포진(滿浦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서로 《엘리자베스시대의 연극입문》(1940)과 시집 《양자강의 유흠》(1945) 등이 남아 있다.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규식 [金奎植] (두산백과)

오스기 사카에[Osugi Sakae, 大杉栄]

1885년 지금의 가가와 현[香川県]의 마루가메[丸亀]에서 군인 가정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1899년[明治32년] 나고야육군지방유년학교[名古屋陸軍地方幼年学校]에 입학하여 프랑스어과에 들어갔다. 입학 후 공부보다 무도(武道)에 열중했다. 수학여행 중에 하급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이 발각되어 30일의 정학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군의관으로부터 ‘뇌신경증’ 진단을 받아 휴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동기생과의 싸움에서 칼로 찌르는 등 살상 소동을 벌여 재학 2학년 때 퇴학 처분을 받았다. 군대 생활에서 해방되자, 문학에 뜻을 두고 어학 공부에 매진하여 1903년 동경외국어학교 불분과에 입학하였다. 이때 새로운 사상을 접하면서 당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고토구 슈세이[幸徳秋水],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등의 노동운동가들과 만나면서 헤이민사[平民社]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에 감화되어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활동하였다.

1905년 주간지인 <평민신문(平民新聞)>의 후속지인 <직언(直言)>에 고토구 슈세이가 기고한 기사에서 에스페란토어를 처음 보고, 1906년 동경외국어학교를 졸업한 다음 에스페란토 학교를 설립하여 에스페란토어를 가르쳤다. 1906년 3월에는 ‘전차 요금 인상 반대 시민대회’에 참가하여 전차를 불태운 사건에 관여한 죄목으로 처음으로

체포되었으나, 6월에 보석되었다. 그해 11월에는 신문지조례(新聞紙条例)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3년간 여러 차례 감옥에 드나들었다. 이후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언론활동을 벌였다. 복역 중에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어학을 독학하였으며, 아나키즘 책도 섭렵하였다. 1911년 고토구 슈세이 등이 처형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주춤하였으나, 1912년 <근대사상> 1914년 <평민신문>을 발간하며 연구회 개최 운동을 도모하였다. 이 시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번역 출간하였다. 1920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사회주의자의 모임에 참가, 귀국하여 사회주의자 동맹 결성에 주력하였다. 이후 베를린에서 국제 아나키스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하이를 경유하여 중국인 이름으로 프랑스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집회 도중에 체포되어 추방당하였다. 또한 아시아에서의 아나키스트 연합을 도모하여 중국의 아나키스트들과 회담을 가지기도 하였고, 조선의 박열(朴烈) 등이 조직한 아나키즘 단체인 흑도회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세계 각지를 돌며 국제 연대를 꾀했던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이동휘와 여운형 등과 직접 만나 국제연대를 꾀했으며,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호치민과도 연대하기도 하였다. 관동대지진 직후 헌병사령부에서 39세로 형사하였다.

<파브르 곤충기>를 일본 최초로 번역한 그는, 자서전으로 <옥중기(獄中記), 1919년>, <자서전(自叙傳), 1923년>, <일본탈출기(日本脱出記), 1923년> 등을 남겼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스기 사카에 [Osugi Sakae, 大杉栄] (두산백과)

신한청년단[新韓青年團]

1918년 11월 말 제1차세계대전이 끝나자 새로운 질서의 개편이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독립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독립지사들 사이에 고조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체의 조직임을 알고, 이를 구체화시키기로 하였다.

당시 발기인으로 국내에서 망명해 온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김철(金澈)·서병호(徐丙浩)·선우혁(鮮于爍)·조동호(趙東祐)·문일평(文一平)·정인보(鄭寅普)·신규식(申圭植)·신채호(申采浩)·조용은(趙鎔殷)·장덕수(張德秀) 등이 참여하였다.

마침 1918년 12월 15일경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T.W)이 중국 정부를 위해 파견한 특사 클레인(Clain)이 상해에 왔다. 그는 “개막이 임박한 파리강화회의는 특히 약소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니, 대표를 파견하여 주장함이 좋을 것이다.”고 연설하였다.

이에 여운형·조동호·장덕수 등은 이 기회에 한국의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로 장문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강화회의에 전달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한국 대표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즉각 회답은 받지 못하였다.

신한청년단은 우선 자체의 조직을 강화하고 독립활동을 용이하게 주도하기 위해 부서와 인선을 정하였다. 이 사장으로 서병호를 추대하고 이사로는 여운형·김구(金九)·이광수(李光洙)·안정근(安定根)·조동호·한원창(韓元

昌)·한진교(韓鎭敎)·선우혁·김순애(金淳愛) 등이 선임되었다. 재무부·교제부·토론부·체육부·출판부·서무부 등 6개 부서에 회원은 150여 명이었다.

신한청년단은 외교에 능한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파견하고, 여운형을 노령으로, 장덕수를 일본으로, 선우혁·김철·서병호 등을 국내로 파견, 이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였다.

김규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파리위원부를 설치, 독립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장덕수는 일본에서 2·8독립선언을 촉진시켰고, 국내로 들어온 선우혁은 관서 지방의 기독교인과 손을 잡은 뒤 3·1운동을 일으키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이로 인해 상해는 독립운동의 본부격이 되어 2·8독립선언에 참석했던 이광수와 최근우(崔謹愚)가 달려왔고, 여운형과 동생 운홍(運弘)도 노령과 미국으로부터 도착하였다.

국내에 파견되었던 선우혁·김철·서병호와 현순(玄楯)·최창식(崔昌植) 등도 모였다. 그 밖에 이봉수(李鳳洙)·강대현(姜大鉉)·안승원(安承源)·김구·김병조(金秉祚)·조상섭·이원익(李元益) 등이 국내에서 달려왔다.

만주와 노령에서는 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조완구(趙琬九) 등 30여 명이 모여 독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신한청년단의 단강(團綱)은 대한독립·사회개조·세계 대동(世界大同)이었고, 『신한청년보(新韓靑年報)』를 기관지로 발간·배포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뒤 30여 명의 신한청년단 핵심 단원들은 1919년 4월 초 1,000여 명의 동포를 배경으로 프랑스 조계의 바오창로(寶昌路)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뒷날(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모체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인 1920년 4월 이후에는 민간사업을 경영하였으나 대부분의 인사들이 임시정부의 중요 인물로 활동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한청년단 [新韓靑年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파리평화회의[Peace Conference at Paris]

영국과 프랑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약 5개월 간의 기본 협의(평화회의)와 이에 따라 차례로 진행된 패전국과의 조약협상(강화회의)이 1920년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한데 모아 ‘파리평화회의’라고 지칭한다.

유럽에서 진행된 전쟁으로 유럽을 장기간 무질서 속에 빠뜨린 결과,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지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유럽의 정치, 외교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장기간 그리고 다양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과거 유럽사에서 전후 새로운 질서체제를 구축한 베스트팔렌조약(1648), 빈 조약(1815)과 같은 강도 높은 체제를 찾아야 할 무거운 책무가 놓여져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협상국세력(영국, 프랑스, 러시아 - 이탈리아, 미국, 기타 다수)이 동맹국세력(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탈 -헝가리, 불가리아, 투르크) 측에 대하여 승리하여, 자연히 회의의 주도권은 협상국(승전국)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동맹국(패전국)은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처음 회의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5개국이 주축이 되었으나, 일본은 유럽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 자진 빠졌고, 이탈리아는 아드리아해의 피우메

지역 영토 분쟁문제로 파리회의에서 철수하여, 결국 영국(로이드 조지 Lloyd George 수상), 프랑스(조지 클레망소 Georges Clemenceau 대통령), 미국(토마스 윌슨 Thomas W. Wilson 대통령) 세 나라에 의해서 회의가 주도되었다.

이 회의에서 국제문제를 풀어나갈 원칙으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조항(The Fourteen Points)을 제시하였다. 공개외교, 공해에서의 해양의 자유, 무역조건의 평등화, 군비축소, 식민지나 영토문제는 당해 주민의 이해에 따라 해결, 러시아는 자신의 체제를 가질 권리, 벨기에에서 독일군 철수, 알자스-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반환, 이탈리아 국경 민족구분성에 따를 것, 합스부르크 제국 안의 여러 미족 자치정부 가질 권리, 발칸반도에서 미군 철수할 것, 투르크의 주권과 영토 보존할 것, 폴란드의 독립, 국제평화기구 창설 등이 강조되었다.
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 National Self-Determination)와 집단안전보장(集團安全保障) 원칙이었다. 그리하여 패전국에 대한 무배상, 무병합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전쟁의 상처가 큰 당사국의 반대로 패전국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배상과 영토 상실)가 주어졌다.

약 5개월에 걸쳐 기본회의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얻어진 원칙과 약속에 따라, 패전국과 차례로 강화조약(講和條約)이 체결되었다.

제일 먼저 주축국인 독일과 연합국간에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1919. 6. 28). 이를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며,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종료 조약의 대명사로도 사용된다. 독일에 대한 제재가 제일 혹독하였는데, 모든 해외영토와 식민지 포기, 알자스-로렌을 프랑스에 반환, 프랑스 국경지방에 비무장지대 설치, 술레지엔을 폴란드령으로 하고 단치히 자유항과 연결하는 폴란드 회랑지대 설치(그 결과 동프로이센 독일 본토와 분리됨), 일부 영토 벨기에에 양도, 막대한 배상금, 군비 제한 등이었다.

오스트리아와 강화조약(생제르맹 조약 Saint-Germain, 1919. 9. 10)을 체결하여,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소국이 되었다.

불가리아와 뇌이 조약(Treaty of Neuilly, 1919. 11. 27)을 체결하고,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에 영토 일부를 할양하도록 하였다.

헝가리와 트리아농 조약(Treaty of Trianon, 1920. 6. 4)을 체결하여, 오스트리아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토록 하였으나, 영토 일부를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에 할양하여 소국이 되었다.

오스만투르크와 세브르(Sevres, 1920. 8. 10) 조약을 체결하여, 과거 투르크가 점령한 유럽 영토에 대해 투르크 영토의 분할, 군비제한, 내정간섭과 치외법권 인정을 요구하였다.

조약 이름은 대부분 파리 교외나 궁전의 일부 이름을 딴 것으로, 모두 파리권에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파리평화회의 [Peace Conference at Paris] (두산백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

약칭하여 건준(建準)이라고도 한다. 1945년 8월 초 일본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협상 대상으로 한국의 민족지도자를 찾았다. 이때 건국준

비를 위한 민족의 대표기관과 정치세력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여운형이 그에 동조함으로써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4년 8월 10일 비밀리에 '건국동맹'이 조직되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사무실은 서울 풍문여자중학교에 두었고 위원장에 여운형(呂運亨), 부위원장에 안재홍(安在鴻)·허헌(許憲), 총무부장에 최근우(崔謹愚), 재무부장에 이규갑(李奎甲), 조직부장에 정백(鄭栢), 선전부장에 조동호(趙東祐), 무정부장에 권태석(權泰錫) 등으로 진용을 갖추었다.

설립목적은 민족의 총역량을 일원화하여 자주적으로 과도기의 국내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8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국공작 5개 항을 제시하였고 9월 2일 강령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①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②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함 ③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국내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이라는 3개 항이었다. 건준은 일본 경찰조직을 밀어내고 각 지방의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지방마다 조직의 이름은 달랐지만 치안대, 보안대 등의 이름으로 145곳에서 조직되었다.

그러나 건준이 지나치게 좌익진보세력으로 조직되자 민족주의계 인사들이 이에 반발하여 탈퇴하였으며, 부위원장 안재홍도 탈퇴하여 9월 1일 조선국민당을 창당하였다. 또한 정백·고경흠(高景欽) 등의 간부들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경성지부를 결성하였다. 9월 4일 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집행위원회 개편을 단행하였고 9월 6일에는 6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다.

경기여자중학교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안'이 통과된 뒤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건준은 9월 7일 해체되고 9월 11일 조각을 단행하였다. 이승만, 여운형, 허헌, 김규식(金奎植), 김구(金九), 김성수, 김병로, 안재홍, 이강국, 신익희, 조만식 등 55명의 대표위원과 오세창(吳世昌), 권동진(權東鎭), 김창숙(金昌淑), 이시영(李始榮) 등 12명의 고문위원을 선발하고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여운형, 총리에 허헌이 각각 추대,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부터 건준을 반대하고 임시정부의 귀국을 기다리던 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장덕수(張德秀) 등 우익진영은 이들 조직을 벽상조각(壁上組閣)이라고 비난하였다. 그후 해외 독립운동지도자들이 귀국하고 이승만이 주석 취임을 거절하는 한편 미군정청에서 10월 10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승인을 거절하는 포고를 발표하자 조선인민공화국은 자연 해체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朝鮮建國準備委員會] (두산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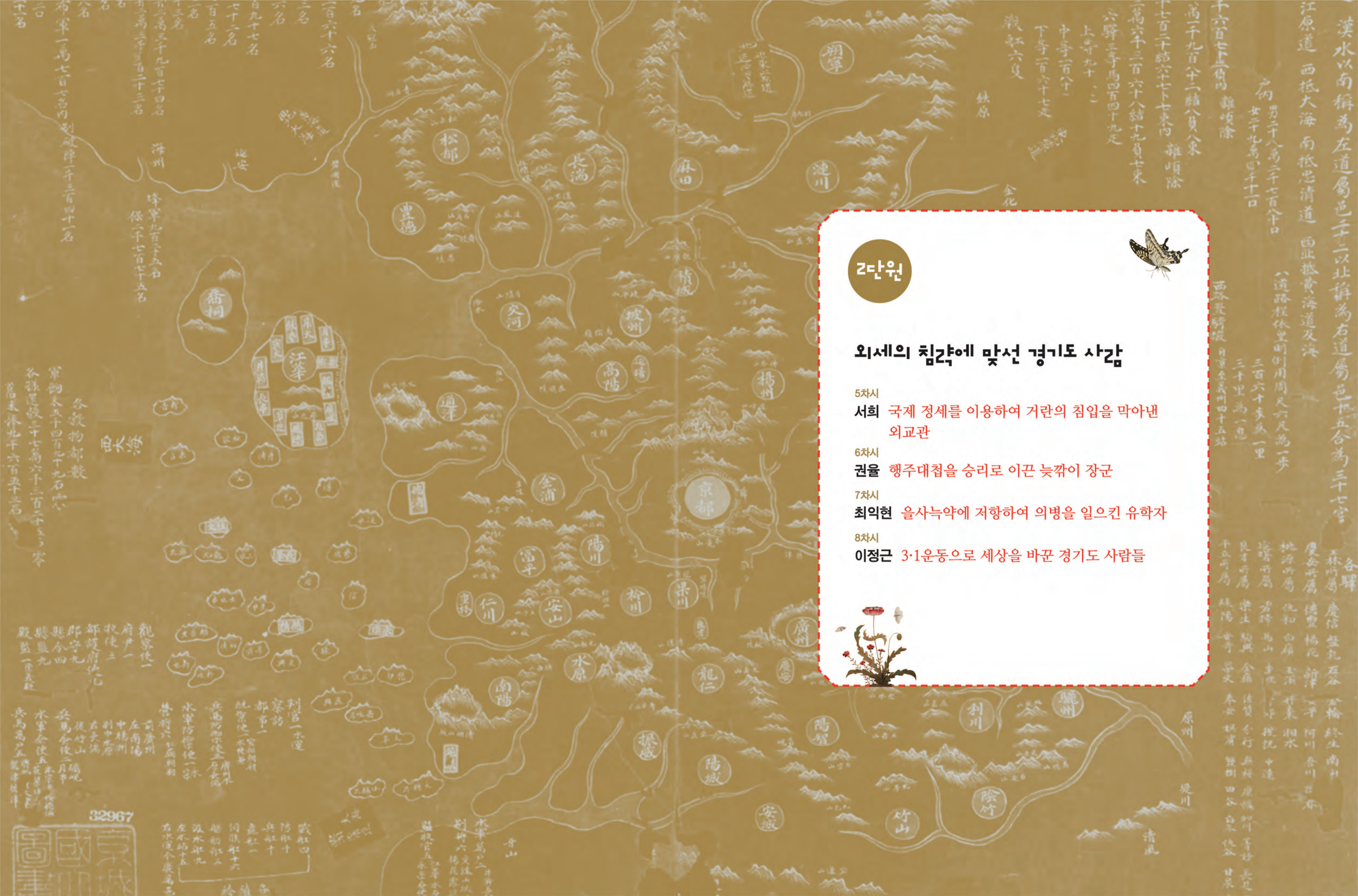
8. 참고 문헌

[도서]

김상웅(2016) 『몽양 여운형 평전』, 채륜.
이기형(2004). 『여운형 평전』, 실천문학사.
전상봉(2009). 『몽양 여운형』, 산하.

[사이트]

여운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1208&cid=46626&categoryId=46626>
몽양여운형기념관
http://www.mongyang.go.kr/page/museum3_con11.asp
사단법인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http://www.mongyang.org/>



2단원



외세의 침략에 맞선 경기도 사감

5차시

서희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외교관

6차시

권율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늦깎이 장군

7차시

최익현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의병을 일으킨 유학자

8차시

이정근 3·1운동으로 세상을 바꾼 경기도 사람들



各穀物都數

32967





국제 정세²를 이용하여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외교관, 서희

1. 수업 개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 거란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경기도의 인물, 서희에 대해 배울 것이다. 고려는 주변 국가와의 활발한 대외 관계를 통해 나라의 발전과 안전을 꾀했던 개방적인 국가였다. 특히 중국 대륙의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고려의 이러한 개방성과 국제정세를 읽는 힘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번 시간에 배울 서희이다.

2. 서희에 대하여¹⁾

가. 서희(942~998). 고려 전기의 정치가이며 외교가.

본관은 이천(利川). 자는 염운(廉允). 아버지는 내의령(內議令)을 지낸 필(弼)이다. 할아버지인 신일(神逸) 때까지는 이천 지방에 토착한 호족으로 보인다. 아버지에 이어 재상위에 올랐고, 다시 아들 눌(訥)·유결(惟傑)이 수상인 문하시중과 재상인 좌복야(左僕射)를 지냈다.

960년(광종 11) 3월에 갑과(甲科)로 과거에 급제한 뒤, 광평원의랑(廣評員外郎)·내의시랑(內議侍郎) 등을 거쳤다. 983년(성종 2) 군정(軍政)의 책임을 맡은 병관어사(兵官御事)가 되고, 얼마 뒤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를 거쳐 태보(太保)·내사령(內史令)의 최고직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중책을 맡아 활동했으며, 외교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올렸다. 972년에 십 수 년간 단절되었던 송나라와의 외교를 직접 사신으로 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가장 큰 외교적 활약은 993년에 대군을 이끌고 들어온 거란의 장수 소손녕(蕭遜寧)과 담판해 이를 물리친 일이었다.

고려의 일방적인 북진정책과 친송외교(親宋外交)에 불안을 느낀 거란이 동경유수(東京留守)소손녕으로 하여금 고려를 침공하게 하였다. 거란군은 봉산군(蓬山郡)을 격파한 뒤, “대조(大朝 : 거란)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너희가 강계(疆界)를 침탈하므로 이에 정토한다.”는 등의 위협을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항복하지는 견해와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의하자는 할지론(割地論)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봉산군을 쳤을 뿐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고 위협만 되풀이하는 적장의 속셈을 간파한 서희는 할지론을 반대하고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민관어사(民官御事)이지백(李知白)이 동조하자 성종(成宗)도 찬성하였다. 이 때 소손녕도 안용진(安戎鎭)을 공격하다가 중랑장 대도수(大道秀)와 낭장유방(庾方)에게 패해 고려의 대신과 면대하기를 청해왔으므로 여기에 응하게 되었다.

거란의 군영에 도착해 상견례를 할 때, 소손녕으로부터 뜰에서 절할 것을 요구받자, ‘뜰에서의 배례(拜禮)란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것’이라 하여 단호히 거절하며 당당한 태도로 맞서 결국 서로 대등한 예를 행하고 대좌하게 되었다.

소손녕이 먼저 침입의 원인을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의 땅은 우리가 소유했는데 당신들이 그 땅을 침식하였다.”는 것과, “고려는 우리나라와 땅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공격이 있게 되었다.”고 두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서희는 침입의 근본적인 이유가 후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곧 고구려의 옛 터전을 이었으므로 고려라 이름하고 평양(平壤)을 도읍으로 삼은 것이다. 만약, 지계(地界)로 논한다면 상국(上國)의 동경(東京 : 곧遼陽)도 모두 우리 경내에 들어가니 어찌 침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압록강 안팎도 역시 우리 경내인데 지금은 여진이 그곳에 도거(盜據)해 완악(頑惡)하고 간사한 짓을 하므로 도로의 막히고 어려움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심하다. 조빙(朝聘)을 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에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게 하여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가 통하게 되면 감히 조빙을 닦지 않겠는가!”라고 반박, 설득하였다.

이와 같이 언사와 기개가 강개함을 보고 거란은 마침내 철퇴하였다. 그 결과 994년(성종 13)부터 3년간 거란이 양해한 대로 압록강 동쪽의 여진족을 축출하고, 장흥진(長興鎭)·귀화진(歸化鎭)·곽주(郭州)·귀주(歸州)·흥화진(興化鎭) 등에 강동6주(江東六州)의 기초가 되는 성을 쌓고 생활권을 압록강까지 넓히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통찰력, 당당한 태도, 조리가 분명한 주장 등이 외교적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한편 그는 문무를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근엄하고 사리에 밝았던 것 같다.

일례로 성종이 서경(西京)에 행차했을 때 미행(微行)으로 영명사(永明寺)에 가서 놀이를 하고자 하는 것을 상소, 간언해 중지시켰다. 또 어가를 따라 해주(海州)에 갔을 때 임금이 그의 막사에 들어가고자 하니, “지존(至尊)께서 임어하실 곳이 못 됩니다.”라고 정중하게 사양하였다. 다시 술을 올리라고 명하자, “신의 술은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결국 막사 밖에서 어주(御酒)를 올리도록 한 사실에서도 살필 수가 있다. 또한 공빈령(供賓令) 정우현(鄭又玄)이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의 일곱 가지 일’을 논한 것이 임금의 뜻을 거슬렀다. 그러나 오히려 정우현의 논사가 심히 적절한 것이라고 변호하고 그 허물을 자신에게 돌렸다고 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정우현은 감찰어사가 되고, 그는 말과 주과(酒果)를 위로의 증표로 받았다. 그는 성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신의 영달과 더불어 나라에 큰 공적을 쌓을 수 있었다.

1) 서희 [徐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러한 모습은 그가 996년(성종 15)에 병으로 개국사(開國寺)에 머물게 되자, 성종이 친히 행차해 어의 한 벌과 말 세필을 각 사원에 나누어 시납하고, 개국사에 다시 곡식 1천석을 시주하는 등 그가 완쾌되도록 정성을 다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시호는 장위(章威)이다. 1027년(현종 18)에 성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3. 서희 연보

942 경기도 이천 출생
960 3월 갑과로 과거에 급제
972 송에 사신으로 파견됨
983 군정의 책임을 맡은 병관어사가 됨
993 거란의 침입 때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 획득
996 병으로 개국사에 머물자 성종이 완쾌를 빌며 어의 한 벌과 말 세필을 시납함
998 사망. 시호는 장위
1027 성종의 묘정에 함께 배향됨

4. 교수-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외교관, 서희		
학습 목표	- 고려 전기 외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서희의 활동을 통해 고려가 거란을 물리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국제정세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 거란의 침입과 서희의 외교 담판		

나. 본활동

단 원 명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학습 목표	1.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서희의 활동을 통해 거란을 물리친 고려의 외교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전시학습 확인(5분) : 전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스피드 퀴즈로 정리		
전 개	1. “대상과의 만남”(10분)	개념 잡기-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주요 개념을 표시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되돌리기(15분)	교사의 안내로 어려운 개념 확인 및 내용 정리 동영상 함께 보기 (국회방송-한국의 정신, 평화와 영토회복으로 실리와 교를 실현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HbYPOIj2cCU - 5분) (국회방송-한국의 정신, 윤관 https://www.youtube.com/watch?v=J15Pvvmkn3I - 4분)	
	3. “동료와의 만남”(15분)	‘생각나누기’와 ‘생각더하기’를 모둠 친구들과 협의하면서 해결/ 묻고 답하기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5. 모둠 활동 안내

[생각 나누기]

1. 다음은 여진을 물리친 윤관 이야기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서희보다 약 100년 정도 늦게 태어난 윤관도 파평 윤씨라는 고려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고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친 유능한 관리였다. 12세기 거란의 세력이 약해지고 여진족의 세력이 커져 고려와 국경에서 잦은 마찰이 있었다. 윤관이 여진 정벌에 나섰지만 오히려 패배하고 돌아왔다.

윤관은 패배의 원인이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여진의 군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왕에게 기병 중심의 특수 부대인 별기군의 편성을 건의하여 이를 실행시켰다. 그리고 전투 준비를 한 후 다시 여진 정벌에 나서 여진족을 몰아낸 후 동북 지방에 9성을 쌓아 국방 수비를 강화하였다.

가. 서희와 윤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봅시다.

공통점	차이점
외적을 물리쳤다. 고려의 문벌 귀족 출신이다.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땅을 넓혔다.	서희는 외교 담판으로 거란을 물리쳤지만 윤관은 별무반을 편성하여 무력으로 여진을 물리쳤다. 서희는 외교관이지만 윤관은 군사를 지휘한 장군이다. 서희는 강동 6주를 획득했지만 윤관은 동북 9성을 쌓았다.

나. 서희와 윤관 중 어느 쪽이 더 뛰어난 외교관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해 봅시다.

나는 (서희/ 윤관)이 더 뛰어난 외교관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군대를 이용하여 무력으로 외적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편의 희생도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외교로 적을 물리치고 영토까지 얻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은 물론 다른 민족의 희생도 없다.

[생각 더하기]

• 내가 대한민국 외교관!

- 배운 내용을 확장시켜 좀 더 폭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활동입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와의 연관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서희를 통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외교관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관이라는 진로에 대한 탐구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교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 외교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외교관(外交官, diplomat)은 일반적으로 외교 사절과 재외공관의 중요한 관원을 지칭한다. 재외 공관의 관원은 외교사절과 거의 같은 특권과 면제의 인정을 받는다. 보통 참사관·일등서기관·이등서기관·삼등서기관·상무관·통역관·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나) 외교관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 전공은?	시험을 봐야 한다면?	필요한 능력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외국어 전공 계열학과	일반적으로 외무고시를 통과하거나 7급 외무영사직 시험에 통과하면 외교관이 될 수 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의 경우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줄 하는 봉사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외교 안보, 무역 등의 문제로 협상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민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일본에 파견된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되어 다음 문제 중 하나를 골라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봅시다.

• 독도 문제

2015년 일본은 11월 3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모든 초·중·등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쓰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 소녀상 철거 문제

2016년 일본은 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 표시로 주한 일본대사를 일본으로 귀국시켰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측에 소녀상 이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없는 한 대사를 한국으로 다시 보내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문서를 보내고 일본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협력하여 일본 사회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지원한다. 또한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6. 교사 참고 자료

가. 서희 장군묘(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후리)



지정구분	도지정문화재
종목 및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36호
명칭(한자)	서희장군묘 (徐熙將軍墓)
유형분류	유적건조물
지정일	1977-10-13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후리 산53-1번지
시대	고려시대

서희장군묘(徐熙將軍墓)는 경기도기념물 제36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후리 산53-1번지이다. 고려 초기의 외교가이며 문신인 장위공 서희(942~998)의 묘소이다. 서희는 광종(光宗) 11년(960) 18세에 갑과(甲科)로 과거에 급제한 뒤 내의시랑(內議侍郞)을 거쳐 성종(成宗) 2년(983)에는 군정의 책임을 맡은 병관어사(兵

官御事)가 되었다. 이후 태보(太保)·내사령(內史令)의 최고직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정치적 활동에서도 중책을 맡았으나 외교적으로 보다 큰 업적을 올렸다.

고려의 적극적인 북진 정책과 친송외교(親宋外交)에 불안을 느낀 거란이 성종 12년(993)에 소손녕(蕭遜寧)을 충수로 한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였다. 적은 북쪽 경계의 봉산군을 격파하고 계속 남쪽을 위협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항복하자는 견해와 서경(西京) 이북의 땅을 떼어 주고 화해하자는 할지론(割地論)이 우세하였다. 이에 서희는 단신으로 적진에 가서 소손녕과의 담판으로 유혈의 전투 없이 적의 80만 대군을 물러가게 했다. 그후 청천강 이북에 있던 여진족을 토벌하고 강동 6주를 설치하여 평안북도 일대의 땅을 확보하였다. 고려 성종 묘정(廟庭)에 제향되고 덕종 때 태사(太師)에 추증(追贈)되었다. 시호는 장위(章威)다.

그의 묘는 부인의 묘와 같이 있는 합장묘이고, 봉분 아래에 2단의 둘레석을 두른 형태이다. 쌍분의 가운데에 묘비가 서 있고, 상석과 장명등(長明燈:무덤앞에 있는 돌로 만든 등)이 1기씩 놓여 있으며, 좌우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각 1쌍씩 있다. 묘역은 전체적으로 3단으로 되어 있어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출처 : 문화재청 / 경기문화포털 /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2』)

나. 서희테마파크(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2016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일원에 서희 테마파크가 조성되었다. 서희 테마파크는 고려 시대 탁월한 외교가로 활동했던 서희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테마파크로, 서희 역사관과 청소년교육장, 조각 마당, 축제장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서희 역사관은 2층 건물로, 서희선생의 추모관과 전시관, 홍보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무촌리 일원은 서희 선생의 고향으로 서희 테마파크와 함께 이천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장과 조각 마당, 축제장 등으로 꾸며졌다.

테마파크로 오르는 길 왼쪽에는 서희 선생에 관련한 출생 설화가 3대에 걸쳐 조각공원으로 꾸며졌다. 조각공원은 1부 ‘인연의 시작’과 2부 ‘서희의 성장’ 3부 여요 전쟁 4부 ‘영웅의 활약’으로 나뉘어 작품들이 설치되었는데, 각 주요 포인트에 따른 스토리를 국내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출처] [공유][경기도 이천여행]미리 가보는 서희테마파크|작성자 이천시청



이천시 부발읍 서희 테마파크와 서희역사관(출처 이천시청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2000happy_/220747300285)

라. 서희 관련 사진 자료



서희 표준영정



서희동상(경기도 이천시)

7.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가. 광종과 과거제²⁾

1) 광종

광종(光宗)은 고려(高麗)의 제4대 국왕이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太祖 王建)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신명순성 왕후(神明順成王太后) 유씨(劉氏)이다. 제3대 국왕인 정종(高麗)(定宗)의 동생으로, 두 사람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사이이다. 925년에 태어나 975년에 사망했고, 왕위에는 949년부터 975년까지 있었다. 원래의 이름은 왕소(王昭)이다. 자(字)는 일화(日華), 시호(諡號)는 대성(大成)이다. 능은 헌릉(憲陵)이다.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광종」(<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N0114>)

배우자는 대목왕후(大穆王后)와 경화궁부인(慶和宮夫人)이다. 대목왕후는 태조와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 황보씨(皇甫氏)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며, 경화궁부인은 제2대 국왕인 혜종(惠宗)의 딸이다. 혜종은 태조의 맏아들이지만, 정종이나 광종과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고려 왕실에서는 이렇듯 왕족 내부에서 혼인을 맺는 경우가 특히 초기에 자주 있었다.

대목왕후와의 사이에서 제5대 국왕인 경종(고려)(景宗)을 비롯하여 효화태자(孝和太子)·천추전부인(千秋殿夫人)·보화궁부인(寶華宮夫人)·문덕왕후(文德王后)를 낳았다. 경화궁부인이 낳은 자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광종은 즉위 후 26년 동안 고려를 통치했다. 그의 재위 기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 시행 및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크게 빚어지기도 하였다.

2) 과거제

광종대에 신설된 제도로 이후의 한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도 과거제(科擧制)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제는 원래 중국의 수(隋)·당(唐) 시기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조정에서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여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빈공과(賓貢科)가 있어서, 신라와 발해인 중에도 여기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라 말의 유명한 최치원(崔致遠) 같은 사람도 바로 이 빈공과 합격자 출신이다. 후삼국 시대와 고려 초기에 걸쳐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여러 빈공과 합격자들이 이름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5대10국(五代十國) 시기까지 이어져, 최언위(崔彦擣)의 아들 최광윤(崔光胤)처럼 후진(後晋)에 유학을 간 인물도 있었다.

신라 시대에는 과거제가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후기에 국학(신라)(國學)에서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통해 특정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바탕이 고려 광종대에 들어와서 과거제가 시행되는 기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과거제의 시행은 958년(광종 9)에 쌍기의 건의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광종은 이를 건의한 쌍기에게 과거 시행의 책임자인 지공거를 맡겼고, 이 해에 시(詩)·부(賦)·송(頌) 및 시무책(時務策) 등을 시험하여 제술업(製述業)과 명경업(明經業), 잡업(雜業)에서 7명의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시기에 따라 시험 내용에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대체로 제술업은 각종 경전(經傳) 및 역사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지은 시와 글로 평가를 하였고, 명경업은 경전에 대한 기억과 이해도를 시험하였고,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한 선발인 잡업은 해당 분야 전문 서적의 내용을 시험보았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잡업의 경우 해당 전문 분야에 배치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하거나 외교 문서나 국왕 문서 등을 작성하는 문한관(文翰官) 등 고급 능력이 필요한 직위에 임명되었다.

과거제는 이후 조선 말기까지 시대에 맞게 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운용되었고, 한국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거란³⁾

통구스와 몽골의 혼혈족으로 알려진 동호계(東胡系)의 한 종족명. 「해단(奚丹)」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5세기 중엽부터 요하 상류인 시라무렌(西刺木倫)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다. 9세기 말까지에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고 별 힘을 가지지 못했으나 10세기 초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나와 당나라의 통치에서 벗어나 정복전쟁을 통해 부족을 통합한 후 916년에 거란제국을 세웠다. 이 무렵 그들은 거란문자도 처음 만들었다.⁴⁾

‘그 옛날, 흰 말을 탄 신인이 토하(랴오허 강) 상류로부터 내려오고, 검은 소달구지를 탄 선녀가 황허(시라무렌 강)의 상류로부터 내려왔다. 마침내 두 남녀는 두 강의 합류점인 목엽산 기슭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고, 아들 여덟을 두었는데 이들이 각각 거란 8부의 조상이 되었다.’

거란의 건국신화이다. 거란족은 만주 시라무렌 유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몽골계 종족으로 8개의 대부족으로 구성되었다. 중국 사서에는 이미 4세기부터 등장한다. 유목민족인 그들에게 말이나 소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을 터이고, 아마도 수말과 암소를 토렘으로 하는 집단이 결합하여 국가를 건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과의 접촉기에 강성했던 두 성씨, 즉 야율 성과 심밀 성은 각기 말과 소를 상징하는 씨족명의 한자 표기이다.

916년 부족연합의 대간이었던 야율 성의 아보기(耶律阿保機)가 세습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전제국가 체제를 갖추고 ‘거란국’을 건설했다. 도읍은 현재 내몽골 자치구인 소오달맹으로 920년에는 거란문자를 창제해 보급하였다. 탕구트와 위구르의 부족들을 제압하여 외몽골에서 동투르크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확보하였고, 926년에는 만주에 약 230년간 군림했던 해동성국 발해를 멸망시켜 만주 전역을 장악하였다.

야율아보기의 뒤를 이은 태종은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으로 영역을 넓혔다. 그 첫 번째가 연운 16주의 획득이다. 후당(後唐)의 하동절도사 석경당이 이 땅을 넘기기로 하고 군사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석경당은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後晋)을 세운 이다. 거란의 연운 16주 획득은 북방 유목민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의 영역을 차지한 최초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란을 중국 최초의 정복왕조로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연운 16주는 북경과 대동을 중심으로 한 화북의 일부 지역으로 이 중원의 땅이 이민족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중국인들로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송은 이 실지의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북벌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무렵 거란족은 농경민으로부터 단순히 물자를 약탈하는 차원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다. 약탈보다는 농업이나 수공업 기술자의 획득에 치중하여 국력을 다져가고 있었다. 장성 이북의 유목지대에도 많은 도시적 집락이 만들어졌고, 가구 수는 연운지방의 호수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거란의 국력은 6대 성종(聖宗) 대에 이르러 최고수준에 달해 동아시아 강국으로서 이름을 떨쳤다. 성종은 12살 나이로 황위에 올라 소태후(蕭太后)의 섭정 기간 동안 대대적 국경 개혁을 통해 다져진 국력으로, 소손녕으로 하여금 고려를 침략하게 하고 직접 송을 공격하여 송나라 조정에 위기감을 조성했다. 송 조정에서는 천도론까지 대

3) 안정에,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거란의 건국, 가람기획, 2012.

4)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고중세사 사전』, 거란, 가람기획, 1995

두했으나 재상 구준이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여 진중이 마침내 친정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황하를 사이에 두고 요군과 대치하게 된 진중은 전쟁터가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에 떨며 일말의 전의도 없이 화의만을 모색할 뿐이었다. 한편, 보병 위주의 송군은 초원의 야전에서는 기마병인 요군을 당해내지 못했으나 성을 거점으로 싸울 때는 완강한 저항력을 보였다. 때마침 송과의 교전에서 명장을 잃은 요군은 사기의 하락을 우려하여 전원에서 화의에 응하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전연의 맹(澶淵之盟)’, 1004년의 일이었다.

이 조약에서 송은 형의 나라라는 명분은 얻었으나, 요에게 연운 16주의 지배를 인정하고,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바치기로 했다. 이로써 거란의 재정은 풍족해지고 경제와 문화가 크게 발달한 반면, 송의 국력은 크게 피폐해지게 되었다. 이는 빈번한 전쟁보다는 나은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나 다른 유목민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선례가 됨으로써 송의 재정을 압박했다. 진중은 자신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하늘이 내린 글을 위조하여 봉선례의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으나 송의 실추된 권위는 회복되지 않았다.

거란은 이미 태종 때 후진의 수도 개봉까지 점령한 상태에서 한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민족 색채가 강한 거란국의 명칭을 ‘대요’로 바꾸었고, 장성 이남의 화북 농경지대에는 한인 관료에 의한 중국식 군현제를 유지시키는 남면관, 장성 이북의 유목지대에는 거란의 관습에 따라 통치하는 북면관 제도를 시행하는 이원적 지배체제를 취하였다. 또한 불교를 도입하여 중국인과 거란인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대장경의 간행 등 불사를 활발히 일으켰다. 불공사 석가탑은 중국 내에 현존하는 최고의 목탑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요나라의 중심은 명백히 장성 이북의 유목지대였으며, 그곳에서 거란족 독자의 체제를 구축하여 중국과 구별되는 민족의식을 뚜렷이 하고 있었다. 단적으로 그들의 민족의식은 그들이 창제한 거란 문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한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거란 문자는 대자와 소자로 나뉘는데, 표의 문자인 대자는 야율아보기가 920년 공표했고, 표음문자로 보이는 소자는 그의 동생 야율질라(耶律迭剌)가 위구르 문자를 참조하여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여진 문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남겨진 자료가 적어 완벽하게 해독되지 않은 상태이다.

거란의 건국 - 중국 최초의 정복왕조가 되다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2012. 3. 23.)

8. 참고 문헌

[도서 및 논문]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박영규(2006). 『고려사 이야기』1. 주니어김영사.

박종기(2015).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안정애(2012).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한국사사전편찬회(1995). 『한국고중세사 사전』, 거란. 가람기획.

이수건(1976). 「고려시대(高麗時代) 토성연구(土姓研究) 상(上)」. 《아세아학보》, 12. 아세아학술연구회.

변태섭(1961). 「고려조(高麗朝)의 문반(文班)과 무반(武班)」. 『사학연구』, 11. 한국사학회.

변태섭(1971).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황원구(1965). 『인물한국사』Ⅱ, 「서희(徐熙)」. 박우사.

김상기(1959). 「단구와의 항쟁」. 『국사상의 제문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서희(徐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이트]

이천시 문화관광과, <http://tour.icheon.go.kr/site/tour/main.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신문기사]

연합뉴스, 「『외교의 귀재』 서희선생 테마파크 이천시 개원」, 2016.06.16.

[이미지 출처]

‘만부교’, 경향신문, 「이기환 기자의 흔적의 역사, 태조 왕건이 낙타를 굵겨 죽인 이유」, 2015.06.2.

‘10세기 무렵 고려의 주변 국가’, 동북아 역사넷, contents.nahf.or.kr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늑막이 장군, 권율

1. 수업 개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외침인 임진왜란을 이겨낸 경기도의 인물, 권율에 대해 배울 것이다. 조선은 사대교린이라는 외교 원칙 속에서 평화적인 대외관계를 갖고자 하였다. 대국인 중국의 명을 황제국으로 받들고, 주변의 여진, 일본 등과는 우리가 조공을 받는 관계를 통해 안정을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일본의 침략으로 7년 간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았다.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에서 병사들을 지휘하여 왜적을 물리친 인물이 이번 시간에 배울 권율이다.

2. 권율에 대하여⁵⁾ 1537(중종 32)~1599(선조 32). 조선 중기의 문신·명장.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모악(暮嶽). 도첨의(都僉議) 보(溥)의 9세 손으로, 할아버지는 강화부사 적(勳), 아버지는 영의정 철(轍), 어머니는 적순부위(迪順副尉) 조승현(曹承暉)의 딸이다. 이항복(李恒福)의 장인이다.

1582년(선조 1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정자가 되었다. 이어 전적·감찰·예조좌랑·호조정랑·전라도도사·경성판관을 지냈다. 1591년에 재차 호조정랑이 되었다가 바로 의주목사로 발탁되었으나, 이듬해 해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에 제수되어 바로 임지로 떠났다. 왜병에 의해 수도가 함락된 뒤 전라도 관찰사 이광(李洸)과 방어사 곽영(郭嶸)이 4만여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광주목사로서 곽영의 휘하에서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서울의 수복을 위해 함께 북진했다.

이광이 수원과 용인 경내에 이르러 이곳에 진을 친 소규모의 적들을 공격하려 하자 극력 반대하면서 자중책을 말하기도 했다. 즉, 서울이 멀지 않고 대적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적은 적과의 싸움에서 도내의 병력을 모두 소

모할 것이 아니라, 조강(祖江)을 건너 임진강을 막아서 서로(西路)를 튼튼히 하여 군량미를 운반할 수 있는 도로를 보장한 다음에 적의 틈을 살피면서 조정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장인 이광이 듣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취해 대패하고 선봉장 이시지(李詩之)·백광언(白光彦) 등 여러 장수들이 전사했다. 그러나 오직 혼자만이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광주로 퇴각해 후사를 계획했다.

한편, 남원에서 1,000여 명의 의군을 모집해 다시 북진, 금산군에서 전주로 들어오려는 고바야카와(小早川隆景)의 정예 부대를 맞아 동북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과 함께 이치(梨峙)에서 싸웠다. 이 싸움에서 황진이 총을 맞아 사기가 저하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군사들을 독려해 왜병을 격퇴시켜 호남을 보존하였다. 그 해 가을 이치싸움의 공으로 곧 전라감사에 승진하였다.

12월 도성 수복을 위해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진 길에 올라 직산에 이르러 잠시 머물다가, 체찰사 정철(鄭澈)이 군량미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돌아가 관내(管内)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잠시 주저했으나 북상하라는 행재소의 전갈을 받고 북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앞서 용인에서 크게 패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바로 북상하는 것을 피하고, 수원 독성산성(禿城山城)에 들어가 진지를 구축했다.

대병이 그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왜병의 총사령관 우키타(宇喜多秀家)는 후방의 연락이 단절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성에 주둔한 왜병을 풀어 삼진(三陣)을 만들고 오산 등 여러 곳에 진을 친 다음 서로 오가게 하며 독성산성의 아군을 밖으로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성책을 굳게 해 지구전(持久戰)과 유격전을 펴가면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자 몇 날이 지난 다음 영책(營柵)을 불사르고 도성으로 물러났다. 적이 퇴각할 때 정예 기병 1,000명을 풀어 적의 퇴로를 기습해 많은 왜병을 베었다. 그 뒤 명나라 원군과 호응해 도성을 수복하기 위해 독성산성으로부터 서울 근교 서쪽 가까이로 옮기기로 하고 먼저 조방장 조정(趙鼎)을 보내 마땅한 곳을 물색하도록 해 행주산성을 택했다.

조정에게 명해 2일만에 걸쳐 목책(木柵)을 완성하게 하고 이어 독성산성으로부터 군사를 옮기는 작업을 개시했다. 대군의 행렬을 위해서 그는 독성산성에 소수의 군사만을 남겨 많은 군사가 계속 남아 있는 것같이 위장한 뒤 불시에 행주산성으로 옮겼다. 그는 행군 중 휘하 병 가운데 4,000명을 뽑아 전라병사 선거이(宣居怡)로 하여금 금천(衿川: 지금의 始興)에 주둔하게 하고 도성의 적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때 휴정의 고제(高弟) 처영(處英)이 의승병(義僧兵) 1,000명을 이끌고 당도하였으나, 행주산성에 포진한 총 병력은 수천 명에 불과했다.

그 뒤 정예병을 뽑아 도성에 보내어 도전하니 적장들은 이치싸움에서 대패한 경험이 있고, 또 독성산성에서의 치욕을 경험한 탓으로 일거에 침공해 멸하지 않는 이상 큰 위협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도성에 모인 전군을 총출동시켜 행주산성을 공격하겠다는 결의를 제장(諸將)의 중론으로 정하고 조선 침입에서 한번도 진두에 나서본 일이 없었던 총대장 우키타를 위시해서 본진장령(本陣將領)들까지 3만의 병력으로 행주산성을 공격했다.

왜병은 7대로 나누어 계속해 맹렬한 공격을 가해 성이 함락될 위기에까지 직면했으나, 일사불란한 통솔력과 관군과 의승병이 사력을 다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대패한 적은 물러가기에 앞서 사망에 흠어져 있는 시체를

5) 권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모아 불을 질렀으나, 그밖에도 유기된 시체가 200구에 달했고 타다 남은 시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권율의 군대는 그들이 버리고 간 기치(旗幟)와 갑주(甲冑)·도창(刀槍) 등 많은 군수물을 노획했다. 이것이 1593년 2월 12일에 있었던 행주대첩이다.

그 뒤 권율은 왜병의 재침을 경계해 행주산성은 오래 견디어내기 어려운 곳으로 판단, 파주산성(坡州山城)으로 옮겨가서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부원수 이빈(李贇) 등과 성을 지키면서 정세를 관망했다. 그 뒤 명나라와 일본 간에 강화 회담이 진행되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휴전 상태로 들어가자, 군사를 이끌고 전라도로 복귀했다.

그해 6월 행주대첩의 공으로 도원수로 승진되어 영남에 주둔했는데, 1596년 도망병을 즉결한 죄로 해직되었으나 바로 한성부판윤에 기용되었으며, 호조판서·충청도관찰사를 거쳐 재차 도원수가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적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명나라 제독 마귀(麻貴)와 함께 울산에 대진했으나 도어사 양호(楊鎬)의 돌연한 퇴각령으로 철수했다. 이어 순천 예교(曳橋)에 주둔한 왜병을 공격하려 했으나, 전쟁의 확대를 꺼리던 명장(明將)들의 비협조로 실패했다.

1599년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7월에 죽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1604년(선조 37)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에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1841년 행주에 기공사(紀功祠)를 건립, 그해 사액되었으며, 그곳에 향사되었다. 그가 임진왜란 대 활약한 공훈을 중심으로 기록된 사적이 《권원수실적 權元帥實蹟》이란 책명으로 1권이 전한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3. 인물 연보

가. 권율 연보

1537	경상북도 안동 출생
158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 정자가 됨
1591	호조정랑이 되었다가 의주목사로 발탁됨
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가 됨. 이치전투와 독산성전투를 승리로 이끔
1593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끔. 이 공으로 도원수로 승진함
1596	한성부판윤을 거쳐 다시 도원수가 됨
1599	노환으로 사망. 시호는 충장.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됨
1604	선무공신 1등에 영가부원군으로 추봉됨

3. 교수-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권율,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늦깎이 장군		
학습 목표	- 조선의 대외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 임진왜란의 극복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행주대첩의 승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습 내용	-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 임진왜란의 극복		

나. 본활동

단 원 명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학습 목표	1. 조선의 대외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2. 권율을 통해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전시학습 확인(5분) : 전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스피드 퀴즈로 정리		
전 개	1. “대상의 만남”(10분)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주요 개념을 표시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되돌리기(15분)	교사의 안내로 어려운 개념 확인 및 내용 정리 동영상 함께 보기 (KBS 대하드라마 징비록 https://www.youtube.com/watch?v=HrheBVj&JYE- 5분)	
	3. “동료와의 만남”(15분)	‘생각나누기’와 ‘생각더하기’를 모둠 친구들과 협의하면서 해결/ 묻고 답하기	모둠 별로 마주 보도록 자리 재 배치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중앙을 바라보고자리를 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4. 모둠 활동 안내

[생각나누기]

1. 다음은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일을 한 사람이 가장 공이 클까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해 봅시다.

공신의 종류	호성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
한 일	서울에서 의주까지 임금을 챙기며 따라 다닌 신하들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운 장군들과 군량을 요청하러 다닌 사신들	이몽학의 난을 토벌한 신하들
1등 공신	이항복, 정곤수	이순신, 권율, 원균	홍가신
2등 공신	이우, 이부(왕자들), 이원익, 유성룡, 심충겸 등 29명	신점, 권응수, 김시민, 이정암, 이억기	박명현, 최호
3등 공신	허준, 정탁, 이현국 등 55명	정기원, 조경, 권준 등 10명	심경행, 임득의

가) 어떤 일을 한 공신의 숫자가 가장 많나요?

서울에서 의주까지 임금을 챙기며 따라다닌 신하들이 가장 많습니다.

나) 공신 책정이 올바르게 되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목숨을 걸고 싸운 장군들의 공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공이 큰 사람은 누구인지 쓰고, 그 이유를 이야기 해 봅시다.


일본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순신, 권율 장군의 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더하기]

• 내가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자!

- 배운 내용을 확장시켜 좀 더 폭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활동입니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와의 연관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변이종의 화포를 공부했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어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학 기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무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 기술의 예를 들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1. 다음은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조선의 무기들입니다. 무기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선조 때 이장손이 발명. 표면은 무쇠로 둥근 박처럼 생겼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타들어가 내부의 화약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날카로운 쇠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사람이나 말에게 상처를 입힌다. 가장 큰 특징은 폭발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비격진천뢰

 <p>○○○판옥선</p>	<p>1555년 을묘왜란 이후 개발된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선. '판옥'이란 배의 갑판 위에 올린 군사 지휘용 망루를 말한다. 배 밑이 평평하여 빨리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방향을 바꾸기 쉽고 배가 튼튼하다. 또한 사방에 설치된 화포의 위력이 왜군의 배보다 훨씬 뛰어났다.</p>
 <p>○○ 총통</p>	<p>철공을 화약의 힘으로 날려 적의 배나 성벽을 부수는 대포의 일종.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꾸준히 개량되어 대량 제작되었다.</p>

2.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왜군의 우수한 무기인 조총, 그리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된 무기의 사용 등으로 7년 간의 전쟁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상대 국가보다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전쟁을 피하거나 전쟁의 피해를 없앨 수는 없었고, 오히려 경쟁적인 무기의 개발로 인해 전쟁의 위험과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지닌 핵무기가 지구촌 사람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기의 개발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은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필요한 과학기술	필요한 이유
<p>적의 미사일이 터지지 않게 하는 무기 적용 어떤 공격이라도 막아내는 방어막 적들의 마음을 돌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송</p>	<p>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공격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므로 좋지 않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과학 기술을 필요하다.</p>

5. 교사 참고 자료

가. 행주산성(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시 대	삼국
소재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규 모	지정면적 361,209㎡
지정사항	사적 제56호
관련전투	행주산성(幸州山城)전투
관련인물	권율(權慄)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의 무대가 되었던 산성.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토축과 석축이 혼합되어 있다. 한강 가에 돌출된 해발 125m의 산봉우리를 택하여 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의 내성과 북쪽으로 전개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이중구조를 하고 있다. 정확한 축성 연대와 목적은 알 수 없으나, 강안의 험한 절벽을 이용하고 동·북·서로 전개된 넓은 평야를 포용하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 초기의 산성형식과 부합된다. 이곳이 백제의 초기 영역에 속하여 서해안으로의 수운과 관계된 중요한 거점으로 추측되며, 특히 나당전쟁 때까지 남북교통의 요충에 해당하여 고구려와 신라와의 공방전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성벽은 산 정상부의 동남쪽 사면과 외성부의 동북쪽 성벽뿐이며, 서쪽 방면은 내성은 확인되나 외성 성벽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 산성은 1593년(선조 26) 2월 12일 당시 전라도관찰사로 있던 권율(權慄)이 이곳에 군사를 집결시키고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의 공격을 막아내 승리를 거둔 전적지로서 유명하다. 이 전투에서는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희생자가 많았고 마지막에는 화살이 다하여 돌을 던지며 백병전을 벌였는데, 이때 부녀자들까지도 힘을

합하여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 적을 공격하게 하여 ‘행주치마’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이 전투가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으로서, 현재 성내에는 1602년에 세운 행주대첩비와 1963년에 다시 세운 대첩비가 남아 있다. 1970년에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벌여 권울을 모시는 충장사를 세우고 정자와 문도 세웠다.

행주산성 [幸州山城]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민족 전투), 2002.)

나. 충장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⁶⁾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산성에 있는 조선 중기의 명장 권율(權慄) 장군을 모시는 사당.

원래 이름은 기공사(紀功祠)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의 전공을 기리고 그의 호국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1842년(헌종 8)에 왕명으로 건립한 사당이다. 이후 6·25전쟁 때 소실되었으며 1970년 행주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콘크리트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충장사이다.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친필이고, 사당 안 장군의 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그린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충장사 [忠莊祠] (두산백과))



충장사

6) 두산백과, 충장사



행주대첩비



행주대첩 민족 기록화

라. 권율 관련 사진 자료



권율 표준영정



행주산성 역사체험축제 포스터

6.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가. 임진왜란⁷⁾

일본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전하였다. 이때 통신사로 일본을 살피고 온 김성일은 함께 갔던 황윤길과는 달리 “두려운 것은 섬나라 도적이 아니라 민심이다. 민심을 잃으면 성과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며 전쟁 준비에 반대하였다. 1년 뒤인 1592년 조총을 비롯한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였다.(1592, 임진왜란) 20만이 넘는 대군이었다.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뒤, 부산진과 동래성이 순식간에 짓밟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성이 위협받게 되자 조정에서는 김성일을 잡아들이고 왜적을 막을 군대를 급히 편성하도록 하였다. 죄인의 복장으로 한성으로 향하던 김성일은 다시 경상도로 돌아갔다. 김성일에 대한 명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군량과 군대를 모아 적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다.

관군이 일본군에 무너지면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 이러한 가운데 왕과 조정은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피난을 떠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의 손에 죽었고, 나라 곳곳이 일본군에 짓밟혔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명의 구원을 학수고대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일본군을 무찔러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사람들이 나타났다. 바로 이순신이 이끈 수군과 고향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일어선 의병이다.

이순신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바다 곳곳에서 일본 함대를 무찔렀다. 일본군은 이순신의 함대만 보면 달아날 지경이 되었다. 이제 황해안으로 무기와 식량을 실어 나르며 조선 전체를 지배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수군이 승리하면서 전쟁의 분위기도 점차 바뀌었다. 특히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일본군과 싸운 의병의 활동이 눈부셨다. 의병은 소부대로 활동하면서 일본군의 무기와 식량의 보급을 막아 일본군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그리고 관군과 협력하여 진주성과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전쟁은 명의 대군이 조선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띠었다. 명군과 일본군이 두 차례 전투를 치른 뒤 휴전 회담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서, 곳곳에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졌다. 일본군과 전쟁을 치르랴, 수많은 명군을 먹여 살리랴, 우리 민중이 겪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게다가 명군의 약탈과 행패도 적지 않아, “왜놈은 얼레빗, 되놈은 참빗”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1597년에는 일본이 휴전 회담을 깨고 다시 쳐들어왔다. 그러나 조선도 그사이 군비를 갖춰 육지와 바다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패배한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핑계로 이듬해에 모두 철수하였다.

7년에 걸친 전쟁으로 온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술한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전쟁을 막지도, 전쟁 동안 민중을

7) 전국역사교사모임,『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 휴머니스트

보살피지도 못한 왕과 조정은 건재하였다. 조정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비난하였을 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012. 4. 9.)

8. 참고 문헌

[도서 및 논문]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백사집(白沙集)』

김상기(2000). 「임진왜란기 권율의 이치대첩」. 『충남사학』, 12. 충남사학회.

이경석(1976). 『임진전란사』. 신현실사.

전국역사교사모임(2012).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전쟁기념관 편(1999).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이트]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http://people.aks.ac.kr/>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민족 전투, 행주산성 [幸州山城]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4785&cid=49345&categoryId=49345>

네이버 캐스트, 권율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002&cid=59015&categoryId=590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이미지 출처]

‘이치전투 지도’,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권율장군 이치대첩비’,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0세기 무렵 고려의 주변 국가 지도’, 동북아 역사넷(contents.nahf.or.kr).

‘세마대’, 경기관광포털, <https://ggtour.or.kr/>.

‘행주산성’, <https://www.youtube.com/watch?v=HYo0XyJqGCM>.

‘행주대첩 그림’ 전쟁기념관.

‘행주산성 축제 포스터’, 경기관광포털, <https://ggtour.or.kr/>.

‘변이중 화차도’,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비격진천뢰’,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판옥선’, 각선도본, 나무위키, <https://namu.wiki>.

‘천자총통’,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의병을 일으킨 유학자, 최익현

1. 수업 개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용감히 싸웠던 경기도의 의병, 최익현에 대해 배울 것이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제에 맞서 일어난 최고령 의병장 최익현은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지주이자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과정과 의병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자.

2. 최익현⁸⁾ 1833(순조 33)년~1906(고종 43)년. 한말 의병장.

1) 개요

최익현(崔益鉉)의 호는 면암(勉菴), 자는 찬겸(贊謙)이다.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23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다양한 관직을 거쳤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실정(失政)을 정면 비판하였고,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의 체결 소식에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엎드려 상소를 올리는 등 소신을 굽히지 않는 행보로 수차례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단행된 의제(衣制)개혁과 단발령 등 일련의 개혁 조치에 대하여 상소를 통해 강경한 반대의 뜻을 천명함으로써 유생을 비롯한 보수 세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도 상소를 통해 시국의 폐단을 지적하고, 위정척사론의 관점에서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나 첫 전투에서 패하여 체포당하였다. 쓰시마(對馬島)에서의 투옥 생활 중 풍토병을 얻어 74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최익현의 위정척사사상은 개항 이후 항일의병운동과 일제시대 독립투쟁의 이념으로 계승되었다.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2) 초기의 활동

최익현은 1833년(순조 33) 경기도 포천 가채리에서 경주 최씨(慶州崔氏) 대(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836년(헌종 2) 최익현의 아버지 최대는 가족과 충청도 단양으로 이주하였고, 최익현은 9세가 되던 해 김기현(金琦鉉)의 문하에 들어가 유학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였다.

1843년(헌종 9) 최대는 다시 가족을 이끌고 경기도 양근군 후곡(오늘날의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으로 이주한다. 이로부터 3년 뒤, 최익현은 부친의 권유에 따라 인근의 벽계(오늘날의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에서 강학하고 있던 이항로의 제자가 되었다. 이로써 최익현은 이항로의 아들인 이준(李埈)과 이복(李璞)을 비롯하여 김평묵(金平默), 유중교(柳重敎), 그리고 유인석(柳麟錫) 등과 동문의 연을 맺게 되었다.

최익현은 이항로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위정척사(衛正斥邪)와 존화양이(尊華攘夷)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다. 이항로 또한 최익현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존심명리(存心明理, 마음을 간직하고 이치를 밝힘), 낙경민직(洛敬閔直)과 같은 경구를 써주면서 격려하곤 하였다. 또한 이항로는 최익현이 15세 되던 해 면암(勉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두 글자를 주어 호로 삼도록 하였다.

최익현은 23세 되던 1855년(철종 6) 과거에 합격하였다.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로 경력을 시작한 최익현은 이후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조정랑(吏曹正郞) 등을 거친다. 30세 되던 1862년(철종 13) 최익현은 신창현감(新昌縣監)으로 부임하는데, 이듬해 충청관찰사(忠淸觀察使)가 부당하게 백성들을 잡아들일 것을 명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사직하였다. 최익현은 32세 되던 1864년(고종 1) 다시 벼슬길에 나와 예조좌랑(禮曹佐郞),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하다가 모친상을 당하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3) 흥선대원군과의 갈등

1868년(고종 5) 탈상 후 한 달 만인 9월에 최익현은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임명된다. 이에 최익현은 대간(臺諫)으로서의 직무를 즉시 수행하여 당대의 4가지 폐단에 대하여 논하는 시폐4조소(時弊四條疏)를 상소했다. 최익현은 이 상소를 통해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경복궁 중건사업의 중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종(高宗)의 섭정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흥선대원군은 다른 대간들을 움직여 최익현을 탄핵했다. 이에 최익현은 즉시 사직하고 물러났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이어질 흥선대원군과 최익현의 긴 악연의 시작일 뿐이었다.

1870년(고종 7)에 고종은 다시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의 직을 제수하는데, 최익현은 부임 후 오래지 않아 다시 물러났다. 2년 뒤인 1872년(고종 9) 최익현은 돈녕부도정에 임명되지만 역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인 1873년(고종 10) 10월 고종은 앞서 최익현이 시폐4조소에서 거론하였던 사대문세를 폐지하고 다시 그에게 동부승지의 직을 제수하였다. 최익현은 임명된지 불과 며칠 만에 사직 상소를 올리며, 당대의 시국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고종 즉위 후 10년간 이어진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총체적 실패였다는 최익현의 평가에 애권군은 격분했다. 좌

의정, 우의정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사직을 청하면서 최익현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고종은 최익현을 두둔하면서 최익현을 탄핵한 자들에게 감봉, 파직에서 나아가 귀양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최익현에게는 동부승지보다 더 높은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제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익현은 다시 호조참판의 직을 사양하면서 상소를 올려 당대의 폐단과 흥선대원군을 비판했다.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인 최익현의 상소에 대하여 여러 대신들은 부자(父子) 사이를 이간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미 최익현을 호조참판에 임명한 데에서 고종의 뜻은 명백히 드러난 것이었다.

고종은 이 상소에 자신을 핍박하는 어구가 많으니 실로 해괴하다고 하면서 최익현을 잡아다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어 고종은 최익현에 대한 추국을 실시하고, 처형 건의에도 불구하고 최익현을 제주도에 유배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의 상소를 통해 최익현은 제주도에 유배되기는 하였으나, 그의 상소를 계기로 고종이 친정(親政)을 선포하고 흥선대원군이 실각하였으니 결국 뜻한 바를 이룬 셈이다. 최익현의 유배는 1875년(고종 12) 3월에 풀렸는데, 고종은 이에 앞서 최익현이 건의한 대로 청나라 돈의 사용을 금지하고 만동묘를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4) 도끼를 품고 올린 개항반대 상소

1875년(고종 12) 윤요호사건을 기점으로 일본이 무력으로 개항을 강요하자, 조정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개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 분개한 지방 유생들은 이항로의 제자들, 곧 화서학파(華西學派)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개항반대 상소운동을 벌였다. 김평묵과 유중교, 유인석, 홍재구(洪在龜) 등을 주축으로 한 유생들은 연명상소(聯名上疏)를 논의하여, 이듬해 1월 홍재구를 대표자(疏頭)로 연명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이미 조정의 논의는 개항으로 기울고 있었다.

포천에서 머물고 있던 최익현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즉시 상경하였다. 1월 19일에 한양에 들어온 최익현은 상소문을 작성하여 3일 뒤인 1월 22일 도끼를 들고 광화문에 나아가 앞드려 상소를 올렸다. 고종은 이를 매우 불쾌히 여겨 의금부에 명하여 최익현을 잡아들이도록 하였고, 여러 대신들도 상소의 과격한 방식과 방자한 내용을 비난하여 최익현을 엄벌에 처할 것을 청하였다. 최익현을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내자는 것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비난, 무장(無將, 임금을 시해할 뜻을 품는 것)죄를 지었다거나 불경(不敬)죄를 지었으니 극형에 처하라는 등 최익현을 탄핵하는 무수한 상소가 올라왔으나, 고종은 그를 흑산도에 유배하는 것으로 논죄를 마무리하였다.

최익현은 그가 투옥되어 있는 동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음을 듣고 통곡하며 흑산도를 향했다. 흑산도에서의 유배생활은 3년간 계속되었다. 최익현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 고향집에 돌아와 부친을 봉양하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때 최익현의 유배가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평묵이 칠언율시 3수를 지어 보냈는데, 그 뜻은 이제 시사(時事)를 논하지 말고 은거(隱居)하라는 것이었다.

김평묵의 권유를 따랐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흑산도에서 돌아온 이후 을미사변(乙未事變)이 일어나는 1895년(고종 32)까지 약 20년 간 최익현의 대외적인 활동은 크게 줄어들었다. 최익현은 이 시기 금강산, 마니산 등을 유람하기도 하였고, 1887년(고종 25)에는 부친의 사망으로 삼년상을 치렀다. 또한 아들 최영조(崔永祚)와 함께 스승 이항로의 문집을 필사하거나 동문인 유증교 등과 편지로 토론하는 등 학문에도 힘썼다.

5) 침묵을 깨고 위정척사론을 펼침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과 이듬해의 을미사변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격랑 앞에서, 최익현은 그동안 지속하던 은거생활을 포기한다. 최익현이 오랜 침묵을 깬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의제개혁과 단발령의 선포였다.

갑오개혁과 함께 실제로 등장한 박영효(朴泳孝) 등은 의복제도의 개혁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 이러한 개혁이란 예부터 내려온 제도를 함부로 바꾸는 것이자, 반상(班常)의 구분을 기초로 하는 신분사회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전국의 유생들이 반발하여 의제개혁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처럼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박영효 일당이 실각하고 김홍집(金弘集)이 정권을 잡게 되자, 최익현은 상소를 올려 일본으로 도주한 박영효, 서광범(徐光範) 등 개화파 인사들을 처벌할 것과 옛 의제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국은 더욱 혼란해져 8월에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시해되었다. 이어서 단발령까지 선포되자 유생들은 크게 반발하여 유인석 등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홍집 정권은 유생들의 존경을 받던 최익현의 상투를 잘라 투쟁의 구심점을 제거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에도 최익현은 상투 자르기를 거부하였고, 결국 왕명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최익현이 투옥된 지 한 달여 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성사되어, 김홍집은 실각하였고 최익현도 석방되었다. 이어 고종은 최익현을 선유대원(宣諭大員)으로 임명하여 을미의병을 해산하도록 하였는데, 최익현은 두 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려 이를 거부하였 고종은 그의 뜻을 꺾지 못하였다.

다시 낙향하여 포천에 머물고 있던 최익현은 1898년(고종 35) 10월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에 임명되는데, 이때에도 상소를 올려 사직의 뜻을 표하였다. 이 상소에서 최익현은 고종의 실정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오늘날 국운이 이토록 기운 것은 근본적으로 고종의 책임이라고 준엄한 질타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고종은 최익현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최익현은 재차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12가지 일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최익현은 의정부찬정에 이어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도 임명되었지만 역시 두 차례 상소를 올려 사임하였다. 특히 두 번째 상소에서 최익현은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와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사직 후 낙향한 최익현은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하거나 강학을 하면서 다시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6) 상소투쟁과 항일의병투쟁

1904년(고종 41) 최익현은 다시 궁내부특진관과 의정부찬정에 임명되었는데, 4차례에 걸쳐 사직소를 올려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고종의 부름을 받아 상경하여 국난을 극복할 5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고종이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지 않자 최익현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렸다. 최익현은 이 상소를 통해 고종에게 5개조의 방안 수용과 일제로부터의 차관 도입 중단, 국가기강 확립을 요구하였으나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차례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최익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던 고종은 이번에는 최익현에게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를 제수하였다. 최익현은 4번째 상소를 통해 사직의 뜻을 표하면서 자신을 경기관찰사로 임명하는 것은 5개조의 현책 수용 요구를 무마,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으며,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면 일제에 부역하는 매국노부터 단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최익현의 상소가 점차 강경해지고 언론을 통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자, 일제는 최익현의 상소투쟁이 조선인의 항일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로 한다. 이에 일제는 최익현에게 치안 방해 및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 방해라는 혐의를 씌워 체포한 후 한국주차헌병대사령부에 구금하였다. 구금 후 이틀 만에 최익현은 포천 본가로 강제로 옮겨졌으나, 재차 상경하여 다시 상소를 올렸다. 일제는 즉시 현병을 출동시켜 최익현을 체포하여 헌병대사령부에 구금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 이번에는 최익현을 가족이 머물고 있는 충청도 정산(오늘날의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으로 추방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정산에서 전해들은 최익현은 상소를 올려 을사늑약의 폐기와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한 소위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최익현은 같은 뜻을 담은 상소를 10여일 뒤 다시 한 번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상소투쟁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함을 깨달은 최익현은 투쟁의 방식을 전환하기로 결심하고 항일의병투쟁을 계획하였다.

1906년(고종 43) 최익현은 70대의 고령으로 임병찬(林炳贊)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최익현은 먼저 고종에게 ‘의병을 일으켜 역적을 토죄할 것을 건의하는 소(倡義討賊疏)’를 올렸고, 모든 백성의 꺾기를 요구하는 격문인 포고팔도사민(布告八道士民), 그리고 일제에 그들이 저지른 16가지 죄를 규탄하는 기일본정부(寄日本政府)를 발표하고 창의를 선포하였다. 최익현의 의병은 정읍, 순창, 곡성 등 인근 고을을 손쉽게 점령하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남원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남원 수비를 맡은 것이 일본군이 아니라 진위대(鎭衛隊)임을 알게 되었다. 최익현은 수비군과 수차례 교섭하였으나, 해산하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라는 통첩을 받고 동포끼리 살육할 수는 없다 하여 결국 의병을 자진해산하고 체포되었다.

최익현과 의병에 참여한 그의 제자들은 일본의 쓰시마(對馬島)에 유배되어 경비대 내의 감옥에 구금되었다. 이곳에서 일본인이 밥을 주니 일본의 예법을 따르고 머리도 깎으라는 요구에를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투옥 3개월여 만에 풍토병을 얻은 최익현은 한 달 가량 투병하다가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최익현의 시신은 쓰시마에서 부산을 거쳐 정산의 본가로 운구되었는데, 노제로 그를 전송하며 추모하는 이들이 많아 운구를 마치는 데에 보름이 걸렸다.

3. 인물 연보

가. 최익현 연보

1833 경기도 포천군 가범리 출생
1847 성리학의 거두인 화서 이항노의 문인이 됨(14세)
1852 이항노의 소개로 청주 한씨와 결혼(19세)
1855 명경과에 급제. 승문원부정자로 관직 시작함
1868 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한 <시폐사조소>를 올림
1876 개항에 반대해 <병자지부복결소>를 올림
1895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 반대해 <청토역복의제소>를 올림
1905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오적의 처벌을 주장하는 <청토오적소>를 올림
1906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킴
1906 대마도로 끌려가 순국(11월 17일)

4. 교수-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최익현,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의병을 일으킨 유학자		
학습 목표	-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선 의병운동의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경기도의 의병 운동을 최익현의 인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선 양평 의병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학습 내용	- 일제의 국권 침탈 - 항일의병운동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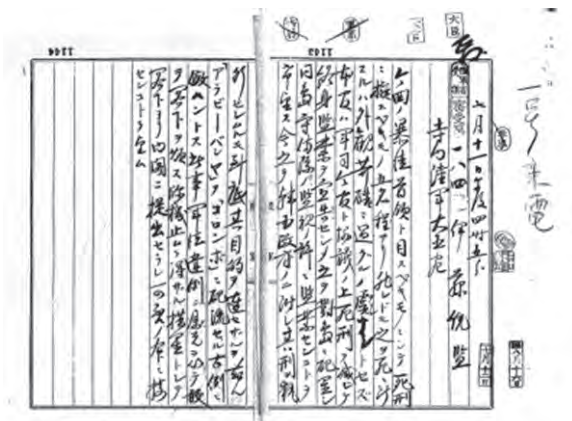
나. 본활동

단 원 명	항일 의병 투쟁의 전개		
학습 목표	1.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선 경기도 의병운동의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경기도의 의병 운동을 최익현 등의 인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3.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선 양평 의병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전시학습 확인(5분) : 전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스피드 퀴즈로 정리		
전 개	1. “대상과의 만남”(10분)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주요 개념을 표시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되돌리기(15분)	교사의 안내로 어려운 개념 확인 및 내용 정리 동영상 함께 보기 (5분 사탐 한국사-조선유생의 자존심, 최익현 https://www.youtube.com/watch?v=IP12yXOnetw - 5분)	
	3. “동료와의 만남” (15분)	‘생각 나누기’와 ‘생각 더하기’를 모둠 친구들과 협의하면서 해결/ 묻고 답하기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5. 모둠 활동 안내

[생각 나누기]

1. 다음 문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육군대신에게 보낸 전보입니다. 이 전보에는 을사의병을 대마도로 끌고 가서 철저히 가두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대마도로 끌려간 최익현은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일제가 의병장들을 대마도로 끌고 간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육군 대장에게 보낸 문서(출처: 독립기념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인들이 최익현의 영향을 계속 받아 항일 운동에 나설 것을 두려워하여 한국인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대마도에 가둔 것이다.

2. 다음 대화를 보고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의 의견이 타당한지 말해보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창현 : 을사의병 당시 최익현 부대를 포위한 군대는 우리 군대였어. 최익현은 의병을 포위한 군대에게 같이 일제에 대해 싸우자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해. 의병을 진압한 우리 군대라니 용서할 수 없어.
지연 : 하지만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병을 진압하라는 명령에 맞설 수는 없었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창현 : 부당한 명령이라면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아무리 명령이라고 해도 같은 민족, 그것도 나라를 위해 일어난 사람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해.
지연 : 1년 후 1907년 일제가 군대를 해산시키자 많은 군인들이 의병활동을 벌이지. 최익현의 의병부대를 진압했던 군인 중에도 나중에 의병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군인이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창현 / 지연)의 의견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둘 중 한 친구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쓴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나중에 의병 활동을 한 사람도 있다.
나는 지연의 의견에 찬성한다. 당시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규율을 가진 부대는 상급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시대였다. 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나중에 의병 활동을 한 사람도 있다.

[생각 더하기]

• 내가 만약 그때 의병장이라면……
1. 다음은 최익현 선생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한 글입니다. 글을 읽고 모둠 별로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게 표현한다.

1) 여러분이 의병장이 되어 경기도의 의병을 모집할 격문을 만들어 봅시다.

2) 의병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목표와 행동 강령입니다.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의병의 행동 강령을 정해 봅시다.

○○○ 의병 부대의 행동 강령	
1. 목표	우리 ○○○부대는 (일제를 우리 땅에서 마지막 한명까지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2. 의병의 임무 세 가지	우리는 왜적과 싸워 침략자를 우리 땅에서 몰아낸다.
	우리는 왜적과 싸울 때 민간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적에게 잡히더라도 우리 의병의 전력을 알려주지 않는다.

3. 의병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얻는 방법	지역에서 가장 인품이 높은 분을 찾아가 일본을 규탄하는 모임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모임자리에서 의병의 장점을 설명하여 의병에 합류하게 한다.
------------------------------	---

6. 교사 참고 자료

가. 채산사⁹⁾(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성사길)

지정구분	도지정문화재
종목 및 지정번호	경기도기념물 제30호
명칭(한자)	채산사 (菴山祠)
유형분류	유적건조물
지 정 일	1976-08-27
소 재 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성사길 101 지도로 보기
시 대	대한제국시대

채산사(菴山祠)는 경기도기념물 제30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성사길 101(가채리 678번지)이다.

이 곳은 항일 투쟁의 선봉장으로 일제에 항거하다 대마도에 유배되어 그 곳에서 서거한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1833~1906)선생과 항일 독립운동가인 염재(念齊) 최면식(崔勉植, 1981~1941)선생의 업적과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사당이다.

최익현 선생의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庵)이다. 철종(哲宗) 6년(1855) 문과에 급제한 후 장령(掌令)·동부승지(同副承旨)·공조참판(工曹參判)·공조판서(工曹判書)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공조판서로 있을 때 대원군(大院君)을 탄핵하여 실각케 한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1905년(광무9) 일본의 강제적인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항거, 전라도 순창에서 의병운동을 일으켰다가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최익현은 대마도로 건너가기 전 부산 앞바다에서 신발에 모래를 채우며 ‘비록 육신은 일본으로 가지만 일본 땅은 밟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유배지에서는 ‘일본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 하여 단식을 한 끝에 세상을 떠나 그의 나라를 위한 절개를 엿 볼 수 있다. 후에 지역의 유림들이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사당을 건립했으나 일제 통치시기인 1927년 일본인에 의해 폐쇄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7년 유림에 의해 다시 중건되었고 1975년에 보수가 이루어졌다.

최면식은 최익현의 손자로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18년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채산사’(https://gjicp.ggcf.kr/archives/artwork/채산사)

후 광복회의 재건을 위하여 힘썼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사당주위는 담장으로 둘러졌으며 입구는 3칸의 솟을삼문으로 꾸몄다. 사당은 이별대의 기단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평면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정면칸은 개방된 퇴칸으로 이루어졌다. 지붕은 정면과 배면 쪽으로만 면이 구성된 맞배지붕이며 처마는 측면의 박공부에 풍판을 달아 목재 마구리의 부식을 방지했다. 전면은 서까래 위에 각 이 진 부연(付椽)을 덧달아 처마를 길게 빼낸 겹처마이고 배면은 서까래로만 이루어진 홑처마이다. 가구는 오량가(五梁架)를 이루고 내부의 중앙에 면암 선생의 위패와 그 옆 배면벽에 길이 2m, 폭 1m의 영정(影幀)이 보존되어 있으나 영정의 시대와 작자는 미상(未詳)이다. 내부 좌측면에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인 최면식(崔勉植：1891~1944)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자료출처：포천시청 /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2』)



채산사 전경(문화재청)

나. 최익현 선생묘(충청남도 예산)¹⁰⁾

최익현의 묘는 본래 1907년에 논산시 노성면의 국도변에 마련했었다. 그러나 참배객이 끊이지 않자 일제의 명령으로 1910년에 오지인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로 이장되었다.

최익현 선생의 묘 좌측으로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방형의 화강석재 대좌와 오석의 비신, 옥개형의 화강석재 이수로 구성되어 있다. 묘의 앞에는 석상이 놓여 있으며 묘역의 앞 좌우로는 높이 1m정도의 석주를 세우고 있다. 또한 묘의 입구에는 1973년 4월 9일 예산 모현사업회(慕顯事業會)에서 건립한 최익현의 춘추대의비가 서 있다. 이 춘추대의비는 화강석재의 대좌와 이수, 오석의 비신 등 3매의 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좌는 방형의 지대석 위에 두 단이 올려져 있고, 이 대좌 위에 ‘勉菴崔益鉉先生春秋大義碑, 李瑄根 撰, 金基昇 書(면암최익현선생춘추대의비이선근찬김기승서)’라는 각서가 전면에 새겨진 비신이 올려져 있다. 비신의 위에는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이수가 올려져 있다.

대의비의 주변은 잔디를 깔고 철책으로 보호시설을 해서 깨끗이 보호되고 있고 뒤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조성

10)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최익현선생묘

되어 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최익현 선생묘)



최익현 선생묘(한국학중앙연구원)

라. 최익현 관련 사진 자료



최익현 초상(채용신 작)



최익현순국비(쓰시마 부산사무소)

6.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가. 을미사변¹¹⁾

갑오개혁을 통하여 조선 내정에 관여하게 된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 박영효(朴泳孝)·김홍집(金弘集)을 중심으로 한 친일내각을 만들어 조선 침략을 위한 영향력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이때 프랑스·러시아·독일 등 3국은 일본의 대륙침략 저지를 위해,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한 랴오둥반도(遼東半島)를 청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 이른바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세력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일본의 강압하에 내정개혁을 추진한 조선정부는, 러시아공사 K.베베르와 제휴하고 친일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는데 명성황후가 이를 주도하였다. 이에 친일세력인 박영효는 1895년 7월 명성황후시해 음모를 계획하였다가 발각되어 일본으로 달아나고 친일파는 세력을 상실하였다. 이미 8월에 민영환(閔泳煥)을 주미전권공사(駐美全權公使)로 등용한 동시에, 친일계인 어윤중(魚允中)·김가진(金嘉鎭) 등을 면직시키고 이범진(李範晉)·이완용(李完用) 등의 친러파를 기용하여, 제3차 김홍집내각이 성립되어, 친미·친러세력이 우세하였다. 게다가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조선정부에 약속한 증여금 300만 원을 일본정부가 제공하지 않자, 조선정계에서는 배일세력이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노우에 대신 무인 출신 미우라를 주한일본공사로 파견하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의 강압에 따라 제정한 신제도를 구제도로 복구하고, 일본인 교관이 훈련시킨 2개 대대의 훈련대도 해산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우라는 명성황후를 시해할 계획을 세우고, 1895년 10월 2일 하수인으로서 한성신보사(韓城新報社)에 있는 낭인(浪人)을 이용하고자 사장 아다치(安達)를 공사관으로 불러 6,000원의 거사자금을 주고 명성황후 시해의 전위대로 삼아, 공덕리(孔德里) 아소정(我笑亭)에 있는 흥선대원군을 궁중으로 호위하는 일을 담당시켰다. 그 외 일본군수비대와 일본인 거류지 담당경찰관 및 친일조선인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훈련대의 우범선(禹範善)·이두황(李斗璜)·이진호(李軫鎬) 등 3대대장과 전 군부협판(軍部協辦) 이주회(李周會)를 포섭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군부대신 안경수(安駟壽)를 일본공사관에 보내어 훈련대해산과무장해제, 민영준(閔泳駿)의 궁내부대신 임명을 통고하였다. 일본은 상황이 급변함을 직감하고 명성황후 시해계획을 10월 8일 새벽으로 결행하였다. 일본인 자객들은 서대문을 거쳐 우범선·이두황이 지휘한 조선 훈련대와 합류하여 광화문을 통과하였다.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洪啓薰)과 군부대신 안경수가 1개 중대의 병력으로, 이들의 대궐 침범을 제지하다 사망하였다. 흉도(兇徒)들은 궁내부대신 이경직(李耕植)과 홍계훈을 살해한 다음, 이어서 왕비의 침실인 옥호루(玉壺樓)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사른 뒤에 묻었다.

제4차 김홍집내각을 수립하여 친일파인 유길준(兪吉濬)·서광범(徐光範)·정병하(鄭秉夏)·김종한·권형진(權滢鎭) 등이 내각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는 고종·황태자 및 미국인 교관 다이, 러시아인 기사 사바틴, 그외 많은 조선인이 있어 진상을 낱낱이 목격하여, 사건의 전말이 외부에 알려졌다. 조선 국민의 대일 감

11) 두산백과, '을미사변'.

정은 극도로 나빠져 제천에서 을미의병이 일어났으며 국제적으로도 거센 비난이 일어났다. 이에 구미열강이 강경한 태도로 일본인의 사건 관여사실을 주장하고 나서자, 일본은 사건 처리 방안으로서 미우라 공사를 해임하고, 고무라[小村]를 관리공사(辦理公使)로 임명하였다. 한편 미우라 등 관계자 48명을 히로시마[廣島] 감옥에 구치하고, 형식적으로 관련혐의자에 대한 취조를 하였으며,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석방시켰다. 을미사변은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의 계기가 되었고, 이에 친일 내각은 실각하고 김홍집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친일파로 몰려 군중들에게 피살되었다. 조선은 러시아의 보호 속에서 자주권이 훼손되고 내정간섭을 받게되었으며, 내각은 친러파가 장악하면서 일본은 식민지화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

나. 을사늑약

1905년(광무 9)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에서는 영국,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는 미국, 러·일전쟁 강화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각각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음으로써 한국 보호국화 계획은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곧 보호조약안을 확정 짓고(1905. 10. 27), 그것이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없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에 대해 보호권의 확립을 일방적으로 통고할 것」을 결정, 군사력을 사용하여 보호조약 체결을 강행할 것을 확실히 했다.

1905년 11월 9일 한국에 온 특명전권 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하야시(林權助) 일본공사와 하세가와(長川好道) 주한 일군사령관을 앞세우고 고종과 정부각료들을 협박, 조약체결을 강요했다. 이때 고종은 「정부에서 협상 초처하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며, 각료 중 참정대신 한규설(韓圭畤)은 무조건 불가하다고 맞섰고, 이에 동조한 각료는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이며, 찬성한 자는 학부대신 이완용, 법무대신 이하영(李夏榮),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이었는데, 이들을 <을사5적>이라 한다. 을사5적의 도움으로 강제통과된 을사조약의 내용은 외교권의 접수, 통감부의 설치 등으로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교섭은 끊어지고 통감정치가 실시되었다.

조약체결의 소식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이 신문사 사장인 장지연(張志淵)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사설로 전국에 알려지자, 조약체결에 대한 반대운동과 반일항쟁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시종무관장 민영환을 비롯하여 특진관 조병세, 법무주사 송병찬, 전참정 홍만식, 참찬 이상상, 주영공사 이한웅, 학부주사 이상철, 병정(兵丁) 전봉학·윤두병·송병선 등의 중신·지사들이 자결하고, 충청도에서는 전참관 민종식, 전라도에서는 전참찬 최익현, 경상도에서는 신돌석, 강원도에서는 유인석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을사5적인 이근택·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개인적인 테러행위도 일어났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이토를 초대통감으로 임명하고 서울에 통감부를 두었다(1906.2. 1). 통감부는 원래 한국의 외교사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됐으나, 실제로는 경무부·농상공부·총무부 등을 두어 내정 전체를 관장한 뒷날의 총독부와 다를 것이 없었다.

(한국근현대사사전, 을사조약 [乙巳條約], 2005, 가람기획)

8. 참고 문헌

[도서 및 논문]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박민영(2009), 『한국독립운동의역사 10』, 한말 중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박석무(2008), 「의병장 최익현의 기개와 애국심 上」,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 39, 경향신문.

박석무(2008), 「의병장 최익현의 기개와 애국심 下」,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 39, 경향신문.

정교 저, 국사편찬위원회 역(1957). 『대한계년사』, 하.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10), 『국내 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 7 전라북도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홍영기(2009),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1』, 한말 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근현대사사전』, 을사조약[乙巳條約] 편. 2005. 가람기획.

[사이트]

네이버 캐스트, 최익현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8184&cid=59015&categoryId=590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여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yeouju.go.kr/culture/content/>.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

[이미지 출처]

‘무성서원 명륜당’, 독립기념관, www.i815.or.kr/.

‘아라비 파샤 사진’, 위키백과, Ahmed_Orabi_1882.

‘양평의 의병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이토 히로부미 문서 사진’, 독립기념관, www.i815.or.kr/.



3.1 운동을 전개한 경기도 사람들, 이정근

1. 수업 개요

이번 시간에는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서 들고 일어난 경기도의 3.1운동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교과서를 비롯한 역사책에는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실려있다. 그렇다면 역사책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 특히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3.1운동의 경우 지역마다 그 지역의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3.1운동이 이전의 운동과 다른 점은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제의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특별한 개인보다 평범한 다수의 올바른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3.1운동이 주는 의미를 알아보자.

2. 3.1운동을 지역에서 주도한 경기도 인물에 대하여

가. 이유석(1886~1950)¹²⁾ 독립운동가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에 걸쳐 안성군 원곡면(元谷面)·양성면(陽城面)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홍창섭(洪昌燮)·이근수(李根洙)·이덕순(李德順)·최은식(崔殷植)·이희용(李熙龍) 등과 사전에 계획하고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4월 1일 오후 8시경 외가천리(外加川里)에 있던 원곡면 사무소 앞에서 1천여 명의 만세시위군중들과 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들고 일본인 면장을 선두로 끌어내어 양성면 동항리(東恒里)로 향하였다. 도중에 원곡면과 양성면을 경계짓는 고개에 이르자, 그는 선두에 나아가 오늘 저녁에 아무런 약속도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하늘의 도움이니 양성 경찰주재소로 가서 일본인 순사도 끌어내어 함께 독립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id=5973&ipp=10000)

이날 밤 9시 30분경 양성면민들로 구성된 수백명의 만세시위대가 경찰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해산하여 돌아가던 길에, 이유석 등이 지휘하는 원곡면민의 만세시위대와 합세하여 오후 10시경 재차 주재소로 쇄도하였다. 이 때 그는 선두에 서서 주재소에 투석하고 방화하였으며 양성 우편소와 일본인 외리여수(外里與手)가 경영하는 잡화점, 고리대금업을 하던 일본인 용수지(隆秀知)의 집, 양성면 사무소를 계속 습격하여 건물과 기물을 파괴하였다. 이후 일본 경찰의 검거대상이 되었으나, 이유로(李裕魯)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계속 피신생활을 함으로써 옥고를 치르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맞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나. 이덕순(1879~1966)¹³⁾ 독립운동가

경기도 평택(平澤)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최은식(崔殷植)·홍창섭(洪昌燮)·이유석(李裕奭) 등이 주동이 되어 전개한, 양성면(陽城面)·원곡면(元谷面) 일대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독립만세시위는 처음에는 양성면과 원곡면이 별도로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날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외가천리(外加川里)에 있는 원곡면 사무소에 모여서 만세시위를 벌이고, 면장을 선두로 내세워 횃불을 들고 양성면으로 행진하였다.

원곡면과 양성면을 가로지르는 고개에 이르러 이유석·최은식·홍창섭 등이 번갈아 가며 연설을 하고, 양성면 내에 있는 주재소·우편소·면사무소를 파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이 양성에 도착할 무렵, 동항리(東恒里)에 있는 양성 경찰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 해산하여 돌아가던, 양성면민들로 구성된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합류하게 되어, 시위군중은 2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오후 10시경 경찰 주재소 앞에 도착하자,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와 숙직실을 불태워 버렸다. 다시 양성 우편소로 가서 그 곳의 기물과 건물을 파괴·방화하고, 일본인 외리여수(外里與手)가 경영하는 잡화점과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용수지(隆秀知)의 집을 파괴하였다. 다음은 양성면 사무소로 가서 서류와 기물을 파괴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치고 해산하였다. 원곡면으로 되돌아 온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원곡면 사무소의 건물을 파괴·방화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다. 이정근(1856~1919)¹⁴⁾ 독립운동가

터졌구나 터졌구나 독립성이 터졌구나

15년을 참고 참다 이제야 터졌구나

13)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이덕순'(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id=5386&ipp=10000)

14) 오마이뉴스, '만세운동의 선구자, 탄운 이정근', 2014.04.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2279)

피도대한 뼈도대한 살아대한 죽어대한
잊지마라 잊지마라

이는 탄운 이정근(1856. 2.10~1919. 4. 5) 선생이 지은 노래로 화성시 장집리에 있는 유적지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 4월 15일은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제암리교회 학살사건이 발생한 날로,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집리에는 독립투사 탄운 이정근 선생의 유적지가 있어 다녀왔다.

“1919년 3월 31일 낮 12시 정각을 기해 저희가 가장 존경하는 탄운 이정근 스승님의 지엄하신 지시를 받아 화성군 7개면에 거주하는 저희 800여 제자들은 머리에 흰갓을 쓰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남녀노유 할 것 없이 구름 같이 모인 군중과 합세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온천지가 떠나갈 듯이 부르던 일이 어제일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52년이 지난 아득한 옛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나의 나이는 19세의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승님을 모시던 제자 800여 명 중 제가 가장 연소자였습니다.”

1971년 고 김영태 선생은 탄운 선생의 추모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은 통솔력이 풍부하신 분이셨습니다. 한때 구한말 정부 궁내부 요직까지 벼슬길에 오르셨으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을사늑약에 큰 충격과 의분을 느낀 나머지 벼슬자리를 초개와 같이 버리시고 향리로 낙향하시어 부근 각처로 순회하시며 서당을 세워 문맹퇴치 운동에 전력하는 한편 조국 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화성군 산하 7개면을 우선 골라 800여 명의 제자를 길러내셨습니다.”

김영태 선생의 스승 탄운에 대한 이야기는 <탄운 이정근 의사 전기: 灘雲 李正根 義士 傳記>에 상세히 나와 있다. 1863년 2월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가재리에서 이연규 옹의 2남으로 태어난 선생은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한문을 배웠다. 17세에 사서오경을 섭렵할 정도로 학문이 깊었으며 33세 때는 대한제국 궁내부 주사직에 임명되었으나 그해가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의 해다. 치욕적인 을사늑약을 지켜보면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팔탄, 우정, 장안, 정남, 봉담, 남양 등 7개면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에 들어갔다.

당시 탄운 선생은 ‘왜왕 3년(倭王)’이라는 구호를 친히 만들어 유포했는데 이는 야만적인 강도 일본이 천벌을 받아 3년이 못 가서 망할 것이란 뜻이었다. 이후 1919년 3월 31일 화성군 향남면 발안(華城郡鄕南面發安) 장날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는 데 그 한가운데 탄운 선생이 있었다.

탄운 선생은 이날 오후 발안 장터에서 안상용(安相容)·안진순(安珍淳)·안봉순(安鳳淳)·김덕용(金德用)·강태성(姜太成) 등과 함께 1천여 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만세운동을 진두지휘 했다.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부상자가 발생하자, 탄운 선생은 격노한 시위군중과 함께 일경들

에게 투석으로 대항하였으며 일본인 순사부장을 해치웠다. 그러나 이날 일본 경찰이 휘두른 칼에 찔려 56세로 그 자리에서 순국하는 비통한 일이 일어났다. 이후 선생의 강인한 독립정신과 온후한 인품을 기리고자 하는 제자들의 열망으로 1971년 3월 31일 선생이 순국한 지 52년 되는 해에 창의탑을 장집리 241-6번지에 세웠다.

한편 탄운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탄운 이정근 의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장학회를 설립, 화성시 6개읍면(향남, 팔탄, 양감, 우정, 장안, 봉담)의 모범대학생을 뽑아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탄운 이정근 의사는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탄운 선생의 창의비가 서있는 작은 추모 공원에는 말끔히 잔디가 깔려져 있었고 울타리 쳐진 뜰 안에는 붉은 자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릴 듯 차올랐다. 올해는 탄운 선생 가신 지 95주년이 되는 해다.

3·1만세운동은 우리 겨레에게 잊을 수 없는 민족적 의거 날임과 동시에 화성시 발안 만세운동의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하던 탄운 이정근의사가 순국한 해이기도 하다. 붉은 자목련을 뒤로 하는 발걸음에는 선생의 붉게 타오르던 애국정신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졌다.

3. 교수-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이정근, 3.1운동을 전개한 경기도 사람들		
학습 목표	-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선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경기도의 3.1운동을 안성시과 화성시 등 다양한 지역의 인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는 노력이 지역과 국가, 그리고 시대를 넘어 인류 공통의 것임을 느낄 수 있다.		
학습 내용	- 일제의 무단 통치 - 거국적인 3.1운동의 전개		

나. 본활동

단 원 명	3·1운동의 전개		
학습 목표	1.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선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경기도의 3.1운동을 안성시와 화성시 등 다양한 지역의 인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3.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는 노력이 지역과 국가, 그리고 시대를 넘어 인류 공통의 것임을 느낄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전시학습 확인(5분) : 전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스피드 퀴즈로 정리		
전 개	1. “대상과의 만남”(10분)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체제공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되돌리기(15분)	교사의 안내로 어려운 개념 확인 및 내용 정리 동영상 함께 보기 (YBC 뉴스-안성 4.1만세항쟁기념 ‘2일 간의 해방’ 기념식 https://www.youtube.com/watch?v=yux4HFv7B_4 - 3분) (EBS 역사채널e - 제암리 1919)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A0%9C%EC%95%94%EB%A6%AC+%ED%95%99%EC%82%B4%EC%82%AC%EA%B1%B4 - 6분)	
	3. “동료와의 만남”(15분)	‘생각나누기’와 ‘생각더하기’를 모둠 친구들과 협의하면서 해결/ 묻고 답하기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4. 모둠 활동 안내

[생각 나누기]

1. 다음은 발안의 전통시장의 입구 모습입니다. 이 시장의 이름이 ‘만세시장’인 이유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3월 31일 발안 장터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를 기념하여 장터의 이름을 발안만세시장으로 부르고 있다.

2. 다음 사진은 제암리 3.1운동 기념관 앞에 서있는 3.1운동 순국기념탑입니다. 탑의 뒤편에는 29개의 기둥이 탑을 감싸고 나란히 서있습니다. 이 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제의 학살로 인해 돌아가신 제암리 주민 23명과 옆 마을 고주리 주민 6명을 기리기 위해 희생자의 수만큼 기둥을 세운 것이다.

[생각 더하기]

- 나는 무엇일까요?

1. 다음 ○X문제를 풀어봅시다.

번	문 제	OX
1	일제는 우리 민족을 30년간 식민 통치하였다.	X
2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순종황제의 죽음이 있었다.	X
3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다.	O
4	일본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하였다.	O
5	학생들이 처음 독립만세를 외친 곳은 백골공원이다.	X
6	농촌에서는 만세시위 장소를 장날로 정했다.	O
7	수원 화성 화홍문에서 3.1일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O
8	3.1운동은 일제의 문화통치에 맞서서 일어난 것이다.	X
9	안성의 원곡면에서는 4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O
10	안성의 원곡면과 양성면의 만세시위 참가자는 2,000여 명이었다.	O
11	일제는 안성의 만세시위 참가자들의 다리를 묶어 끌고 갔다.	X
12	화성시 발안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분은 이정근 선생이다.	O
13	이정근은 화성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사업을 벌였다.	O
14	일본 경찰의 칼에 찔려 숨을 거두었을 때 이정근 선생은 32세였다.	X
15	화성의 제암리는 일명 '장수바위'라고 불렸다.	X
16	제암리 학살사건을 알린 선교사는 H. 할버트이다.	X
17	일제는 제암리 주민 23명과 고주리 주민 6명을 학살했다.	O
18	일제는 제암리 주민들에게 심하게 매질한 것을 사과했다.	X
19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O
20	경기도에서는 전국 13개 도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O

2. 1번 문제에서 O에 해당하는 번호만 찾아 색칠하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코끼리)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5	5	5	5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5	5	5	5	
1	1	10	10	10	10	10	10	10	1	1	2	2	2	2	2	2	2	2	2	5	5	5	5	
1	10	10	15	15	15	15	15	10	10	10	2	2	2	2	2	2	2	2	2	5	5	5	5	
1	10	15	15	15	15	15	15	15	15	10	2	2	2	2	2	2	2	2	2	5	5	5	5	
1	10	15	15	15	15	15	15	15	15	10	12	12	12	12	12	12	12	12	12	5	5	5	5	
1	10	15	15	15	15	15	15	15	15	17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5	5	5	5
13	10	15	15	3	3	15	15	15	15	17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7	5
13	15	15	15	3	3	15	15	15	15	17	14	18	18	18	18	18	18	18	14	14	14	11	7	5
13	16	16	16	16	16	16	16	16	16	17	14	18	18	18	18	18	18	18	14	14	14	11	7	5
13	16	16	16	16	16	16	16	16	16	17	14	18	18	18	18	18	18	18	14	14	14	11	7	7
13	16	16	16	16	16	16	16	16	16	17	14	18	18	18	18	18	18	18	14	14	14	11	11	7
13	16	16	19	16	16	17	17	17	17	17	14	18	18	18	18	18	18	18	14	14	14	11	11	7
13	16	16	19	16	16	16	14	14	14	14	14	18	18	18	18	18	18	18	14	14	14	11	11	11
13	16	16	19	16	16	16	14	14	14	14	14	18	18	18	18	18	18	18	14	14	14	11	7	11
13	16	16	19	19	16	16	14	14	14	14	14	18	18	18	18	18	18	18	14	14	14	11	7	7
13	16	16	19	19	16	16	14	14	14	14	14	18	18	18	18	18	18	18	14	14	14	11	7	7
13	13	16	16	19	19	19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1	7	11
6	13	16	16	16	16	19	14	14	14	4	14	14	14	14	14	9	14	14	14	14	14	11	7	11
6	13	19	19	16	16	19	14	14	14	4	14	14	14	14	14	9	14	14	14	14	14	11	7	11
6	6	6	19	19	19	19	14	14	14	4	14	14	14	14	14	9	14	14	14	14	14	11	7	11
6	6	6	6	6	4	14	14	14	14	4	14	14	14	14	14	9	14	14	14	14	14	11	7	11
6	6	6	6	6	4	8	8	8	8	4	9	9	9	9	9	9	8	8	8	8	8	8	7	11
6	6	6	6	6	4	8	8	8	8	4	8	8	8	8	8	20	8	8	8	8	8	8	7	11
6	6	6	6	6	4	4	4	4	4	4	8	8	8	8	8	20	20	20	20	20	20	20	7	11

5. 교사 참고 자료

가. 안성 3.1운동 기념관¹⁵⁾(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개관일	2001-11-17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868(만세고개)

15) 안성 3.1운동기념관 홈페이지(<http://41.anseong.go.kr/information/sub02.php>)



안성에서 일어났던 원곡, 양성 독립운동은 평안북도 의주군, 황해도 수안군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이 재판에도 원용될 만큼 격렬했던 3.1운동 3대 실력항쟁지로서, 그중에서도 최고로 꼽힌다. 특히 다른 지역과 연결,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전 주민이 참가했던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두고 있다.

3.1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안성지역의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 지역의 성역화 사업으로 안성3.1운동기념관이 2001년 11월 17일 건립되었다.

이 기념관은 후손과 후학들에게 국가와 민족과 동포가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자랑스런 선열들을 민족의 긍지로 여기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스스로 삶의 표본으로 세우는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당주위는 담장으로 둘러졌으며 입구는 3칸의 솟을삼문으로 꾸몄다. 사당은 이별대의 기단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평면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정면칸은 개방된 퇴칸으로 이루어졌다. 지붕은 정면과 배면 쪽으로만 면이 구성된 맞배지붕이며 처마는 측면의 박공부에 풍판을 달아 목재 마구리의 부식을 방지했다. 전면은 서까래 위에 각이 진 부연(付椽)을 덧달아 처마를 길게 빼낸 겹처마이고 배면은 서까래로만 이루어진 홑처마이다. 가구는 오량가(五梁架)를 이루고 내부의 중앙에 면암 선생의 위패와 그 옆 배면벽에 길이 2m, 폭 1m의 영정(影幀)이 보존되어 있으나 영정의 시대와 작자는 미상(未詳)이다. 내부 좌측면에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인 최면식(崔勉植 : 1891~1944)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자료출처 : 안성 3.1운동기념관 홈페이지)

3.1운동기념관



1910년대에 펼쳐진 안성지역의 "만세운동"과 관련한 유물과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펼쳐진 시위운동 및 역사적인 자료를 실물 전시, 모형, 체험관과 영상물 등을 통해서 관람할 수 있다.



광복사(순국선열 사당)

3.1운동 당시 안성지역에서 순국하거나 고문을 당하신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현재 이곳에는 순국선열 25위와 애국지사 195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만세고개 기념비

양성면, 원곡면의 시위대가 독립만세를 외쳤던 곳으로 원래는 성은고개였으나 독립정신과 역사를 기리기 위하여 1991년 건설부 고시에 의거 "만세고개"로 개명하고, 이 만세고개 기념비를 건립



3.1운동기념탑

원곡, 양성 3.1운동의 가치와 역사적 항쟁사를 표현한 기념탑. 태극의 4괘는 건, 곤, 감, 리로 구성되며 우리 민족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태극기는 국권을 회복하고 산화한 선열을 위한 위장이며 탑 측면의 부조는 양민의 학살, 주재소 및 통신시설 파괴 등의 의거, 새시대의 개척, 3.1운동의 역사적 항쟁사가 구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궁화동산

3.1운동기념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라꽃인 무궁화를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전체적인 모습은 햇불의 모양을 하고 있다.



안성 3·1운동기념관 시설

나.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및 3.1운동기념관(경기도 화성시 향남읍)¹⁶⁾

종 목	사적 제299호
명 칭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華城 堤岩里 3·1運動 殉國 遺蹟)
분 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역사사건/ 역사사건
수량/면적	607㎡
지정(등록)일	1982.12.21
소 재 지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4번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수원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조용한 농촌마을로서 일명 두령바위라고도 불린다.¹⁷⁾

3·1운동 때 일제가 독립운동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탄압한 학살현장이다. 3월 10일경에 안종린·안정옥 등이 서울에서 독립선언문과 격문을 입수하고, 3월 25일에 뒷산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외쳤다. 그후 4월 5일에 발안 장날에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 청년들과 시장에 모인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고 시가행진을 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이 무차별 사격과 매질을 가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격분한 군중들은 돌을 던져 경찰부장을 죽였다.

4월 15일 일본군은 제암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15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교회당으로 모이게 한 후, 출입문과 창문을 밖에서 잠그고 일제히 집중사격을 했다. 또 교회당 밖으로 시체를 끌어다 모아 다시 그 위에 짚을 쌓아 불을 질렀다. 이때 무참히 살해된 주민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23명이었다. 일본군은 다시 마을을 다니며 민가에 불을 지르고, 이웃마을 고주리에서는 주민들을 마구 칼로 찔러 죽였다.

이 사건은 죄 없는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일본이 저지른 잔악행위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1982년 제암리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인 전동례의 증언으로 이 지역을 발굴 조사하였다. 그 결과 23위의 유해와 희생자들의 조끼단추, 동전, 못, 병들이 함께 출토되어 이곳에 표석을 세우고 합동장례식을 거행하였다.

불탄 예배당 터에는 순국기념탑을 세우고, 국·내외 관계 자료를 모아 기념관에 전시해 국민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⁸⁾

16) 문화재청,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17)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18) 문화재청,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이용 가능 시설

* 기념관

- 1) 전시장 - 키오스크(전자관람시스템)
- 2) 시청각실 - 좌석수 30인
- 3) 제1전시관 - 제암리에서 일어난 3.1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 전시
- 4) 제2전시관 - 경기도와 전국의 3.1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 전시

* 3·1 정신교육관

화성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동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시청각실과 기념관 관람객이 한 복을 입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삼창을 재현함으로써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역사의 신교육장

* 23인 상징조각물 / 23인 순국묘지 / 3·1 운동 순국기념탑 / 제암교회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기념관 내 23명의 희생자 기념탑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탑

다. 화성 발안 만세 시장¹⁹⁾

현재 주소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37
-------	--------------------

100년의 전통을 가진 만세시장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재래시장이다. 다른 재래시장에 비해 면적은 다소 협소한 편이지만 경기도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5일장이 열리는 곳으로 장날이 되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뿐만 아니라 전통 장의 풍경을 구경하려는 관광객들로 시장 전체가 북적거린다고 한다.

사실 만세시장 초입에 들어서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고적한 옛 전통시장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생각 밖으로 현대적인 건물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식당과 가게들 때문이다.

요즘 어딜가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는 곳이 없지만 이 정도로 관련 가게들이 밀집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수요가 꽤 많은 듯 했다. 나중에 시장 분들에게 들어보니 만세시장에서 일하는 인력 중에 외국인 비중이 30%쯤 된다고 한다. 전통시장과 다문화라니 약간 뜻 밖이었지만 다시 한 번 다문화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외국인들과 그들을 위한 가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유의 5일장이라는 전통을 이어가는 시골장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혼재하는 곳이 바로 발안 만세시장이다. 시장은 크게 만세동락, 동가발상, 그리고 세세만년으로 이름붙여진 세개의 거리로 구분되어지는데 애국 애족 애향이라는 만세시장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느껴진다. 사실 만세시장은 슬픈 우리의 역사가 서린 장터이기도 합니다. 시장 이름이 특이하게도 '만세'라 이름 붙여진 것은 이곳이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1919년 4월 5일 발안만세시장 장날에 부근 향남면과 팔탄면 주민 천여명이 장에 모여서 만세를 외치고 시가지

를 행진하였다. 이때 일제의 무차별 사격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줄을 던지며 저항하면서 일본인 경찰부장이 등에 맞아 사망을 한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일제의 보복이 시작되면서 제암리 학살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발안시장 옆을 흐르는 개천 부지와 발안파출소 앞 삼거리가 그 때의 현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파출소 옆으로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이 나비로 승화되는 그림을 비롯하여 다양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골목이 나옵니다. 유독 나비와 푸른색을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다. 그렇게 한발씩 시장 내부로 들어설 수록 초입의 당황스러운 기분이 잦아들면서 전통개래시장에 걸맞는 시골냄새에서 내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갖가지 모습들과 만나게 된다.

(자료출처: 경기관광포털 <https://ggtour.or.kr/blog/2014/10/24/>)



발안 만세시장 입구의 표지판

19) 경기관광포털(<https://ggtour.or.kr/blog/2014/10/24/>)

라. 경기도의 3.1운동 관련 인물 등 사진 자료



탄운 이정근의사 영정(기념사업회 제공)



이정근 노래비(오마이뉴스 제공)



제암리 순국선열 묘(화성시 공식블로그)

6.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가. 스코필드²⁰⁾(Frank William Schofield, 石虎弼, 1889~1970)

스코필드는 1919년 3월 1일 우리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일으켰을 때, 이 거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거사에 대해서 통보받고 협력을 요청받았던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거사 하루 전날인 2월 28일 저녁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던 이갑성(李甲成)이 스코필드를 찾아와 독립선언문을 보여주며, 다음 날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 독립선언문의 사본을 영어로 번역하여 최대한 빨리 미국 백악관에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3월 1일 오전에도 그를 다시 찾아와 그날 오후에 파고다공원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있을 것인데 그곳에 오후 2시까지 와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 스코필드는 기꺼이 사진기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찾아가 만세시위현장의 사진을 찍어 3·1운동의 실상을 증거 사진과 함께 해외에 알렸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3·1운동 초기의 몇 안 되는 사진들은 모두 그가 찍은 것이다. 스코필드는 3·1운동이 일어나자 한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며, 일제의 비인도적 한국인 탄압에 맞서 일본인 고관들을 찾아가 항의하고, 언론에 투고하여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스코필드는 1889년 3월 15일 영국 워릭셔(Warwickshire) 럭비(Rugby)에서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자라 고등학교 과정까지 영국에서 마치고, 농장 노동자로 일했다. 1907년 홀로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하여 농장에서 일하면서 토론토대학교 온타리오(Ontario) 수의과 대학에 들어가 세균학을 전공했다. 1911년 그 대학에서 세균학 박사학위를 받고, 1913년 피아노를 전공한 앨리스(Alice)와 결혼했다. 1914년부터 모교에서 세균학을 강의했다.

그러던 스코필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16년 11월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로서 부인과 함께 내한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 강의를 맡게 되면서부터였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 애비슨(O. R. Avison)의 초청과 권고로 한국에 선교사로 온 것이다. 스코필드는 그 때부터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배하에 있던 한국인을 마음으로부터 동정하고, 사랑하였다.

스코필드는 3·1운동 첫날부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1919년 4월 15일에 일어난 제암리교회 방화 학살 사건 현장에도 몸소 찾아가 제암리와 수춘리에서 있었던 일제의 만행에 관한 보고서를 남겼다.

수춘리는 3월 말 4월 초 수원지역(현재 화성지역) 만세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4월 6일 새벽에 마을에 들어와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불을 끄려는 사람들을 총칼로 제지하여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제암리는 발안 장날 만세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4월 15일 오후 일본 군경이 마을에 들어가 15세 이상 남자를 예배당에 모으고, 총을 쏘고 불을 질러 마을 전체를 불태워 부녀자 2명을 포함한 23명을 학살하고 이웃 고주리에

20)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허위'

서 천도교인 6명을 더 총살한 사건이다.

4월 17일 제암리교회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 날인 18일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와 팔이 불편한 몸으로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9시 열차편으로 수원까지 가서 다시 자전거로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사진을 찍고 조사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수춘리도 방문하여 부상자들을 도와주었다. 이 때 스코필드가 작성한 「제암리의 대학살(The Massacre of Chai-Amm-Ni)」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되던 영자신문 『상하이 가제트(The Shanghai Gazette)』 1919년 5월 27일자에 서울 주재 익명의 특별통신원(Special Correspondent)이 4월 25일 보내온 기사로 실렸다. 같은 무렵 작성한 「수춘 만행 보고서(Report of the Su-chon Atrocities)」는 비밀리에 해외로 보내져 미국에서 발행되던 장로회 기관지 『Presbyterian Witness』 1919년 7월 26일자에 실렸다.

1919년 5월 총독부 기관지나 다름없는 영자신문 서울프레스가 서대문형무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도하자, 스코필드는 이를 비판하고 직접 서대문형무소를 찾아가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옥고를 치르고 있던 노경순을 면회하였다. 그리고 감옥 형편을 살피기 위해 형무소 당국에 강청하여 노경순이 수감되어 있던 여자감방 8호실까지 돌아보고 함께 수감되어 있던 유관순, 어윤희 등을 만나 위로하였다. 스코필드가 총독부 고위 당국자를 직접 찾아가 감옥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고문과 비인도적 만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도 바로 이 때부터였다.

그 후에도 일제의 비인도적 만행들을 조사하여 영국의 성서공회 총무 리슨(Ritson)을 거쳐 토론토의 캐나다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 암스트롱(A. E. Armstrong) 목사에게 보냈다. 이것은 다시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에 보내져 거기서 1919년 7월에 발행한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에 증거자료로 실렸다.

스코필드가 찍은 사진 필름은 상해 밀사 정환범(鄭桓範)을 통해 상해임시정부에도 전해져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도 일부가 실리고, 영문 사진첩 『한국 독립운동(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1919)에 실렸다. 특히, 스코필드가 찍은 태형 피해자 사진을 비롯한 일제의 만행 피해자 사진은 서울주재 미국총영사 베르그홀츠(Leo Bergholz)에게도 전해져 1919년 7월 17일자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첨부되었다.

스코필드는 총독부나 일제의 고관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찾아가 일제 군경의 비인도적 만행을 규탄 항의하고, 개혁을 요구하였다. 『재팬 애드버타이저』 1920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연재되었던 「한국에서의 개혁」은 마침 국내에서 창간된 동아일보 기자가 번역하여 『동아일보』 1920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조선통치개량에 대한 외국인의 관찰」이라는 칼럼으로 연재하였다. 스코필드가 일제의 한국에서의 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재팬 애드버타이저』에 연재하자, 한국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친일적 선교사 헤론 스미스(Rev. Frank Herron Smith)가 스코필드를 비판하고 일제를 옹호하는 논쟁적인 글을 같은 신문에 발표하였다. 그 때 마침 스코필드는 귀국길에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을 때였으므로, 그 기사를 읽고 즉시 반론을 써서 「한국 : 프랭크 헤론 스미스 목사(Rev. Frank Herron Smith)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재팬 애드버타이저』에 기고하여 1920년 4월 10일자에 실렸다. 이것도 동아일보에서 번역하여 1920년 5월 6, 7일자에 실었다.

스코필드는 3·1운동의 산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3·1정신의 전도자였다. 한국에서 거의 해마다 3·1절 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언론과 잡지에 3·1운동을 회고하고 3·1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을 것을 권고하는 글을 기고하

였다. 1963년 3·1절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1919년 3월 1일과 1963년 3월 1일」, 1966년 『The Feel of Korea』에 실은 「1919년 3월 1일, 삼일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69년 3·1절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하나로 뭉친 독립만세」와 『중앙일보』에 기고한 「3·1운동은 한국 정신의 상징」은 모두 그러한 글들이다.

스코필드는 1960년대 후반에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즈』의 “현대사조(Thoughts of The Times)” 칼럼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종교와 도덕, 과학과 종교, 무신론적 인본주의, 한국의 추석과 영국의 수확제, 예수의 죽음과 어린 초등학생의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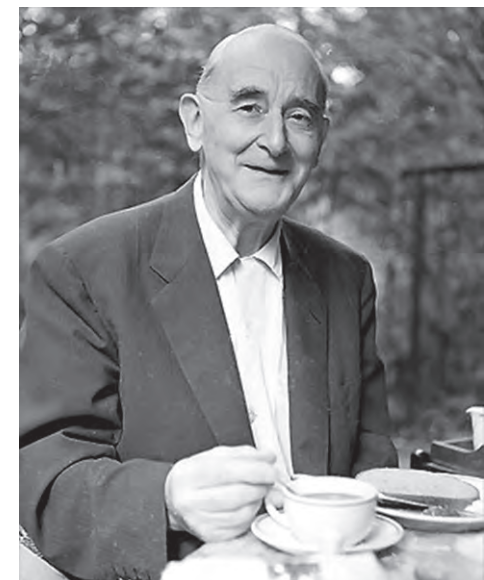
1968년 3월 1일에는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1969년 초부터 해외 여행 중 심장성 천식이 발작하여 몇 차례 병원에 입원했다. 스코필드는 병상에서도 한국인들의 장래를 걱정했다.

1970년 3월 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한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그의 서거 직후 『동아일보』 1970년 4월 16일자에 실린 「스코필드 박사 병상 단상록」은 그러한 기록들이다. 특히 『조선일보』에 실린 절박한 글에서 “1919년 당시의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진 커다란 빛을 잊지 마시오.” 이 몇 마디는 내가 오늘의 조선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다.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만 하고 목숨을 버려야만 할 때가 있다. 그럼으로써 일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조금은 광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스코필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여 가료를 받다가 1970년 4월 12일 81세로 서거하였다. 그의 장례는 4월 16일 광복회 주최의 사회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고 유해는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스코필드의 묘비에는 “캐나다인으로 우리 겨레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생애를 바치신 거룩한 스코필드 박사 여기에 고요히 잠드시다.”라고 새겨져 있다.



젊은 시절의 스코필드박사(독립기념관)



스코필드박사(독립기념관)



제암리 만생사건 보도기사(독립기념관)

나. 안성의 4.1만세 항쟁²¹⁾

안성은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성군, 양성군, 죽산군의 3개군을 하나로 묶어 안성군으로 만든 지역으로서 3월부터 4월까지 안성의 곳곳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양성, 원곡의 독립만세 항쟁 2일간의 해방을 위한 독립만세 운동은 양성면에서 먼저 일어났다. 3월 11일 양성 공립보통학교학생들이 일제히 학교운동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국회도서관,한국민족운동사3.1운동편 기3, 1977, 4 이어 4월 1일 양성면에서는 대대적인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날의 만세운동은 면의 각 마을이 따로따로 마을에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면소재지인 동항리로 집결하여 약1,000여명의 주민이 면사무소, 경찰관 주재소 앞에서 만세운동을 펼쳤다. 이에 참가한 마을을 보면 덕봉리(德峰里), 산정리(山井里), 도곡리(挑谷里)등이었다.

원곡면의 만세운동은 4월 1일 1,000여명의 주민이 조직적으로 행동했음이 양성과는 달랐다. 원곡의 각 동리 연합만세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리더인물들이 활동했음이 재판과정을 통하여 밝혀졌는데 이들에 의하면 각 동리마다 만세운동원을 조직하고 저녁 8시경 등불 또는 횃불을 밝혀 들고 면소재지인 내가천리 면사무소로 모이게 했다. 여기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다음 일행 중 이유석이 “이제부터 면장을 끌어내어 국기를 쥐어 선두에 세우고 만세를 부르면서 양성주재소로 가자”는 제안에 따라 면장 남길우와 면서기 정종두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면서 양성면으로 향했다.

이들은 양성면과 경계인 성은고개(현재 안성3.1운동기념관)에 이르러 이유석, 홍창섭, 이덕순 등의 연설을 듣고 각기 몽둥이와 작은 돌들을 들고 양성주재소와 면사무소, 우편소 등이 있는 양성면소재인 동항리로 나아갔다.

이때 양성면 주민은 만세운동을 하고 저녁 9시 50분경 해산하여 각기 돌아가려던 중 원곡주민들을 만나 합류하여 2,000명으로 불어나자 다시 주재소로 가 만세운동을 한 다음 주재소를 불태우고 이어서 우편소와 면사무소의 집기와 물품, 서류 등을 부수고 불태웠다. 이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잡화상과 대금업자의 집을 공격하여 가옥을 부수고 가구류와 기물들을 불태웠다. 양성면에서 관공서와 일인 상점을 응징한 주민들은 이튿날인 4월 2일 새벽 다시 성은고개를 넘어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원곡면사무소를 공격하여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완전 몰아냄으로서 비로소 2일간의 새봄골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날 아침 아침식사를 한 후 평택의 경부선 철도를 부수어 통치행위에 막대한 피해를 주려고 하였으나 일본수비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피신/해산하였다 2일간의 실력항쟁으로 해방을 맞은 양성, 원곡면은 일제 당국에게 경악과 곤혹스러움을 안겨주었으며 헌병경찰 정치에 의하여 순종할 줄 알았던 우리 민족이 일시에 전국적으로 만세시위를 격화시켜 일본은 항쟁 진압을 위하여 군대동원을 지시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극렬하게 운동을 전개한 수원과 안성에 4파(派)로 나누어 검거반을 파견했다. 헌병장교를 지휘관으로 한 이들 검거반은 현지에서 주로 야간에 검거를 실시, 약 800명을 검거하고 19명의 사상자를 내고 17개소에서 총276호의 가옥을 방화했다. 원곡/양성 지역에서 4월3일 조선주차군 제20사단 보병 제40여단 제79여대 소속 장교 이하 25명이 경찰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검거하는 와중에 피살1명, 부상20여명, 가옥 9채가 소실되었다.

시위참여자 대부분은 일본군의 검속을 피하여 피신상태이어서 야간수색 등 갖은 방법으로 검거 하려고 하였으나 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일제 경찰은 원곡면장을 시켜서 농사철임을 감안하여 경찰서장의 연설을 듣고 나면 사면해서 농사를 짓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16세 이상 60세까지 남자들을 4월19일 현재의 원곡 초등학교 뒷산에 모이도록 가족, 친지들로 하여금 피신자들을 설득하였다. 당일 지정장소에 모이자 헌병대는 몽둥이로 무조건 폭행을 가하고 저항 또는 도망자는 발포하여 총살시키고 양민들은 상투를 묶어서 안성경찰서까지 30여리 길을 걸어서 연행하였다. 다시 일본군은 6월 1일 세 번째로 36명의 군병력을 동원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검색을 실시했다. 양성의 경우는 양성보통학교 교정에 검거반이 야영을 하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을 체포하여 아카시아나무 몽둥이로 구타했다. 이러한 짓을 한달 이상 계속하여 맞아 죽은 사람도 생겼다. 이러한 가운데 주동인물 중 이희권, 이양섭 만이 체포되고 최은식, 이덕순, 이근수, 이유석, 홍창섭 등은 검거망을 피하였으나 최은식은 주민의 신고로 체포당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시위 중 파괴/소실된 일제 재산과 일부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 시켜 정신적/육체적/물질적 고통을 모든 주민에게 안겨주는 야비한 정책으로 보복을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안성군 원곡/양성면의 항일독립만세항쟁으로 2일간의 해방을 이루었던 선열들의 업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 주민의 격렬한 항일운동 전개였다. 양면을 합하여 총 세대수가 1,200여 호에 불과한 지역에서 2,000여 명의 주민이 만세항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전 주민이 항일만세 운동에 나서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 전체가 힘을 모은 것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영도력 이나 공동이익을 위한 협동심의 발

21) 안성 3.1운동기념관(<http://41.anseong.go.kr/summary/sub01.php>)

로라던가 아니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요소를 해결 하기 위해서일 때 단합된 힘을 보이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양성/원곡면민이 보여준 단 결된 모습은 어떤 군중심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민족 전체가 노예상태에 있었음을 피 부로 느끼고 이의 굴레를 벗고자 한 민족정신의 발로 속에 감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항쟁의 리더자는 농민이었다. 농민의 항쟁 주요인물은 지식인이라기 보다는 항쟁 군중과 같은 신분 즉 농민들로서 환경과 여건이 같은 장점을 가졌다는 점이다. 양면 인구 중 80%가 농민계층이었다는 것과 대부분이 자작 겸 소작인으로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더욱더 빈궁화가 진행되는 경제적 모순에 대한 저항도 항쟁을 격화시키는데 한몫을 했다고 본다. 원곡지역의 항쟁과정을 보면 즉흥적인 항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전에 준비과정을 거쳐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항쟁의 리더의 한사람인 이덕순이 아들 덕만의 혼사를 위해 2월 서울에 갔다가 광무황제의 독살설을 듣고 비분을 느껴 3일 머물렀다. 그후 그는 세차례에 걸쳐 서울을 상경하여 3.1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독립항쟁을 계획했다. 그후 피로연, 회갑연 등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과정을 거쳤으며 3월 25일과 26일경부터는 매일같이 만세항쟁을 지속하면서 전의를 북돋운 다음 4월 1일 밤을 기해 양성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셋째, 실력행사에 의한 2일간의 해방이었다. 양성/원곡 4/1독립만세 항쟁은 비폭력 평화시위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실력행사에 의한 항일운동이었다.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비폭력화를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해 갖가지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관계상 일제와 대항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악은 아닌 것이었다. 그리하여 양성/원곡독립만세 군중은 양성과 원곡의 일제 관공서를 공격하여 일제 통치기관을 철폐하고 일본인을 몰아내어 2일간의 해방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지 감정에 치달은 결과이거나, 탄압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과 다르다. 질서 정연한 가운데 일제기관에 대한 폭력을 사용했지 일본인에 대한 폭력을 사용치 않았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양성/원곡 4/1독립만세 운동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민족독립의 활화산이었다. 우리 민족의 적이 일본제국주의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독립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민족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했던 빛나는 역사를 장식하였다. 전국을 통하여 한 지역에서 항일항쟁 중 순국한 순서를 보면 평남 맹산 54명, 수원 제암리 29명, 평북 정주 27명, 평남 성천 25명, 원곡/양성의 24명으로 되어 있으나 옥고를 치른 숫자는 서울 363명을 제외하고 127명으로 단연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지역 항쟁운동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대중화, 농민중심의 격화단계였다. 원곡/양성만세 항쟁은 초기 도시, 지식인, 학생 등에 의한 발발 단계에서 대중화/농민 중심의 격화 단계로 넘어가던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민족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당국이 무지하다고 생각한 농민계층이 주도하고 활동한 모범적인 원곡/양성의 만세항쟁에 대하여 가혹하리만큼 중죄를 언도한 것은 농민 세력에 대한 경종을 주어 독립운동에 대한 참여를 제어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다.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사건²²⁾

1919년 기미년 4월 15일 이른 오후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두렁바위’로 불리는 전형적인 조선 후기 농촌마을이었던 제암리에 아리타 도시오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경이 들이닥쳤다. 4월 5일 화성주민들의 발안장날 만세운동을 강경 진압한 것을 사과하겠다는 주민 가운데 15세 이상 남자들을 모두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했다. 대부분 기독교와 천도교 주민들이었다.

이들이 교회에 모이자 일본 군경들은 교회를 포위하고 창문으로 주민들에게 사격을 가했다.

주민들이 죽거나 부상으로 신음하자 일본군은 만행을 감추려고 교회에 불을 질렀다. 몇 명이 탈출을 시도했으나 사살됐고, 교회 밖으로 도망치다 사살된 시신 6구도 발견됐다. 남편 생사를 알려고 달려온 마흔 넘은 여인은 사살되고, 19세 여인은 칼에 찔려 죽었다. 군인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떠났다. 이렇게 교회에서 죽은 사람 23명을 포함해 무고한 양민 29명이 학살당했다.

“나는 이 끔찍한 사건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한국에 선교사이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세균학 교수로 있던 캐나다인 의사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한국명 석호필) 박사. 스코필드 박사는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소식을 듣고 사흘만인 4월 18일 현장을 찾아와 일제의 만행의 흔적을 몰래 사진으로 찍고 주민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었다.

그는 사진과 자신의 증언을 담은 ‘제암리 학살 보고서’를 캐나다 선교본부에 제출하고 장로회 기관지인 ‘프레스비테리안 위트니스(Presbyterian Witness)’에 기고해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했다.

1920년 일본의 압력으로 캐나다로 강제 출국된 스코필드 박사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일제 식민통치의 진실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1959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그는 소외된 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다가 1970년 4월 12일 82세를 일기로 삶을 마쳤다.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34번째 민족대표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정부는 스코필드 박사의 공훈을 기려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스코필드 박사가 자신이 그토록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한 일제 만행의 장소인 제암리교회에 95년만에 다시 선다. 그의 모습이 동상으로 제작돼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공원에 설치된 것이다.

화성시는 3억5천만원을 들여 기념관 공원에 스코필드 박사 청동 동상을 제작, 오는 3·1절 기념식때 제막식을 연다. 스코필드 박사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양손에 카메라를 들고 제암리 교회가 있던 터를 바라보는 모습을 하고 있다. 동상 뒤로는 스코필드 박사의 업적과 제암리교회 학살사건을 설명하는 벽면이 설치됐다. 동상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는 스코필드 박사의 손녀인 리사 크로퍼드(Lisa Schofield Crawford)씨가 보내온 캐나다의 상징

22) 연합뉴스,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이 끔찍함을 알려야 한다.”, 2015.02.26

단풍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다. 할아버지 동상 제막식에 초청된 크로퍼드 씨는 “할아버지를 기억해주고 동상까지 건립해 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2011년부터 스코필드 박사 재조명 운동을 벌여온 화성시는 동상 뿐 아니라 스코필드 박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도 제작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3·1 운동과 일본의 조선인 학살을 국제 사회에 고발한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 국내에서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면서 “스코필드 박사 동상 건립을 통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제암리를 독립운동의 성지로 부각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스코필드 박사의 동상이 세워진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는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기념관이 건립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방문객은 120만6천명에 달한다.

8. 참고 문헌

[도서 및 논문]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5. 국가보훈처
이장락(2007). 『민족대표 34인 석호필』. 바람출판사.
김승태·유진·이항 역음(2012). 『강한 자에는 호랑이처럼 약한 자에는 비둘기처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사이트]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
네이버 캐스트, 스코필트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352&cid=59011&categoryId=590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경기관광포털, <https://ggtour.or.kr/blog/2014/10/24>.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
안성 3.1운동기념관, <http://41.anseong.go.kr/>.
화성시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sview>.

[신문기사]

연합뉴스,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이 끔찍함을 알려야 한다.』, 2015.02.26.
오마이뉴스. 『만세운동의 선구자, 탄운 이정근』, 2014.04.18.

문화일보, 『해외봉사상 수상한 의사 박관태』, 2016.11.24.

[동영상]

‘탑골공원 팔각정’, 독립기념관, www.i815.or.kr/.
‘안성 3·1 운동 기념관 및 기념식’, 안성 3.1운동기념관, <http://41.anseong.go.kr/>.
‘이정근 노래비’, 오마이뉴스. 『만세운동의 선구자, 탄운 이정근』, 2014.04.18.
‘불타 버린 제암리 교회 사진’, 독립기념관, www.i815.or.kr/.
‘스코필드 박사 사진’, 국가보훈처.
‘제암리 기념관 공원 스코필드 동상’, 연합뉴스, 『화성 제암리교회 학살사건, 이 끔찍함을 알려야 한다.』, 2015.02.26.
‘발안만세시장’, 화성시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sview>.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탑’, 제암리 3·1운동기념관



3단원



문화2 창조하고 즐긴 경기도 사람

9차시

전곡리 사람들 한반도의 첫 사람

10차시

나옹화상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1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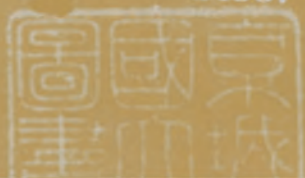
이이 조선 성리학을 펼친 유학자

12차시

김정희 붓 천 자루, 벼루 열 개를 모두 닳아 없애고



32967





한반도의 첫 사람, 경기도에 살다

1. 활동 개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땅에서 살았던 첫 인류의 흔적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봅시다. 30만년 전 이땅에 살았던 호모에렉투스 전곡리 사람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석기를 통해 그 때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발디딘 그들, 아니 또 다른 인류가 그들보다 더 먼저 살았을 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초의 경기도 사람들 그들을 찾아 함께 떠나봅시다.

2. 전곡리 출토 유물

가. 전곡리유적의 석기

이 유적은 1979년부터 1995년까지 10차에 걸쳐 발굴조사된 곳으로서 전형적인 전기 구석기유물들이 대량 수집된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유적의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의 한탄강가에 있는 해발 61m 가량의 낮은 구릉지대이며 모두 5개 지구로 구분된다. 5개 지구에서 다 석기가 발견되며 발굴은 제2지구에서만 실시되었고 여기서는 1980년 12월 말까지 조사된 3차발굴까지 종합된 발굴석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지표채집된 중요한 석기도 함께 포함시키겠으나 3차발굴 이후에 출토된 석기의 성격도 앞의 것과 같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곳의 석기는 갈색 점토층, 적갈색 점토층, 황갈색 점토층 또는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주로 발견되며 굽은 모래 각력층에서도 일부 발견된다. 석기는 양면핵석기(주먹도끼)·박편도끼·뿔족찍개(Pick)·다각면원구·쪼퍼(일면찍개, 외날찍개)·쪼핑-툼(양면찍개, 쌍날찍개) 등 큰 석기가 109점, 굽개·등손잡이칼(자르개)·첨기(찌르개) 등 박편석기(격지석기)는 230점이며, 그 밖에 박편(격지)·돌날·부스러기·돌핵(몸돌)·돌망치 등은 1,512점이나 되어 이 곳에서는 석기제작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전기 구석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연구할 수 있는 구석기가 나온 곳이 전곡리유적이다.

나. 석기재료

전곡리에서 발굴된 구석기는 거의 다 석영(차돌; Quartz), 또는 석영암(Quartzite)으로 된 자갈돌을 기본으로, 큰 자갈덩이에서 떼어낸 대형의 박편으로 석기를 만들었고, 작은 자갈돌은 적당한 크기의 돌을 골라 직접 망치돌로 박편을 깨내어 원하는 양면핵석기(주먹도끼)·쪼퍼(일면찍개, 외날찍개)·쪼핑-툼(양면찍개, 쌍날찍개) 등을 만들었다. 이러한 차돌로 된 자갈돌은 유적에서 가까운 강가에서 갖고 온 것이며 현재의 한탄강변에서도 수없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돌은 매우 단단하여 떼어내기도 힘들지만 일단 석기로 만들면 어떠한 돌로 만든 것보다 튼튼하고 강하여 실용가치가 매우 큰 석재이다.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서의 전기 구석기도 이와 같은 석재로 만든 것이 많이 있다. 그 밖의 석재로는 Hornfels·현무암·기타 암석들이 있으나 그 수는 대단히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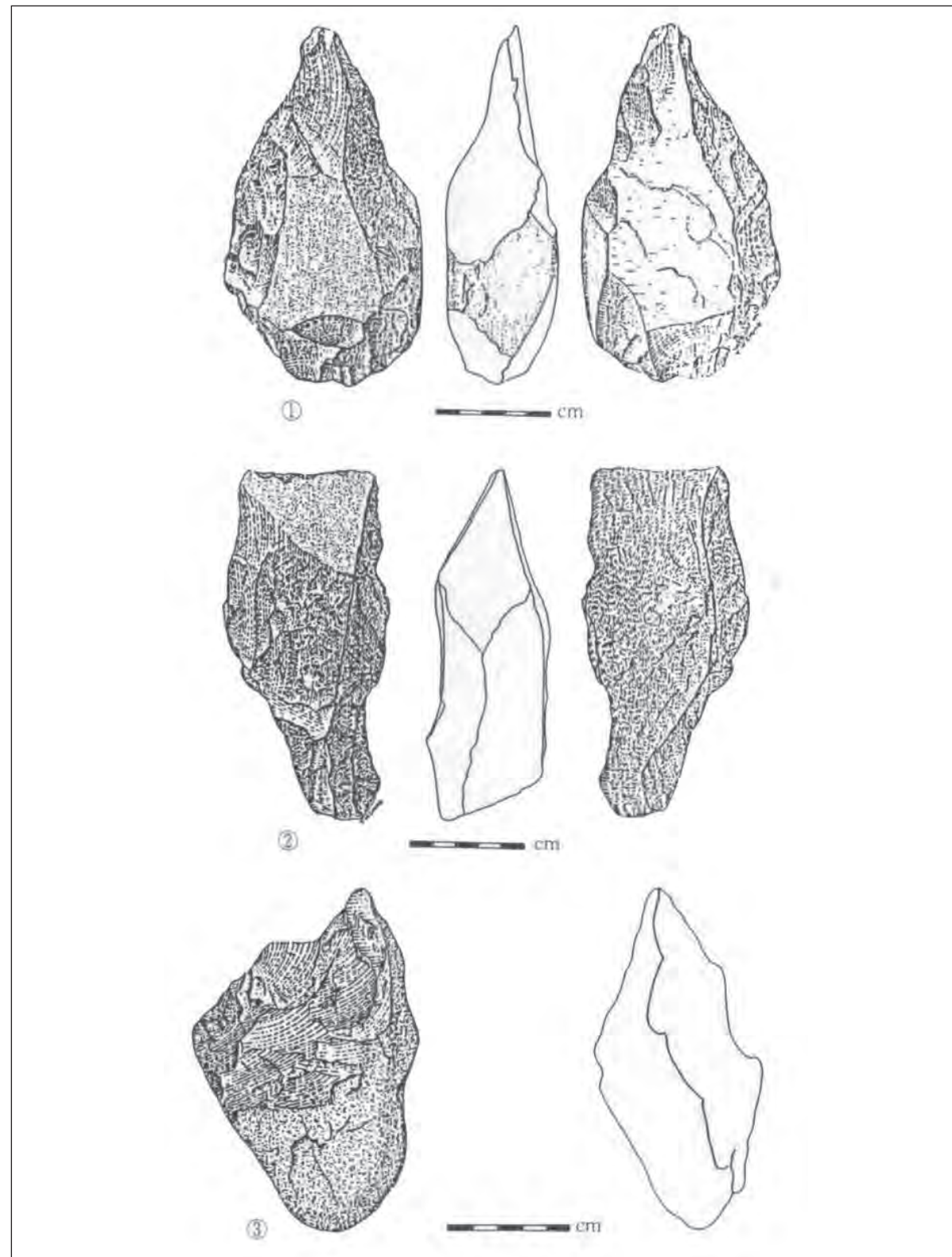
다. 석기제작기술

가장 기초적인 석기제작기술로서 직접타격법을 사용하였는데 석재를 모룻돌에 내리쳐서 큰 박편을 떼어낸 다음 다시 이 큰 박편을 갖고 망치돌로 석기를 타제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망치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크기의 적당한 석영자갈돌을 구한 다음 직접 이 석재에서 박편을 떼어내어 큰 석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큰 석기를 만들 때 떨어져 나온 박편들을 2차가공하여 박편석기로 다듬을 때도 망치돌을 사용하였다.

전곡리에서는 간접타격법이나 가압법은 보이지 않는다. 또 석기도 큰 석기를 많이 만들었고 박편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큰 석기를 만들 때 떨어져 나온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잠깐씩 사용한 것이다. 본격적인 박편석기의 양상은 보기 힘들다.

라. 석기의 종류·형태·특징

전곡리에서 발견된 석기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큰 석기종류로서 양면핵석기(주먹도끼)·박편도끼·뿔족찍개(Pick)·다각면원구·쪼퍼(일면찍개, 외날찍개)·쪼핑-툼(양면찍개, 쌍날찍개) 등이고, 둘째는 박편석기(격지석기)종류인데 굽개·등손잡이칼(자르개)·첨기(찌르개)·조각칼(새기개)·부리형석기·홈날석기·툼날날석기가 있다.



〈그림1〉전곡리유적의 석기

양면핵석기(주먹도끼 : 〈그림 1〉 ①)

이것은 발굴에서 5점, 지표채집에서 37점이 수집되어 모두 42점이 된다. 전곡리유적이 전형적인 아슐리안형태의 양면핵석기가 출토된 유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석기 때문이다. 양면핵석기의 종류도 다양하며 창끝형·행인형·원납치형(Proto-limande)·납치형·침두형(Micoquian형)·타원형 등의 서구·아프리카·인도 등지에서 발견되는 전기 구석기시대의 아슐리안문화의 양면핵석기와 같은 형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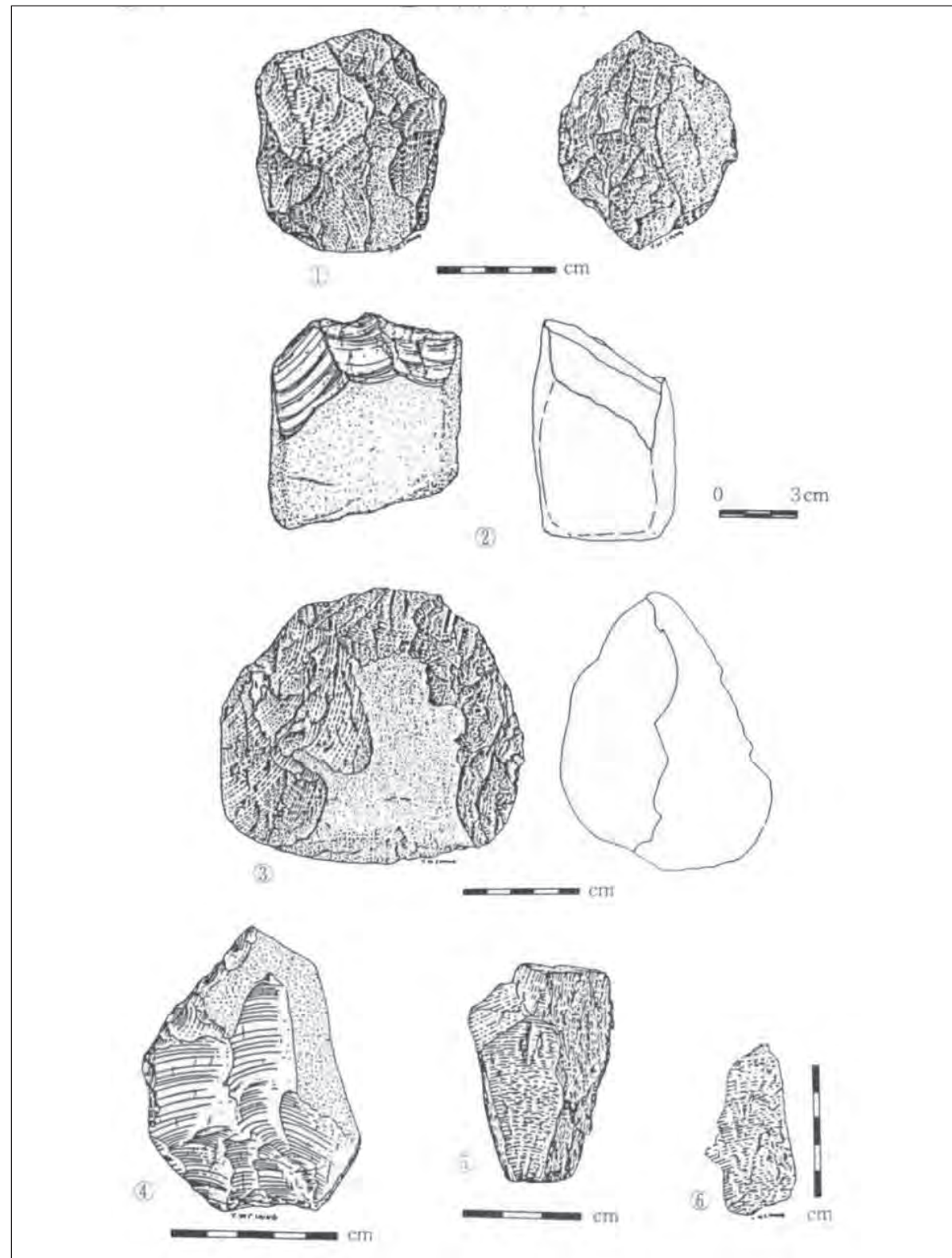
이것은 거의 전부가 석영 또는 석영암으로 된 강에서 나온 자갈돌을 원석으로 하여 여기에서 떼어낸 큰 박편이나, 만들고자 하는 양면핵석기와 가장 비슷한 크기 또는 비슷한 형태의 돌을 골라 직접타격의 방법으로 만들었다. 박편은 큼직큼직하게 떼어냈으며 석기를 만드는 기술이 세련되지 못해 석기의 날부분이 갈지자(之字)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석기의 표면에는 자갈의 표피가 일부 그대로 남아 있을 때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전형적인 아슐리안형태의 양면핵석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길이 18.10~10.12cm, 폭 10.70~6.13cm, 두께 8.90~3.54cm.

박편도끼(〈그림1〉 ②)

박편도끼는 발굴, 지표채집을 통해 각각 5개와 8개를 수집하여 총 13개가 된다. 양면핵석기와 같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거의 모두 큰 박편을 먼저 만든 다음, 여기에서 2차적으로 박편을 떼어내 석기를 만들었다. 이 때 사용된 큰 박편들은 Side blow technique으로 떼어낸, 즉 박편의 길이가 폭보다 짧고 두덩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난 특징있는 박편을 이용하였다. 특히 박편도끼를 만들 때 도끼의 날부분은 박편의 양쪽날 중에 하나를 택하였고 두덩부분은 물론 손잡는 부분 주위 등을 다듬어서 손에 쥐고 도끼로 쓰기에 알맞도록 만들었다. 석기의 표면에는 자갈돌의 표피가 일부 남아 있다. 이 박편도끼는 아프리카·유럽·인도 등지에서 발견되는 아슐리안문화에서도 나타나며 양면핵석기와 함께 전기 구석기의 특징있는 석기로 분류된다. 길이 16.60~15.25cm, 폭 10.22~7.43cm, 두께 6.14~5.40cm.

뾰족찍개(〈그림 1〉 ③)

이것은 3차발굴까지 모두 7개가 수집되었으며 전곡리에서 출토된 큰 석기 중의 하나다. 일종의 대형침두기이며 비전형적 양면핵석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어떤 것은 큰 박편을 갖고 만들었으며 또 석영암자갈에 일부 박편을 떼내고 다듬어서 만든 것도 있다. 석기재료의 형태에 따라 일면에서만 가공한 것도 있고 양면에서 박편을 떼내고 타제한 것도 있다. 침두의 단면은 삼각형·사각형·나란히꼴 등이 있다. 이러한 석기는 아프리카·유럽 등지에서도 발견된다. 길이 17.5~13.6cm, 폭 9.6~8.9cm, 두께 6.4~5.3cm.



〈그림 2〉전곡리유적의 석기

다각면원구(〈그림 2〉①)

이것은 발굴에서 7개, 지표채집에서 30개 등 모두 37개가 수집되어 전곡리유적에서 많이 발견되는 석기 가운데 하나다. 다각면원구는 일종의 핵석기로 전체의 모양은 원구형태에 가까우나 표면에 많은 면이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즉 석영암자갈 등을 원석으로 사용하여 둥근 모양으로 박편을 떼어 나갔으므로 석기표면에 박편이 떨어져 나간 면으로 많은 각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석기는 아프리카·유럽 등지의 구석기 초기부터 중기 구석기까지 주로 발견되는 유물¹⁶⁴⁾이며 손에 쥐고 이를 던져서 짐승을 사냥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고기, 뼈 또는 나무 같은 것을 짓이기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석기의 크기는 직경 평균 7~8cm가량.

쥬퍼(일면찍개, 외날찍개 : 〈그림 2〉②)

쥬퍼는 발굴과 지표채집에서 각각 58개와 129개가 수집되어 모두 187개가 발견되었다. 전곡리유적에서 쥬핑-툴과 함께 큰 석기로는 제일 많이 발견되는 석기 중의 하나이다. 석영암자갈을 재료로 한쪽 방향에서만 몇 번 타격을 가하여 박편을 떼어낸 후 석기의 날을 만든 것이다.

쥬퍼는 전기 구석기시대부터 발견되는 가장 오랜 석기형태의 하나이다.¹⁶⁵⁾ 그러나 이것은 고형석기의 하나로 철기시대까지도 사용되던 형태인데 전곡리의 경우는 아슐리안형태의 석기들과 함께 발견되어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크기가 등부분에서 날까지의 길이는 7~8cm가량 되고 더 큰 경우도 있다.

쥬핑-툴(양면찍개, 쌍날찍개 : 〈그림 2〉③)

전곡리발굴조사에서는 27개, 지표조사에서는 158개가 발견되어 모두 185개가 된다. 전곡리에서 쥬퍼와 함께 큰 석기로는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것 중의 하나다. 석영암자갈을 석재로 하여 한쪽 자갈끝 양면에서 서로 엇갈리게 박편을 여러 점 떼내어 석기의 날을 만들어 쓴 형태이다. 이 석기도 쥬퍼와 마찬가지로 전기 구석기시대부터 발견되는 대표적인 석기이다. 특히 쥬퍼·쥬핑-툴문화권에서는 물론 양면핵석기문화권에서도 일찍부터 발견되는 석기형태¹⁶⁶⁾로 앞에서 서술한 전기 구석기 등과 함께 전곡리유적에서는 세트로 발견된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손잡는 부분에서 날까지 8~9cm가량 되며 쥬퍼와 큰 차이 없다.

박편석기(〈그림 2〉④·⑤)

전곡리유적에서 발견되는 박편석기 중 가장 많이 수집되는 것이 굽개이다(〈그림 2〉④). 이 가운데에는 단순히 사용된 박편도 포함시킨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쨌든 이 석기는 발굴과 지표조사에서 각각 191개와 106개가 수집되어 모두 297개에 달한다. 전곡리의 박편석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석재에서 1차 박편을 떼내어 다시 2차가공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며 모두 큰 석기인 양면핵석기·박편도끼·뿔족찍개(Pick) 등을 만들 때 떨어져 나온 박편들을 주로 이용한 것들이다.

따라서 거의 다 석영·석영암 같은 박편으로 만들어 썼고, 박편을 만들고 남은 전형적인 돌핵은 찾기 힘들다.

그 밖에 발굴중 수집된 박편석기로는 등손잡이칼(〈그림 2〉⑤)이 3개, 찰기가 18개, 조각칼은 9개이나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박편이 떨어져 나올 때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부리형석기·흙날석기·툽니날석기가 더 수집되었다.

박편 및 부스러기(〈그림 2〉⑥)

석기로 바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유물은 아니지만 큰 석기를 만들 때 떨어져 나온 박편·부스러기는 물론 석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 놓은 석재·망치돌·역석 등을 포함해서 모두 1,512점의 많은 유물이 3차발굴 때까지 수집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표토 다음에 나타나는 갈색 점토층으로부터 적갈색 점토층 그리고 황갈색 점토층 또는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어 분명히 전곡리구석기인들이 이 곳에서 꾸준히 석기도 제작해서 썼다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3. 교수-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전곡리 사람들의 삶과 생활		
학습 목표	- 연천 전곡 선사 유물에 대해 알 수 있다. - 연천 전곡 선사 유적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다.		
학습 내용	- 연천 전곡 선사 유물 - 연천 전곡 선사 유적지 사람들		

나. 본활동

단 원 명	3-1. 한반도의 첫 사람, 경기도에 살다		
학습 목표	연천 전곡 선사 유물에 대해 알 수 있다. 연천 전곡 선사 유적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전시학습 상기 및 동기 유발 (5분) : 그렉보웬의 전곡선사 주먹도끼 발견 이야기 토론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1. “대상과의 만남”(10분)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주요 개념을 표시	
	2. 되돌리기(10분)	교사의 안내로 어려운 개념 확인 및 내용 정리 동영상 함께 보기 〈문화유산채널:한반도의 첫 사람, 첫발자국 1부 30만 년 전의 만능칼, 주먹도끼〉 http://www.k-heritage.tv/brd/board/229/L/CATEGORY/2342/menu/374?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2342&bbldx=10617&brdType=R 〈문화유산채널: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전곡리 주먹도끼 -연천 전곡리 유적〉 http://www.k-heritage.tv/brd/board/229/L/CATEGORY/2339/menu/375?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2339&bbldx=10595&brdType=R	
	3. “동료와의 만남”(15분)	‘생각나누기’와 ‘생각더하기’를 모둠 친구들과 협의하면서 해결/ 묻고 답하기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걸음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4.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 나는 고고학자

● 활동 1.

주먹도끼 유물을 보고 활동지에 주먹도끼 유물 실측도를 그려보세요.

〈예시 답안〉

	공통점	차이점
제작방법	돌을 떼내어 만들었다. 돌끼리 부딪혀서 돌을 떼내었다 등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으면 좋다.	주먹도끼는 양쪽날을 잘 다듬었다. 찍개는 돌 날을 한쪽면 중심으로 다듬었다. 등 관찰 결과를 잘 표현하면 좋다.
쓰임새	땅파기, 사냥하기, 동물 가죽벗기기, 나무 자르기 등 다양하게 쓰였을 것이다. 만능주머니칼과 같이 다양하게 쓰였을 것이다.	나무 자르기, 사냥할 때 사용하였을 것이다.

[생각 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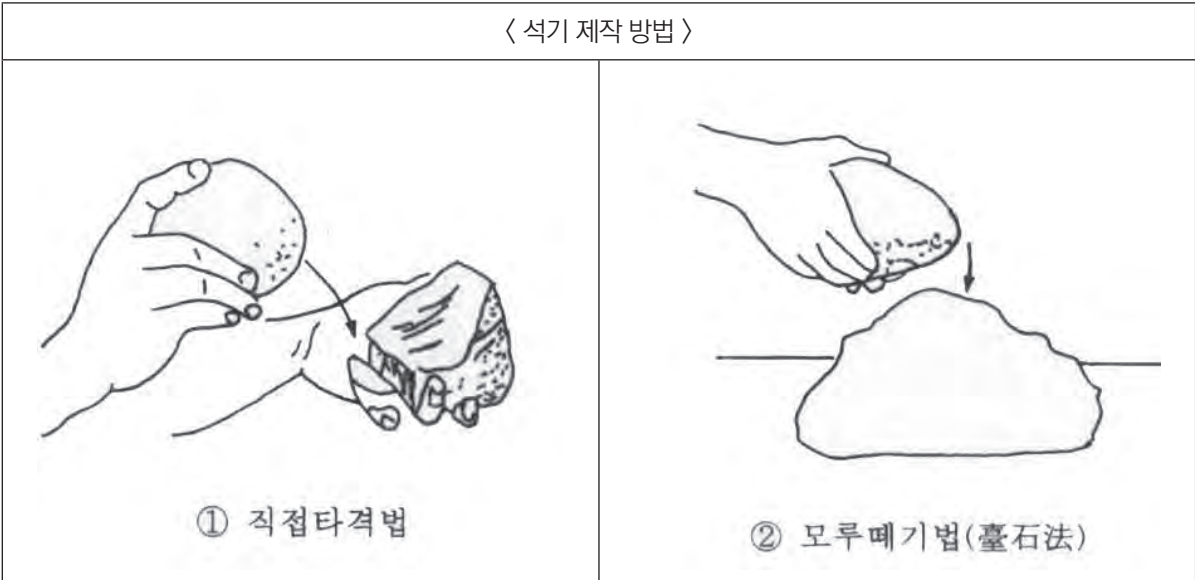
- 구석기 최첨단 과학 주먹도끼

● 활동 1.

다음 주먹도끼를 보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주먹도끼를 제작 했을지 생각하고 이를 써 보세요.



1단계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경험을 통해 돌이 깨지는 것에 대한 예상을 한다.
2단계	모루떼기로 큰 돌을 날카롭게 만든다.
3단계	직접타격법을 통해 모양을 다듬는다.
4단계	뿔망치직접타격법으로 자세하게 다듬는다. 모양을 완성한다.





5. 교사 참고 자료

가. 전곡선사박물관 <http://jgpm.ggcf.kr/>

- 요금안내

구분	개인	단체 (20인 이상)	비고
7세 이하 어린이	무료	무료	0세 ~ 7세
초등학생 · 청소년 · 군인	2,000원	1,000원	8세 ~ 18세 (군인제외)
성인	4,000원	2,000원	19세 이상

- 운영시간

월		관람시간
1월 ~ 6월, 9월 ~ 12월	화 ~ 일요일	10:00 ~ 18:00
7월 ~ 8월	화 ~ 일요일	10:00 ~ 19:00

※ 전시 관람을 위한 박물관 입장은 폐관으로부터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제외) 매년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

- 예약방법

단체 (20인 이상) 온라인예약, 개인 및 2인 이하 예약 불필요

연락처/ 031-830-5600 ~ 2

- 예약안내

전시가이드 투어 안내

시기	해설시간				비고
해설사 (3명)	성수기 (4월~10월)	평일 3회	오전	11시 30분	현장 참여 인원 고려하여* 가이드 투어 : 1회당 온라인예약 인원 30명으로 제한 * 3D영상+해설 : 1회당 온라인 예약 인원 100명으로 제한 (영상관람후 해설청취는 사전 공지후 개별이동)
			오후	2시 30분	
		주말 4회		3시 30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비수기 (11월~3월)	평일 2회	오후	2시 30분/4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주말 3회	오후	3시 30분	
			오전	10시 30분	

- 3D 영상상영 안내

회차	시간	비고
1	10:00	1회당 : 100명 소요시간 : 20분
2	11:00	
3	12:00	
4	13:00	

5	14:00	
6	15:00	
7	16:00	
8	17:00	

- 우대혜택
- 중복할인 적용 안됨
- 할인 : 경기도민 25% (개인한함, 신분증제시)
- ※ 2014년 3월 1일부터 할인이 50% → 25% 변경되었습니다.
- 무료/ 장애인 (1~3급, 동반 보호자 1인까지),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이상 노인
- 할인 및 무료 혜택자는 각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매표소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가족(모,배우자,자녀)

6. 참고 문헌

[도서]

국사편찬위원회(2003). 『신편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2001). 「2000-2001 연천군 전곡구석기유적 전면시굴조사보고서」, 연천군.

[자료 및 홈페이지]

전곡선사박물관, <http://jgpm.ggcf.kr/>

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

[동영상]

문화유산채널, 〈한반도의 첫 사람, 첫발자국 1부 30만 년 전의 만능칼, 주먹도끼〉

<http://www.k-heritage.tv/brd/board/229/L/CATEGORY/2342/menu/374?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2342&bbIdx=10617&brdType=R>

문화유산채널, 〈세계를 발각 뒤집어 놓은 전곡리 주먹도끼 연천 전곡리 유적〉

<http://www.k-heritage.tv/brd/board/229/L/CATEGORY/2339/menu/375?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2339&bbIdx=10595&brdType=R>



문답이 바깥답이 살다가 가갸하네, 나옹 화상

1. 활동 개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역사 인물 가운데 불교 문화인물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사람들의 삶에 아주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국교로 불교가 자리잡음으로서 왕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발달합니다.

고려 중기에는 불교계의 세속화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는 등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 불교를 개혁하고 나라를 되살리고자 노력한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고, 조선시대 불교의 흐름을 쇄신하는 나옹 화상의 삶과 문학, 철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옹 화상의 행적과 유물들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인물 학습

가. 생애와 활동사항

속명은 아원혜(牙元惠), 호는 나옹(懶翁) 또는 강월헌(江月軒). 법명은 혜근(惠勤), 또는 혜근(慧勤). 아버지는 선관서영(善官署令)서구(瑞具)이다. 중국의 지공(指空)·평산처림(平山處林)에게 인가를 받고 무학(無學)에게 법을 전하여, 조선시대 불교의 초석을 세웠다.

21세 때 친구의 죽음으로 인하여, 공덕산 묘적암(妙寂庵)에 있는 요연선사(了然禪師)에게서 출가하였다. 그 뒤 전국(國)의 이름 있는 사찰을 편력하면서 정진하다가 1344년(충혜왕 5) 양주 천보산 회암사(檜巖寺)에서 대오(大悟)하고, 석옹(石翁)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1347년(충목왕 3) 원나라 연경(燕京) 법원사(法源寺)에서 인도승 지공의 지도를 받으며 4년 동안 지내다가 1350년(충정왕 2)에 평강부(平江府) 휴휴암(休休庵)에서 한철을 보내고, 다시 자선사(慈禪寺)의 평산처림을 참견(參見)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이듬해 명주(溟州)의 보타락가산(補陀洛伽山)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육왕사(育王寺)

에서 석가모니상을 예배하였다.

그곳에서 무상(無相)과 고목영(枯木榮) 등의 승려를 만나 법론(法論)을 벌였고, 1352년에는 복룡산(伏龍山)의 천암장(千巖長)을 찾았다. 원나라 순제(順帝)는 그를 연경의 광제선사(廣濟禪寺) 주지로 임명하였고, 1356년 10월 15일에는 개당법회(開堂法會)를 가졌다. 순제의 만류를 무릅쓰고 주지직을 내놓은 뒤 다시 지공을 찾아갔다가 1358년(공민왕 7)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오대산 상두암(象頭庵)에 은신하였으나 공민왕과 태후의 청으로 잠시 신광사(神光寺)에 머무르면서 설법과 참선으로 후학들을 지도하던 중, 홍건적으로부터 신광사를 수호하였다. 그 뒤 공부선(功夫選)의 시관(試官)이 되었고, 1361년부터 용문산·원적산·금강산 등지를 순력한 뒤 회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1371년 왕사 대조제종사 선교도총섭 근수본지증홍조풍북국우세 보제존자(王師大曹溪宗師禪敎都摠攝勤修本智重興祖風福國祐世普濟尊者)에 봉해졌다. 그 뒤 송광사에 있다가 다시 회암사 주지가 되어 절을 중수하였으며, 1376년에는 문수회(文殊會)를 열어 크게 법명을 떨쳤다.

왕명으로 밀성(密城: 밀양) 영원사(瑩源寺)로 옮겨가던 중, 1376년(우왕 2) 5월 15일 여주 신흥사에서 입적하였 다. 나이 56세, 법랍 37세였다.

나. 학문세계와 사상

그는 참선과 교학을 같이 닦음으로써 성불의 가능성을 보여준 고승으로, 고려 말의 선풍을 새롭게 선양하였다. 그가 법을 전해 받은 지공의 선풍이 공(空)의 이치를 통해 해탈한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혜근은 전통적인 간화선(看話禪)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종래의 구산선문(九山禪門)이나 조계종과는 다른 임제(臨濟)의 선풍을 도입하여 침체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의 『귀의자심삼보(歸依自心三寶)』의 주장과 ‘염불은 곧 참선’이라고 한 것은 이후의 우리나라 선종에서 계속 전승되었다.

계율관(戒律觀)에서도 삼귀의(三歸依)가 아닌 사귀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수정신사귀의(受淨信四歸依)·참제제 삼업죄(懺除諸三業罪)·발홍서육대원(發弘誓六大願)·최상승무생계(最上乘無生戒) 등이다. 또,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중생 제도의 보살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육대서원(六大誓願)을 세우기도 하였다.

제자로는 자초(自超)·지천(智泉) 등 2,000여 명이 있으며, 저서로는 《나옹화상어록(懶翁和尚語錄)》 1권과 《가송(歌頌)》 1권이 전한다.

3. 교수 - 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나옹 화상의 삶과 불교		
학습 목표	- 나옹 화상의 삶과 불교 철학 및 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 - 나옹 부도탑 유물을 통해 시대 정신을 알 수 있다.		
학습 내용	- 나옹 화상의 삶 - 나옹 부도탑 - 나옹의 선사상		

나. 본활동

단 원 명	3-2. 나옹 화상,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학습 목표	1. 나옹 화상의 삶과 불교 철학 및 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나옹 부도탑 유물을 통해 시대 정신을 알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전시학습 상기 및 동기 유발 (5분) : 양주 회암사 3대화상 문화제를 통해 학습 동기 유발		
전 개	1. “대상과의 만남”(10분)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채제공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되돌리기(10분)	교사의 안내로 어려운 개념 확인 및 내용 정리 동영상 함께 보기 〈영상으로 보는 한국사-8편 불교〉 http://kids.cha.go.kr/kids/multiBbzView!view.action?id=53&no=53&curPage=1&strWhere=&strValue=&schWhere=&schDirect=&bbzId=kidshistory&sdate=&edate=&category=&mc=KD_02_07_03&bbzgubun=write	
	3. “동료와의 만남” (15분)	‘생각나누기’와 ‘생각더하기’를 모둠 친구들과 협의하면서 해결/ 묻고 답하기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 중앙 을 바라보고 자리 를 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p>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p> <p>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p>		
		<p>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p> <p>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p> <p>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p> <p>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p>		

4. 학생 활동지 해답

[생각 나누기]

- ◆활동 1. 나옹화상의 시를 보고 내 마음을 담아 시를 써 보시다.

청산은 나를 보고	靑山兮要我
나옹선사	懶翁禪師
<p>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p> <p>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p>	<p>靑山兮要我以無語 (청산헤요아이무어) 蒼空兮要我以無垢 (창공헤요아이무구) 聊無愛而無憎兮 (료무애이무증헤) 如水如風而終我 (여수여풍이종아)</p> <p>靑山兮要我以無語 (청산헤요아이무어) 蒼空兮要我以無垢 (창공헤요아이무구) 聊無怒而無惜兮 (료무노이무석헤) 如水如風而終我 (여수여풍이종아)</p>

_____ 나를 보고	_____ 나를 보고
___ 나를 보고 ___ 살라하고	___ 나를 보고 ___ 살라하고
___ 나를 보고 ___ 살라하네	___ 나를 보고 ___ 살라하네
___ 벗어놓고 ___ 벗어놓고	___ 벗어놓고 ___ 벗어놓고
___ 바람같이 ___ 가라하네	___ 바람같이 ___ 가라하네
___ 나를 보고 ___ 살라하고	___ 나를 보고 ___ 살라하고
___ 나를 보고 ___ 살라하네	___ 나를 보고 ___ 살라하네
___ 벗어놓고 ___ 벗어놓고	___ 벗어놓고 ___ 벗어놓고
___ 바람같이 ___ 가라하네	___ 바람같이 ___ 가라하네

5. 활동 준비물 참조

-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발표

[생각 더하기]

- 부도탑의 변화
- ◆ 활동 1. 우리나라 부도탑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뒤부터는 화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스님의 무덤인 승탑이 건립되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말 선종이 크게 일어나면서 스님들의 지위가 높아져 불탑처럼 스님의 승탑 역시 많이 건립되기 시작합니다. 승탑은 모양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팔각원당형 승탑입니다. 팔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등의 기단부는 물론이고 그 위에 놓이는 탑신 괴임대, 탑신부, 옥개석, 상륜부까지 모두 8각으로 구성되어 층층이 쌓인 것으로 전체적인 평면이 8각 형태를 이루고 있는 승탑을 통틀어 팔각원당형 승탑이라 일컬으며 우리나라에서 건립 연대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승탑인 염거화상탑이 그 시원이며, 고려시대 가장 많이 조성된 양식입니다.

두 번째, 석종형 승탑입니다. 승탑의 형태가 종의 모습과 비슷한 데서 생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석종형 승탑의 원류는 인도의 스투파(복발형 탑파)에 있으며 주로 고려 말 이후 조선왕조 전 시대를 통하여 가장 많이 세워졌습니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 초기에도 건립된 예가 있어 그 시원은 통일신라 말 9세기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울산 태화사지의 12지상승탑(十二支像浮屠)가 처음으로 나타난 석종형 승탑입니다.

세 번째, 특수형 혹은 변형 양식의 승탑입니다. 그 모양을 살펴보면 기단부에서 하대와 중대석이 8각을 이루나 탑신석은 공처럼 원구형인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모양은 방형의 평면을 보이는 불탑과 같은 모양을 가진 승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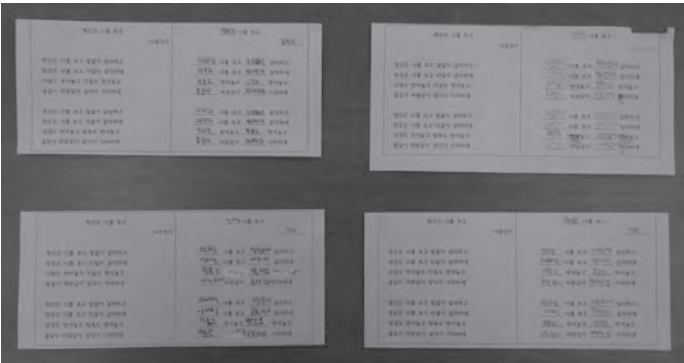
◆활동 2. 나옹화상의 승탑은 다른 스님과 달리 많이 있어요. 거기다 다양한 양식으로 조성되었답니다. 살아 있는 부처님이란 말씀을 듣던 나옹 화상의 명성만큼 다양한 승탑을 세웠지요. 각각의 승탑은 어떤 양식인지 말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세운 그 까닭을 추론하여 보세요.

〈예시 답안〉

	회암사 나옹선사 승탑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탑
양식	팔각원당형	석종형	불탑형
그렇게 세운 까닭	당시에 유행하던 양식이고 가장 일반적인 양식이다.	나옹화상이 부처와 같이 존경받아서 인도의 스투파와 같은 모양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나옹화상이 부처와 같이 존경받아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탑모양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5. 활동 준비물

- 시를 출력하여 나눠주고 학생들이 작성하게 한다.



청산은 나를 보고 나옹선사	_____ 나를 보고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____ 나를 보고 ____ 살라하고 ____ 나를 보고 ____ 살라하네 ____ 벗어놓고 ____ 벗어놓고 ____ 바람같이 ____ 가라하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____ 나를 보고 ____ 살라하고 ____ 나를 보고 ____ 살라하네 ____ 벗어놓고 ____ 벗어놓고 ____ 바람같이 ____ 가라하네

청산은 나를 보고 나옹선사	_____ 나를 보고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____ 나를 보고 ____ 살라하고 ____ 나를 보고 ____ 살라하네 ____ 벗어놓고 ____ 벗어놓고 ____ 바람같이 ____ 가라하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____ 나를 보고 ____ 살라하고 ____ 나를 보고 ____ 살라하네 ____ 벗어놓고 ____ 벗어놓고 ____ 바람같이 ____ 가라하네

-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단체
- 참가비 : 인당 3천원
- 주의사항 : 전화예약 031-8082-4173/4189 (사전예약 필수)

〈도슨트와 함께하는 전시투어〉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들으며 회암사지박물관 상설전시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

- 대상 : 회당 30명 내외
- 기간 : 7월~12월
- 참가비 : 무료

〈콩콩 스탬프〉

회암사지 출토 유물을 활용한 스탬프로 나만의 배지 만들기, 유치원 상징 배너 만들기

- 대상 : 유아 단체
- 기간 : 2016년 4~10월 (화~금)
- 참가비 : 인당 2천원
- 참가방법 : 사전예약(전화예약 031-8082-4189/4173)

7. 관련 주요 인물과 문화재

지공선사부도 및 석등(指空禪師浮屠 및 石燈)



〈출처 : 문화재청〉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9호로 소재지는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번지이다.

회암사(檜巖寺)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선종(선종)의 맥을 형성했던 지공(指空 : ?~1363), 나옹(懶翁 : 1320~1376), 무학대사(無學大師 : 1327~1405)가 주석했던 곳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현재 사찰의 동쪽 능선에 이 세 스님의 사리탑이 차례로 서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지공선사의 사리탑이다.

이 사리탑은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팔각의 지대석 상면에 놓인 기단의 각 부재는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중대석은 배가 부른 고복형(鼓腹形)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탑신은 원구형(圓球

形)으로 표면에는 아무 조각이 없으며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합각선이 두툼하게 표현되었다. 처마는 전각(轉角)에 이르러 살짝 반전되어 안정감 있는 자태를 보이고 있다. 상륜부에는 5개의 보륜(寶輪)과 보주(寶珠)가 하나의 석재로 조성되었다.

석등은 평면방형(平面方形)의 형태이다. 기단부의 구성 중 상대석은 하단을 경사지게 처리하였다. 등불을 올려 놓는 곳인 화사석(火舍石)은 2매의 판석을 이용하였고 화창은 앞뒷면에만 있다. 옥개석은 사모지붕의 형태로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합각선이 두툼하게 표현되었으며, 추녀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에는 복발(覆鉢)·보륜·보주가 있다.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楊州 檜巖寺址 無學大師塔)



〈출처 : 문화재청〉

회암사지 위쪽, 지금의 회암사 입구에 위치한 나옹선사의 제자인 무학대사의 탑으로, 대사가 열반한 직후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의 승탑 중에서 가장 빼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회암사는 고려 충숙왕 때인 1328년에 지공이 창건한 사찰로 전한다. 그 후 우왕 2년(1377)에는 제자인 나옹선사가 삼산양수지기의 비기에 의하여 이 곳의 지형이 인도의 나란다 절과 같아, 가람을 이룩하면 불법이 흥한다는 관점에서 불사를 크게 일으켜 대가람으로 조성하였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회암사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여 나옹의 제자이며 자신의 스승인 무학 자초를 회암사에 머무르게 하여 불사가 있을 때마다 대신을 보내어 참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 이곳에서 수도생활을 한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조선 성종 때인 1472년에는 세조의 왕비였던 정희왕후가 하성부원군 정현조를 시켜 중창하게 하여 불사가 13년이나 계속되었다. 또 명종 때는 문정왕후가 섭정하면서 보우가 회암사를 중심으로 불교 중흥을 기도하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후부터 사세가 기울어져 순조 때인 1800년대에 폐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의 크나큰 정신적 반력자가 되어 조선왕조의 창업을 도왔고, 태조가 왕위를 물려주고 회암사에 머물 때에도 태조의 믿음직한 도반이 되어 주었다. 따라서 조선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었으며 국왕의 지극한 예우를 받았기에 입적 후에도 무학대사에게는 성대한 승탑이 봉헌된 것이다.

이 승탑은 구형형식과 장식 모티브가 매우 다채로우며 조형 솜씨도 출중하다. 우선 탑 주위에 동자기둥과 담장석으로 장식된 8각의 석장이 조성되고 안 바닥에는 지대석이 놓였으며 그 위에 비로소 기단부가 구성되었다. 기단 하대석은 2단구조로 하단석은 팔각의 운문대석으로 놓고 상단석은 다시 상하부로 나뉘어 밑에서 위로 폭이 넓어지다가 윗부분은 다시 좁아지는 형상인데, 밑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윗면에는 연꽃무늬가 덮여지고 각

모서리에는 귀꽃이 새겨졌다. 중대석은 배가 살짝 볼러 있으며 각 면에는 네모곽 안에 아(亞)자형 안상을 내고 그 안에 각종 꽃이 한 송이씩 장식되었다. 상대석은 아랫면이 연꽃받침형으로 구성되고 두터운 상판의 옆면에는 당초문 장식의 긴 네모곽이 각 면 하나씩 장식되었다. 탑신부의 몸체는 둥그런 구형으로 운룡문이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표면을 채웠으며, 지붕은 처마 밑에 귀서까래가 표현되고 처마 끝의 두툼한 단면은 곡면을 그리면서 살짝 귀솟음이 이루어졌다. 지붕 위는 두툼한 우동마루 끝에 용머리가 장식되었으며, 지붕 꼭대기는 둥그런 연꽃장식 노반으로 마감되고 그 위에 단정한 보주가 높였다.

이 승탑은 고려 말부터 활력을 얻기 시작한 승탑조영의 기운이 조선왕조의 건국과 함께 새로운 기세로 완성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기단부 하대석의 다단식 구성이나 기단부와 탑신의 본체를 가득 채운 다양한 장식 모티브의 채용, 그리고 탑신부의 용무늬 표현 등에서 조선왕조의 새로운 활력으로 완성된 탁월한 조형수준이 나타나고 있다.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출처 : 문화재청〉

나옹선사(1320~1376)의 부도는 지공선사(地空禪師 : ?~1363)의 부도 아래쪽에 위치하였으며, 팔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의 양식으로 건립되었다. 부도는 1376년 9월 16일에 세워졌으며, 부도 앞에는 네모난 석상이 놓여 있고, 그 앞쪽에 석등을 놓아 남북 일직선상의 배치형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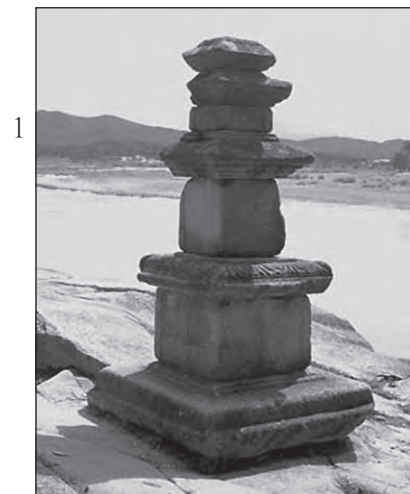
기단의 각 부재는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는데, 중대석은 배가 보른 고복형(鼓腹形)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탑신은 원

구형(圓球形)으로 표면에는 아무런 조각도 없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합각선이 두툼하며 처마는 전각에 이르러 살짝 반전되었다. 그 위에는 4개의 보륜(寶輪)과 보주(寶珠)가 하나의 석재로 조성된 상륜부(上輪部)가 있다.

석등은 평면방형(平面方形)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단부의 각 구성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등불을 두는 곳인 화사석(火舍石)은 2매의 판석을 이용하였고, 화창(火窓)은 앞뒷면에만 개설하였다. 화창의 전면에는 기둥이 모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사모지붕의 형태로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합각선이 두툼하게 표현되었다. 추녀는 완만한 U자형을 그리다 전각에 이르러 반전되고 있다. 정상에는 연화문(蓮花文)이 새겨진 받침과 복발(覆鉢) 및 보주가 있다.

대체로 부도와 비는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옹선사의 부도와 비(선각왕사비)는 골짜기를 두고 떨어져 있다. 부도가 놓일 자리가 협소하여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크게 설득력은 없다.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출처 : 문화재청〉

다층전탑 인근의 강변 암반에 건립되어 있는 단층기단을 구비한 평면방형의 3층 석탑이다. 넓은 1매 판석으로 구성된 지대석의 외곽에는 높은 단의 각형 받침을 마련한 후 중앙에 호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해 기단을 놓았다. 기단은 1매의 석재로 조성했는데, 각 면에는 양 우주와 탱주를 모각했다. 갑석 역시 1매의 석재로 놓았는데, 각 면 3구씩 그리고 모서리에 1구씩 모두 복엽 16판의 복련을 조식했다. 중앙에는 낮고 높은 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해 탑신부를 놓았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1석으로 조성되었다.

매 층 탑신석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었는데, 1층 탑신은 2층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조성되었다. 현재 3층 탑신석은 결실되었다. 옥개석은 3층 모두 잔존하고 있다. 낙수면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면에는 1·2층은 각형 3단, 3층은 각형 2단의 받침이, 상면에는 각형 2단의 탑신받침이 조출되었다.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었다. 이상과 같은 석탑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신륵사동대탑수리비(神勒寺東臺塔修理碑)」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적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보제(普濟)는 본사(本寺)에서 입적하시었고, 다비식도 이 언덕에서 거행하였으니 이 사리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마멸) 상고해 보면 거기에 이르기를 사리를 얻은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으니, 각신(覺信)의 무리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북쪽 언덕에 정골사리를 봉안하였을 것이며 다시 그 나머지를 화장한 장소에 탑을 세워 간직하고 석종을 만들어 보관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 기록을 볼 때 나옹스님을 다비한 장소가 바로 전탑과 석탑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수습된 사리로 부도를 조성하고, 화장한 장소에 탑을 세웠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다비식을 거행한 장소에 건립된 탑은 앞서의 전탑과 이 석탑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님의 다비처에 건립한 탑은 3층 석탑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나옹화상의 사리를 모신 부도가 화장암으로 조성되었고, 석탑 역시 같은 재료로 건립되었다. 아울러 화장암과 벽돌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한 훼손 시 석탑은 내구성이 보장되지만, 전탑은 흔적도 없이 소멸된다는 재료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문에 명시된 다비처에 건립된 탑은 석탑이 더 유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화장이라는 장례법식을 보아 스님의 다비식을 거행한 장소로는 전탑의 위치보다는 석탑이 건립되어 있는 암반이 더 유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강변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는 인도의 전통적인 장례의식에서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갠지스강변에 “Gath”라는 화장터를 마련하고 이에서 화장한 시신을 갠지스강에 뿌리고 있다. 따라서 강변에 위치한 사찰에서

는 이와 유사한 장소를 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장이 승려들이 택하는 전통적인 장례법임을 감안할 때 나옹스님 역시 강변을 택해 다비식을 거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석탑 역시 전통적인 가람배치법에 의해 건립된 것이 아니라 나옹의 자취를 기념하고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화장지에 세워진 일종의 기념탑이라 하겠다.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驪州 神勒寺 普濟尊者石鍾)



〈출처 : 문화재청〉

신륵사 조사당 북쪽 언덕에 있는 보제존자 나옹화상의 사리를 봉안한 석종형 승탑이다. 고려 말기의 고승 나옹화상은 양주 회암사에 머무르다 갑작스럽게 왕명을 받고 밀양 영원사로 떠나게 되었다. 나옹선사는 떠나기 전에 회암사를 중수하고 낙성회를 열었는데, 이 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비단과 곡식을 가져다 공양하는 여인네들이 몰려들어 생업을 포기할 정도였다. 왕실에서는 이를 문제삼아 나옹선사에게 밀양 영원사로 한시 바빠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왕명으로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나옹선사는 병이 깊은 상태였기에 신륵사에 이르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머물게 되고 결국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신륵사에 나옹선사의 석종형 승탑이 세워지게 된 것은 이러한 나옹화상의 입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고요한 소나무 숲 속에 안치된 사리탑 앞에는 석등이 세워져 있고 선사의 생적을 기록한 석종비는 뒤쪽에 세워져 있어 석등, 승탑, 탑비 등 3조의 묘탑상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고려 말기에 불교를 중흥하고 조선 초기에 불교의 기반을 다진 고승으로 2천여 명의 제자를 배출했던 나옹화상의 묘역은 정성과 공력을 들여 마련된 흔적이 짙다.

고려 우왕 5년(1379)에 완성된 이 승탑은 종의 모습을 닮아서 석종이라 불린다. 네모난 형태의 높고 넓은 기단에는 사방에서 기단 위로 오르는 층계가 마련되었으며, 기단 위에 넓고 얇은 돌을 깔고 그 중앙부에 2단의 받침대를 놓은 뒤 탑신을 안치하였다. 이처럼 이 사리탑은 기단의 모습부터 장중함을 느낄 수 있다. 이간 뒤의 놓인 탑신은 당당한 규모에 위로 올라가면서 윤곽선이 완만한 종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 타원형을 이루는데, 어깨 부분에서 수평으로 꺾이고 꼭대기 한 가운데에 큼직한 화염보주를 장식하였다. 이 보주는 불꽃에 싸인 모양으로 조형성이 매우 뛰어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석종형 승탑이나 사리탑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려 말기에 새롭게 수용된 사리탑 양식으로 이는 멀리 인도에 복발형 불탑에 뿌리를 두고 있다. 훗날 티벳을 중심으로 유행한 라마탑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진전되고 이러한 양식이 좀 더 간소화되어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에 수용되었다. 고려 말기에 화장사 지공선사탑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그의 제자였던 나옹화상의 승탑에서는 탑신이 아예 종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훨씬 간략한 형태로 보편화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驪州 神勒寺 普濟尊者石鍾碑)



〈출처 : 문화재청〉

신륵사에 모셔진 고려 말(1379년) 고승인 나옹선사의 진영당(眞影堂, 영정을 모신 집) 보제존자석종(普濟尊者石鍾)과 탑비 등의 건립과정 및 나옹선사를 추모하는 글을 기록한 비석이다. 뒷부분에는 보제존자진당시(普濟尊者眞堂詩)가 새겨져 있다.

나옹선사의 이름은 혜근(慧勤) 호는 강월헌(江月軒)이다. 1320년에 경북 영해에서 탄생하였다. 20세 때 이웃 친구의 죽음을 보고 문경 묘적암(妙寂庵)요연선사(了然禪師)를 찾아 출하였다. 전국을 떠돌며 수행한 뒤 24세에 양주 회암사(檜巖寺)에서 주야로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충목왕(忠穆王) 3년 원(元)으로 가서 연경(燕京)의 법원사(法源寺)에 이르러 지공(指空)스님을 만났다. 지공(指空)은 인도 마갈타(Magadha)국 출신 승려로 당시 원에 와 있었다. 고려 충숙왕(忠肅王)대에 고려를 방문하였던 적이 있었다.

나옹선사는 지공(指空)스님에게서 법을 얻고 정자사(淨慈寺로) 가서 평산(平山) 처림(處林)스님을 만나 배움을 얻었다. 그 뒤에도 명주(明州)의 보타락가산(普陀洛伽山) 관음(觀音)보살을 비롯하여 그 외 여러 절을 참배하고 난 후, 다시 법원사(法源寺)로 가서 지공(指空)스님을 만나고, 공민왕(恭愍王) 7년(1358)에 귀국하였다. 공민왕(恭愍王) 10년(1361)에 왕사(王師)가 되어 보제존자(普濟尊者)의 칭호를 받았다. 공민왕(恭愍王) 14년(1365) 4월 왕명으로 송광사(松廣寺) 주지로 가서 불교계의 개혁에 나서게 되었다. 공민왕 20년(1371) 신돈이 실각한 후 양주 회암사로 가 다시 왕사로 책봉되었다.

나옹선사는 1374년부터 2년에 걸친 양주 회암사 1차 중창불사를 진행하였다. 1375년에 공민왕이 죽고 우왕(禑王)이 즉위하였다. 회암사 중창불사는 이듬해인 1376년에 마무리가 되었다. 4월 15일 낙성식을 겸하여 문수법회를 열었다. 이 때 개경과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에 위협을 느낀 권문세족들이 우왕을 움직여 나옹(懶翁)선사를 밀양(密陽) 형원사(螢源寺)로 가도록 하였다. 실질적인 유배였다. 나옹선사는 도중에 병이 들어서 여주 신륵사(神勒寺)에 이르러 입적하였다. 우왕 2년(1376)에 나이는 57세였다. 나옹의 사상은 조선 개창의 정신적 지주였던 무학대사에게 이어졌다.

나옹선사가 입적하자 현재 신륵사 구룡루 앞 바위에서 화장하였다. 현재 그 자리에는 작은 석탑이 하나 있다. 그 후 신륵사 뒤에 터를 마련하여 사리를 안치한 석종과 탑비를 세워두었다. 비문에 의하면 비석이 세워진 것은 우왕 5년(1379)이다. 비문은 이색이 짓고 글씨는 한수가 썼다.

이 비석은 신라시대 이후 전형적인 석비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귀부는 대석(臺石), 이수는 개석(蓋石)으로 바뀌었다. 지대석(地臺石) 위에 4조각으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별석을 올리고, 다시 그 위에 복련(覆蓮)·간석(竿石)·양련(仰連)으로 구성된 비좌를 올려놓았다. 비좌 상면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가운데에 직사각형으로 홈을 파서 비신과 지주를 꿰었다.

비신은 대리석을 다듬어 만들었다. 비신 양 옆은 화강암 지주를 세우고 안쪽 면 중앙에 세로로 홈을 파서 비신을 끼워 넣었다. 대리석은 화강암에 비하여 무르기 때문에 조각하기 쉽지만 정도는 약하다. 화강암을 다듬어 양 측면에 지주를 세움으로써 비신을 보강한 것이다. 이 같은 양식은 고려 중기 이후 비신으로 대리석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채용된 양식이다. 비문은 풍화로 마멸되어 육안으로 읽기 어렵다.

전면에는 나옹선사의 일생·사상·업적 등이 기록되어 있고, 후면에는 진당시(眞堂詩)와 200여 명의 문도와 추모자의 이름이 해서로 쓰여있다. 특이한 것은 전면 끝부분에 비문을 지은이·글쓴이·새긴이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지은이와 글쓴이는 비문 맨 앞쪽에, 건립에 관련된 인물은 후면 음기에 새겨진다. 비신 위에는 지붕형의 개석을 덮었다. 지붕은 팔각지붕을 모방하였는데, 아주 정교하게 조각되어 기왓골, 공포, 막새기와 등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신라 말 이후 귀부·비신·이수로 구성되어 왔던 석비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대석과 지붕돌로 바뀌어 갔다. 마치 목조건축을 형상화 한 것 같은데, 조사당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이 비석은 고려 말 변형기 탑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驪州 神勒寺 普濟尊者石鍾 앞 石燈)



〈출처 : 문화재청〉

회암사 주지를 지냈던 나옹선사는 왕명에 따라 밀성 영원사(密城 瑩原寺)로 가는 도중 신륵사에서 입적하신 선승으로, 공덕산 묘적암(功德山 妙寂庵)에 주석하신 요연선사(了然禪師)에게 출가하신 후 1347~1358년에 걸쳐 원나라 지공(指空)의 문하에 들어가 수행 후 귀국하여 회암사 대역사를 마쳤다. 선사의 성은 하씨이며 속명은 원혜(元惠) 법명은 혜근(慧勤) 호는 나옹(懶翁) 시호는 선각(禪覺)이시고 나옹, 선각왕사, 보제존자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그의 묘탑이 자리를 잡은 곳은 신륵사 서북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선승의 입적은 1376년으로 그의 묘탑과 석등은 3년 후에 각신(覺信), 각주(覺珠) 등에 의해 조성된 석종형 부도와 그 앞에 석등을 세웠다.

이 석등의 기본형은 부도형 팔각석등으로서 팔각기단 위에 팔각의 화사석과 옥개를 얹고 그 정상에 보주를 놓은 구조이다. 즉 팔각의 높은 지대석 위에 한 장 돌에 연화하대를 비롯하여 중대와 연화상대를 조각하였다. 하대부는 높은 족대와 연화하대로 구성되어 있다. 족대로 보이는 각 면에 첨두형 안상을 조각하였다. 족대 위에 일단의 낮은 각형받침과 복엽십육판 복련화대를 두른 위에 일단의 중대받침을 조출하였다. 복련화대의 연판은 매우 두터우며 그 조각 수법은 관촉사 연판조각수법과 유사한 표현수법을 따르고 있다.

중대인 간석은 팔각에 각 우주는 연주형 기둥 모양으로 조각하였으며 각면에는 아(亞)자형의 안상(眼象)을 음

각하고 그 안에 사엽화판을 조각하였다. 상대석은 복엽십육판의 양면을 조각하고 판단부에는 이단의 괴임대를 각출하여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 장 돌에 조성된 화사석은 팔각에 각 우주는 번륜을 양각한 원주에 화사벽 팔면에는 화창을 개설하였다. 각 면에 개설된 화창에는 사라센 계통의 첨정 아치형인 화두형을 이루고 있다. 화두창 위 벽면에는 고부조의 비천상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화사석 하단부에는 높직한 괴임대가 각출되었고 상단부에도 낮은 일단의 문틀 턱을 조출하였다. 화사석의 상단에는 우주머리와 연결시키는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조출하였다.

옥개석은 중후하나 처마와 전각의 반전이 경쾌하면서도 둔후감을 들어내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옥개 밑면에는 화사석의 평방과 잘 어울리도록 도리 대신에 일단의 각형 옥개받침을 조출하였다. 처마 면에는 서까래와 부연의 경계를 표현하듯이 단(段)을 이루어 낙수 홈의 역할을 이루도록 음각하였으나, 실제로 서까래와 부연 모습을 조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다. 추녀와 사래가 설치되는 위치에는 그 모습을 조출하였다. 낙수면의 경사는 급하지 않고 팔각의 합각머리는 뚜렷하며 옥개 정상에는 반원형 연속문을 조각하였다. 그 위에 둥근 노반과 보주를 조각하였는데 연봉형의 보주는 일석으로 된 통형으로서 별다른 조식이 없다.

이상과 같이 옥개의 조형양식은 대체로 여말선초의 석조부도나 석등의 옥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라 하겠다. 이 석등은 일반적인 석등과는 달리 화사석의 재질은 연질의 대리석계통석재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 부재들은 모두 화강석재를 활용하였다. 연질의 화사석은 다소의 마손이 보인다. 현재 석등이 배치되는 위치에서도 곧 알 수 있듯이 보제존자석종 및 그 묘비와 함께 세워진 연대가 확실한 석등으로서 고려 말엽의 귀중한 일예가 되겠으며, 고려 말 불교계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나옹화상의 석종형 부도의 출현과 더불어 그 앞에 석등을 설치하는 배치법은 아마도 조선시대 왕릉에 장명등을 설치하는 전통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 하겠다.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楊州 檜巖寺址 禪覺王師碑)



〈출처 : 문화재청〉

고려 말을 고승인 나옹(懶翁)스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그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회암사에 세운 탑비이다. 나옹스님의 부도탑과 비는 입적한 장소인 신륵사에도 있다. 신륵사보제존자석종(神勒寺 普濟尊者石鍾)과 신륵사보제존자석종비(神勒寺 普濟尊者石鍾碑)가 그것이다.

나옹선사의 이름은 혜근(慧勤), 호는 강월헌(江月軒)이다. 1320년에 탄생하였고 20세에 문경 묘적암(妙寂庵) 요연선사(了然禪師)를 찾아 출가하였다. 24세에 양주 회암사(檜巖寺)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고, 충목왕(忠穆王) 3년 원(元)으로 유학을 가서 연경(燕京)의 법원사(法源寺)에 이르러 지공(指空)스님을 만났다. 지공(指空)은 인도 승려로 당시 원에 와 있었는데 충숙왕(忠肅王)대에 고려를 방문하였던 적이

있었다. 나옹선사는 지공(指空)스님에게서 선을 배 배우고, 이후 정자사(淨慈寺)로 가 평산(平山) 처림(處林)스님을 만나 배움을 얻었다. 그 뒤에도 명주(明州)의 보타락가산(普陀洛伽山) 등 원나라의 여러 불교성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수행하고 여러 절을 참배하였다. 다시 법원사로 가서 지공스님을 만나고, 공민왕(恭愍王) 7년(1358)에 귀국하였다. 공민왕 10년(1361)에 왕사가 되어 보제존자의 칭호를 받았다. 귀국 후 처음에는 은둔하고 있었으나, 공민왕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참여하였다.

나옹의 선은 적극적인 현실참여, 실천하는 선으로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참여하여 불교계 개혁의 일부는 담당하게 되었다. 공민왕 14년(1365) 4월 왕명으로 송광사 주지가 되어 고려 말의 불교계의 개혁에 나서게 되었다. 그 후 공민왕 20년(1371) 신돈이 실각하자 양주 회암사로 오게 되었다. 1374년부터 회암사 중창불사를 진행하였다. 1375년에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자 권문세족이 득세하면서 나옹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회암사 중창불사는 1376년에 마무리가 되어 그 해 4월 15일 낙성식을 겸하여 문수법회가 회암사에서 열렸다. 이 때 개경과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암사에 몰려들었다. 개경 가까이에서 나옹선사가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권문세족들이 우왕을 움직여 나옹선사를 밀양 형원사로 가도록 하였다. 이것은 실질적인 유배나 다름 없었다. 나옹선사는 명을 받고 바로 출발하였으나 도중에 명으로 여주 신륵사에서 이르러 입적하였다. 우왕 2년(1376)에 나이는 57세였다. 이 비석은 우왕 3년(1377)에 건립한 것이다. 비문은 고려말 삼은의 한 사람인 묵은 이색이 짓고 비문의 글씨는 동고 권중화가 썼다.

이 비석은 당나라의 형식을 닮은 복고풍으로 귀부 위에 비좌를 마련하고 비신을 세웠다. 특이한 것은 이수를 다른 돌로 만들지 않고 비신 상단에 용틀임으로 대신한 것이다. 비신과 이수는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이수의 윗부분은 용이 몸통을 서로 휘감고 있어 둥근 모양이며, 그 밑에는 오각형의 구획을 만들어 '선각왕사지비(禪覺王師之碑)'라는 제액을 새겼다.

귀부는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석질 때문인지 이수 조각에 비하여 솜씨가 떨어진다. 몸집은 투박하고 발을 뭉툭하며 짧은 목을 가지고 있어서 볼품이 없다. 등의 귀갑문은 좌우대칭으로 정연하게 조각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귀부는 둔중하고 추상적이나 이수의 용틀임은 비교적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

나옹화상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비문은 앞면에만 음각되어 있는데 글씨는 힘있는 예서체이고 글자 크기는 가로 2cm, 세로 1.5cm이다.

이 비석을 1997년 화재로 인한 보호각의 소실로 이수와 함께 있는 비신이 파손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실시한 후 보존관리상 2001년도에 경기도박물관에 위탁보관하고 있다. 원위치에는 귀부가 그대로 있으며, 모조비가 건립되어 있다.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탑 (原州 令傳寺址 普濟尊者塔)

고려 후기의 승려인 보제존자의 사리탑으로, 모두 2기이다. 1915년, 일본인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 세워졌는데, 보통 승려의 사리탑과는 달리 석탑 형식을 취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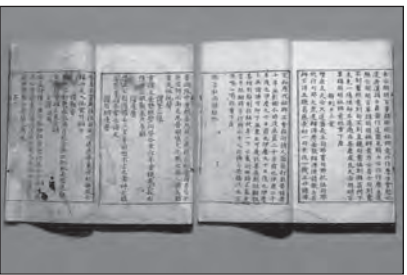
보제존자(1320~1376)는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한 나옹화상으로, 신륵사에 그의 사리탑이 남아 있으나 제자들에 의해 영전사에도 따로 사리탑을 세운 것이다.

2단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이다. 기단은 위·아래층 모두 모서리에 기둥조각을 새겼고, 위층 기단 윗면에는 탑신을 받치기 위한 돌을 따로 끼웠다. 탑신은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조각이 있다.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4단씩이다. 2기 가운데 1기의 1층 지붕돌은 양식상 차이가 있어 원래 이 탑에 속하였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탑의 꼭대기에 있는 머리장식은 2기 모두 완전하게 남아있지는 않다.

고려 우왕 14년(1388)에 세운 것으로, 승려의 묘탑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며, 더욱이 거의 같은 양식으로 2기를 건립하였다는 점도 특이한 예이다. 탑을 지금의 자리로 옮길 당시에 각각의 탑에서 사리를 두는 장치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한 탑에서는 죽은사람에 관해 새긴 지석(誌石)이 발견되어 이 탑을 세우게 된 과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탑은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훌륭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나옹화상어록 및 나옹화상가송 (懶翁和尚語錄 및 懶翁和尚歌頌)



〈출처 : 문화재청〉

나옹화상어록은 고려의 승려 나옹화상 혜근(惠勤)의 글을 제자들이 수집하고 교정하여 총 67장으로 간행한 것이며, 나옹화상가송은 나옹화상 혜근이 직접 지은 시집이다. 나옹화상(1320~1376)은 일찍 중국에 들어가 인도의 승려 지공(指空)에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뒤 고려에 돌아와 공민왕의 스승이 되었다.

나옹화상어록 및 나옹화상가송(懶翁和尚語錄 및 懶翁和尚歌頌)은 공민왕 12년(1363)에 처음 간행한 것을 나옹화상의 제자들이 교정하여 우왕 5년(1379)에 다시 찍어낸 것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어록과 가송이 각각 1권으로 나뉘져 2책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26cm, 가로 16cm이다.

나옹화상어록은 여러 책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글자의 새김과 인쇄상태가 가장 좋은 책이다.

8. 참고 문헌

[도서]

이응백 외(1998).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경기도(2005).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1』.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문화재청(2004). 『문화재대관(보물편·석조1, 개정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자료 및 홈페이지]

회암사지박물관, <http://museum.yangju.go.kr/>
2002.01.30. 현대불교신문 「고승 다시보기」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5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98,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577

[동영상]

영상으로 보는 한국사, 〈8편 불교〉
http://kids.cha.go.kr/kids/multiBbzView!view.action?id=53&no=53&curPage=1&strWhere=&strValue=&schWhere=&schDirect=&bbzId=kidshistory&sdate=&edate=&category=&mc=KD_02_07_03&bbzgubun=write



조선 성리학을 펼친 유학자, 이이

1. 활동 개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역사 인물 가운데 문화인물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바탕은 유교 성리학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밑바탕이 되는 전통사회를 형성한 조선 성리학을 세운 학자 율곡 이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효심이 깊었던 천재 소년 율곡이 금강산 절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가 대 성리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몸을 일으키는 율곡 이이 선생의 삶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2. 인물 학습¹⁾

가. 출신 가문과 학문적 성장



신사임당과 율곡이이 영정

이이의 본관은 경기 덕수(德水)이며, 고조는 이추(李抽)인데 벼슬이 지군사(知郡事)에 이르렀고, 증조는 이의석(李宜碩)인데 판관(判官)을 지냈으며, 조부는 이천(李蕝)이고 부친은 이원수(李元秀)로 감찰(監察)을 지냈다. 어머니는 기묘명현(己卯名賢)인 신명화(申命和)의 딸인 신사임당(申師任堂)으로서 예(禮)에 익숙하고 시(詩)에 밝았으며 글씨를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다.

이이는 중종 31년(1536) 12월 26일에 강릉 북평촌(北坪村) 외가에서 태어났다.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글을 배웠고, 외할머니와의 관계도 매우 돈독하였다. 그는 나면서부터 남달리

1) 가-라. 네이버캐스트, 인물한국사, 율곡 이이,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3227
마. 사단법인 율곡연구원 http://www.yulgok.or.kr/icons/app/cms/?html=/home/sub3_1_1.html&shell=/index.shell:28

영리하고 뛰어나서 말을 배우면서 바로 글을 알았다고 한다. 8세 때 화석정(花石亭)에 올라가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내고山吐孤輪月/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네 江含萬里風’라는 시를 지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었다고 한다.

이이는 유독 외가의 가족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다. 외할아버지인 신명화에 대한 행장(行狀)을 남겼고, 외할머니인 이씨 부인에 대해서는 묘지명(墓誌銘)을 남겼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행장을 남겼다. 그것은 이이가 외가인 강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머니의 행장 내용에도 어머니가 자신의 고향인 강릉을 그리워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이는 16세에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상복을 벗을 즈음에 불경을 읽고 속세를 떠날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절에 들어가 열심히 계율을 지키고 선정(禪定)을 닦았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난 뒤 불교를 버리고 다시 유학(儒學)에 마음을 쏟기로 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하여 성현을 표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자경문(自警文)을 지었다.

이이가 금강산에 들어가서 불교를 공부할 때의 구체적인 정황은 잘 알 수 없으나, 이이는 금강산의 작은 암자에 있는 노승과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을 놓고 논변을 벌였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이는 19세에 불교를 공부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20세 되던 해에 다시 강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자경문을 지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수양과 공부의 원칙을 11개 조항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항이 뜻을 크게 세우고 성현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명종 12년(1557)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성주목사(星州牧使) 노경린(盧慶麟)의 따님이었다. 다음 해 성주에서 강릉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산(陶山)에 들러 퇴계 이황을 만났다. 그 후 서찰을 주고받으며 여러 학설을 논변하였다. 이이는 어릴 때 이름을 알만한 스승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교유하였고, 퇴계 이황을 만나 교분을 쌓았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이이가 남긴 채언(瑣言)이라는 글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채언은 자잘한 말이란 뜻으로, 이이가 이황을 만나 묻고 답한 것이 자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거기에는 이이가 이황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주고받은 시와 이야기, 그리고 첫 만남 직후에 주고받은 시와 편지의 주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관직 생활

이이는 20대에 과거 공부에 힘써, 아버지의 상기(喪期)를 마친 명종 19년(1564)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때 사마시(司馬試)와 문과(文科)를 거치면서 장원을 차지한 것이 아홉 차례에 이르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고 불리었다. 처음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제수되었고, 예조좌랑(禮曹佐郎),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조좌랑(吏曹佐郎), 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이이는 과거에 장원 급제할 때 문과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서 천도책(天道策)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천도책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성리학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

고 만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도리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이이는 성리학적 자연관에 따라 여러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임금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정치를 바로 하면 천지의 기운도 바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진 관료로서 을사사화(乙巳士禍) 이후 관직의 풍토를 비판하였는데, 을사사화 때의 위사공신(보익공신)(衛社功臣(保翼功臣))을 삭훈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조선)(宣祖)가 즉위하자 천율곡(千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北京)에 갔다가 돌아와서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제수되었다가 다음 해 홍문관 교리가 되었는데, 이때 사가독서에 뽑혀 독서당에 있으면서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어 올렸다. 이는 손님과 주인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체의 글로서, 성군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 당시 조선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당대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과 그 해결책 등을 서술하였다.

동호문답은 선조 2년 홍문관 교리로 한 달 가량의 사가독서(賜假讀書)를 마친 34세의 율곡이 새 군주 선조에게 과제로 제출한 정치개혁 보고서로서 이이의 현실 인식 및 개혁안을 11개 조항으로 망라하였다. 11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주의 길을 논하다. 2. 신하의 길을 논하다. 3. 좋은 군주와 좋은 신하가 만나기 어려움에 대해 논하다. 4. 우리나라에서 도학이 행해지지 않음에 대해 논하다. 5. 우리 조정이 옛 도를 회복하지 못함에 대해 논하다. 6. 오늘의 시대 정세를 논하다. 7. 무실(務實)이 수기(修己)의 요체임을 논하다. 8. 간인의 판별이 어진 이를 기용하는 요체임을 논하다. 9. 안민정책을 논하다. 10. 교육정책을 논하다. 11. 정명(正名)이 정치의 근본임을 논하다.

그 뒤 이이는 홍문관 교리, 직제학, 대제학 및 사간원 대사간, 호조·이조·형조·병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다. 율곡전서에는 율곡이 평생에 걸쳐 임금에게 올린 59건의 소차(疏劄)가 실려 있다. 그의 상소는 당대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임금의 수양과 백성을 위무를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선조 7년의 만언봉사(萬言封事), 선조 11년의 응지논사소(應旨論事疏), 선조 15년의 진시폐소(陳時弊疏), 그리고 선조 16년의 진시사소(陳時事疏)와 같은 상소들은 모두 분량과 내용에서 대단히 충실한 글이다. 그는 당시를 창업과 수성에 이어 나라의 면모를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경장(更張)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그러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개혁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특히 당시의 안보 정세를 우려하면서 국방 개혁을 강조하였다. 그가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이가 국방 개혁에 대해 당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식견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만언봉사는 선조 7년 임금의 구언을 계기로 올린 상소로서 이이의 관직 생활 초기를 대표하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상소를 통해 당시의 현실을 통찰하고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만언봉사의 내용은 당시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진단에 대책으로 나뉜다. 그는 먼저 자신의 시대는 변통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에 힘쓰지 않아 근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현실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안으로 임금의 수양과 관련된 네 가지 대책을 내놓았고, 밖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다섯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이는 또한 지방관으로 부임하기도 하였는데, 선조 4년 청주목사가 되었으며, 선조 7년에는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다.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민생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개혁책을 추진하였는데, 서원 향약과 해주향약을 직접 만들어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공납(貢納)의 폐단에 대해서도 공안(貢案)의 개정, 수미법 시행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구상하고 제시하였다.

향약(鄉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 자치의 전통이 주자(朱子)가 정리한 여씨향약의 영향을 받아 체계화된 것으로, 조선시대 향촌 사대부의 지방 지배 및 풍속 교정의 방편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이는 서원향약을 비롯한 네 종류의 향약을 제정하였는데, 서원향약은 이이가 청주목사로 부임하여 백성을 교화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서원향약은 양반 뿐만 아니라 모든 신분의 주민을 참여시키는 계 조직을 향약에 연계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이는 또한 스스로 내외의 요직을 두루 경험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자신의 의견을 붙인 일기를 남겼는데, 그것이 경연일기(經筵日記)이다. 그는 경연일기에 당시 조정에서 마주친 여러 상황과 자신이 만난 여러 인물들에 대한 평가, 그밖에 여러 가지 제도의 시행과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기술하였다. 경연일기는 율곡의 경세 사상 뿐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

경연일기는 이이의 문집인 율곡전서에 상·중·하 3책으로 되어 있고, 조선시대의 야사집인 대동야승(大東野乘)에는 석담일기라는 제목으로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명종 20년(1565)에서부터 선조 14년(1581)까지 이이가 조정에 출사하여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기술과 평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이이는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당면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의 관직 생활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이가 관료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 정국은 동서분당(東西分黨)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었다. 이이는 이것을 봉당의 조짐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든 조정하여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반대파들은 이러한 이이의 노력을 한 쪽만을 편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국왕인 선조는 이이를 요직에 등용하고 개혁책을 내는 것을 장려하였지만, 실제 그의 방안을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이는 이러한 선조의 태도에 실망하여 여러 차례 사직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관직에 다시 나오곤 했다.

결국 이이는 병조판서로 재직 중에 과로로 병을 얻어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직전 순무어사(巡撫御史)로 임명되어 관북(關北) 지방으로 가게 된 서익(徐益)이 임금의 명을 받고 변방의 일을 물으러 오자 이이는 병세를 염려하여 만남을 만류하는 자제들의 청을 물리치고 6조항의 방략을 불러주었는데, 구술을 마친 이이는 호흡이 끊어졌다가 결국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이의 죽음에 대한 이 기록은 선조실록에는 보이지 않고 선조수정실록에 보인다. 선조실록은 광해군(光海君) 때 복인들을 중심으로 편찬된 것으로 서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집권한 서인들은 실록 수정 사업을 발의하여 수정실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수정실록이 나왔다고 해서 이전에 편찬한 실록을 파기하지는 않았고 함께 보관하였다. 상세정보

다. 학문과 저술

이이의 학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성리학이고 다른 하나는 경세학이다. 이이가 살았던 16세기는 중국의 성리학이 조선에 들어와 조선 성리학으로 발전하는 시기였는데, 이이는 이때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퇴계 이황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이는 자신의 성리학 사상의 핵심 개념으로 ‘이기지묘(理氣之妙)’를 제시하였다. 이는 존재로서는 이기가 하나이지만 개념이나 가치로 본다면 둘이 구별되어야 하는 이치를 표현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당시 이황이 기대승(奇大升)과 함께 벌였던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의 내용을 친우인 우계 성혼과 편지로 토론하였는데, 이이는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반대하여 자연과 인간의 모든 현상은 기가 작용하면 이가 조정하는 기발이승의 한 길 밖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이는 이와 기의 차이를 뚜렷이 구분하였는데, 이는 시공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가지고 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이통기국’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이이는 자신의 학문적 기준을 성리학에 두고 있었지만,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어릴 때 불서를 섭렵한 경험도 있었고, 양명학(陽明學)과 도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이는 선조 5년(1572)년 우계 성혼으로부터 퇴계 이황의 사단칠정설과 인심도심설 등에 관해 의문 나는 점을 질문 받고, 이 주제에 대해 그와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으며 토론하였다. 지금 율곡의 문집에는 그가 성혼에게 이 주제를 토론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9통 정도 남아 있고, 성혼이 이이에게 보낸 편지도 5통이 부록되어 전한다. 이러한 편지를 통해 율곡의 사단칠정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편지에 해당하는 것이 율곡전서 9권에 수록되어 있는 ‘성호원(成浩原)에게 답하는 편지’이다. 상세정보

이이 학문의 또 다른 특징은 경세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관직 생활 기간에 끊임없이 글을 올려 여러 개혁 정책을 제안하였다. 여러 개혁 상소와 동호문답 등의 저술을 통해 그는 동서분당의 해소, 공납 제도 개혁, 서얼 허통과 공사노비속랑 등 신분제 개혁, 교육 제도 및 군사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성군이 되기 위해 임금이 갖추어야 하는 학문인 이른바 성학, 곧 제왕학에 관심을 보였다. 이이는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저술하여 자신의 성학을 체계화하였다. 성학집요는 대학을 기본으로 하여 목차를 구성한 다음 여러 경전과 사서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모아 편찬한 것이었다.

이이는 성학집요 서문에서 이 책이 중국 송대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모범으로 하였으며, 대학연의가 너무 내용이 많은 것을 경계하여 보다 간략하고 요령 있게 정리하려 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1편의 통설을 시작으로 2편 수기편은 총 13장, 3편 정가편은 총 8장, 4편 위정편은 10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5편은 성현도통편을 배치하였다. 이이는 성학집요가 비록 임금의 학문을 위해 편찬한 것이지만, 학문의 실상은 상하가 통하는 것이라 하여 보편적이라는 것도 지적하였다.

이이는 학문과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이는 선조의 명을 받들어 사서의 언해본을 저술해서 한글화 하였고, 격몽요결(擊蒙要訣)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재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모범(學校模範)을 지어 구체적인 학교 제도의 개혁안도 제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원향약과 해주향약을 저술하여 지방 사회의 교

화와 자치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이는 당시의 지배적 학풍은 성리학에 매몰되지 않고 정치와 경제,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에까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과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실학 사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쳐 실학의 선구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이는 42세 때인 선조 10년(1577) 12월 격몽요결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이이가 해주(海州)에서 어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것이다. 본문은 입지(立志)·혁구습(革舊習)·지신(持身)·독서(讀書)·사친(事親)·상제(喪制)·제례(祭禮)·거가(居家)·접인(接人)·처세(處世)의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 끝에 사당도(祠堂圖)·시제도(時祭圖)·설찬도(設饌圖)와 출입의(出入儀)·참례의(參禮儀)·천헌의(薦獻儀)·고사의(古事儀)·시제의(時祭儀)·기제의(忌祭儀)·묘제의(墓祭儀)·상복중행제의(喪服中行祭儀)가 수록되어있다.

라. 영향과 계승



자운서원

이이의 문인으로는 조선 예학의 종장으로 불리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의병장으로 순절한 중봉(重峯) 조헌(趙憲)이 있다. 김장생의 문인으로는 그의 아들인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을 비롯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포저(浦渚) 조익(趙翼), 계곡(谿谷) 장유(張維), 상촌(象村) 신희(申欽) 등이 있다. 또한 친우인 우계 성혼의 문인들도 율곡의 문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는데 성혼의 학맥은

사위인 팔송(八松) 윤항(尹煌)으로 이어져, 그의 아들인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와 손자 명재(明齋) 윤증(尹拯)으로 계승되었다. 이들은 이후 송시열과 윤증이 반목하여 노론과 소론으로 분기되기 전까지 학문적 기풍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다. 이처럼 율곡의 문인들은 퇴계 문인들로 이루어진 영남학과와 쌍벽을 이루는 기호학과를 이루었다. 그들은 학문적으로는 율곡의 성리학을 계승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서인 세력의 주축으로서 이후 조선 후기 정치를 주도하였다.

율곡전서의 문인록에는 김장생, 조헌 등 여든네 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들은 동문계를 만들어 봄가을로 서원에 모였는데, 그 규정은 한결같이 이이가 지은 향약 절목을 따랐다고 한다.

이이의 추송 사업은 문인들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이는 인조반정 이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다음 해에 문성(文成)이라는 시호가 내려다. 또한 숙종 7년에는 문묘에 종사되었다. 하지만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이 축출될 때 문묘에서 출향되었다가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다시 복향되었다. 파주의 자운서원 등 전국의 20여 개 서원에 종향되었다.

율곡 이이는 조선 후기의 정치적 굴곡에 따라 추송의 부침이 잦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이의 문인들과 그의

학통을 이은 학자들은 이이에게 가해진 비난과 공격에 반발하여 그를 변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는데, 율곡전서에는 그러한 내용의 상소들이 따로 모여 있다.

율곡전서의 원향록(院享錄)에는 율곡 이이를 모신 전국 스물두 개 서원이 나열되어 있다. 그 가운데 소현서원(紹賢書院)은 이이가 황해도 석담(石潭)에 정착하면서 세운 은병정사(銀瓶精舍)가 모태가 되어 설립된 서원으로 광해군 2년(1610)에 소현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자운서원은 이이의 묘가 있는 경기 파주에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으로 효종(孝宗) 때 사액을 받았다.

마. 율곡 이이 연보

연 도	중 요 사 항
1536년(중종 31년)	음력 12월 26일에 강릉 북평촌(현 죽헌동) 외가인 오죽헌 몽룡실에서 태어나다.(선생의 원래 고향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율곡리이다)
1538년(중종 33년)	말과 글을 배우다. 하루는 외할머니 이씨의 물음에 “석류는 껍질 속에 부서러진 붉은 구슬을 싸고 있네(石榴皮과碎紅珠)”라고 옛 시귀절을 읊다.
1540년(중종 35년)	어머니 신사임당이 병이 들자 외조부 사당에 들어가 쾌유를 기도하다.
1541년(중종 36년)	강릉 외가에서 어머니를 따라 서울 수진방(壽進坊: 현 청진동)에 있는 서울집으로 올라오다.
1542년(중종 37년)	어머니에게 사서(四書)를 배우다. 〈진복창전(陳復昌傳)〉을 짓다.
1543년(중종 38년)	본가인 파주 율곡리의 화석정(花石亭)에 올라 시를 짓다.
1544년(중종 39년)	《이륜행실록》을 보다가 옛날 장공예(張公藝)의 이야기를 읽고 그를 사모하여 형제들이 부모를 받들고 함께 사는 그림을 그려놓고 바라보다.
1545년(중종 40년)	강릉 외가에서 〈경포대부〉를 짓다.
1546년(명종 1년)	아버지 이원수공이 병환이 나자 팔을 찔러 피를 드리고 사당에 들어가서 쾌유를 기도하다.
1548년(명종 3년)	어머니의 행장(先品行狀)을 짓다.
1553년(명종 8년)	가을에 시묘살이를 마치고 관례(冠禮: 성인식)를 행하다.
1554년(명종 9년)	우계 성혼과 교분을 맺다. 이 해 3월에 금강산에 입산하다.
1555년(명종 10년)	봄에 금강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다. 강릉외가로 돌아가 〈자경문(自警文)〉을 짓고 성학에 전심하다.
1556년(명종 11년)	봄에 서울 집으로 돌아오다. 이 해에 한성시(漢城試)에 장원 급제하다.
1557년(명종 12년)	9월에 성주 목사 노경린의 딸 곡산 노씨와 혼인하다.

1558년(명종 13년)	봄에 예안(안동) 도산에 가서 퇴계를 만나 도를 묻다. 이 해 겨울 별시해(別試解)에 <천도책(天道策)>으로 장원급제하다.
1560년(명종 15년)	이 해에 한 장흥서(韓長興) 끝에 발문을 쓰고 지야서회(至夜書懷)라는 시(詩)를 짓다.
1561년(명종 16년)	5월에 아버지 이원수공이 별세하다.
1564년(명종 19년)	7월에 생원, 진사에 급제하다. 8월에 명경과(明經科)에 <역수책(易數策)>으로 장원 급제,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임명되어 첫 벼슬길에 나아가다.
1565년(명종 20년)	봄에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옮기다.8월에 요승 보우와 외척 윤원형의 잘못을 상소하여 논박하다. 11월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는데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다.
1566년(명종 21년)	3월에 다시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다. 5월에 동료와 함께<시국의 급선무 세 가지(時務三事)>를 상소하다. 겨울에 이조좌랑(吏曹佐郎)이 되어 관청의 흐린 행습을 바로잡다.
1567년(명종 22년)	6월에 명종이 승하하자 퇴계선생에게 글을 올려 국장을 의논하고 <명종대왕의 만사(輓詞)>를 짓다. 10월에 기대승의 편지를 받고 답하다.
1568년(선조 원년)	2월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이 되고, 성균관 직강이 되다. 4월에 장인 노경린 공이 별세하다. 5월에 우계선생과 지선(至善)중(中) 및 안자(顔子)의 격치성정(格致誠正)에 대한 설을 논하다. 가을에 명나라로 가는 천유곡 서장관(千秋使書狀官)이 되어 명나라 수도를 다녀오다. 겨울에 돌아와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敎理)에 제수받고 지제교(知製敎)겸 경연 시독관 춘추관 기주관(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이 되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다. 11월에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강릉으로 내려가다.
1569년(선조 2년)	6월에 다시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임명되어 7월에 조정에 돌아오다. 9월에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어올리고 동료와 함께 <시무구사(時務九事)>를 상소하다. 10월에 임금에게 특별휴가를 얻어 강릉으로 가자 외할머니 이씨가 별세하다(90세).
1570년(선조 3년)	4월에 교리(校理)에 임명되어 서울로 돌아오다. 8월에 만형 죽곡(竹谷) 선(璫)이 별세하다. 10월에 병으로 사퇴하고 해주 들마을(아두촌) 처가로 돌아가다. 12월에 퇴계의 부음을 듣고 아우 옥산으로 하여금 조문케 하다.

1571년(선조 4년)	정월에 해주에서 파주 율곡리로 돌아가 이조정랑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아니하다. 여름에 다시 교리에 임명되어 불려 올라와 홍문관 부응교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弘文館 副應敎 知製敎 兼 經筵侍讀官) 춘추관 편수관(春秋館 編修 官)으로 옮겼으나 모두 사퇴하고 해주로 돌아가다. 이때 학자들과 해주 고산(高山) 석담구곡(石潭九曲)을 구경하고 은거할 계획을 세우다. 6월에 청주목사(淸州牧使)에 임명되어 손수 <서원향약(西原鄉約)>을 지어 고을 백성을 인솔하다.
1572년(선조 5년)	3월에 병으로 사퇴하고 서울로 올라오다. 여름에 부응교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율곡리로 돌아가다. 이때 우계선생과 이기(理氣), 사단칠정(四端七情),인심도심(人心道心)을 논하다. 8월에 원접사 종사관(遠接使 從事官), 9월에 사간원 사간(司諫院 司諫), 12월에 홍문관 응교(弘文館 應敎), 홍문관 전한(弘文館 典翰)에 각각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다.
1573년(선조 6년)	7월에 홍문관 직제학에 임명되어 병으로 사퇴코자 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올라와 세 번 상소하여 허락을 받아 8월에 율곡리로 돌아가다. 거기서 <감군은(感君恩)>을 짓다. 9월에 다시 직제학에 임명되어 올라오다. 겨울에 동료들과 <옥당 진계 차(玉堂陳戒筭)>를 올려 재앙 없앨 방법을 논하다. 그 뒤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동부승지 지제교 겸 경연 참찬관(承政院 同副承旨 知製敎 兼 經筵參贊官) 춘추관 수찬관(春秋館 修撰官)에 임명되다.
1574년(선조 7년)	정월에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승진되어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지어 올린다. 3월에 병조참지(兵曹參知), 사간원 대사간(司諫院 大司諫)에 임명되다. 4월에 병으로 우부승지를 사퇴하고 율곡리로 돌아가다. 6월에 장남 경림(景臨)이 출생하다. 10월에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황해도의 민폐를 개혁할 것을 상소하다.
1575년(선조 8년)	3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율곡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에 임명되다. 9월에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지어 올린다.
1576년(선조 9년)	2월에 율곡리로 돌아가다. 10월에 해주 석담(石潭)에 청계당(聽溪堂)을 짓다.
1577년(선조 10년)	정월에 해주 석담(石潭)에서 가족들을 모아 놓고 <같이 살며 서로 경계하는 글(同居戒辭)>를 지어 읽히다. 12월에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완성하고, <해주 향약(海州鄉約)>과<사창(社倉)>을 의논하여 세우다.

1578년(선조 11년)	<p>해주 석담(石潭)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떠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짓다. 문헌서원(文獻書院)의 학규(學規)를 짓다.</p> <p>3월에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어 올라왔다가 사퇴하고 4월에 율곡리로 돌아가다.</p> <p>5월에 다시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상소로 사퇴하고 만언소(萬言疏)인 <응지논사 소(應旨論事疏)>를 지어 올리다.</p> <p>7월에 토정(土亭) 이지함의 상에 조문하다.</p>
1579년(선조 12년)	<p>3월에 <도봉서원기(道峯書院記)>를 짓고 <소학집주(小學集註)>를 완성하다. 또 3월에 차남 경정(景鼎)이 출생하다.</p> <p>5월에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상소로 사퇴하고, 동서 봉당의 폐해를 깨끗이 하고 화합하여 오직 어진 사람을 등용할 것을 간청하다.</p> <p>7월에 <구용첩(九容帖)의 발문(跋文)>을 짓다.</p>
1580년(선조 13년)	<p>5월에 <기사실기(箕子實記)>를 짓다.</p> <p>12월에 대사간에 임명되어 올라오다. 이 해에 정암(靜菴) 조광조의 묘지(墓誌)를 짓다.</p>
1581년(선조 14년)	<p>정월에 상소를 올려 정사(政事)를 닦아 천재(天)를 방지하기를 간청하다.</p> <p>4월에 임금에게 청하여 백성들을 구제하는 방책(救民之策)을 회의하게 하다.</p> <p>6월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 大司憲) 겸 예문관제학으로 승진되고 동지 중추부사를 맡다.</p> <p>10월에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승진되고 조광조, 이항을 문묘에 종사(從祀)할 것을 건의하다. 또 폐정(弊政)을 개혁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경제사(經濟司)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p> <p>11월에 홍문관(弘文館) 예문관 대제학(藝文館 大提學)에 임명되다. 이 해에 <경연일기(經筵日記)>를 완성하다.</p>
1582년(선조 15년)	<p>정월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다.</p> <p>7월에 어명으로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김시습전(金時習傳)>과 <학교모범(學校模範)>및 사목(事目)을 지어 올리다.</p> <p>8월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임명되다.</p> <p>9월에 승정대부(崇政大夫)로 특진하고 의정부 우찬성(議政府 右贊成)에 임명되어 세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아 또다시 만언소(萬言疏)인 <진 시폐소(陳時弊疏)>를 지어 올리다.</p> <p>10월에 명(明)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극기복례설>을 지으니 사신들이 거듭 경탄하였다.</p> <p>12월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어 서도(西道)의 민폐(民弊)를 진달하다.</p>

1583년(선조 16년)	<p>2월에 <시급한 정책 여섯가지(時務六條)>를 계진하다.</p> <p>4월에 시국 구제에 관한 상소인 <진 시사 소(陳時事疏)>를 올리다(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공납(貢納)제도를 개혁할 것. 특히 서자들을 등용하고 또 노비들도 곡식을 바치면 양민으로 허락해 줄 것을 주장).</p> <p>또 4월에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십만 양병설을 주장했으나, 유성룡 등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가다.</p> <p>6월에 삼사(三司)의 탄핵으로 사임하고 율곡리로 돌아갔다가 7월에 다시 해주 석담으로 가다.</p> <p>9월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임명되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제수되다.</p>
1584년(선조 17년)	<p>정월 14일에 북방을 순무(巡撫)하러 가는 서익에게 <마땅히 해야 할 여섯가지 방략(六條方略)>을 최후로 진술하다.</p> <p>정월 16일에 서울 대사동(大寺洞: 현 인사동) 집에서 별세하다.</p> <p>3월 20일에 파주 자운산(坡州 紫雲山) 선영에 안장되다.</p>
1623년(인조 원년)	영의정에 추증되다.
1624년(인조 2년)	<p>문성(文成)이라는 시호(諡號)를 받다. (문성(文成)은 도덕박문(道德博聞)을 문(文)이라 하고, 안민입정(安民立政)을 성(成)이라 함 : ‘도덕과 사물을 널리 들어 통했고, 백성의 안위를 살피 정사의 근본을 세웠다.’라는 의미)</p>
1681년(숙종 7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다. (위치는 문순공(文純公) 이 횡(李滉) 다음에 놓임)

3. 교수-학습 과정안

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율곡 이이의 삶과 학문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곡 이이의 삶과 학문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자경문에 담긴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이의 삶 - 이이의 철학과 성리학 		

나. 본활동

단 원 명	3-3. 율곡 이이, 조선 성리학을 펼치다		
학습 목표	1. 율곡 이이의 삶과 학문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자경문에 담긴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전시학습 상기 및 동기 유발 (5분) : 율곡의 호와 마을에 관한 이야기		
전 개	1. “대상과의 만남”(10분)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여운형과 관련한 개념을 이해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되돌리기(10분)	교사의 안내로 어려운 개념 확인 및 내용 정리 동영상 함께 보기 〈문화유산채널-오죽헌 1부 신사임당은 왜 친정에 살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eMIs0OfMd9U 〈문화유산채널-오죽헌 2부 시묘살이 3년 이이의 사모곡〉 https://www.youtube.com/watch?v=EsEZX7Qjep0	
	3. “동료와의 만남”(15분)	‘생각나누기’와 ‘생각더하기’를 모둠 친구들과 협의하면서 해결/ 묻고 답하기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4. 학생 활동지 해답

[생각 나누기]

• 율곡이 불교에 귀의했다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와 유학자로서 자기 수행의 거울을 삼고자 지은 ‘자경문’의 내용입니다.

〈율곡의 자경문〉

1. 입지(立志)
뜻을 크게 가지고 성인을 본받되,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

2. 과언(寡言)
말을 적게 하라.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말을 줄여야 한다.

3. 정심(定心)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잡념과 집착을 끊고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

4. 근독(謹獨)
언제나 경계하고 조심하면 자연히 일체의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 독서(讀書)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친 뒤에 글을 읽는다. 글을 읽는 이유는 의리를 살피 일을 할 때에 쓰기 위한 것이다.

6. 소제욕심(掃除慾心)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라.

7. 진성(盡誠)
모든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해야 한다.

8. 정의자심(正義之心)
천하를 얻더라도 불의로 얻어서는 안 된다.

9. 감화(感化)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돌이켜 깊이 반성하여 그 사람을 감화시켜야 한다.

10. 수면(睡眠)
마음을 항상 깨어 있게 하고 바르게 자야 한다.

11. 용공지효(用功之效)
공부는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서두르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아야 한다.

◆ 활동 1. ‘나의 자경문’을 짓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할지 토론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1.
2.
3.
4.
5.

학생들이 자기 처지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 습관을 고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 준다.

◆ 활동 2. ‘나의 호’을 짓는다면 나는 어떤 호를 지을 것인지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나의 호	고향, 지명	화산, 장산, 살구골 등등
	꿈, 이상	구봉, 의사, 판사 등등
	좌우명, 의지	대장정, 우공이산 등

[생각 더하기]

• 돈에 새겨진 비밀



여기 있는 건 친구들이 좋아하는 돈입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돈에는 그 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새겨 넣지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지폐에 그려진 분이 누군지 관심을 갖기 보다는 동그라미 개수에 더 관심이 많았겠지만 오늘은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천원권에 그려진 분은 누구 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5천원권에 그려진 분은 누구까요? 율곡 이이 선생님이지요. 제일 큰 돈인 5만원 권에는 율곡 선생의 어머니이신 신사임당이십니다.

퇴계 선생은 조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문인 중국의 성리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독파해내신 분입니 다. 오늘날도 세계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퇴계 선생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온답니다. 율곡 선생보다는 35살이 많으셨지만 율곡 선생과는 평생 공부 친구로 지내시는 대학자이시죠. 사실 율곡의 어머

니 신사임당보다도 3살이나 많으셨지요.

퇴계 선생이 중국의 성리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해 냈다면 율곡 선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 성리학을 학문으로 발전시킨 분이랍니다.

◆ 활동 1. 지폐에는 인물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물과 관련된 건물, 식물, 예술 작품 등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아래에 써 보세요.

1000원	5000원	50000원
앞면 명륜당 건물, 매화 꽃	앞면 오죽헌(몽룡실), 대나무	앞면 신사임당 목포도도, 신사임당 초충도 수병
뒷면 계상정거도(정선작품) -도산서당 주변의 산수를 담은 풍경화	뒷면 신사임당 초충도 - 수박과 맨드라미, 나비 등을 그린 그림	뒷면 어몽룡 월매도, 이정 풍죽도

◆ 활동 2. 여러분이 화폐를 만든다면 어떤 분을 화폐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나요? 한 번 만들어 보아요.

〈내가 만든 화폐〉

10000	15000
-------	-------

〈예시〉



5. 활동 준비물

모둠별 활동지, 필기도구, 화폐 도안 등

〈화폐도안 예시〉



6. 교사 참고 자료

가. 울곡문화제

● 2016 제 29회 울곡문화제

문향(文鄕) 파주의 종합문화예술축제인 울곡문화제는 파주가 낳은 우리 민족사의 대선현(大先賢)이신 울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고, 43만 파주시민의 어우러짐을 위하여 마련되는 시민축제로 울곡선생유적지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 행사명 : 제29회 울곡문화제
- 주제 : 울곡이이선생의 유덕을 추앙하는 시민축제
- 기간 : '16. 10. 8.(토)~10. 9(일)[2일간]
- 장소 : 파주 이이유적(자운서원, 법원읍 동문리 소재)
- 주최주관 : 파주시, 파주문화원
-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팀(031-940-4352)

● 축제연혁

연도	테마	기간
2015	제28회 울곡문화제	2015년 10월 10일~ 10월 11일 (2일간)
2014	제27회 울곡문화제	2014년 10월 11일~ 10월 12일 (2일간)
2013	제26회 울곡문화제	2013년 10월 12일~ 10월 13일 (2일간)

2012	제25회 울곡문화제	2012년 10월 13일~ 10월 14일 (2일간)
2011	제24회 울곡문화제	2011년 10월 07일~ 10월 08일 (2일간)
2010	제23회 울곡문화제	2010년 10월 16일~ 10월 17일 (2일간)

● 개요

울곡문화제는 파주의 자랑스러운 울곡 선생을 위시로 한 선현들의 삶에 대한 ‘되돌아 봄’을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 파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나아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함께 어우러짐”을 통해 역사적, 공간적 일체감을 나누며 즐기는 축제의 장(場)으로 자리잡아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울곡선생의 얼을 기리는 추념 행사와 경축 행사로 대별되며, 추념행사로는 자운서원 추향제례, 울곡사상학술 심포지엄, 유가행렬 재연, 파주 3현 유적답사 등이 있다. 또한 전국한시백일장, 울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울곡서예대전 등 문예행사가 펼쳐지며, 길놀이, 서원음악회, 우리놀이 한마당, 전통 혼례식 등의 경축공연 및 전시행사가 열리며,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 문화제 오시는 길

- 울곡문화제
- 주소 : 경기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5-1
- 버스

불광동 버스터미널에서 30번(직행) → 법원사거리 하차 → 셔틀버스 → 울곡선생유적지
서울역에서 9710(광역) → 문산터미널 → 11번버스 → 울곡선생유적지

- 셔틀버스

10월 8일 08:00 ~ 21:00	
10월 9일 08:00 ~ 18:00	
법원읍 임시주차장 ~ 자운서원	수시
금촌역 ~ 자운서원	수시
운정행복센터 ~ 자운서원	매시 정각
문산역 ~ 자운서원	매시 정각/30분

7.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 **관련인물**
이황, 신사임당, 노경린, 유형원
- **관련조직단체**
향약
- **관련유물유적**
성학집요, 자운서원, 만언봉사, 공안, 대학연의, 격몽요결, 학교모범, 소현서원

이황

조선의 대학자.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도수(陶叟)·퇴도(退陶), 시호는 문순(文純). 본관은 진보(眞寶). 진사(進士) 식(植)의 아들. 경북 예안(禮安)에서 출생하여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숙부 우(塢)에게 양육되었다. 1528년(중종 23)에 진사에 합격하고 1533년(중종 28) 성균관에 들어가 이듬해 문과에 급제, 정자(正字)·박사(博士)·전직(典籍)·호조 좌랑(戶曹佐郎)을 거쳐 1539년(중종 34) 홍문관 수찬(修撰)이 되었다. 그 후 승진을 거듭하여 성균관 사성(司成)이 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에 들어가 학문을 연마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다시 불러 홍문관 교리(校理)를 지내고, 1545년(인종 1) 전한(典翰)이 되었다.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자 그도 화를 입어 한때 파직되었다가 복직하였으나 이미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을 때이므로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가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일찍이 그가 서울에 있을 때 주자전서(朱子全書)을 읽고 여기 몰두하여 성리학(性理學)을 연구, 마침내 대성하여 동방의 주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 학문을 배웠다. 비록 정부의 부름이 있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고 부득한 경우에는 외직(外職)을 자청하였다.

명종 초에 단양(丹陽)·풍기(豊基) 등의 군수를 역임한 것도 이 때문이며, 1552년(명종 7) 다시 소환되어 홍문관 교리(校理)·대사성(大司成)·부제학(副提學)·공조 참판(工曹參判)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1555년(명종 10) 고향으로 돌아갔다. 앞서 풍기 군수의 직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는 한서암(寒棲庵)을 짓고 1555년에는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인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지어 학문과 시색의 생활을 계속하였다. 이이(李珥)가 그를 방문한 것도 이때의 일이며 명종이 그가 관직에 나오지 않음을 애석히 여겨 화공(畫工)에 명하여 도산(陶山)의 경치를 그려 오게 하여 완상(玩賞)한 것도 이 때의 미담이다.

그의 사상은 50~60세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변론·저술·편저(編著) 등 중요한 것은 모두 이 기간에 된 것으로 《계몽전의(啓蒙傳疑)》·《주자서 절요(朱子書節要)》·《송계원명리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인심경석의(人心經釋疑)》 및 기대승(奇大升)과 문답한 《사단칠정분리기서(四端七情分理氣書)》와 같은 것은 그의 대표적인 명저이

다. 명종 말에 예조 판서가 되고, 1568년(선조 1) 대제학(大提學)·판중추검지경연(判中樞兼知經筵) 등이 되어 유명한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으니 이는 국은(國恩)에 보답하고 학문을 개발하기 위한 만년의 대표작이다.

그가 죽자 선조는 시호를 내리고 영의정을 추증하였으며, 1610년(광해군 2) 문묘(文廟)에 모셨다. 이황은 이이와 함께 우리나라 유학사상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주자(朱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적 사상을 계승하여 그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는 철저한 철학적 사색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하여 연역적(演繹的) 방법을 채택,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학문에 임하여 어디까지나 독단과 경솔을 배격하였다. 그는 우주 만물은 이(理)와 기(氣)의 이원적(二元的) 요소로 구성되어 그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우주의 만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기의 도덕적 가치를 말함에는 이는 순선무악(純善無惡)한 것이고 기는 가선가악(可善可惡)한 것인 즉 이는 절대적 가치를 가졌고 기는 상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심성(心性) 문제를 해석함에도 역시 이러한 절대·상대의 가치를 가진 이기이원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이 뒤에 기대승과의 논쟁이 벌어진 유명한 《사단칠정(四端七情)》론으로 이뒤 우리나라 유학자로서 이 문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 주제를 던진 것이다.

그의 학설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쳐, 메이지 시대(明治時代)의 교육 이념의 기본 정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황의 학문적 근본 입장은 진리를 이론에서 찾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진리는 평범한 일상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으로 지(知)와 행(行)의 일치를 주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성(誠)이요, 그에 대한 노력으로서 경(敬)이 있을 뿐이라 하였다. 실로 그의 학문·인생관의 최후 결정은 이 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을 70여 생애를 통하여 실천한 것이 이황이었다. 그는 문학·고증학(考證學)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그 사상·학풍이 후세에 계승되어 영남학파(嶺南學派)를 형성, 유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사임당

1551 조선 중기의 예술가로, 시·글씨·그림에 모두 뛰어났음. 본관은 평산으로, 1504(연산군 10)년에 아버지 명화(名和)와 어머니 용인 이씨로 딸로 출생함. 사임당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太任)을 본받는다는 뜻의 당호이며, 시임당(媿任堂)·임사재(妊思齋)라고도 함. 강릉 외가에서 자랐으며, 19세에 덕수 이씨 원수(元秀)와 혼인하고, 율곡 이이(李珥)의 어머니가 됨. 그 뒤 친정에 머물다가 38세에 시집살이를 주관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옴. 1551(명종 6)년 별세함. 어려서부터 경전과 시문에 능하였고 서예와 그림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음. 일곱 살 무렵에 안견(安堅)의 산수도를 본 때 그렸는데 진품과 매우 유사하였다고 함. 특히 포도를 잘 그렸고, 곤충과 꽃을 그리는 솜씨도 일품이었다고 함. 작품으로 40폭 정도의 그림이 전함. 산수·포도·목죽·목매·초충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즐겨 그렸음. 산수에서는 안견과 화공과 강희안 이래의 절파 화풍을 절충한 화풍으로 그렸음.

향약

조선 시대의 향촌의 자치 규약으로, 16세기 중엽 사람들이 유교 덕목과 조선의 현실을 결합시켜 만든 공동체 윤리이다. 당시 이황과 이이 등이 11세기경 중국 산시성 명문가인 여씨 집안에서 창안한 ‘여씨 향약’을 도입해 자신의 지역에서 실천했다. 1577년(선조 10년) 이이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주 향약’을 편찬해 우리나라 향약의 교범을 마련했다. 사림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 지방의 세력 기반을 마련, 훈구와의 대립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향약의 4대 덕목으로는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덕업상권), 잘못된 서로 바로잡아 주며(과실상규), 예속을 서로 권장하고(예속상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환난상휼)가 꼽힌다. 그러나 이것의 진짜 의미는 성리학 윤리 보급을 통한 농민 통제였다.

성학집요

강릉 오죽헌에서 신사임당[1504~1551]의 아들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한 율곡 이이[1536~1584]의 저작인 《격몽요결(擊蒙要訣)》은 조선시대에 유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읽힌 책 중의 하나이다. 서문에 의하면 사서와 육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한데 엮어 도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성학집요》는 사서와 육경에 쓰인 도(道)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도를 찾기 위한 길이 『대학(大學)』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기본 이념에 따라 성학집요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1575년(선조 8)에 이이가 홍문관 부교리로 있으면서 제왕(帝王)의 학(學)을 위하여 선조에게 제진(製進)한 책이다. 이를 이재(李穡)와 이진오(李鎭五)가 1742년(영조 18)에 편집하고, 1749년에 간행한 『율곡전서(栗谷全書)』 권 19~26에 수록하였다.

《성학집요》1은 진차(進劄)·서(序)·범례·목록도(目錄圖)·통설, 《성학집요》2는 수기편(修己篇) 상(上), 《성학집요》3은 수기편 중(中), 《성학집요》4는 수기편 하(下), 《성학집요》5는 정가편(正家篇), 《성학집요》6은 위정편(爲政篇) 상, 《성학집요》7은 위정편 하, 《성학집요》8은 성현도통장(聖賢道統章)으로 구성되었다.

수기·정가·위정편은 각기 총론과 여러 개의 각론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기본 구도는 《대학》을 따른 것으로서 수기편은 《대학》의 수신(修身)에, 정가편은 제가(齊家)에, 위정편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에 해당한다. 마지막의 성현도통은 《대학》의 이념이 구현되어온 맥락을 설명하였다.

《성학집요》는 이후 경연(經筵)의 교재로 실제 국왕의 학문에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성학집요』는 제왕의 길만 밝힌 것이 아니라 사서와 육경을 통해 도(道)의 핵심을 모아 놓은 것이므로 사족(士族)에서 범부(凡夫)에 이르기까지 도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학문의 길잡이 구실을 하였다.

만언봉사

1574년(선조 7) 1월 문신·학자 이이(李珥)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 《율곡전서(栗谷全書)》 총 44권 중 권5에 수록되어 있다. 일명 「갑술만언봉사(甲戌萬言封事)」 또는 「만언소(萬言疏)」라고도 불린다. 갑술년에 올린 만언에 이르

는 상소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1만 2,000자가 넘는다. 또한 ‘봉사’란 옛날 중국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상주할 때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검은 천으로 봉해 올린 데서 생겨난 말로, 흔히 장편의 상소문 또는 책자를 말한다.

당시 지진이 일어나는 등 재이(災異)가 심해 선조는 조정의 신하로부터 초야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구하는 교지를 여러 차례 내렸다. 이 때 우부승지에 재임했던 이이가 이 글을 지어 올린 것이다. 앞부분에서는 임금이 여러 선비들에게 직언을 구하는 심정과 취지를 약속하고, 본문에서는 정사의 문제점 7항과 대안의 9항을 실제 상황을 열거하며 체계적으로 논술하였다.

이이는 기묘사화와 을사사화 때 이루어진 나쁜 습성과 규칙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대 정치가 실질적인 공(功)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상하(上下)의 신뢰, 관리들의 책임 소재와 책임감, 경연(經筵)의 운영, 인재 등용, 재해 대책, 백성의 복리 증진, 인심의 교화에 있어 실(實)이 없음을 지적, 분석하였다.

이어서 수신(修身)의 요체로 분발·학문·공정, 어진 선비를 가까이 함 등을 들었고, 안민(安民)의 요체로 개방적인 의견 수렴, 공안(貢案)의 개혁, 사치풍조 개혁, 선상제도(選上制度)의 개선, 군정(軍政) 개혁 등의 조목을 현황과 개선책 제시와 함께 논술하였다. 특히, 안민에 대한 진술은 당시까지 역대 조정에서의 해당 정사의 변천 과정을 따지고 분석한 토대 위에서 ‘옛 제도를 개량하여 새로운 법규를 만든다.’는 정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상소의 내용은 당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처방이라는 점에서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말미에서 백성들의 원기(元氣)가 이미 쇠퇴해 10년이 못 가서 화란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습속을 따르고 전례나 지키려는 의견들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정성으로 해결책을 구하라고 권고하였다.

8. 참고 문헌

[도서]

원주용(2010). 『조선시대 한시읽기(상)』. 아담북스.

김경옥(2005). 『율곡 이이』. (주)한국헤밍웨이.

정춘수(2015). 『이황과 이이의 멋진 공부 대결』. (주)위즈덤하우스.

파주문화원(2007). 『큰 스승 율곡 이이의 삶과 사상』. 파주문화원.

한영우(2013). 『율곡 이이 평전』. 민음사.

고운기 외(2006).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4(역사 정치)』. 휴머니스트.

강동효(2001). 『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이수광(2012). 『공부에 미친 16인의 조선 선비들』. 해냄출판사.

경기도교육청(2015).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초등학교용』. 경기도교육청.

인명사전편찬위원회(2002). 『인명사전』. 민중서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2006). 『한국여성문인사전』. 태학사.

[자료 및 홈페이지]

네이버캐스트, 율곡 이이 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32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

율곡문화제,

https://tour.paju.go.kr/tour/festival/festival02/festival02_4/festival02_4_01/festival02_4_01_01.jsp

경기관광포털, 자운서원,

http://ggtour.or.kr/blog/tour_history/%EC%9E%90%EC%9A%B4%EC%84%9C%EC%9B%90/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3030&cid=47322&categoryId=4732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75263&cid=51890&categoryId=53713>

[동영상]

문화유산채널, <오죽헌 1부-신사임당은 왜 친정에 살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eMIs0OfMd9U>

문화유산채널, <오죽헌 2- 시묘살이 3년 이이의 사모곡>

<https://www.youtube.com/watch?v=EsEZx7Qjep0>

12차시 북 천 자루, 벼루 열 개를 모두 닦아 없애고, 김정희

1. 활동 개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역사 인물 가운데 문화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 서, 화는 사대부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대부의 철학과 생각이 담긴 글씨와 그림의 달인으로서 동아시아의 거목으로 우뚝 선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재 학자가 아닌 끊임없는 노력으로 예술의 경지를 이루고, 선진 문화와 문물을 자신의 예술로 승화한 김정희를 통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인물 학습²⁾

가. 불우한 어린 시절, 하늘이 내린 자질



김정희

김정희는 1786년(정조 10) 6월 3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이며 어릴 적 이름은 원춘(元春)이다. 김정희만큼 호가 많은 인물이 또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추사(秋史)와 완당(阮堂) 외에도 승설도인(勝雪道人), 노과(老果), 천축고(天竺古先生) 등 생전에 100여 가지가 넘는 호를 바꿔가며 사용했다.

천재의 출생이니만큼 탄생 일화가 없을 리 없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아닌 24개월 만에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태어날 무렵 시들어가는 뒷산 나무들이 아기 김정희의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탄생일화는 천재를 포장해주는 이야기일 뿐이고, 어려서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김정희 집안은 안동 김씨, 풍양 조씨와 더불어 조선후기 양반가를 대표하는 명문 가문이었다. 증조부 김한신은 영조의 둘째딸인 화순옹주와 결혼하여 월성위에 봉해진 인물이다.

2) 가-라. 네이버캐스트, 인물한국사, 김정희,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4585
마. 제주추사관 <http://chusa.seogwipo.go.kr/index.php/contents/whois/story>

김한신이 39세에 후사 없이 죽자 월성위의 조카인 김이주가 양자로 들어가 대를 이었는데, 이가 김정희의 조부이다. 추사는 병조판서 김노경과 기계 유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큰아버지 김노영이 아들이 없어 양자로 입양되었다. 큰댁으로의 양자 입양은 조선후기 양반가문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어린 김정희의 천재성은 일찍부터 발견되었다. 그의 나이 일곱 살 때의 일이다. 변암 채제공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대문에 써 붙인 ‘입춘첩(立春帖)’ 글씨를 보게 되었다. 예사롭지 않은 글씨임을 알아차린 채제공은 문을 두드려 누가 쓴 글씨인지를 물었다. 마침 친아버지인 김노경이 우리 집 아이의 글씨라고 대답했다. 글씨의 주인공을 안 채제공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반드시 명필로서 이름을 떨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글씨를 잘 쓰게 되면 반드시 운명이 기구해 질 것이니 절대로 붓을 쥐게 하지 마시오. 대신에 문장으로 세상을 울리게 되면 반드시 크고 귀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희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서울 통의동에 있던 월성위궁에서 보냈다. 월성위궁은 영조가 사위인 월성위 김한신을 위해 지어준 집이다. 김정희가 서울집이 아닌 예산에서 출생한 것은 그때 당시 천연두가 창궐하여 잠시 이주한 것이라 한다. 월성위궁에는 매죽헌이라하여 김한신이 평생 모은 서고(書庫)가 있었다. 수많은 장서는 김정희의 학문세계를 바다처럼 넓게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 노경은 아들의 자질을 알아보고 당시 북학파의 거두였던 박제가 밑에서 수학하게 하였다. 스승이었던 박제가 역시 어릴 적 김정희의 ‘입춘첩’ 글씨를 보고 “이 아이가 크면 내가 직접 가르쳐 보고 싶다.”고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1800년 열다섯의 나이에 한산 이씨와 결혼한 김정희는 이 시기를 전후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에 부딪혔다. 이미 십 대 초반에 할아버지와 양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고 결혼 이듬해인 1801년에는 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1805년에는 부인인 한산 이씨와 사별했고, 뒤이어 스승인 박제가마저도 세상을 떠났다. 10대 시절은 끊이지 않는 집안 흥사로 고통과 외로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나. 한중문화 교류사에 족적을 남기다

한산 이씨와의 짧은 인연을 뒤로하고 김정희는 23세인 1808년에 예안 이씨와 재혼하였다. 그 뒤로는 흥사도 그쳤고 평안함을 되찾았다. 생부 노경이 호조참판으로 승진했고 또 동지부사가 되어 청나라 연경(지금의 북경)에 가게 되었다. 당시 사마시험(생원·진사 자격을 주는 과거시험)에 합격했던 김정희는 외교관의 자제(혹은 친인척)에게 부여되는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사행길에 동행하였다. 사행단의 한 사람으로 연경에 가서 외국 건문을 넓히고 온 경험은 인생의 전환기라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아마도 연경을 세 번이나 다녀온 스승 박제가의 영향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을 낳날이 밝혀낸 동양철학자 후지츠카는 20세기 초에 한국 인사동 서점가를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나빙이 그린 박제가 초상화, 청나라 화가 주학년이 김정희에게 보내준 그림, 그 유명한 세한도 등을 발견하여 구입하였다. 후지츠카의 연구로 조선의 북학파들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 김정희 등이 북경과 서울을 오가며 조선후기 지성사를 찬란하게 비추었음이 밝혀졌다. 부친을 따라 김정희가 북경으로 출발한

것은 1809년 10월 28일이다. 북경 체류 기간은 2달 남짓이었는데 이 사행길에서 2명의 중국인 거유(巨儒)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 제일의 금석학자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 완원(阮元, 1765~1848)이었다. 김정희는 옹방강, 완원과 같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교류하면서 당시 최고조에 이른 고증학의 진수를 공부하였다. 연경학계의 원로이자 중국 제일의 금석학자였던 옹방강은 추사의 비범함에 놀라 “경술문장 해동제일”이라 찬탄했고, 완원으로부터는 완당(阮堂)이라는 애정어린 아호를 받았다. 후지츠카는 이들의 만남을 한중문화 교류사의 역사적 사건이라 평가했다.

스승인 박제가가 만났던 나빙이나 기균과 노대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김정희는 북경에서 옹방강, 완원과 같은 스승 외에도 이정원, 서송, 조강, 주학년 등 많은 학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1810년 2월 1일 조선으로 돌아가는 김정희를 위해 북경 법원사에서 송별연을 열었다. 주학년은 송별연 장면을 즉석에서 그림으로 그리고 참석자 이름을 모두 기록했다. 그 당시 주학년이 그린 전별도 실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1940년 이학년이 모사한 그림이 과천시 문화원에 소장되어 있다. 연경학계와의 교류는 귀국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만년까지 계속되었고 김정희의 학문 세계를 풍성하게 해 주었다.

다. 실사구시 정신을 실현한 학문세계

김정희의 학문세계는 한마디로 ‘실사구시’로 요약할 수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청나라 고증학자 고염무가 주창한 것으로 ‘사실에 의거하여 사물의 진리를 찾는다.’는 뜻이다. 김정희는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학문 세계를 완성해 나갔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천문학에 대한 식견도 괄목할 만한 정도였다. 일식과 월식 현상 등 관측에 근거하여 서양천문학의 지식을 받아들였다.

1821년 34세의 김정희는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출셋길에 접어들었다. 이후 10여 년간 김정희와 부친 김노경은 각각 요직을 섭렵하여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다가 어지러운 정국과 정쟁의 파고 속에서 1830년 부친 김노경이 탄핵받는 일이 발생했다. 아들로서 김정희는 핏과리를 치며 부친의 무죄를 주장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노경은 강진현 고금도에 절도안치(絶島安置,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유배하는 형벌)되었다가 1년 뒤에 야 겨우 귀양에서 풀려났다.

이들 부자는 한동안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다가 1838년 김노경이 세상을 떴고 김정희는 그 이듬해 병조참판에 올랐다. 훈풍도 잠깐, 김노경을 탄핵했던 안동 김씨 세력들이 이번에는 김정희를 공격하여 그를 관직에서 끌어내렸다.

라. 추사체와 세한도를 완성한 예술혼

김정희는 혹독한 고문 끝에 제주도에서 서남쪽으로 80리나 떨어진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었다. 위리안치(圍離安置)는 유배형 가운데 가장 혹독한 것으로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두는 형벌이다. 현재 남제주군 대정읍 안성리 옛 대정현 현청에 이웃한 김정희의 적거지는 복원된 것으로 유허비와

함께 조그만 유물전시관이 세워져 있다.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9년간 귀양살이를 했다. 이 시기 동안 많은 편지를 통해 육지에 있는 지인과 후학들에게 자신의 학문세계를 전했다. 특히 유배 기간 중 부인과 며느리 등과 주고받은 40통에 달하는 한글 편지는 그의 인간적 면모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배 기간 동안 화가이자 제자인 소치 허유(1809~1893)가 세 차례나 제주도로 건너가 수발을 들어준 일은 유명하다. 소치는 충심으로 스승인 추사의 글씨와 그림을 배웠다.

제주도 유배기간을 통해서도 그는 쉬지 않고 붓을 잡아 그리고 쓰는 일에 매진하였다. 최고의 걸작품인 ‘세한도’도 이 시기에 그려졌고, 흔히 추사체라 불리는 그의 독창적인 서체도 이때 완성되었다. 유배 중에 그린 세한도는 김정희의 최고 걸작이자 우리나라 문인화의 최고봉이라 평가받는 그림이다. 1844년 그의 나이 59세에 수제자인 이상적에게 세한도를 그려 주면서 “날이 차가워진 연휴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공자의 글을 발문에 적은 것은 유명하다.

유배 기간 중인 1842년 11월 13일, 유배생활 내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였던 아내 예안 이씨가 세상을 떠났다. 1849년 9년간의 유배를 끝으로 마침내 귀양에서 풀려났다. 그 후 서울 용산 한강 변에 집을 마련하고 살았는데, 다시 모함을 받아 1851년 북청으로 유배 길에 올랐다. 다행히 귀양은 1년으로 끝났지만, 그는 이제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칠십 평생 열 개의 벼루 밑을 뚫고, 1천 자루의 붓을 망가뜨릴 정도의 예술혼을 지녔던 김정희는 말년을 경기도 과천에서 지내며 일흔한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마. 추사 김정희 연보

연도	내용
1786년	6월 3일 출생. 아버지 김노경(金魯敬), 어머니 기계 유씨(杞溪兪氏)
1793년	큰아버지 김노영(金魯永)의 양자로 들어가 월성위 가문의 대를 이음
1797년	양부 김노영 사망
1800년	한산 이씨(韓山李氏)와 혼인
1801년	어머니 기계 유씨 사망
1805년	부인 한산 이씨 사망
1808년	예안 이씨(禮安李氏)와 다시 혼인함
1809년	동지겸사은부사(冬至兼謝恩副使)인 부친을 수행하여 청나라에 감
1810년	1월 완원(阮元) · 옹방강(翁方綱)과 사제의(師弟義)를 맺음
1816년	북한산 순수비 확인.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을 지음
1819년	4월 25일 문과 급제

1823년	규장각 대교(待敎) 제수
1829년	평양 고구려 석각 발견
1830년	생부 김노경 고금도에 유배
1832년	<예당금석과안록(禮堂金石過眼錄)>을 지음
1836년	4월 성균관 대사성, 7월 병조참판으로 제수
1837년	부친 김노경 사망
1839년	형조참판 제수
1840년	6월 동지부사 제수, 9월 2일 윤상도 옥사가 재론되어 제주도 대정(大靜)에 유배
1841년	2월 허련(許鍊) 제주 방문. 상무(商懋)를 양자로 들임.
1842년	부인 예안 이씨 사망
1843년	초의(草衣)와 허련, 문상차 제주 방문
1844년	제자 이상적(李尙迪)에게 <세한도(歲寒圖)>를 그려 줌
1846년	예산 화암사의 <화암사상량문(華巖寺上樑文)>을 지음
1848년	12월 6일 제주 유배에서 풀려남
1849년	1월 서울로 돌아와 강상(江上)에서 기거
1851년	7월 22일 예송논쟁으로 함경도 북청(北靑)으로 유배
1852년	8월 13일 북청 유배에서 풀려 경기도 과천(果川)에 기거
1856년	10월 10일 서거
1857년	6월 사후 1년만에 사면 · 복관(復官)되고, 그해 10월 추사영실(秋史影室)에 봉안됨

3. 교수-학습 과정안

가. 개요가. 개요

수업 일시		대상 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습 장소	교실	학습 시간	2시간
학습 주제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		
학습 목표	-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추사 유물의 유행과 기증에 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학습 내용	- 김정희의 삶 - 김정희의 시, 서, 화 예술 작품 - 김정희의 실학 사상
-------	--

나. 본활동

단 원 명	3-4. 추사 김정희, 벼루 열 개, 붓 천 자루 써 버리며		
학습 목표	1.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추사 유물의 유행과 기증에 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전시학습 상기 및 동기 유발 (5분) : 일본인 학자의 추사 유물 기증 이야기 토론		
전 개	1. “대상과의 만남”(10분)	개념 잡기 – 본문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정약용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되돌리기(10분)	교사의 안내로 어려운 개념 확인 및 내용 정리 동영상 함께 보기 〈지식채널e:문화유산시리즈 추사 김정희의 봉은사 판전〉 https://www.youtube.com/watch?v=1wCXLg8Enp8 〈KTV 김정희 세한도〉 https://www.youtube.com/watch?v=8CoZdhGQmgU	
	3. “동료와의 만남”(15분)	‘생각나누기’와 ‘생각더하기’를 모둠 친구들과 협의하면서 해결/ 묻고 답하기	
정리 및 평가	공유(5분)	개인별 발표하기 (희망자 위주 발표) / 주의 깊게 듣기 자기 학습지에서 빠진 부분 추가하기 꼬리물기, 개념 확인, 다른 의견 제시 등	다시 교실의 중앙을 바라보고 자리를 배치한다.
	(수업 후)	발표학생 확인, 확인 도장을 찍어 수행점수 부여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공부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교사는 학생 간의 배움을 연결 짓고, 뒤처지는 학생을 보살피는 역할. ① 먼저 교과서를 찬찬히 읽고, 활동지의 빈칸을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며 채우기 ② 모르는 것은 모둠친구에게 물어보고, 모둠 전체가 모르면 교사의 도움을 기다리기 ③ 한 걸음 더! 과제는 모둠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쓰기 ④ 발표시간에는 먼저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기	

4. 학생 활동지 해답

[생각 나누기]

• 추사를 사랑한 사람들

추사의 ‘세한도’는 추사의 제자 이상적이 스승으로부터 받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가 돌아간 후 이 작품은 이상적인 제자였던 김병선이 소장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김준학이 물려받았다가 <세한도>는 민영휘의 소유로 됩니다. 그의 아들 민규식이 ‘경성 민(閔)씨 소장품 경매전’에 내 놓습니다. 경매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후지츠카 치카시 경성제대 교수가 낙찰을 받아 소장하게 됩니다.

후지츠카 교수가 1944년 여름 일본으로 돌아가자, <세한도>를 소장하고자 애썼던 소전 손재형은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있는 후지츠카의 집을 찾아가입니다.

당시는 미군의 도쿄 공습이 한창인 때였고 후지쓰카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소전은 후지츠카를 만나 ‘세한도’를 넘겨달라고 졸라댔지만 후지츠카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소전은 뜻을 버리지 않고 무려 두 달간 매일 문안인사를 드리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12월 어느 날, 후지츠카는 만아들 아키나오를 불러 자신이 죽으면 소전에게 넘겨주라고 유연하고는, 소전에게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한도>를 양도해 줄 것만을 묵묵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후지츠카는 소전이야말로 <세한도>를 간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소전이 어떻게 사례해야 할지를 묻자 후지츠카는 선비가 아끼던 것을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잘 보존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전은 <세한도>를 갖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소전이 <세한도>를 가지고 귀국한 뒤 석 달쯤 지난 1945년 3월10일, 후지츠카의 연구실이 공습을 받아 많은 책과 서예, 그림 자료들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추사와 북학파 자료들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소실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소전은 정계에 투신해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자금을 마련하느라 수장품 중 겸재의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를 삼성물산 이병철 사장에게, <세한도>는 이근태에게 저당 잡히고 돈을 빌어다 썼다 갚지 못해 소유권을 잃고 맙니다. 결국 <세한도>는 미술품 수집가인 손세기에게 넘어갔고 지금은 그 아들 손창근의 소유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되어 있습니다.

소전 손재형이 이렇게 추사의 <세한도>를 전란 속에 찾아온 것은 영원히 문화사에 남을 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후지츠카 치카시 교수의 학문적 열정과 고마움입니다. 후지츠카의 연구로 추사는 비로소 조선의 명필을 넘어 동양의 명필로 드높여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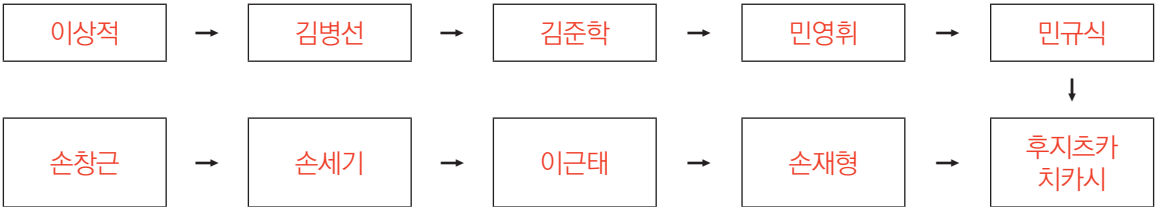
60여년이 지난 2006년 과천문화원의 최종수 원장이 후지츠카 아키나오에게 추사 학술대회 참가를 부탁하려 찾아갔을 때 94세의 아키나오는 부친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과 책 모두를 과천문화원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아키나오는 이 자료들을 도쿄대에서도 원했지만 먼지 속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인이 계속 추사를 연구하는 데 이용하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지 못하고 이 나이까지 산 것은 부친의 이 자료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키나오는 1차로 2750점을, 2차로 118박스에 가득 담긴 1만여점의 서화와 전적을 기증했습니다. 거기에는 추사 김정희, 초정 박제가 등의 서화류 70여점, <황청경해> 680책, 선장본 고서 2500책, 근대 양장본 1500책, 후지츠카 치카시의 원고 사진자료 1000여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과천의 추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경향신문, [유홍준의 안목](11)그는 공습 중인 도쿄로 향했다…추사의 ‘세한도’를 되찾으려 -

◆ 활동 1. 추사의 세한도의 소유자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써 보세요.



◆ 활동 2. 내가 만약 다음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 해 봅시다.

과천문화원 최중수 원장이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부탁하러 왔을 때

후지츠카 아키나오(사진 왼쪽)

정중히 거절한다.
유물을 숨긴다.
모른척 한다 등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

소전 손재형이 <세한도>를 구하러 일본으로 찾아왔을 때

후지츠카 치카시(사진 오른쪽)

쫓아낸다.
거금을 받고 판다.
만나지 않는다 등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

[생각 더하기]

• 추사 인장과 사인

◆ 활동 1. 추사의 서명과 도장

추사는 조선의 선비 가운데 호가 많기로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호가 많으니 자연 글씨나 그림에 찍었던 도장도 많았겠죠? 도장 대신에 요즘은 무얼하나요? 서명을 하죠? 예전엔 수결이라고 했어요. 추사의 도장과 서명을 한 번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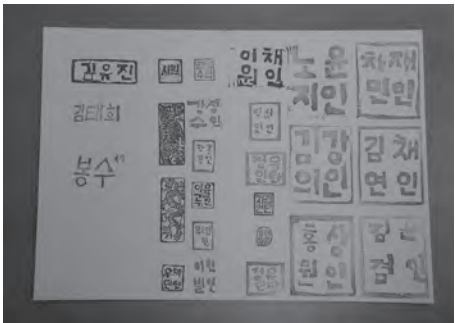


◆ 활동 2. 나만의 서명과 도장

나의 서명	이름 도장	나의 호를 새긴 도장
<p>자유롭게 자신의 서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p>		

5. 활동 준비물

모둠별 활동지, 필기도구, 고무도장용 지우개, 조각칼, 스탬프(빨강,파랑,검정) 등



6. 교사 참고 자료

가. 추사박물관

<http://www.chusamuseum.go.kr/view/main/main.jsp>

● 이용 시간

관람시간 : 9시 ~ 18시

매표시간 : 9시 ~ 17시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 휴관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일 휴관일)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기간 포함)

과천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관람료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어른	2,000원	1,000원	단체요금 적용은 20명 이상으로 함 군인은 하사 이하 군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포함)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중.고생 및 군인	1,000원	500원	
초등학생	500원	300원	
6세 이하 및 노인	무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 관람료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카드를 발급 받은 가족

국빈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어르신

추사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과 그 가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관람시 유의사항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에 만취한 자나 위험물을 소지한 자는 관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동(고성방가 등)에 주의해 주십시오.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삼가 주십시오. (체험전시 제외)

박물관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음식물 반입과 안내견 이외의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주변 관람객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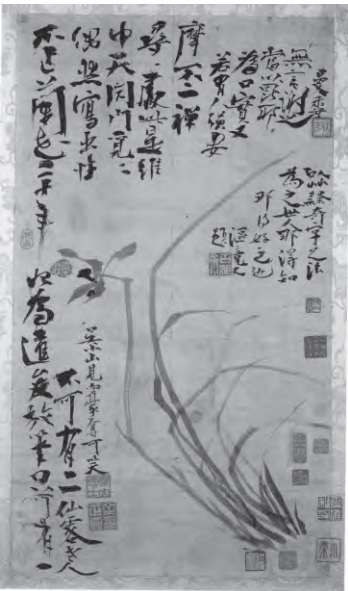
플래시 · 삼각대 등을 이용한 촬영과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실내 · 외에서는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브레이드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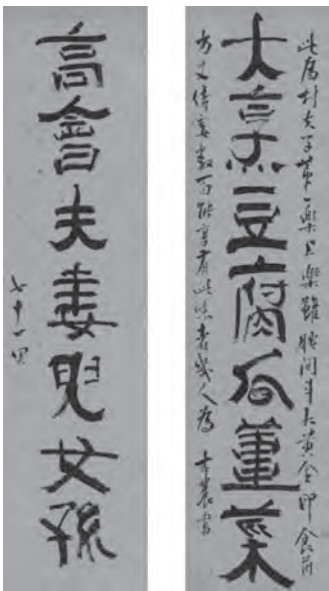
● 편의 시설

노약자는 박물관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층 전시실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 문의하 시면 휠체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주요 작품



불이선란도



예서대련-촌노의 가장 큰 즐거움

7.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박제가



18세기 후반기의 대표적인 조선 실학자. 호는 초정(楚亭). 양반 가문의 서자로 태어나 전통적인 양반 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신분적인 제약으로 사회적인 차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봉건적인 신분제도에 반대하는 선진적인 실학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였으므로 누구보다도 국내 상업과 외국 무역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따라서 그의 사상도 당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던 도시 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 실학, 이용후생학과와 시기를 같이한다.

그리하여 그는 반계(磻溪) 성호(星湖) 등의 토지경제사상을 지양하고 선진적인 청(淸)의 문물을 받아들여 상업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상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수레(車)를 쓸 수 있도록 길을 내어야 하고 화폐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중상주의적 국가관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 『북학의』(北學議)가 있다.

옹방강

청나라 순천(順天) 대흥(大興, 北京) 사람. 자는 정삼(正三)이고, 호는 담계(覃溪)다. 건륭(乾隆) 17년(1752) 진사가 되고, 편수(編修)에 임명되었다. 광둥(廣東)과 강서(江西), 산둥(山東) 3성(省)의 학정(學政)을 거쳐 북경으로 돌아왔다.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찬수관을 지내고 내각학사(內閣學士)가 되었다. 후진을 이끌어주기를 좋아했다.

금석(金石)과 보록(譜錄), 서화, 사장(詞章) 등 다양한 분야에 정통했다. 특히 서예는 당인(唐人)의 해행(楷行)과 한비(漢碑)의 예법(隸法)을 배워 유옹(劉壘), 왕문치(王文治), 양동서(梁同書) 등과 함께 청나라 법첩학(法帖學)의 4대가로 꼽힌다. 시는 강서파(江西派)를 높이 평가했고, 탁월한 감식력으로 많은 제발(題跋)과 비첩(碑帖)을 고증했다. 시론(詩論)에서는 의리와 문사(文詞)의 결합을 주장한 기리설(肌理說)을 내세웠다. 학문을 바탕으로 시를 쓰는 폐단이 있었다. 저서에 『양한금석기(兩漢金石記)』와 『한석경잔자고(漢石經殘字考)』, 『초산정명고(焦山鼎銘考)』, 『소미재난정고(蘇米齋蘭亭考)』, 『복초재문집(復初齋文集)』, 『석주시화(石洲詩話)』 등이 있다.

완원

청나라 강소(江蘇) 의징(儀徵) 사람. 자는 백원(伯元)이고, 호는 운대(芸臺)며, 시호는 문달(文達)이다. 건륭(乾隆) 54년(1789) 진사가 되고, 편수(編修)에 올랐다. 조정의 요직을 역임했고, 회시총재(會試總裁)를 지내기도 했다. 체인각대학사(體仁閣大學士)에 이르러 태부(太傅)가 더해졌다. 관직에 있으면서 학자를 육성하고 학술을 진흥하는 일에 힘썼다.

청나라 여러 학자의 경학에 관한 저술을 집대성하여 도광(道光) 9년(1829) 『황청경해(皇淸經解)』 1,408권을 편찬했다. 또 독특한 사적 방법론을 전개한 『국사유림전(國史儒林傳)』을 지었다. 금석문 연구인 『적고재종정이기관지(積古齋鐘鼎彝器款識)』 등의 뛰어난 찬술을 하여, 청나라 고증학을 집대성했다.

시문집 『연경실집(摺經室集)』에는 청나라 서풍(書風)에 큰 영향을 끼친 「북비남첩론(北碑南帖論)」과 「남북서파론(南北書派論)」, 송학(宋學)의 해석을 비판한 「성명고훈(性命古訓)」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밖의 저서에 「주인전(疇人傳)」과 『회해영령집(淮海英靈集)』, 『양절유헌록(兩浙量軒錄)』, 『광릉시집(廣陵詩集)』, 『증자주(曾子註)』 등이 있다.

초의



초의(草衣, 1786~1866) 선사는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서 태어났다. 15세에 운흥사(雲興寺)에서 출가해 19세에 대흥사(大興寺)의 완호(玩虎) 스님에게서 구족계(具足戒)와 초의라는 호를 받은 승려이자 조선 후기 차 문화의 부흥을 이끈 대표적인 차인이다. 초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차 관련 서적이자 중국의 육우가 쓴 『다경』에 견줄 만한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한 장본인이다. 초의 선사는 학문에 두루 통달했으며 시(詩)·서(書)·화(畫)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의 나이 24세 때 그보다 24세 더 많던 강진 유배 시절의 다산 정약용을 만나 시문과 서화, 그리고 차를 매개로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다. 다산은 그의 시에서 초의를 평하길 ‘남루한 옷 민둥머리에 중의 껌데기를 벗기니 유생의 뼈가 드러난다’고 하여 학식의 높음을 칭송했다. 1815년에 한양으로 올라간 초의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해거도인(海居道人) 홍현주(洪顯周), 자하(紫霞) 신위(申緯), 다산의 맏아들 정학연(丁學淵) 등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돈독한 교분을 쌓고 유(儒)·불(佛)·선(禪)을 논하며 사상적 기반을 넓혔다. 그는 이러한 교유 속에서 자연스레 차와 가까이 했다.

초의는 1824년부터 입적할 때까지 줄곧 해남 대둔산 대흥사 일지암(一枝庵)에 기거하면서 수행과 집필에 몰두했다. 1828년에는 지리산 칠불암에서 청(淸)나라 모환문(毛煥文)이 엮은 『만보전서(萬寶全書)』의 「다경채요(茶經採要)」를 베껴 『다신전(茶神傳)』을 초록(抄錄)해 냈다. 초의가 제다와 차 생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을 낸 이유는 승가의 차 풍습을 이어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도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초의는 『동다송』을 통해 차나무의 생태에서부터 차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가 쌓아온 풍부한 지식을 시의 형식으로 담아냈다. 이 책에서 그는 특히 중국과 우리의 차 만드는 법을 비교하며 우리의 차가 지닌 우수성에 대해 노래했다. 『동다송』과 『다신전』, 이렇듯 두 저서로 우리 차 문화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초의 선사는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꼽힌다.

이상적

이상적은 1828년(순조 28) 춘당대(春塘臺)에서 개강할 때에 임금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1845년(헌종 11)에는 임금으로부터 전답과 노비를 받았으며 1847년(헌종 13)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이나 품계가 올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올랐다. 1848년(헌종 14)에는 비서성(祕書省)에서 정조·순조·헌종의 『국조보감(國朝寶鑑)』(역대 왕의 업적 가운데 선정(善政)만을 모아 편찬한 역사책)을 간행하는 데 참여했다.

그리고 계속해 『통문관지(通文館志)』·『동문휘고(同文彙考)』·『동문고략(同文考略)』 등을 간행하는 데에 참여했다. 1862년(철종 13) 1월에는 임금의 특명으로 영구히 지중추부사직을 받았으며, 다음 해 7월충청남도 온양(溫陽)의 군수로 부임했다.

그는 역관의 신분으로 12번이나 중국을 여행했다. 당대의 저명한 중국문인과 친구관계를 맺었으며 그러한 인연으로 청나라에서 명성을 얻게 되어 1847년(헌종 13)에는 중국에서 시문집을 간행했다. 그가 교유한 중국학자들의 면모에 대해서는 그들로부터 받은 편지글을 모아 귀국 후에 펴낸 『해린척소(海隣尺素)』에 잘 나타나 있다. 또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를 북경에 가지고 가서 청나라의 문사 16명의 제찬(題贊)을 받아온 일은 유명하다.

이상적은 시 이외에도 골동품이나 서화·금석(金石)에도 조예가 깊었다. 중국학자 유희해(劉喜海)가 조선의 금석문을 모아 편찬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 부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상적의 저서로는 『은송당집』 24권이 있으며, 이 밖의 작품들은 청나라의 학자들로부터 받은 편지글을 모아 엮은 『해린척소』에 부분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의 문학 작품은 다양한 반면에 두각을 나타냈던 그의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역관으로서 언어에 대한 탁월한 재능은 그의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쓰인 시어가 섬세하고 화려하며 때로는 맑고 우아하다는 평을 얻었다. 「거중기몽(車中記夢)」이라는 작품으로 사대부들 사이에 명성을 얻었으며 현종이 그의 시를 읊어 ‘은송(恩誦)’이란 별호로 불리기도 했다.

신위

조선 후기 때의 문신이며 서예가 화가.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한수(漢叟), 호는 경수당(驚修堂). 자하(紫霞) 아버지는 대사헌 대승(大升)이고, 어머니는 이영록(李永祿)의 딸이다. 1799년(정조 23)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해서 초계문신(初啓文臣)으로 발탁되었다. 1812년(순조12) 진주궐 주청사(陣奏兼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갔는데, 이때 그는 중국의 학문과 문학에 대하여 실지로 확인하면서 자신의 안목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 후에 중국의 학자 · 문인과의 교유를 돈독히 하였다. 특히, 당대 대학자 옹방강(翁方綱)과의 교유는 그의 문학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14년에 병조참지를 거쳐, 이듬해 곡산부사로 나갔다. 이때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확인하고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정에 세금을 탕감해달라는 탄원을 하기도 하였다.

1816년 승지를 거쳐, 1818년에 춘천부사로 나왔다. 이때 그는 그 지방의 토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맞서다 파직을 당하기도 했다. 1822년 병조참판에 올랐으나 당쟁의 여파로 다시 파직된 뒤, 곧 복관되어 1828년에는 강화

유수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윤상도(尹尙度)의 탄핵으로 2년만에 또다시 물러나 시흥 자하산에서 은거하였다. 1832년 다시 도승지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생활에 환멸을 느낀끝에 사양하여 나가지 않았다. 다음해에 대사간에 제수되어 이에 나아왔으나 경기 암행어사 이시원(李是遠) 강화유수 때의 실정을 거론, 상소함으로써 평산에 유배되었다. 그 뒤 다시 복직되어 이조참판 · 병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글씨 · 그림 및 시로써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시에 있어 한국적인 특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없어져가는 악부(樂府)를 보존하려 하였는데, 한역한 소악부(少樂府), 시사평(詩史評)을 한 동인론시(東人論詩) 35수와 우리나라의 관우희(觀優戲)를 읊은 관극시(觀劇詩)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를 김택영(金澤榮)은 시사적(詩史的)인 위치로 볼 때 500년 이래의 대가라고 칭송하였다. 이러한 그의 영향은 강위(姜偉) · 황현(黃玹) · 이건창(李建昌) · 김택영에 이어져 우리나라 한문학을 마무리하는 구실을 하였다.

또한, 그림은 산수화와 함께 묵죽에 능하였는데, 이정(李霆) · 유덕장(柳德章)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묵죽화가로 손꼽힌다. 강세황(姜世皇)에게서 묵죽을 배웠던 그는 남종화(南宗畵)의 기법을 이어받아 조선 후기의 남종화의 꽃을 피웠으며, 그의 묵중화풍은 아들 명준(命準) · 명연(命衍)을 비롯, 조희룡(趙熙龍) 등 추사파(秋史派) 화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 작품으로 <방대도 訪戴圖> <묵죽도>가 전한다. 또한, 글씨는 동기창체(董其昌體)를 따랐으며, 조선시대에 이 서체가 유행하는 데 계도적 구실을 하였다. 저서로는 《경수당전고》와 김택영이 600여수를 정선한 《자하시집》이 간행되어 전하여지고 있다.

윤상도의 옥사

윤상도(1768~1840)는 순조30년(1830) 호조판서 박종훈과 유수를 지낸 신위, 그리고 어영대장 유상량 등을 탐관오리로 몰아 탄핵을 한다.

그러나 군신 사이를 이간시킨다는 이유로 왕의 미움을 사서 추자도에 유배되고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은 배후 조종혐의로 고금도에 유배된다. 그러다가 헌종6년(1840) 의금부에 압송되어 국문을 받다가 윤상도는 아들과 함께 능지처참된다.

이 사건을 두고 윤상도 옥사라고 하는데 추사는 윤상도 부자가 올렸던 상소문의 초안을 잡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뒤늦게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진종조천예론(신해조천의, 신해조천예론)

1851년(철종 2) 진종(眞宗：孝章世子, 영조의 장자)의 신주를 종묘에서 영녕전으로 조천(祧遷)하는 문제를 두고 김흥근(金興根)·홍직필(洪直弼) 일파와 권돈인(權敦仁)·김정희(金正喜) 일파 사이에 일어났던 예송.

신해조천예론(辛亥祧遷禮論)이라고도 한다. 발단은 1849년 6월 헌종이 죽은 뒤 왕실의 직계 후사가 끊어지고, 그의 9촌 숙부에 해당하는 철종이 왕위계승자로 영입되어 즉위하면서 비롯되었다. 철종은 헌종의 대통(大統) 계승자로 표방되었지만, 왕실의 계보상으로는 순조의 아들로 입적되었다. 따라서 철종은 조카뻘인 헌종의 왕위와

종통(宗統)을 계승했으나, 그의 친속 계보는 재당숙인 순조를 잇는 형태가 되었다.

또 진종은 혈통상으로는 철종의 증조에 해당하지만, 왕위 계승의 종통상으로는 5대조(진종-정조-순조-익종-헌종-철종)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그의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은 친속간의 칭호 문제라든가, 계보의 정리, 제사의 대수 등 여러 가지 전례상의 문제들을 야기했고, 그것이 진종의 조천예송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다.

예론의 발단은 1849년 6월 철종의 즉위 직후의 친속 호칭 문제로 시작되었다. 조정에서는 대신·중신·유신들의 의견을 모아 호칭을 결정했는데, 주로 췌주 홍직필의 헌의에 근거해 순조에 대해서는 황고(皇考)-효자(孝子)의 칭호를, 익종에 대해서는 황형(皇兄)-효사(孝嗣)의 칭호로, 헌종에 대해서는 황질(皇姪)-사왕신(嗣王臣)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헌종에 대한 ‘조카’의 호칭은 화서(華西)이항로(李恒老)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년 후인 1851년 6월 진종을 종묘에서 조천하게 되자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때 영의정 권돈인과 추사 김정희 등은 진종이 철종의 증조부이므로 종묘에서 조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좌의정 김홍근과 췌주 홍직필 등은 제왕가에서는 왕위의 승통을 중시하므로 헌종과 철종 사이에는 부자의 도리가 있고, 진종은 4대의 제사 대수를 넘었으므로 마땅히 조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에서는 2차례에 걸쳐 120명이 넘는 대신·중신·유신들에게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조천론과 불천론의 대표자였던 김홍근과 권돈인은 4차례의 서신을 통해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 예론은 익종과 헌종의 정통성 문제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논쟁이었다. 또 안동 김씨 측의 설득에 의해 대다수의 관료·학자들이 조천론을 찬성하였다. 결국 조정에서는 다수 의견을 따라 조천을 결정하였다.

이 예송은 학문적 논쟁이라기 보다는 정치집단간의 권력투쟁과 같은 성격이 강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세도권(勢道權)의 장악을 놓고 대립한 안동김씨가와 풍양조씨가 사이의 알력과 암투가 작용했던 것이다.

조천론이 승리하자, 성균관 유생들과 삼사에서 홍직필을 두둔하고 영의정 권돈인을 ‘망군오국(忘君誤國)’의 죄로 탄핵하였다. 결국 권돈인과 김정희 등은 불충 대죄를 얻어 변방에 유배되었다. 이와 함께 그들의 배후였던 풍양 조씨(豐壤趙氏) 외척 세력도 완전히 실권하였다. 반대로 승리한 안동 김씨 세도정권은 철종대의 정치를 천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해예송의 귀결은 왕실의 종통 체계에 난맥상을 노출하였다. 즉 철종은 친속으로는 순조의 아들로 입적되고, 종묘에서는 헌종의 대통을 이은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종통상의 파행은 조선 말기의 왕실에 바람직하지 않은 하나의 전례를 만들었다.

즉 1864년 철종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신정왕후(神貞王后, 趙大妃：翼宗妃)는 철종의 11촌 조카뻘에 해당하는 고종(高宗)을 대통의 계승자로 지명했는데, 그를 철종의 후사가 아닌 익종의 후사로 정한 것이었다.

8. 참고 문헌

[도서]

- 오주석(2009). 『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그림』. 월간미술.
이상문(2012). 『진품명품 골동이야기』. 도서출판 선.
정혜린(2008).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신구문화사.
경기도교육청(2015).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초등학교용』.
추사박물관(2013). 『알기 쉬운 추사 해설집』. 추사박물관.
추사박물관(2013). 『추사박물관 도록』. 추사박물관.
과천문화원(2008). 『추사 자료의 귀향』. 과천문화원
과천문화원, 후지쓰카 치카시(2009). 『추사 김정희 연구』. 과천문화원.
임석진 외 편저(2009). 『철학사전』. 중원문화.
임종욱 편저(2010).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화문화사.
한국학중앙연구원(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응백 외(1998)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자료 및 홈페이지]

- 경향신문, 2016. 10. 10, 「유홍준의 안목」(11)그는 공습 중인 도쿄로 향했다…추사의 '세한도'를 되찾으려
추사박물관, <http://www.chusamuseum.go.kr/view/main/main.jsp>
제주추사관, <http://chusa.seogwipo.go.kr/index.php/contents/whois/story>
네이버 캐스트, 김정희 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4585
네이버 캐스트, 초의 선사 편. (이진수, 이진미(2008). 『찾앞 속의 차』. 이른아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8467&cid=42752&categoryId=42755>

[동영상]

- 지식채널e, <문화유산시리즈 추사 김정희의 봉은사 판전>
<https://www.youtube.com/watch?v=1wCXLg8Enp8>
KTV, <김정희 세한도>
<https://www.youtube.com/watch?v=8CoZdhGQmgU>

4단원



자기 삶을 찾아 떠난 경기도의 여성

13차시

나혜석 남녀평등을 외친 신여성

14차시

명성황후 흥선대원군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본 여성

15차시

최용신 잠자는 조선을 깨운 교육자

16차시

김향화 3·1운동에 참가한 기생



1. 활동 개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경기도의 여성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모두 4명의 여성을 살펴볼 계획인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미술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남녀평등 운동 등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을 많이 남긴 분이므로 그녀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물 학습



불꽃 같은 삶이 있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이 아닐까 싶다. 20세기 초 화가이자 문필가였던 그녀는 여자가기 전에 한 인간이었고 인간이기 전에 예술가였다. 예술가로서 그녀의 삶은 예술 자체였다. 그러나 그녀의 해방론에 가까운 여성관은 전통적인 여성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그녀의 대범한 도전은 불행의 신호탄이었다. 근대 신여성들의 삶이 그랬듯이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조선 최고의 여류화가이자 엘리트 여성 나혜석이 행려병자로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그녀의 삶의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가. 선택받은 천재 화가

서양화가이자 문학가로서 근대 신여성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나혜석은 1896년 4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흥동(현재 주소)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본관은 나주이며 호는 정월(晶月)이다. 부친은 용인 군수를 지낸 나기정(羅基貞)이며 모친은 최시의(崔是議)이다.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천재적인 예술가적 자질과 외모를 겸비한 나혜석은 1913년 진명여자보통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젊은 시절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둘째 오빠 나경석(羅景錫)이다. 나경석의 권유로 17세에 동경 유

학길에 올라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였다. 부유하고 개명한 집안 출신의 엘리트 여성으로서 한국 최초 여류서양화가의 삶을 시작한 나혜석의 인생은 곧 조선 미술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일등 인생이었다. 진명여고 수석졸업을 시작으로 한국여성 최초의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입학, 서양화 전공, 최초의 여류화가 개인전 등 성공신화를 써나가기에 바빴다. 그러나 성공한 여성으로 살기에는 시대가 그녀를 뒷받침해 주지 않았다. 똑똑하고 자의식 강한 나혜석이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면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불꽃 같은 예술가적 혼을 가진 그녀의 영혼은 너무나 자유분방했고, 전통적인 결혼생활은 그녀와 어울리지 않았다.

이른 나이에 그녀의 인생에서 첫사랑은 동경유학 시절에 만난 최승구였다. 시인이었던 최승구는 동경유학생 중 천재로 불리며 <학지광> 편집에도 관여한 인물이다. 최승구를 나혜석에게 소개한 인물은 오빠 나경석이었지만, 최승구는 이미 결혼을 한 몸이었다. 집안에서 맺어준 아내가 있었으나, 최승구와 나혜석은 유학지인 동경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1916년 최승구가 폐병으로 사망하자 나혜석은 절망하며 모든 희망을 예술에 걸었다.

나. 다른 결혼과 세계 일주 여행, 그리고 이혼

1918년 학교를 졸업한 나혜석은 귀국하여 함흥의 영생중학교와 서울 정신여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했다. 표면적으로는 후학 양성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과년한 여식을 결혼시키려는 아버지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였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애정없는 결혼 생활을 지켜본 그녀는 어머니와 다른 인생을 살고자 했다.

나혜석은 1920년 김우영과 결혼했다. 김우영은 일본유학생 출신으로 전도유망한 외교관이었다. 나혜석은 김우영의 6년 구애를 받아들여 이미 결혼 전력이 있는 그와 서울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김우영은 나혜석보다 10년 연상으로 한 번 결혼했다가 상처한 상태였다.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19년 여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서울에서 3·1운동 관련자들을 변호하기도 했고, 나혜석이 3·1일 운동 때 투옥되자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달려왔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였다. 김우영은 나혜석의 개성을 이해하는 훌륭한 외조자로서 이 결혼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당시 나혜석은 결혼조건으로 김우영에게 4가지의 약속을 받아냈다.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줄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그리고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김우영은 당시에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김우영은 그녀의 희망대로 신혼여행길에 병사한 최승구의 묘에 들러 비석을 세워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파격적인 결혼생활은 두고두고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실이 되었다. 공격의 선두는 남성들이었다. 인습에 젖은 그들은 그림을 위해 집을 비우는 나혜석을 비난했고, 아내의 예술적 재능을 아끼고 감싸는 김우영은 남자답지 못한 줄장부로 여겼다. 그런 세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외교관 부인으로서, 화가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나혜석은 1927년 남편과 함께 세계여행길에 나섰다. 자식까지 두고 세계 일주를 한 것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녀는 어떻게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 있을까, 여자의 지위는 과연 어떤 것인가, 나의 그림은 어떤가” 하는 철학적·예술가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세계여행은 성공적이었다. 유럽여행은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서구의 여성운동과 지위 등을 견문할 기회가 되었다.

답답한 조선사회와 달리 서구사회는 그녀에게 유토피아였고 해방구였다. 그러나 세계여행은 그녀에게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안겨다 주었다. 파리에서 만난 천도교 지도자 최린과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3·1운동 때 함께 투옥된 경험이 있고 취미가 다양하며, 그림에도 조예가 있는 최린은 한순간에 나혜석을 사로잡았다. 법 공부를 위해 독일로 떠난 김우영은 최린에게 나혜석을 부탁했다. 남편이 떠난 뒤 시작된 두 사람의 깊은 교제는 재벌 조선사회를 시작으로 조선까지 널리 소문이 퍼졌다.

귀국한 뒤 나혜석은 생계가 곤란해지자 최린에게 도움을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내 평생을 당신에게 맡기오’라는 편지 내용은 아는 지인을 통해 와전되어 남편인 김우영의 격노를 샀다. 이때는 이미 최린의 관계를 한번 용서한 뒤였다. 두 번의 용서는 없었다.

김우영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만일 승낙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나혜석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 또한 이혼을 종용했다. 나혜석은 이혼하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하는 수 없이 추후 2년간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서 재결합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다. 그러나 김우영은 곧 다른 여성과 결혼하였다. 재결합을 희망한 나혜석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혼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왔다. 재혼한 김우영 또한 배신감과 함께 가정을 지키지 못한 못난 남자라는 낙인으로 고통을 받으며 그의 인생 또한 무너져 내렸다.

노라가 된 나혜석. 젊은 날 노라 부인을 열망했던 그녀였지만, 현실은 자식을 두고 빈몸으로 쫓겨난 이혼녀였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녀는 김우영에게 재결합을 강하게 요구했다. 애끓는 모성애였다. 그러나 김우영은 자녀들과의 만남조차 거부했다.

다. 조선의 남성들이,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남편과 최린으로부터의 버림. 그러나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활발하게 그림 활동을 하며 동시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혼고백서]를 발표했다. 이 글을 통해 나혜석은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김우영이 보인 편협함, 그리고 남성이기주의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현모양처를 최고로 치는 그 당시에 그녀의 고백은 이른바 ‘백만 안티’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물론, 20세기 초 한국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금기시되었지만, 1932년 나혜석이 이혼했을 때 그 금기의 벽은 이미 깨진 상태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혼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난 또한 강한 시대였다. 그렇다고 해도 나혜석의 정신세계가 이혼의 상처로 행려병자가 될 만큼 연약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다면 세상에 자신의 치부를 용감하게 드러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혼이 유능한 화가로

서 문필가로서의 입지를 흔든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나혜석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좌절한 끝에 행로병자로 사망한 것은 [이혼고백서]의 공개와 불륜상대인 최린과의 위자료 소송에 있었다.

“나는 좀 더 사회인으로, 주부로 사람답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함에는 경제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근면도 필요하였습니다. 불민한 점이 불소하였으나 동기는 사람답게 잘 살자는 건방진 이상이 뿌리가 빠지지 않는 까닭이었습니다.”

1934년, 8-9월호 <삼천리>에 실린 [이혼고백서] 중에서

나혜석의 [이혼고백서]는 1934년 잡지 『삼천리』에 게재되었다. 결혼에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나라하게 쓰고 남성중심의 조선사회를 고발하는 수기였다. 부부 사이의 치부마저도 드러낸 것이다. 이 글에서 그녀는 정조관념을 지키라고 하는 사회 관습을 비판하고 그런 관념은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해체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중략)

조선남성들 보시오.

조선의 남성이란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하고, 잘나건 못나건 간에

그네들은 적실, 후실에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이외다!

한순간 분출하는 감정에 흠뜨려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이외다.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오.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겨졌을 거외다.

조선의 남성들이,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이혼고백서] 중에서

라. 그녀는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나혜석은 가정뿐만 아니라 연애와 섹슈얼리티에서도 남녀의 불평등이 강요되는 사회,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이중성에 항의를 했다. 불륜을 저질러도 남성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는데, 온갖 비판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불합리에 강한 불만을 가졌다. 그러한 생각은 남편 김우영이나 연인 최린과의 관계, 이혼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험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이다.

남편과 세상을 향한 [이혼고백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나혜석은 최린을 고소하였다. 고소내용은 정조 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자 최린은 나혜석의 생활비를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나혜석은 이혼당하여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 신경쇠약증까지 걸려 있는 상태였다. 나혜석은 최린에게 위자료 1만 2천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자신과 달리 최린은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불합리했던 것이다. 진보적이었다고 생각한 남편이나 최린 모두 실질적인 섹슈얼리티의 문제에서는 어느 남성과 차이가 없었다.

“나는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 정이 두터워지리라 믿었을 뿐이다. 가장 진보적인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다.” 이러한 나혜석의 고백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자유로운 연애관은 프랑스 남녀연애관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조선사회에는 절대 통용될 수 없는 자유연애였다.

사회적·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엘리트 여성 나혜석. 그녀의 여성해방론은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남성 중심의 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다. 종래 금기시됐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녀불평등까지 포함하여 그간 수백 년간 지켜졌던 정조관념을 깨부수고자 했다. 그녀의 이러한 여성해방론은 진정 진보적인 것이었을까. 그녀는 죽기 전까지 보고 싶은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 여성으로서의 해방을 부르짖었지만, 천륜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누구보다도 강한 모성애를 가진 여성이기 때문이었다.(글 정성희 |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

마. 평가와 비판

당대의 인습에 도전한 신여성으로 평가된다. 그에 대한 평가로는 시대를 앞선 선각자라는 평가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봉건윤리의 희생자, 또는 위선과 허위의식으로 가득찼던 한국 사회의 희생양이라는 평가 등이 있다. 또한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누드화, 판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직접 전국을 여행, 답사하고 사물을 관찰하던 노력이 높이 평가되기도 한다.

한국근대미술연구소 소장을 지낸 미술평론가인 이구열은 그를 “나혜석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평하였다. 그는 “나혜석이 한 시대의 두드러진 존재였기 때문에 많이 다뤄졌지만 충분한 사료가 없어 자유주의 여성이었다는 점이나 최린과의 파격적인 스캔들 등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덕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녔던 한국 사회가 그를 용납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한 인간의 부족함만으로 그 사람 전부를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평하였다. 미술평론가 이구열은 “20세기 여성사에서 차지하는 나혜석의 위상 중 불륜의 문제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그

가 남긴 예술이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여대 교수 오증자는 “현모양처는 있는데 왜 현부양부는 없느냐. 나혜석이 열아홉살 때 한 말이에요. 현모양처가 그렇게 좋으면 남자들도 현부양부하지 저희들은 왜 안하느냐는 거지요. 나혜석이 떠난지 52년이 되지만 세상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라며 현대는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스물다섯에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을 결심하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줄 것,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시어머니와는 함께 살지 않을 것'이란 조건을 내걸었다. 남녀차별이 도도했던 그 시대에 이런 조건은 파격 그 자체였다.’는 평도 있다.

또한 “이혼한 아내의 자녀를 면담할 수 있는 권리가 80년대에야 비로소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해진 것은 90년대 들어서였다”며 자녀면담과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나혜석은 근 100년을 앞서간 여성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나혜석은 참으로 바보같은 여성이었다'며 '잘난 여자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자가 자기방어능력 없이 사회의 금기를 건드리면 파괴되는 것이다. 지금은 안그렇습니까? 당사가 남성위주의 유교사회라고 하는데 지금도 역시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은 마찬가지이다'라는 평가도 있다.

역사학자이자 경희대학교 교수인 허동현은 “가부장권과 군국주의가 지배하던 그때 남녀동권을 꿈꾼 그녀의 삶은 실패로 예정되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치열한 삶을 산 나혜석은 오늘 수많은 알파걸들을 낳게 한 알의 밀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문학평론가 정규웅은 “세상은 나혜석을 외면했다. 외면만 한 것이 아니라 질시하고 냉소했다. 당대의 폐쇄적 사회 구조가, 뒤틀린 의식 구조가 그를 파멸로 몰아넣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평하였다. 또한 정규웅은 “나혜석의 파멸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오직 나혜석 한 사람의 탓 만은 아니었다. 나혜석을 파멸 속으로 몰아넣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인습 그리고 사람, 곧 우리들 자신이었다”고 지적한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 교수 박노자는 그를 영웅이라 평했다. 《이혼 고백장》(1934년)을 통해 남편 김우영과의 이혼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무책임한 애인 최린에게 “정조 유린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화가이자 문필가인 나혜석(羅蕙錫)은 진정한 ‘영웅’으로 보입니다.'라며 평했다.

미술평론가 이구열은 “나혜석이 창조적 화법을 뚜렷하게 정립시키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는 굉장한 저력을 가진 작가였으며 이혼당하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했더라면 더 훌륭한 화가가 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나혜석은 '아수파' 화풍의 영향을 받았는데 좋은 자화상을 남겼다”며 “우리 근대 미술사에서 자화상만을 놓고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 그의 자화상은 작품성 면에서 단연 두드러진다. 그에 관해 더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하였으며 또한 “나혜석은 그림뿐 아니라 세계일주 여행기 등에서 볼 수 있듯 문인으로서도 재주가 뛰어났고 지식도 풍부했다”고 평가했다. 홍익대학교 강사 민가영은 '사회가 여성에게 그어놓은 경계를 뚫쳐나온 죄로 행려병자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다.'고 평하였다.

그 밖에 겁없는 여자 라는 평가도 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술과 자아, 감성이 하나가 되는 '삶의 본질'을 누렸다”는 평도 있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희경은 “나혜석은 자기 ‘끼’대로만 살았던 인물이라고 본다”며 “어머니될 자격이 없는데 어머니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 기타 평가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각인된 인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나혜석'을 한국 최초의 여성 근대화가라기보다는 거리에서 비명횡사한 측은한 여성으로 기억하는 반면, 비슷한 시기 거리에서 객사한 이중섭은 대단한 예술혼을 견디지 못한 천재로 기억하는 까닭'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신여성은 소수였고 고립돼 있었다. 이 때문에 나혜석이나 윤심덕 등 대부분의 신여성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들의 주장은 조롱 속에 무시됐다.

한편 '나혜석은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의거하여 세계를 해석했고, 그 해석을 공표했을 뿐이다. 그러나 세계는 그것을 저주했다. 왜냐하면, 여성주의조차도 남성들이 쳐놓은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혜석은 그 테두리를 넘었고, 그리고 오만방자하게도 자신의 일탈행위를 담론화 하려고 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그의 운동이 급진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1920년대 나혜석이나 김원주, 김명순 등의 신여성운동이 실패를 하게 된 동기를 단지 그들이 급진적이었기 때문이라고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성사 학자들은 한국적 상황과 그들이 일본을 통해 간접 수입한 북유럽의 여권운동의 경제·사회적 배경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낼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사. 나혜석 연보

1896 경기도 수원 출생				
1910 삼일여학교 졸업, 서울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입학				
1913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1회 졸업, 일본 동경사립여자미술학교 서양화와 입학				
1915 아버지의 결혼 강요로 인해 강제 귀국, 여주공립보통학교 교사				
1918 「경희」 발표, 동경사립여자미술학교 졸업, 귀국,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				
1919 3·1독립운동 참가, 옥고				
1920 김우영과 결혼				
1	9	2	1	
유화개인전을 경성 내청각에서 최초로 개최, 첫딸 김나열 출산, 부영사로 부임하게 된 남편을 따라 이주하여 만주 생활				
1922 조선미술전람회 창설 직후 출품				
1923 「모된감상기」발표, 제2회 조선미술전람회 4등 입선				
1925 제4회 조선미술전람회 3등 입선				
1926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 「천후궁」 특선				
1927 최초의 부부동반 유럽여행, 파리에서 최린과 연애				

1930 김우영과 이혼
1931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 「정원」 특선
1934 「이혼고백장 발표」, 최린을 상대로 처권 침해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1939 건강 악화, 떠돌이 생활
1948 무연고 행려병자로 사망

3. 교수-학습 과정안

과 목	자유학기제 활동		담당 교사	000 (인)
학 급	1학년 0 반		수업일시	2017년 10 월 00일(0요일)(5~6)교시
단 원 명	남녀평등을 외친 신여성, 나혜석			
학습 목표	1. 나혜석의 미술 및 문학작품을 열거할 수 있다. 2. 나혜석이 주장한 남녀평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경기도 수원에 있는 거리 이름 중에 인물의 이름을 딴 거리에 대해 말해본다.			
전 개	1.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15분)	나혜석의 성장과 일본유학, 그녀의 작품을 통해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서양화가로 활동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독립운동에 나서다 (10분)	일제강점기 남성들도 하기 힘든 독립운동을 여성으로서, 외교관의 부인으로서 활동한 내용을 살펴본다.		
	3. 남녀평등을 외치다 (15분)	나혜석은 남녀평등의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음을 문학작품을 통해 찾아보고 정리한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역사속의 여성 인물 찾아보기 - 나혜석 인터뷰하기(나혜석의 입장에서 말하기)		
	생각 더하기(30분)	-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기 - 남녀의 역할이 왜 다른지에 대한 입장과 그 근거를 바탕으로 서로 토론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나혜석의 삶을 통해 남녀평등의 문제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활동이다.특히 남녀 학생들간에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 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인물의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 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생각 더하기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4.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 활동 1 :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알아보기

유화, 소서노, 평강공주, 허황후, 선덕여왕	명성황후, 엄비, 윤희순, 유관순
허난설헌, 논개, 이매창, 혜경궁 홍씨, 김만덕	진성여왕, 진덕여왕, 염경애, 신사임당, 황진이

◆ 활동 2 : 나혜석 인터뷰하기(나혜석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3시기를 각각 인터뷰한다. 각 시기별로 내가 나혜석이 되어 당시의 심경을 말한다.

□ 인터뷰 1 : 동경유학시절

질문 : 왜 일본까지 와서 그림공부를 하게 되었나요?

나혜석 :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자들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여성들도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서양 그림을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어서 유학을 왔어요.

□ 인터뷰 2 : 프랑스 파리 여행 중

질문 : 당시 유럽의 화풍은 어떤 것이었으며,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요?

나혜석 : 당시 유럽은 서양화의 본고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많은 그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것도 큰 공부 가 되니까요. 그리고 프랑스 아카데미에 들어가 8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 인터뷰 3 : 남편 김우영과 이혼한 후

질문 : 이혼 후에 발표한 「이혼고백장 - 청구 씨에게」 글을 쓸 때 심정은 어떠했나요?

나혜석 : 정말 억울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남성들 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서 불평등한 세상을 꼬집고 싶었습니다.

[생각 더하기]

• 남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 보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 직장, 봉사활동 등등 많은 일들을 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 중에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주위에서 들은 말 중에 “그건 남자가 하는 일이지”, 또는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그럼 그 말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활동해 볼까요?

먼저 다음 내용에 글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함께 하는 일
돈버는 일, 힘쓰는 일, 군대가기 등	음식 만들기, 청소하기, 아기 돌보기 등	청소하기, 아기 돌보기 등

그렇다면 여러분이 적은 내용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볼까요?

① 남자가 하는 일로 생각한 이유 말하기

→ 남자는 가장이기 때문에 /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② 여자가 하는 일로 생각한 이유 말하기

→ 여자들이 음식을 잘 만드니까 / 여자들이 깔끔하니까 / 여자만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③ 함께 하는 일로 생각한 이유 말하기

→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 아기랑 놀아주는는 가능하니까 / 청소기, 세탁기 등 기계를 만질 수 있으니까

◆ 토론 주제 :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각각 정해져 있다.

그렇다	아니다
주장하는 근거는?	주장하는 근거는?
신체적인 조건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르다.	차별과 차이를 구별 못하는 질문이다. 남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이 발생할 수 없다.

〈정리하기〉

두 활동을 통해 우리 역사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도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있음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혜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통해 당시 여성들이 처한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신여성이라 불리는 여성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나혜석은 신여성 중에서도 예술가로서, 문학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여성운동가로서 다양한 삶 속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좌절, 그리고 예술정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활동 준비물

모둠별 활동지, 필기도구, 마이크, 인터뷰 자료 등

6. 교사 참고 자료

※ 나혜석 거리

1) 나혜석 거리 위치



2) 다양한 행사



3) 거리 모습



4) 시민과 함께하는 나혜석 거리



5) 나혜석 관련 사진 자료



나혜석과 남편 김우영



자녀들과 함께



작업실에서



작품전시회를 앞두고

6) 나혜석 작품



김우영 초상화



정원



천후궁



만주 봉천



무희



스페인 항구



수원 서호



만주 봉천



만주 봉천



1935년 다슬사

7. 관련 주요 인물과 사건

나경석(羅景錫)

나경석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겸 교육자, 사회운동가였다. 독립운동가 겸 화가, 작가, 시인인 나혜석의 오빠이다.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 유학 중에도 한인 유학생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14년 도쿄 고등공업학교(현 도쿄 공업대학)를 졸업한 뒤, 유학 때 만난 친구인 신익희 등과 함께 축구단을 조직하여 전국을 순회하였다. 1918년 6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된 후에 신익희, 윤홍섭 등과 함께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모의하였다.

최린(崔麟)

1878(고종 15)~1958. 종교인·언론인·친일반민족행위자.

1878년 1월 25일 함경도 함흥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해주(海州), 호는 고우(古友), 도호(道号)는 여암(如庵)이고, 아명은 바우(金岩)였다. 아버지는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이덕언(李德彦)이다. 일제강점기에 3·1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되었으며, 보성학교 교장, 천도교 도령, 중추원 참의, 매일신보사 사장 등을 지냈다. 1950년 한국전쟁 중 납북되어 1958년 12월 평안북도 선천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려서 한학자 도필두(都必斗)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1895년 처음 상경해 어지러운 시국으로 인해 각지를 유람하였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한국인들이 조직한 일심회(一心會)에 가입했다가 일심회 관련자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자 1902년 3월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다. 이때 일본에 망명 중이던 동학 3대 교주 손병희(孫秉熙)를 이진호(李軫鎬)의 집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일심회 관계자의 석방 소식을 듣고, 7월 귀국해서 8월 외부주사(外部主事), 길주감리서 주사로 임명되었다. 1903년 9월 서울에 가서 입신양명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왔다.

1904년 10월 대한제국 황실에서 보내는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최남선(崔南善) 등 44명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 11월 도쿄부립제일중학교 속성과에 입학하였는데, 이때 일본유학생회를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으며, 1905년 11월 유학생을 규합하여 동맹휴교를 주도했다. 1906년 9월 메이지대학(明治大学) 법과에 입학하면서부터 1907년 2월 까지 대한유학생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1907년 광무학회 총대와 태극학회 총무원·평의원, 1908년 대한학회 회장, 1909년 대한흥학회 평의원과 부회장을 역임했다. 1909년 7월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그해 9월 귀국했다.

1910년 봄 경성에 있는 각국 공관에 방화하려던 계획이 발각된 후 10월 손병희를 찾아가 정식으로 천도교에 입교했다. 천도교단에서 보성학교를 인수한 후인 1911년 2월 보성중학교 교장에 취임하였으며,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보성전문학교와 휘문의숙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1919년 3월 조선민족대표의 한명으로 3·1독립선언에 참여해서 일약 사회적 지도인사로 부상했다. 3년간 옥고를 치르고 1921년 12월 출소해 1922년 1월부터 천도교 중앙교단에서 서무과·교육과 주임으로 선출되어 교단활동을 시작했다. 6월 1회 조선미술전람회 제1부 동양화부에 「난(蘭)」을 출품해 입선했다. 9월 천도교 종리사(宗理師)

로 위촉되었고, 12월 천도교 만화회(万化会)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23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중앙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9월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東京地方罹災朝鮮人救済会) 발기인 및 상무위원, 1924년 조선기근구제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1925년 천도교 종리사에서 종법사(宗法師)로 선임되었고, 그해 조선체육회위원, 1926년 조선문헌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27년 6월부터 1928년 4월까지 미국과 유럽 21개국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1929년 천도교 교단 최고직인 도령(道領)에 올랐다. 그해 10월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인, 1930년 7월 전조선수재구제회(全朝鮮水災救済会) 위원으로 활동했다. 1931년부터 1936년까지 천도교 교단 고문으로 재임했다. 1931년 단군신전봉찬회 이사, 1932년 나예방협회(癡予防協會) 발기인, 1934년 1월 조선소작령제정촉진회 발기인, 4월 여자의학전문학교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34년 4월 조선총독 자문기구인 중추원 칙임관 대우 참의에 임명되어 1938년 4월까지 매년 1,8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34년 8월 시중회(時中会) 결성에 참여해 이사로 선출되었다. 1935년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25주년을 기념하여 「민심의 융화가 통치 대근간(大根幹) 장래에의 기대가 더욱 크다」(『매일신보』1935.10.1.)라는 축사를 썼다.

1936년 11월 '조선인 징병제 요망운동' 발기인으로 참여해 조선에 징병제 실시를 촉구했다. 1937년 4월 천도교 중앙종리원 상임헌법사(常任玄法師)로 선출되어 시국강연과 집필활동을 통해 천도교인의 전쟁협력을 독려했고, 7월 중추원에서 주관하는 시국강연회 강사가 되어 전라도 일대를 순회하며 중일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8월 조선총독부에서 '시국인식의 주지철저'를 위한 시국강연회에서 이돈화(李敦化)와 함께 편성되어 7일부터 18일까지 평안북도 일대에서 강연했고, 같은 달 조선신궁에서 거행하려는 국위선양기원제(国威禪讓祈願祭) 준비회 발기인으로 참여해 위원에 선출되었다. 중일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의 「동양평화의 대정신, 내선일체로 국민적 적성 발휘」(『매일신보』1937.8.15.)와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자」(『신인간』1937.9.)라는 글을 기고했다.

1938년 2월 평안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시국강연을 했고, 조선인징병제가 공포되자 이를 경축하는 조선지원병제도 제정 축하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4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주식회사 매일신보사로 전환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해 취체역 사장으로 취임해서 1941년까지 재임했다. 1938년 6월 국민정신총동원연맹 발기인·이사·상무이사, 9월 조선방공협회 경기도연합지부 평의원, 10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주최하는 제1회 생활개선위원회에서 비상시 국민생활개선위원회 제1부 위원(의식주 부문)으로 선임되었다. 11월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정신 작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12월 인일기념강담회(人日紀念講談会)에서 '신앙보국주의와 신동아건설'을 강조했다. 같은 해 저축장려위원회 위원, 시국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39년 10월 조선유도(儒道)연합회 상임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배영동지회(排英同志会) 상담역, 동양지광사(東洋之光社)·경성과학지식보급회 고문·경성부 육군병지원자 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1940년 중앙협화회(中央協和会) 평위원, 재만조선교육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2월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식전 및 봉축회에 참석해서 그 소감을 「봉축 황기(皇紀) 이천육백년」(『매일신보』1940.2.11; 2.13.)이라는 글로 밝혔다. 7월 「지원병 10만 돌파 지원명 모매(母妹)에 보내는 글」(『삼천리』1940.7.)과 9월 「대동아공영권 수립과 고도국방」(『삼천리』1940.9.)

을 기고해 지원병을 장려했으며, 10월 국토계획위원회 위원,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와 총무부 기획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천도교단에서는 1940년 천도교총부 장로에 올라 1945년까지 재임했다.

1941년 다시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해방될 때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2,400원의 수당을 받았다. 6월 중추원에서 주관하는 부여신궁공사(扶余神宮工事) 근로봉사에 참여했고, 8월 홍아보국단 상임준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같은 해 임전대책협력회에서 '애국채권'을 가두에서 판매했고, 9월 조선임전보국단 창립준비위원·발기인과 10월 단장으로 선출되었다. 11월 조선인 지원병수련생 1,232명의 수료식에 참석했고, 「읍소」(『삼천리』1941.11.)라는 글을 통해 전쟁참여를 독려했다.

1942년 조선임전보국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징병제 관련 행사에 참석했고 「있는 힘을 다 바치자」(『매일신보』1942.5.10.)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해 정학회 고문으로 선임되어 황도사상 보급에 앞장섰다. 1943년 「양양하다 반도의 앞날, 충효일본(忠孝日本)의 대도(大道)로 나가자, 열혈 청년들」(『매일신보』1943.12.8.)이라는 글을 써서 학병지원을 촉구했다. 1944년 국민동원총진회(國民動員總進会) 고문, 1945년 6월 조선언론보국회 회장에 임명되어 각종 대회를 주도하여 해방 때까지 친일 활동으로 일관하였다. 해방된 후 1949년 1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세 차례 공판을 받았고 그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린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11·13·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7: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741~831)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광수(李光洙)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無情)》을 쓴 소설가. 친일에 앞장서 조선문인협회 의장을 지냈고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라는 일본명으로 창씨개명했다.

호 춘원(春園). 평안북도 정주(定州) 출생. 소작농 가정에 태어나 11세인 1902년 콜레라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후 동학(東學)에 들어가 서기(書記)가 되었으나 관현의 탄압이 심해지자 1904년 상경하였다. 이듬해 친일단체 일진회(一進會)의 추천으로 유학생에 선발되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대성중학을 다니며 만난 홍명희, 문일평과 함께 소년회(少年會)를 조직하고 회람지 《소년》을 발행하는 한편 시와 평론 등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메이지[明治]학원에 중학3년으로 편입하여 공부하던 중 단편소설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하였다. 1910년 메이지학원을 졸업하고 일시 귀국하여 고향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五山學校)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해 7월 중매로 백혜순(白惠順)을 만나 혼인하였다. 1913년에는 세계여행을 위해 상하이로 건너갔다가 1914년 다시 오산학교에 복직하였다. 그해 재차 세계여행을 위해 시베리아를 거쳐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단념하고 오산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1915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1918년 7월에 졸업을 포기하고 귀국하였고 이 당시

결핵으로 건강이 나빠졌으나 여의사 허영숙(許英肅)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두사람은 애정관계로 발전하였다. 1917년 1월 1일부터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無情)》을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연재하여 소설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였다. 1918년 허영숙과 베이징을 여행하고 백혜순과 이혼하였다. 1919년 도쿄[東京] 유학생의 2·8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달하기 위해 상하이[上海]로 건너갔으며 도산 안창호를 만나 민족 독립운동에 공감하고 여운형(呂運亨)이 조직한 신한청년당에 가담하였다. 또한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대한제국의 독립의 정당성과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했다. 또한 임시정부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인 『독립신문사』 사장을 맡아 활동했다.

하지만 허영숙이 상하이로 찾아와 귀국을 종용하자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접고 1921년 3월 귀국하여 허영숙과 결혼하였다. 종학원에서 철학, 윤리, 심리, 종교 등을 강의했고 경성학교와 경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잡지 『개벽』에 「소년에게」를 발표하여 출판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1922년 5월 개벽지(誌)에 「민족 개조론」을 발표하여 우리민족이 쇠퇴한 것은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했다. 1923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편집국장을 지내고, 1933년 『조선일보』 부사장을 거치는 등 언론계에서 활약하면서 《재생(再生)》, 《마의태자(麻衣太子)》, 《단종애사(端宗哀史)》, 《흙》 등 많은 작품을 썼다. 1937년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반 년 만에 병보석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친일 행위로 기울어져 1939년에는 친일어용단체인 조선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 회장이 되었으며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라고 창씨개명을 하였다.

8·15광복 후 반민법으로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출감했으나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그간 생사불명이다가 1950년 만포(滿浦)에서 병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작품에 《윤광호(尹光浩)》 등의 단편과 《이차돈(異次頓)의 사(死)》《사랑》《원효대사》《유정》 등 장편, 그리고 수많은 논문과 시편들이 있다. (두산백과)

김마리아(金瑪利亜)

1891(고종 28)~1944. 독립운동가·교육자.

본관은 광산(光山). 황해도 장연(長淵) 출신. 아버지는 김윤방(金允邦), 어머니는 김몽은(金蒙恩)이다. 아버지는 한학자로, 서상륜(徐相崙)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

1895년 아버지가 세운 소래초등학교에 입학하여 4년 만에 졸업하고, 집에서 여공(女功: 길쌈 등 여자들의 일)을 수업하며 한문공부에 열중하였다. 1895년에 아버지를, 1904년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대학공부까지 하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1905년 서울로 올라와 노백린(盧伯麟)·김규식(金奎植)·유동열(柳東悅)·이동휘(李東輝)·이갑(李甲) 등 애국지사들의 출입이 잦은 삼촌 필순(弼淳)의 집에서 공부를 계속하였다.

1906년 이화학당(梨花學堂)에 입학했다가 교과 관계(敎授關係)로 곧 연동여학교(延東女學校：현재 정신여자중학교)로 전학, 1910년에 졸업하였다. 그 뒤 3년 동안 광주 수피아여학교에서 교사를 지냈고, 1913년 모교인 정신여학교로 전근한 뒤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하였다.

일본 히로시마(広島)의 긴조여학교(錦城女學校)와 히로시마여학교에서 1년간 일어와 영어를 수학한 뒤, 1915

년 동경여자학원 대학예비과에 입학하였다. 1918년 말경 동경유학생 독립단에 가담, 황에스터(黃愛施德) 등과 구국동지가 되었다. 1919년 2·8독립운동에 가담, 활약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조국광복을 위해 일신을 바치겠다는 굳은 의지를 세운 뒤 스스로 졸업을 포기하고, 「독립선언서」 10여 장을 베껴 변장한 일본 옷피인 오비 속에 숨기고 차경신(車敬信) 등과 2월 15일 부산으로 들어왔다.

귀국 후 대구·광주·서울·황해도 일대에서 독립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여성계에서도 조직적 께기를 서둘러야 한다며 3·1운동 사전준비운동에 진력하였다. 황해도 봉산에서의 활약을 마치고 3월 5일 서울 모교를 찾아갔다가 일본 형사에게 붙잡혔다. 이 때 모진 고문으로 상악골충농증에 걸려 평생을 고생하였다.

「보안법」 위반 죄목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 해 8월 5일 석방되었다. 석방 후 모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여성항일운동을 복돋우고자 기존의 애국부인회를 바탕으로 하여, 그 해 9월 대한민국의 애국부인회를 다시 조직하고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절대 독립을 위한 독립투쟁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맡기 위한 준비와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던 중 그 해 11월 말 애국부인회 관계자들과 다시 붙잡혔다. 그는 심문을 받으면서 “한국인이 한국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연호는 모른다”는 등 확고한 자주독립정신을 보였다.

3년형의 판결을 받고 복역 중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서울 성북동 보문암(普門庵)에서 요양하다 변장으로 인천을 탈출, 상해로 망명하였다. 상해에서도 상해애국부인회(上海愛國婦人會) 간부와 의정원 의원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수학을 계속하기 위해 중국 난징(南京)의 금릉대학(金陵大學)에 입학하였다.

1923년 6월 미국으로 가 1924년 9월 파크대학 문학부에서 2년간 수학하였다. 1928년에는 시카고대학 사회학과에서 수학, 석사학위를 받고, 1930년 뉴욕 비블리컬 세미너리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한편, 이곳에서 황에스터·박인덕(朴仁德) 등 8명의 옛 동지들을 만나 근화회(槿花會：재미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 회장으로 추대된 뒤 재미 한국인의 애국정신을 복돋우고 일제의 악랄한 식민정책을 서방 국가에 널리 알렸다.

그 뒤 원산에 있는 마르타 월슨신학교에서 신학강의만을 한다는 조건으로 1935년 귀국, 이후 여생을 기독교전도사업과 신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순국하였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 시체는 화장하여 대동강에 뿌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황옥경부폭탄사건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 경부였던 황옥(1887~?)이 김시현 및 다른 의열단 단원들과 협력해서, 국내 폭탄 밀반입 시도에 관여한 사건을 말한다.

1923년 2월 11일, 황옥은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 단원 김시현(1883~1966), 단장 김원봉(1898~1958년?)과 중국 천진에서 만났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때 황옥은 의열단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실한 사실은 아니다.



황옥은 김시현(金始顯) 등과 함께 의열단의 비밀 계획에 동참했다. 폭동 유발과 요인 암살 공작용 폭탄의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1923년 3월 3일 중국 천진에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에게 폭탄을 수령했다. 그리고 수령한 폭탄 36개와 권총 5정을 일본제국령 조선으로 밀반입을 시도한다.

1923년 3월 22일, 새벽 열차로 폭탄과 권총, 전단을 몰래 옮기기 위해 신의주 출발 경성행 기차를 탔으나, 의열단 요원 김재진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황옥, 김시현 등 9명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황옥이 친일파였는지 독립투사였는지, 의견이 엇갈린다. 황옥이 '위장 친일파'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설과, 의열단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일제의 밀정(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https://namu.wiki/w/%ED%99%A9%EC%98%A5%20%EA%B2%BD%EB%B6%80%20%ED%8F%AD%ED%83%84%EC%82%AC%EA%B1%B4>

8. 참고 문헌

[도서]

이상경(2009).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이영미(2014). 『못(母)된 감상기 나혜석』. 페리타.

윤범모 외(2011).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허현 외(2015). 『경성 에리프의 만국 유람기』. 현실문화.

서정자(2013). 『나혜석 전집』. 나혜석기념사업회. 푸른사상.

오형엽(2011). 나혜석 단편집 『나혜석』. 지식을 만드는 지식.

윤석화(2015). <윤석화가 읽는 나혜석의 경희(오디오북)>. 나혜석,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정자(2016). 『나혜석 문학연구』. 푸른사상.

이구열(2011). 『나혜석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 서해문집.

박정윤(2016). 『나혜석 운명의 강강』. 푸른역사.

최동호 외(2015). 『나혜석, 한국 문화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정금희(2003).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카미유 끌로델』. 재원.

유진월(2003). 『불꽃의 여자 나혜석(유진원 희곡집1)』. 평민사.

정규웅(2015). 『붉은 꽃 나혜석(정규웅 장편소설)』. 책이있는 마을.

송명희(2015). 『페미니스트 나혜석을 해부하다』. 지식과 교양.

김진·이연택(2009). 『그땐 그 길이 왜 그리 좁았던고』. 해누리기획.

『나혜석 작품집』. 지만지고전전출. 나혜석 지음 오형엽 옮김(2008)

수원박물관, 나혜석학회(2012). 『나혜석 연구의 쟁점과 과제』. 나혜석 학술대회.

신혜원(2015). 『한국 근현대 여성화가 연구 -나혜석과 박래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김선애(2001). 『나혜석 연구』. 수원대학교.

이정민(2013). 『나혜석의 여성문제 인식과 교육관』. 중앙대학교.

나혜석(2011). 『나혜석 단편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이덕일(2003). 『여인열전-나혜석-전근대사회에 좌절된 최초의 근대여성』. 김영사.

나혜석기념사업회(2001). 『정월 라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권오숙 외(2011). 『그녀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사랑했다 : 불꽃처럼 살다간 12인의 여성작가들』. 한길사.

이구열(2011). 『나혜석』. 서해문집.

정규웅. 『나혜석 평전 : 내 무덤에 꽃 한 송이 꽂아주오』. 랜덤하우스코리아.

서경석·우미영 엮음(2007). 『신여성, 길 위에 서다』. 도서출판 호미.

이덕일(2009). 『이덕일의 세상을 바꾼 여인들』. 옥당.

박환(2007). 『경기지역 3·1독립운동사』. 도서출판선인

나혜석(2006). 『경희 외』. 범우.

함정임(2004). 『춘하추동』. 민음사.

나영균(2004).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유진월(2003). 『불꽃의 여자 나혜석 : 유진월 희곡집 1』. 평민사.

조용훈(2002). 『요절』. 효형출판.

염혜정(2002). 『여성의 삶과 미술』. 창해.

경기문화재단(2006). 『풍수』. 경기문화재단.

정금희(2003).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카미유 끌로델 : 시대를 앞서 예술적 운명과 만난 여인드』. 재원.

박용옥(2001). 『한국 여성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고미숙(2001).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 책세상.

최혜실(2000).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조수비(1999). 『백년의 고독 1,2』. 도서출판 참섬.

한국여성개발원(1998). 『한국역사속의 여성인물(하)』. 한국여성개발원.

문옥표 외(2004). 『신여성』. 청년사.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정영자(2002). 『한국여성소설연구』. 세종출판사.

이상경(2000). 『나혜석 전집』. 태학사.

홍인숙(2007). 『누가 나의 슬픔을 돌아주랴』. 서해문집.

윤범모(2005). 『화가 나혜석』. 현암사.

나혜석(1999). 『이혼고백서』. 오상.

길밖세상(2001). 『20세기 여성 사건사』. 여성신문사.

신지영(2008). 『꽃과 풍경』. 미술사랑.

한상남(2008). 『저것이 무엇인고』. 샘터사.

장석주(2008).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사회평론.

함정임(2004). 『나를 사로잡은 그녀, 그녀들』. 이마고.

홍인숙(2007). 『누가 나의 슬픔을 돌아주랴』. 서해문집.

김미현(2004). 『연애소설』. 도서출판 글빛.

이구열(1974). 『나혜석일대기 - 에미는 선각자(先覺者)였느니라』. 동화출판공사.

이명온(1955). 『흘러간 여인상 : 그들의 예술과 인생』. 인간사.

임종국 외(1966). 『흘러간 성좌』. 국제문화사.

서동수(2010). 『한국여성작가연구 : 나혜석』. 한국학술정보.

윤범모(2007). 『첫사랑 무덤으로 신희여행을 가다 : 화가 나혜석의 고백』. 다할미디어.

이경성(1980). 『한국근대회화』. 일지사.

테레사 현 지음, 김혜동 옮김(2004). 『번역과 창작 : 한국 근대 여성 작가들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자료 및 홈페이지]

네이버 캐스트, 나혜석 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525&cid=59015&categoryId=59015>

한겨레, 「나혜석은 어떻게 금기를 깼나」, 2008.10.10.

한국사전(제59회), 「나는 말한다 - 내게 금지된 것을 말한다」

한겨레,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羅蕙錫)」, 2002년 11월 4일.

아들이 털어놓은 어머니 나혜석

한겨레21, 「말하는 여자의 천역」, 2001.05.03. 제356호.

네이트 한국학, 나혜석 편.

경향신문, 「길, 숲, 섬」 시대에 맞선 신여성을 기념하며... 수원 나혜석거리」, 2009.10.16.

[다시 읽는 여인열전] 남성중심 사회서 희생된 나혜석

한겨레, 「첫 여성화가 나혜석 탄생기념 심포지엄」, 2004.04.20.

- 나혜석(1896-1946) 그림의 천재, 겨울에 피다만 자유의 꽃

- 나혜석 : 2000년 2월의 문화인물

- 박노자(2005). 「“현모양처론”과 그 반대자들 : 나혜석, 김일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회자료집.

[기타]

중앙일보, 「모성애는 의무가 아니다」, 2011.10.13.

중앙일보, 「'가지 않은 길' 걸어온 여성들의 삶...서울여성사 전시회」, 2002.01.29.

중앙일보, 「그림·사진·글로 말하는 '나는 나혜석이다」, 2011.12.24.

조선일보, 「채널 CTN 신여성 나혜석 특집」, 2000.02.01.

중부일보, 「나혜석을 조선.수원 틀에 가두지 말고 세계로 알려나가야」, 2012.03.06.

나혜석 둘째 아들 김진 전 서울대 교수가 띄우는 고백 : “시대 앞서간 어머니와 상처 속에 살다 간 아버지... 이제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한겨레, 「스캔들' 걷어낸 나혜석의 참모습」, 2004. 01.02.

한겨레, 「100년 전 '비운의 알파걸' 나혜석 아니?」, 2008. 03. 07.

문화일보, 「소외받은 근대女작가 3인 탐구」, 2000. 02. 09.

경향신문, 「시대에 맞선 신여성 나혜석... 불같은 예술혼에 반했어요」, 2009. 04. 02.

한겨레, 「주눅 든 식민지 남성 신여성에 눈 흘기다」, 2005. 12. 08.

경향신문, 「나혜석 전집」, 2011. 05. 30.

중앙일보, 「화성 행궁서 나혜석이 살아난다」, 2012. 06. 01.

중앙선데이, 「재일유학생과 '反戰' 일본사회주의자 손잡다」, 제266호.

문화일보, 「나혜석을 찾다가 나 자신을 알았다」, 2004. 12. 14.

조선일보, 「아들이 털어놓은 어머니 나혜석」, 2009. 03. 11.

조선일보, 「나혜석의 생각·몸·생활은 그대로 예술이었다」, 2009. 03. 14.

동아일보, 「페미니스트 웹진 '달나라딸세포' 편집장 야옹이」, 2000. 05. 22.

문화일보, 「90년대 튀는 여성들 '참을 수 없는 가벼움」, 1998. 04. 16.

동아일보, 「[동아연출상] 이젠 사람 냄새 나는 작품 해보고파」, 2001. 01.30.

한겨레, 「'처음'을 걸었던 나혜석의 길을 좇아」, 2004. 12. 24.

문화일보, 여류화가 나혜석을 그린 풍경화 문화일보 2009. 03. 13

[김서령이 만난 명문가 사람들Ⅰ 영문학자 나영균] 고모 나혜석의 추억... 그 쓸쓸한 DNA 스민 듯
‘여성을 옹매는 끈을 내어 노라. 인형이 아니고자 슬퍼졌던 노라’ - 나혜석 가상 인터뷰

조선일보, 「함정임 씨, 신작 소설 춘하추동 출간」, 2004. 12. 15.

한겨레, 「'남자'답기를 거부하라」, 2006. 02. 07.

뉴시스, 「수원 단풍거리 10곳에 선정된 박지성도로」, 2014.10.29.

(출처 : 수원 단풍거리 10곳에 선정된 박지성도로 [뉴시스] 입력 2013.10.29. 16:33)

경기관광포털, 나혜석 거리,

https://ggtour.or.kr/blog/tour_shopping/%EB%82%98%ED%98%9C%EC%84%9D%EA%B1%B0%EB%A6%AC/



흥선대원군과 다르게 세상을 바꾼 여성, 명성황후

1. 활동 개요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할 명성황후는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분으로, 고종의 왕비가 되어 조선 말기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서양세력과 청, 일본 등 외세가 몰려오는 격랑의 시대에 나라의 운명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일제에 의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삶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그녀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물 학습



명성황후(1851~1895)는 조선시대사 뿐만 아니라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매우 독특한 행보를 보여준 왕비였다. 역사상 권력의 정점에 오른 왕비들은 종종 있었지만, 그들이 권력을 쥔 것은 지아비인 왕이 죽고 난 뒤, 아들이나 손자를 내세워 수렴청정하면서 라던가, 아니면 명문가인 친정을 등에 업고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방법을 통해서였다. 명성황후는 이전의 왕비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는 지아비인 고종이 국정을 의논하는 가장 가까운 상대였으며, 외국의 세력들이 고종보다도 더 예의주시했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명문가 친정의 도움으로 왕비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왕비가 되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친정세력을 키웠다. 살아 있는 왕보다도 더 주목받으면서 사실상 왕과 권력을 나눠 가졌다고도 보이는 명성황후의 존재는 당시 망국으로 치닫는 조선의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생각하여도 매우 특이하고도 경이롭다.

가. 배경이 없어서 오를 수 있었던 왕비자리

명성황후는 여흥 민씨로 여주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름은 자영이었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그녀가 태

어난 집안은 숙종을 두고 장희빈과 삼각관계를 겨루었던 왕비, 인현왕후를 배출한 민씨가였다.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록은 인현왕후의 아버지였던 민유중의 5대손이었다. 이런 가계를 통해 볼 때 명성황후 집안은 당색으로는 서인계였고 아버지 민치록이 세도정치기인 철종 때 음서로 관직에 오른 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꽤 내로라하는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치록은 음서로 관직에 올라 지방관과 중앙의 중간관리 벼슬을 했으며 훗날 명성황후가 되는 딸아이 하나만 남긴 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8살에 아버지를 여읜 이후 명성황후는 어머니와 함께 여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감고당(6대조 민유중의 집으로 당시 민치록이 소유하고 있었다. 감고당이란 이름은 영조가 지어주었다)에서 기거하였다. 당시 서울에 집을 소유한 것을 볼 때 집안 형편은 꽤 넉넉했던 것 같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대를 이을 사내아이가 없는 집안은 이미 몰락을 예정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12촌인 민승호가 양자로 들어와 집안의 제사를 맡기는 했지만, 사실상 명성황후는 어머니와 단둘이 외로운 성장기를 보냈을 것이 분명하다.

명성황후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총명하여 주변에 칭찬이 자자하였다. 특히 훗날 왕비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친척 아주머니 민씨 부인의 마음에 퍽 들었다. 이 민씨 부인은 바로 당시 아들 고종을 앞세워 조선의 실권을 쥐고 있던 대원군의 아내, 부대부인 민씨였다. 부대부인 민씨는 명성황후의 아버지 민치록의 양자로 들어간 민승호의 누나였다. 그녀는 둘째아들 고종의 왕비로 자신과 친인척관계이던 명성황후를 적극적으로 대원군에게 추천하였다.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친정이 단출한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한다. 왕비를 내세운 안동김씨의 외척 세도정치를 무척이나 경계하던 대원군은 가문적으로는 그다지 빠지지 않으나 주변에 힘이 될 사람은 별로 없는 명성황후를 전격적으로 왕비로 간택했다. 물론 제대로 된 왕비 간택 절차를 거쳤지만, 이 간택 절차 이전에 대원군은 이미 아버 없고 남자 형제 없는 민씨가의 외로운 처녀를 며느리로 점찍고 있었다. 몰락한 친정을 둔 왕비가 정치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나. 대원군과의 갈등

그러나 대원군의 예상은 보기 좋게 뒤집어졌다. 총명했던 명성황후는 대원군의 사람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양 오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원군의 처남인 민승호를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대원군의 형인 이최응, 대원군의 큰아들 이재면(고종의 만형)까지도 대원군에게 등을 돌리고 고종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친인척을 모두 끌어들이고 후 명성황후는 대원군에 의해 정계에서 밀려난 안동김씨 세력과 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해주었지만 결국 반목하게 된 풍양 조씨 세력까지 끌어들이었다. 사방에서 대원군이 운신할 범위를 점차로 좁혀 나갔던 것이다.

명성황후가 처음부터 대원군에 맞서는 지략적인 정치가였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명성황후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아버지 대원군과의 감정적인 대립도 한몫하였다.

16세의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 오른 그녀는 신혼 초부터 여성으로서의 쓰디쓴 질투의 감정을 맛보았으며 이를 시아버지 대원군이 부추긴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명성황후와 혼례를 치를 무렵 고종은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상궁 출신의 궁인 이씨를 매우 총애하여 가까이 두고 정작 정식 왕비인 명성황후는 냉대했던 것이다. 여기에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궁인 이씨가 아들 완화군을 낳자 궁중의 관심은 모두 궁인 이씨에게로 몰렸다. 완화군이 태어나자 대원군은 명성황후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완화군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까지 했다. 대원군은 배경없는 왕비를 며느리로 들인 것도 모자라 혹시나 외척이 발호하는 것이 두려워 신분적으로나 가문적으로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궁인의 자식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외척에게 시달리지 않고 왕권을 더욱 오롯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대원군의 완화군에 대한 성급한 세자 책봉 시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명성황후는 시아버지 대원군의 의중을 알아보았고 자칫 자신은 허울만 좋은 찬밥신세 왕비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간파했다.

이후 고종의 사랑을 회복한 명성황후는 아들을 두 명이나 낳았지만 모두 요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원군의 원자에 대한 무리한 약 처방이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국정부터 왕가의 가정생활까지 간섭하며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두려 했던 대원군의 독단적인 태도는 결국 명성황후를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즈음 왕위에 오른 지 10여 년이 되어 성인이 된 고종도 더 이상 전제적인 아버지 대원군의 간섭없이 자신이 왕인 나라를 자기 스스로 다스려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대원군이 꿈쩍할 수 없도록 자신들의 세력을 서서히 형성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또한, 외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나 경복궁 중건 등으로 인한 대원군의 거들된 실정이 왕의 친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증폭시키고 있었기에 이를 적극 이용하였다. 마침내 1873년 고종과 명성황후는 최익현이 대원군의 실정과 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여 이를 계기로 고종 친정을 선포함으로써 대원군을 권력의 중심에서 축출했다.

다.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고종은 친정 직후 대원군 집권 시의 쇄국을 풀고 일본과 수교하였고 이후 차례로 서양의 열강들과 수교를 맺어나갔다. 그러나 이전의 강력한 통상수교거부정책(쇄국정책)으로 미쳐 외세에 대해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개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개국 이후 내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대원군과의 대립과 기존 세력과의 갈등, 외적으로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일본과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외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국을 운영하였다.

그 와중에 1882년 신식군대에 대한 구식군대의 불만이 표출된 임오군란이 터지고 명성황후가 힘을 기르기 위해 키웠던 민씨 세력이 위협 당하자. 명성황후마저도 그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명성황후는 궁궐을 탈출하여 장호원에 은거하였고 임오군란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정권을 되찾은 대원군은 명성황

후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국장까지 치르려고 하였다. 이때 명성황후는 고종에게 자신이 건재함을 알리고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청나라 군대의 출동으로 대원군은 청으로 압송되었고 명성황후는 궁궐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때부터 더욱 자신의 안전을 위해 민씨들의 힘을 모으는 다소 파행적인 정국 운영을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1884년에는 청의 개입으로 더더진 개화에 불만을 품은 개화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으로 왕권이 위협받자 명성황후는 더욱 청나라와 가까이하게 되었고 이후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신하들과 아버지(대원군)에게조차 권력에 도전을 받은 고종은 명성황후와 더욱 밀착되었고 모든 국정을 그녀와 의논하였다. 특히 외교적인 문제는 명성황후와 거의 뜻을 같이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사리판단이 비교적 명확했던 명성황후였지만 목숨마저 위협받은 환란을 겪은 후 그녀는 권력에 대해 지나치게 강렬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궁궐에서 곳을 하거나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치성을 하는 등 국고를 낭비하는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라. 살해당한 왕비, 훼손된 국격

명성황후에 대한 외국 측의 기록을 보면 하나같이 그녀가 가냘프지만 영민하고 총명하며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여인이었다고 쓰여 있다.

19세기 말 한국을 다녀간 영국의 비숍 여사는 명성황후를 알현한 후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왕후는 가냘프고 미인이었다. ... 눈은 차고 날카로워서 훌륭한 지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석하고 야심적이며 책략에도 능할 뿐 아니라 매우 매혹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선교사 언더우드의 부인은 명성황후에 대해 또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지식은 주로 중국에서 얻은 것이었지만 세계 강대국과 그 정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자기가 들은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섬세한 감각을 가진 유능한 외교관이었고 반대세력의 허를 찌르는 데 능했다. ... 그녀는 일본을 반대했고 애국적이었으며 조선의 이익을 위해 몸을 바치고 있었다. ... 그녀는 아시아의 그 어떤 왕후보다도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여인이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조차도 그녀를 동양의 호걸, 여장부로 평가했다. 지나치게 총명하고 정치에 적극적이었기에, 또 보기에 따라서는 시대를 앞선 매우 현대적인 자존감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명성황후는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신변은 늘 불안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들어온 일본을 외교적으

로 러시아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축출하고자 했던 명성황후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은 후안무치한 음모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일명 ‘여우사냥’으로 불린 명성황후의 시해시도였다. 일본은 자신들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 데 가장 방해요소로 왕비였던 명성황후를 지목하고 제거하고자 하였다.

1895년 음력 8월 20일 새벽,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청궁의 옥호루에서 명성황후는 난입해 들어온 일본 낭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시해 당했다. 시신마저 향원정의 녹원에서 불살라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명성황후시해사건)이다. 이 을미사변을 지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지시를 받은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였다.

외세에 의한 왕비살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국내에서는 일본에 왕비 살해의 원한을 갚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국제적으로는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졌다. 시아버지였던 대원군은 이 틈에 잠시 정권을 되찾는 듯 하였지만, 고종이 이미 아버지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공관에 안전을 의탁하는 아관파천을 행함으로써 곧 실각하였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은 국격을 훼손당하고 망국으로 가는 길을 한발 더 내딛게 되었다.

명성황후는 시해 직후 대원군에 의해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다가 같은 해 고종에 의해 복호되었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명성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황후로 추봉되었다. 장례는 죽은 지 2년 만인 1897년에 가서야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홍릉에 안장되었다. 요절한 두 아들 다음에 낳은 셋째 아들이 마지막 임금 순종황제이다.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살해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로 엇갈린다. 그녀가 망국의 왕비로서 나라를 망치게 한 장본인이라는 평가부터 구국을 위해 몸을 바친 시대의 여걸이었다는 평가까지 참으로 극단적으로 다양하다. 이것은 아마도 19세기 말 시대적 혼란 상황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정국운영의 다양한 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반대하여 미처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나라를 열었지만 급진적 개혁은 원하지 않아 개화파의 불만을 샀고, 일본을 물리치려고 외세를 끌어들였으며 그녀의 친정이 새로운 외척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등 시대를 역행했다는 것이 주요한 비판의 이유였다. 한편에서는, 똑같은 그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명성황후가 지나친 쇄국과 급진적 개혁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자 노력했고, 열강들을 이용해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는 외교술을 펼쳤으며, 그녀가 의도적으로 키운 외척들이 훗날 고종의 측근이 되어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마지막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했고 이것이 독립운동과 이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사. 명성황후 연보

1851년 9월 25일 명성황후 출생(양력 11월 17일)
1863년 12월 13일 고종 즉위(조선 26대)
1866년 3월 6일 왕비로 책봉
1866년 8월 12일 병인양요
1867년 11월 16일 경복궁 중건
1871년 4월 5일 신미양요
1871년 11월 4일 원자 출산, 3일 뒤 사망
1873년 1월 공주 출산, 당일 사망
1873년 11월 5일 국왕 친정선포(대원군 실각)
1874년 2월 8일 순종 출산
1874년 11월 28일 민승호 부자 폭사
1874년 11월 30일 한창부 부인 이씨(명성황후 생모) 사망
1876년 2월 2일 조일수호통상조규 조인
1882년 6월 5일 임오군란 발생
1882년 6월 10일 명성황후, 장호원으로 피난
1882년 8월 1일 명성황후 환궁
1883년 1월 27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전국에 반포
1883년 10월 1일 한성순보, 최초의 근대신문 발간
1884년 10월 17일 갑신정변 발생
1887년 10월 22일 이화학당 교명 하사
1894년 1월 10일 동학농민전쟁
1894년 6월 23일 청일전쟁 발발
1894년 6월 25일 갑오경장 단행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음력 8월 20일, 을미사변)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1897년 10월 11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결정
1897년 10월 12일 명성왕후에서 황후로 개칭
1897년 11월 22일 명성황후 국장 거행

3. 교수-학습 과정안

과 목	자유학기제 활동		담당 교사	000 (인)
학 급	1학년 0 반		수업일시	2017년 10 월 00일(0요일)(5~6)교시
단 원 명	흥선대원군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본 명성황후			
학습 목표	1. 명성황후의 삶을 정리할 수 있다. 2. 명성황후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우리나라 근대 건축물 중 상당 부분을 설계한 사바틴이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목격한 인물임을 이야기한다.			
전 개	1. 꿈 많은 소녀에서 만백성의 어머니, 조선의 국가 되다 (15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왕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본다.	남녀 혼합으로 4 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흥선대원군과 세상을 다르게 본 명성황후(10분)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본다.		
	3. 일제에 의해 스러진 국모(15분)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과정을 정리한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확인한다. - 신문 기사 내용을 작성한다.		
	생각 더하기(30분)	-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가 서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확인한다. - 자신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내용을 정리하여 토론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명성황후는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외교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였는지 살펴본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 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인물의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 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생각 더하기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4. 학생 활동지 해답

[생각 나누기]

• 특종을 잡아라, 명성황후 시해사건!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발생한 사건을 취재하라!

신문 기사를 작성해 봅시다.



세도정치



삼정 의문란



홍경래의 난

< 조건 >

- 1) 6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 내용을 작성합니다.
- 2) 관련된 사진과 자료를 찾아 함께 작성합니다.
- 3) 당시 해외 언론에 소개된 내용도 찾아 작성합니다.

[생각 더하기]

• 토론하기

※ 다음은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요? 지지하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 정리하고 토론해 보아요.

흥선대원군	명성황후
서양 오랑캐들은 절대로 우리 조선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한 다. 그들은 예의도 없고, 오로지 탐욕에 가득찬 무리들이다.	지금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문을 걸어 잠 그고 있으면 주변 나라들에게 뒤쳐집니다.

◆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아요.

1. 흥선대원군 지지
- 근거이유
2. 명성황후지지
- 근거이유
3. 양측의 주장 청취
4. 질의 / 응답
5. 토론내용 정리

5. 활동 준비물

모둠별 활동지, 필기도구, 자료 등

6. 교사 참고 자료

가. 명성황후 생가 안내



< 이용안내 >

- 소재지 : 여주시 명성로 71
- 문의처 : 031-880-4021~3
- 홈페이지 : <http://www.empressmyeongseong.kr>

나. 명성황후 시해사건(을미사변)

신동아 2002년 1월호

러시아측 자료로 본 명성황후 시해사건

“일본인 폭도가 가슴을 세 번 짓밟고 일본도로 난자했다”

왕후는 갑자기 회랑(궁궐 내의 복도)을 따라 달아났다. 그 뒤를 한 일본인 폭도가 쫓아가 왕후를 마룻바닥에 넘어뜨리고 왕후의 가슴을 세 번 발로 짓밟고, 칼로 찔러 시해했다. 나이 많은 한 상궁이 수건을 꺼내 왕후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일본인 폭도들은 왕후의 시신을 가까운 숲속으로 운구해 갔다.

- 박종효·전 모스크바대 교수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1세기가 지난 오늘날, 사건의 원인과 결과는 학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대부분 밝혀졌지만 사건 당일의 자세한 진상은 미궁에 빠진 채 여러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연구는 미·소 냉전의 영향으로 인해 러시아측 자료는 도외시된 반면, 국내 자료와 영·미 자료 그리고 은폐조작된 일본측 자료에 의존해왔다. 최근에는 시간설(屍姦說)과 황후 시신을 일본인이 궁정 밖으로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연 지금까지의 여러 주장들이 얼마만큼 진실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명성황후 시해사건 관련문서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러시아 외무성 제정(帝政)러시아 대외정책문서국 자료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러시아측이 보관하고 있는 명성황후 시해사건 문서는 당시 서울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Вебер К И)가 외상 로마노프-로스토브스키(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А)에게 보낸 보고서 그리고 당시 고종을 위시한 여러 목격자의 증언서 등이다.

서방국가의 자료에서도 베베르는 명성황후 시해사건 직후 서울주재 외교 대표단의 회합을 주선하고,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楼)에게 항의하여 마침내 일본공사가 조선의 국모(国母) 시해사건의 주모자였음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에 관련해 러시아 외상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전 농상공부 대신 이범진(李範晋)이 10월8일 이른 아침에 러시아공사관으로 찾아와 궁궐이 일본군에 포위되어 민왕후(1897년 이전에는 왕후로 호칭)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그때 마침 궁궐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고 우리 공사관으로 온 러시아인 건축기사 세레딘-사바틴(Середин-Сабатин)도 일본 폭도들이 왕후를 위해(危害)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나는 조선 국왕의 절박한 구원 요청에 조선과 이해관계가 많은 미국의 앨런(Allen) 공사대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즉시 앨런에게 연락, 그와 함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본공사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미우라 공사가 출타중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궁궐로 가서 고종을 알현했는데 벌써 일본공사 미우라와 대원군(大院君)이 와 있었다.

오후에 일본공사를 만나 일본군이 조선궁궐에 난입한 진상을 듣기로 하였다. 대원군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건과 무관함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베베르는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乙未事變) 당일 즉시 러시아 외상에게 숫자로 된 난수표 암호전문을 보내

고, 다음날 10월 9일에는 현장 목격자로부터 증언서를 받아 보고서에 첨부해 함께 외상에게 보냈다. 러시아 외상은 베베르의 보고서를 사건 목격자 증언서와 함께 니콜라이 II세 황제에게 상주(上奏)하였다.

니콜라이 II세(당시 그는 대관식 이전이었으나 황제 직무수행)는 베베르 보고서를 읽고 상단에 친필로 “천인공노할 사건이니 좀더 자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급기야 일본의 만행을 경계해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두만강 국경과 인접해 있는 러시아극동아무르 군관구 사령관에게 산하 부대를 비상대기시키라고 명령했다.

베베르의 민첩한 활동

이와 같은 베베르 보고문서와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서 등이 현재 러시아 외무성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국에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그 문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고종의 증언서(1897년 대한제국선포 이후에 고종은 황제로 호칭. 민왕후도 이후부터 명성황후로 추존) ▲시해 현장에 있던 무명 상궁의 증언서 ▲전 농상공부 대신 이범진(李範晉) 증언서 ▲조선군 부령(副領, 중령) 이학균(李學均) 증언서 ▲조선군 정령(正領, 대령) 현흥택(玄興沢) 증언서 ▲러시아인 궁궐 경비원 건축기사 세레딘-사바틴의 증언서 ▲가톨릭 서울주교 프랑스인 구스타프 뮈텔(Gustave Mutel)의 증언서 ▲10월8일 서울 일본공사관에서 서울주재 서방 외교대표(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가 모여서 미우라 일본공사에게 항의하며 나는 대담록(영국 총영사가 기록) ▲조선 외부대신(外部大臣) 성명서 ▲서울에서 일본인이 발행한 한성신보(漢城新報) 기사 ▲일본군 궁궐 침입로 도면(図面)

그밖에 베베르가 10월 9일 이후에 외상 로바노프-로스토프스키에게 보낸 문서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고종의 서명 없이 일본이 강압적으로 발표한 왕후폐위칙서(王后廢位勅書) ▲대원군의 성명서 ▲10월25일자, 11월5일자, 11월13일자 일본공사관에서 서울 외교대표들이 일본공사에게 항의하며 나는 대담록 ▲베베르의 보고서와 전문(電文)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히트로보의 전문 ▲중국에서 보낸 세레딘-사바틴의 2차보고서(사건 당일 밤 궁궐의 서양인 경비원으로 미국인 다이(W.M. Dye)와 함께 있었던 세레딘-사바틴이 서울 공사관에서 다 쓸 수 없었던 내용을 중국지부 러시아영사관에서 러시아 외무성에 2차 보고한 증언서 ▲고종에게 보낸 일본천황의 친서 등이다.

우선 위와 같은 증언서를 포함해서 자세한 사건보고서를 러시아 외무성에 제출한 서울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베베르는 1841년 7월5일 러시아 리바프 지방에서 독일계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교 선교사였으며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그는 1865년에 페테르부르크대학 동양학부를 졸업한 후 러시아 외무성 외교관 시보로 채용되어 베이징(北京)에서 5년간 중국어 공부를 계속했다. 그후 중국 텐진(天津)주재 영사, 일본주재 총영사, 베이징주재 임시공사대리를 역임하고, 1885년에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 조선에 부임하였다.

그는 동양의 예절에 밝아 고종의 환심을 사게 되었으며 처(妻)언니인 독일인 존팍에게 서울에 ‘손탁(러시아어로는 ‘존팍’)호텔’을 경영하도록 했다. 존팍은 이렇게 민왕후의 측근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고종의 총애를 받은 베베르

베베르는 조·러 수교 조약체결을 비롯해 고종이 친러책을 펴도록 한 러시아의 매우 유능한 외교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후에 베베르는 고종황제로부터 황실가족에게 수여하는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을 제외하고는 일반인 으로서는 최고 훈장인 충무훈장(忠武勳章)을 받기도 했다.

그는 민왕후 시해사건 때 관련 목격자들의 증언서를 사건 당일에 받는 민첩한 수완을 발휘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일본공사와 일본정부의 은폐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울주재 외교 대표들의 선두에서 일본의 만행을 밝혀 내고 범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범진(李範晉)은 그의 증언서에서 당일 밤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군대와 조선군이 궁궐을 포위했다는 급보(急報)를 받고 고종은 나에게 시간을다투어 미국공사관과 러시아공사관에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라는 어명(御命)을 내리셨다. 나는 서쪽 담으로 기어올라가 밖을 보았더니, 정원은 군인들로 온통 가득 차 있었다. 남쪽에 있는 광화문(光化門) 쪽도 마찬가지로였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동남쪽 담의 구석에 있는 작은 탑에 올라가보았다. 그곳에도 밖에는 2명의 일본군인이 순찰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순찰병이 좀 멀리 간 틈을 타 약 4~5m 높이에서 밑으로 뛰어내려 궁궐을 탈출했다. 미국공사관에 도착했을 때 대궐 쪽에서 첫 총성이 들려왔다.”

고종이 이범진을 러시아공사관에 앞서 미국공사관으로 보낸 것은 당시 조선에는 궁내부 고문(宮內府 顧問)으로 미국인 레젠드르(C.W. Legendre) 장군, 군사교관으로 다이(W.M. Dye) 장군(퇴역 대령 출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가 150여 명이나 활동하고 있었고, 미국공사관에서 앨런(중국과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로 근무한 후 서울 미국공사관에 채용되었다)이 왕실에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고종은 위급한 상황에서 제일의 구원자로 미국공사관을 생각해 냈을 것이다.

이범진은 아무튼 미국공사관을 거쳐서 러시아공사관을 찾아가 궁궐이 일본군에 포위되었다고 알리고 구원을 요청했다. 궁궐 포위 앞뒤로 발생한 사건은 러시아인 세레딘-사바틴이 증언하고 있다.

세레딘-사바틴(당시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관들은 고종에게 일본은 유럽을 두려워한다면서 유럽인 경비원을 여러 명 궁궐에 채용하도록 건의했다. 세레딘은 그중 한명이다)은 서울 러시아공사관에서 쓴 증언서에서 사전 사건모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사건 모의

“전날 밤인 6일 밤 12시경 경복궁을 순시하고 있을 때 광화문쪽이 소란스러웠다. 광화문 앞에 조선군의 무리가 보였고, 그 뒤에 일본군 부대가 정렬해 있었다. 조선군은 7일 새벽 2시까지 큰소리로 떠들다가 조용해졌다. 궁궐

별군관(당직 사령)의 설명으로는 며칠 전 조선군 훈련대가 경찰대와 싸웠기 때문에 이 두 부대를 해산시킨다는 소문이 돌아 훈련대가 궁궐 앞에 모여 청원시위를 벌였으나 일본군 부대가 도착해 해산시켰다고 했다.

아침에 퇴근해 집에 있으니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한 중국인이 찾아와 밤에 궁궐에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은밀히 경고했다. 그러나 그 말을 흘려듣고 저녁 7시에 궁궐로 가는데 길에서 우연히 그 중국인을 다시 만났다. 그는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며 밤에는 절대로 궁궐에 있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중국인은 조선군이 오늘 밤 음모를 꾸며 궁궐을 기습할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다.

궁궐에는 폭동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궁궐 돌담 옆과 길에는 전과 다름없이 초병(哨兵)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날 밤 유럽인 경비원 당직으로는 미국인 다이 장군과 나 세레딘-사바틴이 있었다.”

세레딘-사바틴의 증언을 보면 사건 전날밤에 조선군 훈련대와 일본군이 대궐 앞에 모여 궁궐침입 예행연습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는 당일 밤에는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도 중국인으로부터 사전에 입수했다. 그런데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결국 대궐이 포위되는 지경에 이른다.

대포 포위에 대한 상황 설명은 현홍택 궁궐경비대 정령과 세레딘-사바틴 그리고 이학균 부령의 증언서에서 드러나고 있다. 먼저 현홍택 정령은 증언서에서 경복궁 포위 시각을 말하고 있다.

“8일 새벽 2시 별군관(궁궐경비 당직 사령관)에게 고종의 호위경관 2명이 달려와 삼군부(광화문 앞 경비실)에 일본군과 조선군 훈련대가 운집해 있다고 보고했다. 나는 즉시 궁궐 경비병 수명을 광화문으로 급파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돌아와서 고종의 호위경관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주었다. 시간이 지나 새벽 4시 조선군 훈련대 대대가 춘생문(春生門, 경복궁 동북문)과 추성문(秋成門, 경복궁 서북문)을 포위하였다.”

이 증언은 이미 밤 2시부터 경복궁 주위에 폭도들이 집결하여 궁궐을 포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경복궁 포위 시간과 관련해 세레딘-사바틴도 폭도들의 광화문 최초 집합 시각만 모르고 있을 뿐 춘생문과 추성문 포위 시간대는 현홍택 정령의 증언과 거의 일치한다.

“갑자기 8일 새벽 4시에 궁궐경비대 이학균 부령(당시 궁정경비대 소속으로 다이 장군의 수석통역관)이 유럽인 궁궐경비원 숙소에 뛰어와 다급한 목소리로 일본군과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받은 조선군이 경복궁을 포위했다고 말하였다.”

이 증언은 현홍택 정령이 앞서 말한 8일 새벽 4시에 동·서쪽 양 북문을 일본군과 조선군 훈련대가 포위했다는 시간대와 일치한다. 그러나 유럽인 궁궐경비원은 이날 새벽 2시부터 폭도들이 궁궐 주위에 집결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유럽인 경비원은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이학균 부령을 통해서 겨우 4시경에야 알게 되었다.

세레딘-사바틴은 궁궐 포위에 관한 증언을 계속하고 있다.

“다이 장군과 나는 이학균 부령으로부터 보고받자마자 일어나 별군관실로 갔다. 그러나 2명의 부령과 최소한 6~7명의 당직 장교가 야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그곳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새벽 4시 반경에 다이 장군은 추성문 쪽으로 가서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이학균 부령을 불러 동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고종을 알현해 보고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왕실내궁 쪽으로 갔다.

궁궐내 상황

“다이 장군과 나, 둘이서 추성문에 다가가자 대문틈으로 번쩍이는 총검을 착용한 일본군 병사 40~50명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달빛에 환히 보였다. 일본군은 곧 우리의 순찰을 눈치채고 담쪽으로 몸을 숨겨버렸다. 다음엔 춘생문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쪽에도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받은 조선군 약 250~300명이 일본인 교관 4~5명의 인솔을 받으며 뭔가 상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자 한 조선 사람이 큰소리로 대문을 열어달라고 몇 번 외쳤다.”

고종 알현

이때의 궁궐 상황은 이학균 부령의 증언서에서 잘 나타난다. 대궐이 포위된 긴박한 상황에서 고종에게 달려간 이학균 부령은 일본인 폭도들의 궁궐포위 시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8일 새벽 3시경(앞서 현홍택 정령은 광화문에 일본군과 조선군 훈련대의 출현시간을 2시로 말했다. 그리고 이곳은 동북쪽 춘생문에 집결한 시간을 말하고 있다) 경복궁 동북쪽 춘생문에 사복을 입은 일본인 수명과 그 뒤에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받은 조선군 훈련대 200여 명이 일본인 교관 4~5명의 지휘를 받으며 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훈련대 대장 홍계훈 정령(1882년 임오군란 때도 왕후를 구출하였으며, 이날 밤에 전사했다)이 춘생문으로 급히 가서 그들에게 왜 이곳에 훈련대가 집합해 있느냐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자, 홍계훈 정령은 즉시 해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은 우리의 상관이 아니고 일본인 교관이 상관이니 참견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홍계훈 정령은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담 저쪽에 서있는 나를 불러 춘생문 앞에 일본인들과 일본인 교관이 인솔한 훈련대가 집합해 있으나, 이런 늦은 밤에 소집된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해산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계훈 정령과 나는 궁궐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광화문쪽 경비초소로 가서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이때 경비병이 뛰어와 보고하기를 일본군 폭도 60여 명이 서쪽 담으로 침입하고 있으

며, 그중 30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나머지는 사복을 입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부관(副官)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했더니 부관이 들어와 기왓장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다.

4시 반경이었다. 나는 북쪽 작은 문(왕가가 거쳐하는 궁으로 들어가는 문)에 서서 유난히 밝은 달빛에 망원경으로 추성문 쪽에서 움직이는 약 12명의 사람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즉시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 고종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위 증언서와는 달리 이학균 부령은 고종에게 급보(急報)를 하러 가는 길에 먼저 유럽인 경비원 숙소에 들러 다이 장군과 세레딘-사바틴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음에 고종을 알현했다.

이학균 부령이 왕가에 도착했을 때는 고종이 벌써 외국인 접견실과 회랑으로 연결된 별채에 앉아계셨다. 그리고 주위에는 경호원이 분주히 내왕하며 고종을 호위하고 있었다.

“이학균 : 왕후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고종 : 왕후는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으니 염려 말고 안심하라. 그리고 경비병은 유혈사태를 예방할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짐은 이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궁궐 경비병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

이상의 대답으로 미루어보아 고종은 이미 새벽 4시 반 전후로 궁궐이 소란함을 알고 있었으며 민왕후는 위험한 침전인 옥호루(玉壺樓)를 떠나 어떤 피신처에 은신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궁궐 난입

세레딘-사바틴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새벽 5시경에 춘생문에서 조선군 무리의 큰 구호소리와 함성이 들렸다. 사전에 행동을 모의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몇 분 후에 추성문 쪽에서 총성이 들리고, 잠시 후 담을 넘은 일본인 폭도들이 궁궐경비병에게 발포하

자, 경비병은 무기와 군복상의를 벗어 던져버리고 초소를 떠나 어디론가 달아나버렸다. 추성문 쪽의 총성을 신호로 춘생문 쪽에서도 일본인 폭도들과 조선군 훈련대가 난입하기 시작했으며 광화문에서는 일본인폭도 5~6명이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었다. 이들은 경비병에게 몇 발의 총을 발사해 궁궐경비병을 도주시키고, 일본인교관에게 훈련받은 조선군 훈련대가 궁궐 안으로 쳐들어오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당시 경복궁 출입문은 여러 개가 있었으나 이날 밤에 폭도들은 남쪽의 광화문, 동북쪽의 춘생문, 서북쪽의 추성문 등 3개의 문으로 침입했다. 위에서 말한 상황은 경복궁 외곽 출입문으로 일본 폭도들이 난입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왕가 내궁(內宮)의 방어와 관련해서 세레딘-사바틴이 다시 증언하고 있다.

“궁궐경비병은 총인원 1500명에 장교가 40명이었으나 5시10분경에 남아 있는 사병은 250~300명뿐이었다. 다이 장군은 제1방어선인 경복궁 외곽 문에서 후퇴해 남은 경비병을 겨우 집합시켜 제2방어선으로 북쪽 왕가의 출입문에 배치했다. 경비병은 왼쪽 길에 서서 방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춘생문으로 난입한 일본인 폭도와 조선군 훈련대가 왕가로 출입하는 북쪽 작은문(이학균 부령이 수비한 춘생문에서 가까운 문) 틈으로 경비병을 향해 한번에 30~40발씩 3번 집중사격을 했다. 폭도들은 많은 경비병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듯 머리 위로 높이 총을 발사했다.

다이 장군과 나도 추성문을 통해 난입한 폭도들이 발사하는 총의 사격권 내에 들어 있었으나 나는 오른쪽 문(3개중 중간문), 다이 장군은 왼쪽의 신무문(神武門, 추성문에서 가까운 문)의 담벽에 몸을 숨겨 무사했다.

다만 내 앞에서 궁궐경비병 한 사람이 총상을 입었다. 그러나 남아 있던 궁궐경비병들은 난입자들이 첫 집중사격을 한 뒤, 한 발도 응사하지 않고 총과 군복상의를 벗어던지고 어디론가 도주해 버렸다.”

이때의 상황을 이학균 부령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동북쪽 춘생문으로 침입한 일본인과 조선군 훈련대는 내가 안에 있는 북쪽 작은문까지 왔다.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폭도 몇 명이 담에 기어올라가 담 위에서 밑에 있는 궁궐경비병을 향해 발사하는 총성이 한밤의 적막을 찢고 울리자 경비병들은 다 도망쳐 버렸다. 그러자 수명의 일본인 폭도들이 월담하여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일당에게 문을 열어주어 폭도들은 왕가의 내궁 북쪽을 점령했다.

5~6명의 사복을 입은 일본인은 칼로 무장하고 고종과 그 가족이 거쳐하는 곤녕합(坤寧閣)으로 몰려들었다. 나는 몇 몇 남은 부하 병사들과 함께 이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일본인 폭도들에게 달려가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나를 떠밀어 그만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학균 부령도 궁궐수비대가 무력하게 폭도들에게 저항 한번 못하고 충성에 놀라 도주한 사실을 자인했다.

춘생문 쪽에서 침입한 폭도들은 이학균 부령이 수비한 작은 문을, 추성문 쪽의 난입자들은 다이 장군과 세레딘-사바틴이 지키고 있던 대문 수비를 거의 같은 시간에 무너뜨렸다. 최후의 제2 방위선이 무너진 것이다.

세레딘-사바틴은 추성문쪽의 침입 상황을 중국 지부 러시아공관에서 쓴 증언서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난입자들은 추성문에서 두 방향으로 밀어닥쳤다. 한 무리는 다이 장군이 지키고 있는 문쪽으로 가고, 또 다른 무리는 내가 서있는 문으로 달려들었다. 폭도들은 다이 장군을 붙잡고 유럽인 경비원 숙소쪽으로 갔으며, 나를 잡은 일단의 폭도는 왕의 침전이 있는 곤령합과 왕후의 침전인 옥호루 쪽의 담 안으로 들어섰다. 막 유럽 풍의 양옥(외국인 접견실)을 지날 무렵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 별안간 총소리를 듣고 놀란 환관(宦官), 벼슬아치, 궁노(宮奴), 폭도 등 3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일시에 뒤로 밀어닥쳤다. 60~70보 가량 떠밀려가다가 왕가에까지(곤령합과 옥호루는 별채였으나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목재로 건축한 어떤 작은 별채에 부딪쳤다. 나는 무리와 함께 밀려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판자에 매달렸다. 떼를 지어 밀려오던 환관과 벼슬아치, 궁노들은 내 곁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나만 혼자 그곳에 남게 되어 왕후의 처소에서 벌어진 만행을 목격하게 되었다.

혼자 남아 지켜본 만행

사복을 입은 일본인 폭도 5명이 긴 칼을 들고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앞뒤로 뛰어다니고 있었으며 그외에도 일본인 폭도 20~25명이 단검을 들고 있었다. 출입문 2개는 각각 일본군 2명과 장교 1명 등 도합 5명이 차렷자세로 서서 지키고 있었다.

조선군 훈련대 소대는 왕후의 침전 옥호루를 약간 등진 채 세워총자세로 정렬해 있었다. 이 소대 옆에는 풍채가 당당하고 양복을 잘 입은 한 일본인이 유럽식 긴 칼(세레딘-사바틴은 일본도를 유럽식 긴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을 빼어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

이 자가 일본인 폭도들의 지휘자인 듯싶었다. 나는 이 자에게 다가가 영어로 ‘굿 모닝(Good morning)’ 하고 인사했다. 일본인 두목은 대답 대신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면서 영어로 다음 질문을 했다.

일본인 폭도 두목 : 성명(姓名)을 말하라.

세레딘-사바틴 : 세레딘-사바틴입니다.

일본인 폭도 : 직업은 무엇인가?

세레딘-사바틴 :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어서 뜻밖에 사람들에게 밀려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의 호소를 듣고 두목은 생명은 보장해 주겠으니 그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했다. 나는 내친김에 군인 한두 명을 붙여 호위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왕후 처소 옥호루에 있던 일본말을 잘하는 조선군 두명을 불러 나를 보호해주라고 명령했다. 나는 이제 살 수 있게 됐다고 안심하고 왕후침전에서 일본인 폭도들이 자행하는 만행을 자세히 보았다.

일본인 폭도들은 10~12명의 궁녀들을 왕후의 침전에서 2m가 넘는 창 밖의 뜰에 내던졌다. 놀랍게도 궁녀들은 한 사람도 달아나거나 소리 지르거나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머리채를 잡혔을 때도 창 밖으로 던져졌을 때도 시종일관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무서운 고통을 참고 있었다.

궁녀들은 옥호루에 있었으며, 뜰에 내쳐진 궁녀들은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였으나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이런 추측을 한 이유는 내가 조선여성의 고매한 순절(殉節)정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일본인 폭도들은 두 명의 궁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와 내가 서있던 곳에서 겨우 5~6보 떨어진 곳에 던지고 갔으나, 궁녀들이 살아서 호흡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 앞에 버려진 궁녀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머리채를 잡혀 노대(露臺) 위에서 뜰로 내던져질 때도 앞서 말한 궁녀들과 똑같이 반항하거나 울부짖거나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한 궁녀는 넘어져 눈을 뜨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칼을 든 일본인 폭도 5명(3명은 사복을, 2명은 양복을 착용하고 있었다)이 붉게 달아오른 흥분한 얼굴로 눈에 살기를 띤 채 야수처럼 왕후 처소 이곳 저곳을 뒤지며 왕후를 찾고 있었다.

이들 무법자 5명은 내가 현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급히 내게 뛰어와 일본어와 조선어로 내가 누구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가를 물었다.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던 두 명의 조선군이 설명하자 그들은 다시 왕후의 침전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다.

이때 외모가 낮익은 조선인이 이곳에 들어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잘 만났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 광경을 보고 미친 듯 날뛰던 폭도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 조선인은 그들에게 나에 대해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이 순간이 내게는 가장 두려웠다.

그들은 분개하여 다시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를 보호하고 있던 조선군도 물러섰다. 어떤 자는 나의 옷깃을 잡고 어떤 자는 양복과 팔을 잡고 고함치며 위협하면서 왕후가 어디 있냐고 묻기 시작했다. 일본어와 조선어로 물어 나는 전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기색을 지어 보였다. 내 옷을 잡았던 자가 영어로 물었다. ‘왕후는 어디 있냐? 왕후가 있는 곳을 말하라!’

이런 순간에 일본인 두목이 나타났다. 그들은 나를 놓아주고, 두목에게 아주 공손한 태도로 나와 나를 알고 있는 조선인을 가리키며 수군거렸다. 두목은 그들의 말을 신중히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와서 아주 엄격한 어조로 물었다. ‘우리는 아직 왕후를 찾지 못했다. 왕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왕후는 어디 있느냐?

두목에게 나는 조선의 궁중법도에 따라 왕후를 볼 수도 없으며, 침전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목은 나의 이런 말을 이해한 듯했다. 그러나 나를 알고 있는 조선인이 내가 현장에 있는 것이 불안한 듯 일본인 두목에게 내가 틀림없이 왕후의 은신처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유일한 유럽인 증인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사정이 급해지자 나는 일본무사(武士)는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는 말을 상기하고 급히 두목에게 쫓아가 약속을 지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마침내 두목은 나를 지키던 2명의 조선군인에게 나를 옥호루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두 명의 조선군인 호위를 받으면서 광화문까지 나오는데, 여러 장소에서 많은 일본군을 보았다. 그리고 특히 한 곳에서는 150여 명의 일본군과 장교가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곳에 고종이 계시는 것 같았다. 광화문을 나온 시각은 아침 6시였다. 왕후의 처소에서 광화문까지는 약 10~15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5시50분경까지 내가 왕후의 처소에 있었던 동안 그곳에서 일본인 폭도들은 왕후를 찾아내지 못했다. 러시아 공사관(현 경향신문사 옆)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6시30분경이었다. 위급한 궁궐 사태의 현장 목격자로 내가 본 모든 것을 대리공사 베베르에게 증언하였다.”

중국 지부 러시아공관에서 그가 쓴 증언서에서는 제물포(인천) 외항에 정박하고 있던 일본 해군함정 2척 중 1척이 10월10일 밤 제물포에서 사복을 입은 일본인들과 군인을 태운 뒤 몰래 일본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10월9일 저녁으로 예정된 일본행 정기여객선이 9일 새벽, 예고 없이 제물포에서 일본인 승객들을 태우고 떠났다는 증언도 했다.

(세라딘-사바틴은 제물포에서도 한때 거주했으며, 독립문을 비롯한 러시아공사관과 정교회 등을 설계했다. 그리고 러시아 동청철도(東淸鐵道) 여객선 제물포 지사장을 역임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10월9일에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친일 내각이 그에게 내무부 고문직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

명성황후의 최후

세레딘-사바틴이 옥호루에서 떠난 이후 상황은 한 무명 상궁(尙宮)이 증언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무명 상궁은 명성황후의 최후를 이렇게 증언하였다.

“일본 폭도들은 왕후와 궁녀들이 있는 방쪽으로 왔다. 이때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植)이 일본 폭도들에게 왕후가 있는 방 앞에서 양팔을 들어 가로막고 궁녀들뿐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이 순간 일본인 폭도들은 칼로 이경직 대신의 양팔을 내리쳐 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이경직은 이날 밤 사망했다.)

일본인 폭도들은 괴성을 지르며 방에 난입해 왕비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왕후와 궁녀들은 왕후가 이곳에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왕후는 갑자기 회랑(궁궐내의 복도)을 따라 급히 달아났다. 그 뒤를 한 일본인 폭도가

쫓아가 왕후를 잡고 마룻바닥에 넘어뜨린 후 왕후의 가슴을 세 번 발로 짓밟고, 칼로 찔러 시해했다.

나이 많은 한 상궁이 수건을 꺼내 왕후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그후 얼마 지나 일본인 폭도들은 왕후의 시신을 가까운 숲속으로 운구(運柩)해 갔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궁궐의 한 환관(宦官)을 통해서 일본인 폭도들이 왕후의 시신을 화장(火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다.”

위의 무명 상궁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인 폭도들이 왕후의 침전에 난입했을 때, 왕후도 처음에 궁녀들과 같이 왕후는 이곳에 계시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왕후는 갑자기 복도를 따라 결사적으로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시도했다. 이 때문에 폭도들은 왕후로 짐작했던 것이다.

아마도 앞서 세레딘-사바틴의 증언으로 미루어보아 폭도들은 이곳에서 궁녀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던지며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후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폭도들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탈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신을 운구하여 화장했다는 말은 현홍택 정령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현홍택 정령은 진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인 폭도들은 왕후의 은신처를 말하라고 사정없이 나를 때렸으나, 끝내 모른다고 했다. 폭도들은 고종이 계시는 곤령합으로 나를 끌고가 왕후가 있는 곳을 말하라고 했다. 모른다고 하자 폭도들은 각감청(閣監厅)으로 다시 나를 끌고가서 왕후가 계신 곳을 자백하라고 또 때렸다. 이때 갑자기 곤령합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 나를 잡고 있던 일본인 폭도들은 곤령합으로 급히 뛰어갔다. 그후부터 일본인 폭도들은 더 이상 왕후의 피신처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는 곤령합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해 그리로 가보았다.

고종은 장안당(長安堂)으로 벌써 옮겨가셨고, 곤령합에는 왕후가 피살된 채로 누워 계셨다. 나는 주위에 일본인 폭도들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나왔다. 그후 왕후의 시신을 동쪽 정원에서 화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다. 화장장에 있는 시신의 의복이 여자옷인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다.”

이처럼 현홍택 정령은 왕후의 시신을 왕의 침전인 곤령합에서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 왕후의 시해시점은 세레딘-사바틴이 약 20~30분간 옥호루 현장에 머물러 있다가 떠난 시간인 새벽 5시50분 이후인 10월8일 아침 6시 직전이나 직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의 증언

누가 왕후를 시해했는가는 고종의 증언서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 칙서는 고종이 국내부 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레젠드르의 통역관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집(朕)의 면전에서 전 조선군부 고문 일본인 오카모토 그리고 스즈키, 와타나베가 군도를 들고 침전(寢殿)에

난입해, 오카모토와 스즈키가 왕후를 잡아 넘어뜨리고…”

여기서 고종은 실신해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다음에 왕세자의 말로는 왕후가 밖으로 피해나가자 오카모토와 스즈키가 왕후의 뒤를 쫓아갔다고 말했으나 아마도 피신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종은 후에 와타나베가 칼을 들고 왕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것이 고종이 레젠드르의 통역관을 시켜 발표한 명성황후의 최후에 대한 증언의 전부다. 지금까지가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서를 토대로 본 명성황후 시해 당일 밤에 벌어진 광경이다. 남은 증언서는 왕후 시해사건의 보충적인 자료 혹은 해명서다.

고종은 사건 이전에 왕후의 신변을 염려해 서양인 궁궐경비원까지 고용했다. 그런데 러시아 경비원 세레딘-사바틴은 폭동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중국인으로부터 받고도 방어대책을 건의하거나 세우지 않고 경비원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시해 당일 밤 궁궐경비대는 새벽 2시에 이미 일본군의 수상한 동태를 파악했으나 안이하게 경비하다가 4시30분경에야 고종에게 급보를 전했다. 고종은 왕후가 안전한 곳에 피신했다고 답변했으나 당시의 급박한 정황으로 보아 마땅한 피신처를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을 것이다.

아마도 고종은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왕의 침전만은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왕후를 침전인 옥호루에서 고종의 침전인 곤령합으로 부르고,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왕후를 일반 궁녀와 같은 복장을 하고 궁녀들과 함께 얹혀 폭도들의 눈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도한 일본인 폭도들은 곤령합마저 서슴없이 유린하고 말았다.

봉건 군주국가에서 마땅히 조선군은 왕실 수호와 국토방위에 헌신해야 했다. 그런데도 조선군 훈련대 일부는 일본 폭도들의 역모에 가담해 그들의 줄개로 궁궐 침입에 가세했다. 연약한 조선 궁녀들은 일본 폭도들의 폭력과 협박 앞에 굴복하지 않았으나 1500명의 궁궐경비병은 겁을 먹고 무기와 군복상의를 벗어던지고 도주해버렸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민족사의 수치인 국모시해(国母弑害)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다. 뮤지컬 명성황후



구한말 명성황후 민씨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국내 창작 뮤지컬. 한국의 뮤지컬 에이전시인 에이콤 프로덕션에 의하여 1995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초연되었으며, 이문열의 희곡 ‘여우사냥’이 원작이다. 한국 음악계의 거장인 김희갑 & 양인자 부부가 작곡 & 작사를 맡았다.

또한 당시는 한국 ‘뮤지컬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 뮤지컬 음악감독도 없었다. 해서 대학에서 첼로를, 대학원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연극계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음악감독이 합류하게 된다. 그 젊은 음악감독은 이후 오페라의 유령, 렌트 등의 작품을 맡으며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전문 뮤지컬 음악감독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는 바로 박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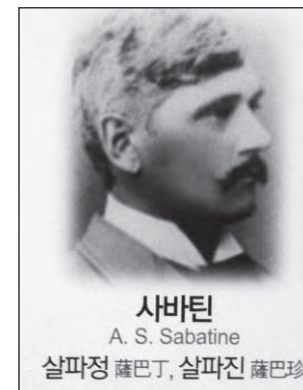
초연 당시 한국에서는 뮤지컬이 활성화된 장르가 아니었음에도 에이콤에서 12억원 가량의 돈을 부어가며 만들었고 윤석화, 홍경인 등의 출연으로 꽤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연이은 재공연으로 나름 한국 뮤지컬의 대표작이라고 할만한 입지를 가지게 되었다...만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리 재미있게 불만한 뮤지컬은 아니다.(...) 초연 시기를 감안하도록 하자. 오페라 스타일의 음악과 명성황후를 미화하는 듯한 내용에서 호오가 갈리곤 한다.

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A%85%EC%84%B1%ED%99%A9%ED%9B%84\(%EB%AE%A4%EC%A7%80%EC%BB%AC\)](https://namu.wiki/w/%EB%AA%85%EC%84%B1%ED%99%A9%ED%9B%84(%EB%AE%A4%EC%A7%80%EC%BB%AC))

7. 관련 주요 인물

가.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Afanasy Seredin-Sabatin)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세레딘사바틴(러시아어 : А ф а н а с и й И в а н о в и ч С е р е д и н - С а б а т и н, Afanasy Ivanovich Seredin-Sabatin, 1860년~1921년)은 1890년부터 1904년까지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일했던 러시아 출신의 건축 기사이다.

그는 서울에 여러 유럽식 건물을 지었는데 특히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1년간 묵었던 러시아 공사관이 그의 작품이다. 그가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현재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그는 을미사변 때 경복궁 건청궁에서 있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직접 목격한 2명의 외국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정동소재 구한말 주한러시아공사관 유적

1860년 1월 1일 아파나시 세레딘사바틴은 우크라이나 루브니 폴타바[1]에서 태어났다. 세레딘사바틴의 아버지는 이반 바실리에비치 세레딘사바틴으로 우크라이나 지방의 귀족이며 폴타바 강변의 루브니에 영지가 있었다. 그는 평민 신분의 코사크인 여성과 결혼해 세레딘사바틴을 낳고 얼마 안있어 재혼했다. 그의 계모는 어린 그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그가 만 14살이 되던 1874년에 집에서 1000km이상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삼촌에

게 몸을 의탁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왕립예술아카데미에 일 년간 재학했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는 예술아카데미 1학년 만 마친 후 건축학교로 적을 옮겨봤으나 역시 성적이 나빠 그마저 그만뒀다. 졸업증이 없어 취직을 할 수 없던 그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겨우 러시아 해군 양성소에 입교해 항해사가 되었고 블라디보스톡의 극동 함대로 임관하게 됐다. 그때 아내[2]를 만나게 돼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극동에서 항해사로 몇 년을 더 보냈다.

1883년 9월 17일 세레딘사바틴은 파울 게오르크 폰 뮐렌도르프에게 측량 토목기사로 고용되어 대한제국으로 떠났다. 그가 처음 맡은 역할은 영조교사(營造敎士)로서 왕궁 신축을 위한 도면 작성 준비라든지 벽돌 가마를 짓는 것이 임무였다. 인천 제물포에 정착한 그는 벽돌 가마 제작 주문이 취소되자 인천 세관의 토목 기사로 자리를 옮겨 인천 세관 청사를 건설하고, 이듬해인 1884년 세차양행 사택과 인천 부두를 건축했다.

얼마지나지 않아 그는 대한 제국 황제가 유럽인 건축기사를 고용해 궁궐을 신축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종은 서구 문화에 호기심이 많았고 세레딘사바틴에게 졸업장이 있는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바다를 떠나 한국에 정착하면서 그는 주목할만한 작품들을 남겼다. 덕수궁 정관헌, 중명전 등을 건축하고 주한러시아공관을 건축하는 등, 구한말 역사의 장소들을 손수 설계했다. 그리고 황실과 가까이 지내면서 조선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고 1895년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서 일본 극우파들의 손에 명성황후가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3].

이후 영어를 배워 영국신문의 극동 특파원을 겸임하기도 했으며 중국 심양의 북대하(北戴河) 등지에서 주택개발업을 벌이기도 했다.

1905년 러일전쟁 직후 그는 신경쇠약에 걸려 처자식을 놔두고 블라디보스톡으로 훌훌단신 떠났다. 거기서 그는 시베리아 등지와 우랄 지방 등 러시아 곳곳을 방랑하다 1921년 사망했다. 그의 사망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돈 강(러시아어: Д о н, 아디게어: Т е н) 유역의 로스토프나 볼고그라드 어디쯤일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다.

세레딘사바틴은 사냥을 즐겨 쌍열 산탄총을 늘 갖고 다녔다고 한다. 수영 실력이 뛰어나 익사 위기의 사람들을 여러 번 구조했다고 하며, 상당한 수준의 테니스 실력의 소유자였고, 캠핑을 못하면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학업에서나 가정면에서 성실하지 못했으며 수입이 일정치 않아 가족이 많이 고생했다고 한다.

사바친의 스위스 출신설[원본 편집]

사바친의 출신과 관련, 서재필은 그의 자서전에서 독립문 설계자를 스위스인 기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러시아 국립인문과학대학 타티아나 심비르체바 박사는 2009년 10월 2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국제한국사학회(공동대표 박정신 숭실대 교수) 제4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조선국왕폐하의 건축가 사바친’을 통해, 사바친이 출신은 우크라이나이지만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여러 국가의 혈통을 물려받은 국제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따라서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 설계자를 스위스 기사라고 언급한 대목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가 남긴 건축물

- 인천해관청사, 인천, 1883년 완공,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세관 청사
- 세한양행 사택, 인천, 1884년 완공
- 인천항 부두, 1884년 완공,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접안 시설
- 만국 공원(현재 인천 자유공원), 1888년 완공.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시민 공원
- 구 러시아 공사관, 서울, 1890년 완공
- 제물포구락부 빌딩 본관, 인천, 1889년 완공
- 제물포구락부 빌딩 별관, 인천, 1901년 완공
- 손탁 호텔(Sontag Hotel), 서울, 1902년 완공
- 덕수궁 정관헌, 서울, 1900년 완공,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커피하우스
- 덕수궁 중명전, 서울, 1900년 완공,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도서관, 파티홀, 을사늑약조인 장소
- 경복궁 관문각, 서울, 1891년 완공, 경복궁 북문 근처에 있었던 서양식 3층 빌딩. 일제가 파괴했음

나. 미우라 고로



일본의 군인·정치가.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국제적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다. 1924년 이른바 호헌삼파(護憲三派:憲政·政友·革新俱樂部) 성립에 진력하였다.

조슈한[長州藩]에서 출생하였다. 막부(幕府)타도운동에 참여하고,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후 신정부의 군인이 되었다. 1878년 육군중장, 1888년 예편 후 1890년에 귀족원 의원, 1895년 주한공사로서 조선에 부임한 그는 10월 8일 새벽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하여 일본군과 경찰 및 낭인(浪人)들을 동원하여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하고 그 시신(屍身)을 불태우는 국제적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다.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시해된 황후가 궁궐을 탈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폐서인조칙(廢庶人詔勅)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궁궐에 있던 미국인 다이(M.W.Dye : 爹伊)와 러시아인 기사 사바틴(H.N.Sabatin)이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때문에 소환되어, 일시 투옥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1910년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이 되었다. 이후 계속하여 정계의 배후조종자로서 활약, 1924년 이른바 호헌삼파(護憲三派:憲政·政友·革新俱樂部) 성립에 진력하였다.

(두산백과)

8. 참고 문헌

[도서]

한영우(2006). 『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 효형출판.

이은유(2014).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자음과 모음.



잠자는 조선을 깨운 교육자, 최용신

1. 활동 개요

오늘은 상록수 최용신선생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신선생님은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산에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샘골학원을 세우고 이 학원을 통해 한글, 무궁화 등 민족교육을 하였으며, 생활개선, 저축 장려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5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2. 인물 학습

근대교육을 일찍이 접했던 선생



맑고 푸른 동해 영흥만에 자리 잡은 바닷가 마을로 행정구역은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 명사십리와 해당화로 유명한 이곳에 1909년 8월 12일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상록수>의 주인공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채영신, 바로 최용신(崔容信) 선생이었다. 언니, 큰오빠인 시풍, 작은 오빠인 시창, 여동생 용경 등 3녀 2남 중 차녀였다. 부친은 창희(昌熙), 본관은 경주였다. 선조들은 그곳에서 대대로 세거하다가 12대조의 원산으로 귀양을 계기로 덕원군에 정착하게 되었다. 고향인 두남리는 원산에서 10리쯤 떨어진 풍광이 아름다운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이곳은 일찍이 기독교 전래와 더불어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등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조부와 부친도 사립 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육 사업에 종사한 인물이었다. 즉 시세 변화와 더불어 집안 분위기도 크게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서북지방의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이는 선생으로 하여금 근대교육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어릴 때 선생은 천연두를 심하게 앓아 얼굴은 물론이요, 정강이에다 마마 자국이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선생을 놀리는 등 심하게 구박하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선생은 깊은 사색에 몰두하면서 자랐다. 8세가 되던 1916년 선생은 마을에 있는 사립학교에 입학하였다. 2년간 이곳에 다니다가 1918년 원산의 루씨여자보통학교로 전학하였고, 졸업 후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여 1928년 19세에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이후 선생은 교목인 전희균(全羲均) 선생 권유로 서울에 있는 협성신학교에 진학하였다. 이곳에서 선생은 농촌사회지도교육과의

황에스터(黃愛德)교수를 만나게 되고, 학문적인 토대와 아울러 학생들에게 직접 농촌에 들어가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 황교수를 통해 선생은 농촌계몽운동에의 뜻을 더 확고히 하게 된다.

“손을 서로 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선생의 관심은 사실 중등학교 시절부터 계속된 것이었다. 루씨여학교 졸업반 시절 기고한 <조선일보> 1928년 4월 1일자 ‘교문에서 농촌으로’는 선생의 이러한 포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며 또 누구를 찾는가? 사회는 새 교육을 받은 새 일꾼을 요구한다(…)여기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진하여 자기들의 책임의 분을 지고 분투한다면 비로소 완전한 사회가 건설될 줄로 믿는다. 중등교육을 마친 우리들은 각각 자기의 이상을 향하여 각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 그 활동의 첫 계단은 무엇보다도 농촌여성의 지도라고 믿는다. 나는 농촌에서 자라난 고로 현 농촌의 상황

을 막연하나마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절실히 느끼는 바는 농촌의 발전도 구경(究竟)은 여성의 분투에 있다는 점이다. 오늘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북데기 쌓인 농촌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이가 드문 것은 사실인 동시에 크게 유감된 바이다. 문화의 눈이 구(旧)여성만 모인 농촌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게 못한다면 이 사회는 어느 때까지든지 완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꾸어야 옳을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거듭 말하노니 우리는 손을 서로 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선생은 이처럼 여성도 남성과 같이 사회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더욱이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신여성 이야말로 가정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 뛰어들어 문맹퇴치와 생활개선을 주도하자고 외쳤다. 농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문맹 없는 농촌, 잘사는 농촌 건설이 선생의 이상이였다.

학업 중단 후 샘골 마을에 파견

선생은 1929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황해도 수안군 용현리로 첫 봉사활동에 나섰다. 선생은 동료인 김노득(金路得) 등과 함께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행하였다. 이듬해에는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 포항리에서 실습 겸 농촌 계몽운동을 병행하는 데 앞장섰다. 현지 활동을 통하여 선생은 많은 갈등과 자책감을 느꼈다. 가난과 무지가 만연한 피폐한 농촌은 선생으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학업을 중단한 선생은 1931년 경

기도 수원군 반월면 천곡(泉谷, 일명 샘골)에 YWCA농촌지도원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1934년 봄까지 2년 반 동안, 선생은 이곳에서 본격적인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마을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천곡학원(샘골학원) 인가뿐만 아니라 교사를 신축하여 아동은 물론 청년,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야학을 통한 문맹퇴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개선과 농가부업을 장려하기 위한 부녀회, 청년회도 조직하는 등 주민들 상호간 신뢰감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한글보급, 농촌봉사대와 최용신 선생(1930년). 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선생.

초기의 냉소와 비난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다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선생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냉소와 비관주의와 맞서야만 했다. 신간회 수원지회장을 역임하고 선생의 후원자였던 염석주조차도 선생을 처음 봤을 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어떤 날 얼굴이 엷은 신여성 하나가 부인 몇 사람과 같이 찾아와서 자기는 지금 샘골에 있으면서 이 지방을 위하여 작은 힘이나 바쳐보고자 하니 부디 잘 지도 협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회의 풍파를 많이 겪어 쓴맛 단맛을 다 맛보아서 무엇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한 참인데 더구나 세상을 모르는 젊은 여자 하나 쯤에게 무슨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날고 기는 놈들도 농촌에 와서 실적을 못 내는 이 시절에 너 같은 계집애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그러느냐 하는 경멸을 던졌었어요.”

위생생활, 생활개선 등의 주장에도 주민들은 “제기! 파리 안 잡아도 파리에 물려죽은 놈은 하나도 없었다네. 책상물림의 젊은 처녀가 무엇을 안다고 이러니 저러닌가”라는 핀잔을 주기 다반사였다. 하지만 선생은 이러한 반응에 굴하지 않고 부임 초기부터 마을에서 운영되던 강습소를 확대,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무허가였던 강습소에 인가를 신청하였고, 강습생이 110여 명에 달하자 강습소 증축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 역시 선생

의 노력과 열정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마을을 보며 냉소와 비판을 거두고 선생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다. 증축을 위한 모금활동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었고, 근처 술밭의 소유주였던 박용덕(朴容德)은 인근 토지 1,500평을 기증하였다. 선생의 헌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호응으로 예배당에 딸린 작은 강습소가 ‘천곡학원’이라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발전한 것이다.



천곡학원 학생들과 교사들.

쉬지 않고 전념한 농촌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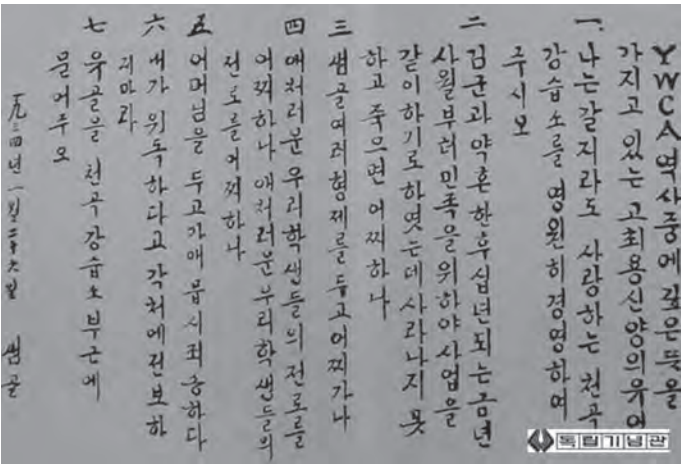
마을교육사업 외에도 선생은 농가부업, 위생생활과 환경개선, 저축장려 등 지역 사회 발전에 필요한 운동들을 전개해 나갔다. 학교 주변에 뽕나무 심기와 누에치기 권장하고 감나무 등 유실수도 마을주민에게 나누어주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 중 일부는 강습소 유지비나 농기구 구입으로 사용하였다. 마을 부녀회는 이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부인들이 가사에 국한되었던 활동범위를 넓히며 스스로의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은 학생들에게 학용품 등을 주기 위하여 수업시간 이외에 밭에 나가 김을 매는 등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오전, 오후반 수업과 야학수업, 가정방문을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10리 떨어진 야목리로 가서 윤홍림(尹洪林)과 함께 농촌진흥운동에 관하여 토론을 정기적으로 열었다. 이는 보통 사람이면 전혀 감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선생의 몸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으나, 농촌 계몽운동에 대한 열정과 신념으로 선생은 쉬지 않고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선생의 노력으로 마을의 기반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갈 때, 선생은 돌연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장기적이고 실천적인 농촌계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이만큼 자리 잡은 샘골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새로운 농촌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의 좁은 문견으로는 도저히 능력이 부족하다. 만일 이대로만 간다면 곧 침체되고 말 것이며 이 모양조차 유지해가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곳을 이 땅의 농촌운동의 한 도화선으로 만들자면 새로운 지식과 구상이 필요하다.” 1934년 선생은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그 해3월 고베여자신학교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새로운 환경은 향학열로 이어지는 등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하지만 학업에 정진 중이던 선생은 별안간 각기병에 걸려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스물 다섯 나이에 과로로 세상을 떠나다

선생은 6개월 만인 9월 귀국하여 다시 샘골로 돌아왔다. 병든 몸을 이끌고 선생은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였다. 그런데 YWCA가 샘골학원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여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되었다. 선생은 1934년 10월 여성잡지 <여론(女論)>에 ‘농촌의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샘골을 살리기 위한 사회 각계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사회적인 반응은 냉담하였고, 피로와 정신적인 고통의 누적으로 이듬해 수원도립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마을주민들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에도 선생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1월 23일 짧디짧은 25년 6개월의 생애를 마감하고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 떠났다.



선생의 유언. 그를 간호하던 안홍팔에게 선생이 구술한 것이다. (1934년 1월 26일, 독립기념관 소장)

운명하는 순간 선생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천곡강습소를 영원히 경영하여 주십시오/김군과 약혼한 후 십 년 되는 금년 사월 부터 민족을 위하여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찌하나/샘골 여러 형제를 두고 어찌 가나/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전로를 어찌하나,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전로를 어찌하나/어머님을 두고 가매 몹시 죄송하다/내가 위독하다고 각처에 전보하지마라/유골을 천곡강습소 부근에 묻어주요.”

이처럼 선생은 죽는 순간까지 샘골의 영원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학생들에게는 다정다감한 참다운 스승으로, 주민들에게는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 불사조로 기억되고 있다. 식민지 시절 일제의 수탈로 인해 피폐해진 농

촌을 살리고 계몽과 자립으로 민족역량을 키우려 했던 선생의 생애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 최용신 선생 연보

1909년 8월 12일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에서 출생
1918년 3월 20일(9세)	두남학교 입학
1920년 4월(11세)	元山 樓氏女子普通学校로 전학
1924년 3월(15세)	원산 루씨여자보통학교 졸업
1924년 4월(15세)	元山 樓氏女子高等普通学校 입학
1925년(16세)	한동네 건너 살고 교회 회장이던 김학준과 약혼
1928년 3월(19세)	원산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 최우등 졸업
1928년 4월 1일	조선일보에 최용신 소개 기사 실림
1928년 4월(19세)	서울 여자협성신학교 입학(현 감리교신학대학교)
1929년(1학년)	황해도 수안군 천곡면 용현리 농촌 실습
1930년(2학년)	강원도 포항 옥마동 농촌 실습
1931년 4월(3학년)	교내 스트라이크 사건 주도
1931년 10월(22세)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샘골(현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에 옴
1931년 10월 11일	샘골 예배당을 빌려 공부 시작
1932년 5월	샘골 학술 강습소 창설인가 받음
1932년 7월	경성 YWCA회관에서(제10회 Y전국대회) 샘골활동 보고
1932년 8월	학원건축 발기회 조직
1932년 10월	강습소 짓는 계기 마련을 위해 추석놀이 개최
1932년 10월 27일	강습소 정초식 거행
1933년 1월 15일	강습소 낙성식
1933년 7월 13일	수원경찰서 호출
1933년 10월 5일	학부형, 지역유지들이 참석한 운동회 개최
1933년 10월	Y의 재정 후원 절반으로 삭감
1934년 3월(25세)	일본 유학, 고베여자신학교 사회사업과 입학
1934년 7월	고베신학교 학내잡지인 푸른 하늘에 나의 소감 기고
1934년 9월	각기병의 악화로 6개월만에 귀국
1934년	Y의 재정 후원 완전히 끊김
1934년 10월 30일	‘여론’ 잡지에 도움을 호소하는 ‘농민의 하소연’ 기고
1935년 1월	장중첩증으로 수원도립 병원 입원
1935년 1월 23일	순국(26세, 만 25년 6개월)

3. 교수-학습 과정안

과 목	자유학기제 활동		담당 교사	000 (인)
학 급	1학년 0 반		수업일시	2017년 10 월 00일(0요일)(5~6)교시
단 원 명	잠자는 조선을 깨운 상록수, 최용신			
학습 목표	1. 최용신의 활동을 정리할 수 있다. 2. 최용신의 상록수 정신을 말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안산에는 상록구와 단원구가 있다. 상록구가 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 해본다.			
전 개	1. 농촌계몽운동에 헌신을 다짐한 최용신 선생님(15분)	최용신 선생님이 농촌계몽운동을 시작하기 까지 걸어왔던 길을 정리해 본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마을에 학교를 세우다(10분)	경기도 안산의 샘골에 들어온 최용신 선생님이 샘골학원을 세우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3. 상록수 최용신을 기념하다(15분)	최용신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최근까지 그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자신이 써보는 소설 상록수 - 3시기로 나누어서 정리해 본다.		
	생각 더하기(30분)	- 오늘날의 사회운동을 찾아본다. - 모둠별로 정리해 보고, 우선순위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본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천한 신분이라고 여겼던 기생들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통해 기생의 신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내용이 이상해요		
	수업의 흐름	① 생각 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인물의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 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생각 더하기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4. 학생 활동지 해답

[생각 나누기]

•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되어보기

최용신 선생님의 삶을 3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가) 출생에서 고등보통학교 시절

저는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 두남학교에 입학하였다가 다시 원산에 있는 루씨여자보통학교에 다니다가 계속하여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때 저는 조선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되었고, 농촌계몽활동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 협성신학교 시절

경성에 있는 협성신학교에 입학하여 황에스더 교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하여 농촌계몽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 샘골학원 시절

안산 샘골에 와보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샘골학원을 세울 수 있었고, 이곳을 통해 많은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후 공부가 더 필요해 일본 고베신학교 사회사업과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각기병으로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새롭게 샘골에서 일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장중첩증이라는 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각 더하기]

• 우리시대의 사회운동

1.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자 생각을 적어봅시다.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학력차별이 심하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 학원이 너무 많다. 등등

2. 위의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순위	내용
1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해결해야 할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다.
2	
3	
4	
5	

3. 위의 문제 중 1, 2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만 적어볼까요?

1위 문제 해결 노력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다. 사회 문제에 대해 조금 서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하고 더 불어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의 넓이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2위 문제 해결 노력	

4. 이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2가지만 적어볼까요?

신문 스크랩하기, 각 활동 관련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내용 검색해 보기 등등

5. 활동 준비물

소설 상록수, 필기도구 등

6. 교사 참고 자료

가. 최용신 선생 관련 자료

〈 교육도시 안산과 최용신 〉

[개설]

개화기 경기도 안산 지역에는 많은 서당과 함께 관아 옆에 향교가 있어 지역의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운이 쇠하고 서양 문물이 밀려오면서 학교 교육도 변화의 전기를 맞게 된다. 1899년 9월에 개교한 안산공립소학교는 안산 지역 근대 학교의 출발점이었다. 이는 안산의 근대교육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 안산이 신 공업 도시로 성장하기 전 이미 근대교육의 거점으로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농촌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운동이 일찍부터 뿌리내렸기에, 교육운동가이자 농촌운동가인 최용신(崔容信)이 1931년 본오동 천곡교회에 샘골야학당을 개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새롭게 변화된 교육제도와 안산의 현황]

개화기 신학제의 제정에 따라 요즘의 교육과학기술부 격인 학부(學部)는 1895년 7월 19일 「소학교령(小學校令)」을 공포하여 초등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학부령 제3호로 「소학교규칙대강」을 공포함으로써 「소학교령」에 따른 소학교 교육의 대강을 제시하는 한편, 1896년 2월 학부령 제1호로 「보조공립소학교규칙」을 공포하여 공립 소학교에 대한 국고금 보조를 법적으로 강화하였다.

「소학교령」에 나타난 교육 목적은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에 필요한 보통 지식 및 기능을 갖추게 하는 것이었다. 소학교의 편제는 3년제의 심상과(尋常科)와 2~3년제의 고등과(高等科)로 나뉘었고, 실제 수업 연한은 5~6년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만 8세부터 15세까지를 학령(學齡)으로 정하였으며, 각 부·군은 관내의 학령 아동을 취학시키기 위한 공립소학교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근대적 교육 체제가 갖추어진 셈이었다.

1895년 7월 19일 「소학교령」 반포 이후 을사늑약 시까지 전국에 설립된 51개의 관립소학교 중 경기도 내 설립 학교는 9개 교로 확인된다. 1896년 2월 10일에 설립된 경기관찰부립소학교(京畿觀察府立小學校)는 신 학제에 의한 경기도 내 최초의 학교이다. 이후 학부의 지정으로 소학교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개성·강화·인천·평택 등지에도 학교가 설립되었다.

정부는 1896년 8월 4일[당해년 1월 1일부터 태양력 사용] 23부제를 13도제로 변경하고, 한성부를 제외하고 관찰사가 있는 13도(道), 즉 광주·개성·강화·인천·동래·덕원·경흥을 부로 하여 부윤을 두는 7부(府), 제주를 목으로 하는 1목(牧), 331군(郡)으로 세분하였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수원관찰부를 비롯하여 모두 38군을 두었다.

이와 같은 행정 개편에 따라 학부는 같은 해 9월 17일 지방 공립소학교의 위치를 정하고, 학교 수를 한성부와

13도 관찰부, 4항[인천, 부산, 원산, 경흥], 2부[개성, 강화], 18군 합계 38교로 하고 각 교 1명씩 교원을 배치하였다. 당시에 채용된 교원은 모두 한성사범학교 제1기생과 제2기생이었다. 이어서 1899년 새로이 개항한 옥구항[전라북도]과 성진군[함경북도]의 2개 항구, 덕원부의 1부(府)와 15군(郡)의 합계 18개교에 교원이 배치되었다.

이 해 11월 6일 안산군에도 교원이 배치되는데, 이때 배치된 교원이 김광식이다. 이어서 최정하[1901. 3. 2], 김건식[1901. 4. 8], 박지양[1903. 8. 28], 박윤희[1903. 10. 16], 김건식[1904. 1. 30], 정원석[1905. 10. 17]이 배치되었다. 이렇게 1899년까지 학부가 교원을 배치한 공립학교는 51개 학교로, 한성부 공립소학교, 관찰부 공립소학교 13, 개항장 공립소학교 8, 삼부[강화, 개성, 덕원] 공립소학교 3, 각 군 공립소학교 26개 교로 추정된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산 지역에는 안산공립보통학교, 대부공립보통학교, 반월공립보통학교, 군자공립심상소학교, 군자공립보통학교, 화정간이학교, 사리간이학교 등이 세워졌다. 또한 당시 야학 및 학술강습소는 안산청년야학, 죽물학술강습소, 논곡강습소, 오현강습소, 상곡강습소, 노리울강습소가 있었다. 그 후 해방을 맞이하면서 교육기관은 점차 늘어났으며 신흥 공업도시로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많은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2009년 3월 현재 안산 지역에는 초등학교 53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 22개교, 대학교 6개교와 많은 사회교육 시설이 들어서 있다.

1. 어린 시절

최용신은 1909년 8월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에서 최창희(崔昌熙)를 아버지로 하여 2남 3녀 중 넷째[말로는 둘째 딸]로 태어났다. 최용신의 선조는 원래 경주에서 대대로 살다가 12대조 때에 나라의 정변으로 인하여 원산(元山) 섬섬으로 귀양을 가게 된 이후 계속 그곳에서 살아 왔다. 당시 지방 유지였던 최용신의 할아버지는 개화기 사재를 들여 덕원에 학교를 세워 기울어 가는 나라의 기운을 교육으로 일으켜 보자는 구국교육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런 가문의 내력이 훗날 최용신에 의해 꽃을 보게 된 것이다.

최용신은 아들이 아닌 넷째로 태어나 가족들의 관심 밖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구국교육자의 가풍과 어린 시절의 힘든 경험의 힘이 훗날 용기 있고 억척스러운 여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최용신은 10세 되던 1918년 두남학교에 입학해 2년간 다니다가 원산의 루씨여자보통학교로 전학을 했으며, 1928년 같은 계열인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였다. 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지식의 부족함을 느껴 1929년 경성에 있는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하여 황애덕[1892~1971]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2. 인생의 지표가 되어 준 황애덕

최용신은 학창 시절 황애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황애덕은 1918년 2·8독립선언 때 여성으로서 적극 참여하였고, 1919년에는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할 여성 대표의 비용을 마련하다 체포되어 6개월간 감옥생활을 하였다. 출옥 후 다시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군자금을 모집해 보내다가 그 해 12월 또다시 체포되어 3년형을 받아 옥살이를 한 후 2년 만에 가출옥하였다. 그 후 황애덕은 협성신학교 농촌사업지도교육과 교수로 있으면서 농촌운동

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하였다. 농촌운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임자를 선정하여 파송하는 한편, 해방이 되기까지 16년간을 계속하여 각도 각처에 6개의 학교와 2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농촌운동가인 황애덕을 신학교에서 만나게 된 최용신은 학문적인 배움과 함께 농촌으로 직접 들어가 농촌계몽운동 실습을 하였다. 황애덕이야말로 최용신의 인생에서 좌표를 제시한 사람이자, 빛나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결정지어 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용신은 협성신학교에 다니면서 첫째에는 황해도 수안 용현리로, 이듬해에는 포항 옥마동으로 농촌계몽운동을 나갔다.

3. 안산으로 오다

최용신은 협성신학교 졸업 1년 전 실습 겸 농촌계몽을 위하여 1931년 10월 23세의 나이로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샘골(현 안산시 본오동)로 내려왔다. 샘골교회에서는 최용신이 오기 전인 1930년에 단기 야학으로 수원구역 선교사 밀러(L.A. Miller)[1870~?]가 샘골강습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밀러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몸이고, 단기 강습소만으로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밀러로부터 전해들은 여자기독교청년회, 곧 YWCA 농촌사업부는 즉시 샘골(泉谷)을 시찰하고 나서 최용신을 이곳 교사로 임명·파견하였던 것이다.

최용신이 처음 들어올 당시의 샘골은 주민이 총 20여 가구밖에 안 되는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다. 가난·빈곤·무지, 그리고 슬픔만이 오랜 세월 뿌리박혀 있었다. 최용신은 처음에 초보적인 한글·산수를 비롯해 재봉·수예·가사·노래·성경 등을 오전반·오후반·야간반으로 나누어 밤늦게까지 진행하였다. 3개월이 되자 이제는 학생들이 많아져 예배당에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새로운 방안을 궁리하던 끝에 학원 인가를 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전시 체제로 돌입하는 단계에서 일제의 탄압이 극심한 터였다. 더구나 최용신은 요시찰 인물인 황애덕의 제자인데다, 당시는 신문사에서 주축이 되어 벌이고 있던 귀농운동, 즉 ‘브나로드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던 어려운 때였다. 그러나 교회를 비롯하여 염석주 같은 유지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1932년 5월 중순경 어렵게 인가를 받았다.

학원 인가 후 최용신은 더욱 열심히 일하였고, 학생 수는 60명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최용신은 3부제로 나눠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루 수업 시간은 6~7시간으로, 주로 애국 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의 교육과 모세의 이야기를 가르쳤다. 자수도 한국 지도를 무궁화꽃으로 꾸미는 것을 가르쳤고, 음악 시간에는 「무궁화 이 강산 역사 반만년」이란 노래를 가르쳤다.

그러던 중 반월면 둔대교회 설립자인 박용덕(朴容德)이 1,052평의 땅을 기증해 극적으로 학원 터가 마련되었고,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되자 10월 27일 정초식을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정초식을 거행한 지 2개월여 만인 1933년 1월 15일 최용신과 마을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샘골강습소가 완공되었다.

4.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유학

그런데 샘골강습소가 완공되자 최용신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일제는 스스로 조직한 농촌진흥회 청년조직을 통하여 최용신의 애국적 농촌계몽운동을 평가 절하하는 등 방해 공작을 노골화하였다. 학원이 완공되고 봄이 되어 학생을 모집하니 1백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학원 설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눈물을 머금고 50명을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때 YWCA에서 매달 보조해 주던 30원을 2년 만에 15원으로 삭감하였다. 최용신으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조선생에게 최소한의 사례를 해 왔으나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혼자 할 수도 없고 큰일이었다. 그리고 또 음양으로 힘이 되어 준 큰 일꾼 황동우 조차도 본인의 진학 문제로 사임을 하였다. 옆친 데 뿔친 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힘에 겨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현재의 지식으로는 부족함을 느낀 최용신은 1934년 3월 일본 유학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최용신은 1934년 일본 고베여자신학교 사회사업과에 입학하였고, 여기에서 약혼자 김학준도 만났다. 이때 김학준은 결혼을 요청하였으나 최용신은 샘골과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참자고 설득하였다. 또한 최용신은 여기서 오빠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5.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다

그러나 유학 6개월 만에 각기병에 걸려 최용신은 1934년 9월 귀국을 하였다. 처음에는 고향인 원산에서 요양을 한 뒤에 샘골로 가려 했으나 샘골 사람들은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샘골로 와 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였고, 결국 최용신은 샘골 사람들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어 샘골로 오게 되었다. 최용신이 돌아온 날부터 샘골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샘골 사람들은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 정성껏 최용신의 병간호를 하였고, 이에 최용신도 차츰 건강을 회복하여 전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건강은 차츰 회복되어 갔으나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YWCA가 재정난으로 더 이상 샘골교회를 돕지 못한다는 소식과 함께 1934년 10월에는 보조금을 완전히 끊는다고 최후통첩을 해 왔다. 반갑지 않은 소식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인지 최용신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어 갔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의 병세가 점점 더 나빠지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급히 수원도립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 그녀를 업고 수원까지 이동하였다. 병명을 알아보니 ‘장중첩증’이었다. 발병 후 시일이 많이 지났으나 늦게나마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서둘러 재수술을 하였다. 당시 수원도립병원장이었던 김하등과 수원병원장 신현익이 최용신을 살리려고 애를 썼으나 그녀의 병은 이미 화농복막염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결국 최용신은 1935년 1월 23일 0시 20분, 25년 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최용신의 가족들은 그녀의 시신을 원산의 선산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려 하였다. 그러나 약혼자 김학준의 집에

서는 “약혼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내 집 사람”이라 하여 자신들의 선산에다 묻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샘골 사람들은 이를 허락지 않았다. 장례식을 샘골동리 장으로 할 것이며, 그녀의 유언대로 샘골강습소 근처에 뒤탈 자리를 잡겠다고 하였다. 결국 최용신의 집안이나 시대 사람들은 완강한 샘골 사람들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장례일은 1월 25일이었다. 염석주를 준비위원장으로 하여 샘골교회와 학원이 연합해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 날 안홍팔이 최용신의 양력을, 목사 전재풍이 유언장을 낭독하였고, 영구는 친지와 아이들의 어깨로 발인하였다. 강습소 학생 120여 명을 포함해 영구를 따르는 조객이 1천 명이 넘었다.

안산시에서는 1994년 11월 28일,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기간인 6개월을 빼고 1931년 10월부터 1935년 1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안산 샘골에서 헌신적인 애국운동을 펼쳤던 최용신을 독립운동유공자로 추서 청원을 하였다. 당시 청원자는 홍석필, 김우경, 김명옥이었다. 그리하여 최용신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제3399호]을 추서 받았다. 또한 2001년 2월 문화관광부에서 ‘이 달의 인물’로 지정하고 상록수공원에 기념비를 세웠다.

[최용신의 정신과 「상록수」에 담긴 뜻을 계승하다]

1. 소설 「상록수」

「상록수」는 심훈(沈熏)이 최용신을 모델로 하여 지은 장편소설로, 1935년 동아일보사의 ‘창간15주년기념 장편 소설 특별공모’에 당선되어, 같은 해 9월 10일부터 1936년 2월 1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상록수」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 우리 농촌은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 수탈로 인하여 극도로 피폐해졌고, 이것이 심각한 국내 문제로 대두되자 관에서 농촌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시 언론기관에서도 대대적인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조선일보』의 ‘문맹퇴치 운동’과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운동들에서 취재되고, 또 이 운동들을 고무한 대표적인 작품이 이광수(李光洙)의 「흙」과 심훈의 「상록수」이다.

「상록수」는 이광수의 「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농촌사업과 민족주의를 고무한 공로로 한국 농촌소설의 쌍벽으로 평가된다. 식민지 현실을 의식한 이 작품은 계몽운동가의 저항 의식을 형상화시킴으로써 이상으로서의 계몽을 앞세우는 낭만적 수사의 한계를 벗어나, 구체적 상황에 입각한 농민문학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영화 「상록수」

소설 「상록수」는 두 번 영화화되었다. 첫 번째 영화는 1961년 신상옥이 감독하고, 최은희·신영균·허장강·도금봉·신성일이 출연하였고, 두 번째 영화는 1978년 임권택이 감독하고 한혜숙·김희라·이일웅·김형자가 출연하였다. 이 두 편의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은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어서 눈길을 끈다.

3. 「상록수」와 안산

1) 상록구청

안산시는 한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노력한 최용신 선생의 계몽사상과 「상록수」의 깊은 뜻을 계승, 발전시켜 상록수 정신으로 승화하자는 의미에서 구의 명칭을 상록(常綠)이라 명명하여 2002년 11월 1일 안산시 상록구를 개칭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상록, 상록강좌 등 지역의 각 활동 명칭으로 ‘상록수’를 사용하고 있다.

2)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수도권 지하철 당고개~오이도역을 운행하는 4호선 안산선에는 상록수역이 있다. 상록구 본오동과 일동, 이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유동 인구가 많다.

3) 상록초등학교·상록중학교

1993년에 개교한 상록초등학교는 현재 59개 학급에 2,224명이 재학 중이며, 1993년에 개교한 상록중학교는 현재 55개 학급에 2,378명이 재학 중이다.

4) 최용신기념관

2007년 10월에 개관한 최용신기념관은 최용신의 얼과 정신이 담긴 샘골강습소가 있던 안산시 상록구 해빛나길 56번지[본오동 879-4(샘골서길 64)] 상록수공원 내에 있다. 지상 1층에는 교육실과 사무실, 지상 2층에는 전시실과 영상실이 마련되어 최용신의 숭고한 뜻을 알리고 있다. 최용신기념관에서는 2009년 8월 12일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학술대회와 ‘최용신과 한글 사랑’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또 안산시에서는 최용신의 생애와 농촌계몽운동 정신을 담은 뮤지컬을 제작, 공연을 앞두고 있다.

5) 상록수영화제

심훈의 상록 혼과 최용신의 계몽 정신을 빛내고, 청소년들의 예술 재능을 조기 발견하여 영상 예술을 통해 글로벌 인성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예술인과 산업인의 화합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상록단편영화제가 매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고 있다. 그 외에도 196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최용신의 업적을 기려 최용신봉사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4. 책으로 되살린 최용신

안산시는 『어리석은 선구자 최용신』, 『내 몸뚱이는 샘골과 조선을 위한 것이다』, 『최용신 기억속에서 아시아로 일어나오다』 등의 최용신 관련 서적을 출판하였다. 『어리석은 선구자 최용신』은 기자 출신 작가인 서병옥이 녹취록과 신문 기사, 연구 자료, 도서 자료 등을 토대로 최용신의 일대기를 정리하였다. 『어리석은 선구자 최용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루씨고등여학교(樓氏高等女學校), 감리교신학교 시절이 당시 시대상과 자료를 통해 자세히 복원되고 있다.

『내 몸뚱이는 샘골과 조선을 위한 것이다』은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한 윤유석 박사가 최용신 관련 사진 80여 장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내 몸뚱이는 샘골과 조선을 위한 것이다』에는 최용신이 교육활동을 펼친 야목교

회, 둔대교회, 반월교회 사진과 신문에 게재된 사진들이 실려 있다. 그간 잘못 알려진 사진의 내용과 제목도 바로 잡았다. 또한, 『최용신 기억속에서 아시아로 걸어나오다』는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연구 논문을 묶은 책으로 최용신의 정신과 활동을 아시아 여성 운동사의 지평에서 조명하였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나. 황애덕



1892(고종 29)~1971. 독립운동가.
일명 애덕(愛德)·애시덕(愛施德). 13세 때 평양정진여학교(正進女學校) 3학년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곧 이화학당(梨花學堂)에 입학해 1910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곧장 평양의 숭의여학교(崇義女學校) 교사로 부임해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생애와 활동사항

1913년 동료 교사 김정희(金敬喜)와 교회 친구 안정석(安貞錫)과 더불어 비밀결사대인 송죽회(松竹會)를 조직하였다. 애국사상이 깊은 학생들을 엄선해 정신교육을 행하고 송죽회의 자회(子會) 설립을 지도하였다. 동시에 군자금을 마련해 중국의 항일독립단체에 송금하였다.

1918년 선교사 홀(Hall, R.S.)의 권유로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유학 중 김마리아·현덕신(玄德信)·송복신(宋福信)·정자영(鄭子暎) 등과 동경여자유학생회를 조직해 유학생 간의 친목과 더불어 매일사상 고취와 애국심 고양에 노력하였다. 1919년 2월 6일의 동경유학생회에서 남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므로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열변하였다. 2·8독립선언에 참여했다. 주동 학생으로 경찰에 잡혔다가 곧 풀려났다.

이후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여성대표를 파견할 임무를 띠고 몰래 입국하였다. 여성대표로는 신마실라(申麻実羅)가 선정되었다. 그의 여비 마련을 위해 노파·일본 여인 등으로 변장해 지방 연고지를 찾아 모금하였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가던 3월 19일 일본경찰에 잡혀 그 해 8월까지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여성계의 독립운동이 부진함을 개탄하던 김마리아와 더불어 애국부인회를 확대 재조직하고 총무직을 담당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에로의 군자금을 송달하던 애국부인회의 실상이 일본경찰에 탐지되어 애국부인회 임원이 일제히 검거될 때 함께 검거되어 대구경찰서로 넘어갔다. 재판 결과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생활을 하면서 동포 죄수들을 선도 계몽하였다. 형기 1년을 남기고 가출옥한 뒤, 이화학당 대학부 3학년에 편입하였다. 졸업 후 모교의 사감 겸 교사로 봉직하였다.

1925년 미국으로 유학해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1928년 귀국한 뒤 농촌계몽운동에 종사하였다. 1930년 혼인 후 남편과 하얼빈으로 가서 일본인 농장에서 고생하는 교포들에게 애국적인 계몽을 하였다.

광복 후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해 여성문제 타결에 노력하였다. 6·25중에는 마침 미국에 있었으므로 미국의 12개 주를 순방하면서 구호품을 모아 조국으로 보냈다. 1952년에 귀국해 한미기술학교를 설립한 뒤 전쟁미망인과 고아에 대한 기술교육을 하였다.

1960년 3월 1일 중앙여자고등학교 주최 3·1운동선도자 제1회 찬하회에서 찬하자가 되었다. 1967년 3·1여성동지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에서 활약한 여성동지를 규합하였다. 1963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으며,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반월의 근대교육

경기도 군포시 둔대로 11번길 13번지에는 한눈에 보아도 고풍스런 한옥 고택이 있습니다. 이 고택은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수원에 있는 화성의 팔달문 축조 당시 사용한 같은 목재를 사용하여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집안이 당시 반월지역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이었죠. 이 집안을 크게 일으킨 사람이 바로 박영식이라는 분인데, 그 분의 손자가 바로 박용덕입니다. 박영식은 손자 교육을 위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서울의 배재학당 출신 황삼봉이라는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모셔왔습니다. 황삼봉은 배재학당 교양학부 출신으로 당시 정동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황선생님은 가정교사로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씨 집안에서는 그의 활동에 감동을 받았는지 집 옆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데 그 교회가 바로 둔대교회입니다.

둔대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한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1902년에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1903년에 토담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 교회에 출석하는 지역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일이 바로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일입니다. 이후 교회에 관한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교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되는 분들이 이곳 둔대교회에서 글을 배워 깨우쳤다고 합니다. 즉 1931년 샘골교회의 장명덕 전도사의 증언, 1934년 수원지방 감리사보에 실린 둔대교회 야학관련 기사, 1935년 감리회보의 보도에 나타나는 야학 학생 50명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당시 야학의 교장이던 박인기는 반월의 지주 박용덕의 동생이며 관립경성공업학교 출신으로 교회 지분을 함석으로 다시 짓는 등 교회와 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6·25 전쟁으로 반월초등학교가 피폭되어 교사 건물이 없어지자 둔대 교회당을 임시교사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반월지역에서 100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로는 둔대교회와 샘골교회가 있습니다. 둔대교회는 1902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샘골교회는 190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는 상당히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교단이 같은 감리교단이며 둔대 지역에서는 샘골교회를 ‘고개넘어 교회’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적으로 가까웠죠.

그리고 샘골교회에 최용신 선생이 강습소를 세울 당시 그를 후원하던 염석주가 후원회장을 맡아 강습소 건축을 위해 당시 반월의 지주였던 박용덕을 찾아가 땅을 기부 받았습니다. 그 땅의 규모는 1,052평으로 당시 행정구역인 수원군 반월면 사리 475번지였습니다. 결국 최용신 선생이 훗날 샘골강습소를 세우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둔대교회를 세운 박용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박용덕 고택은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 문화유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는 둔대교회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직 교육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교육에 힘썼던 분들의 땀과 열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용덕 고택



삼봉집 : 국립중앙박물관



박용덕



1938년 10월 1일 박용덕이 감리교 총리사로 받은 포상장

8. 참고 문헌

[도서]

류달영(1999). 『최용신의 생애』. 성천문화재단.
홍석창(2010). 『최용신과 샘골마을 사람들』. 한국감리교사학회.
서병욱(2010). 『어리석은 선구자 최용신』. 안산시.
윤유석(2010). 『내 몸뚱이는 샘골과 조선을 위한 것이다』. 안산시.
김기명(2016). 『상록수 최용신 선생님의 발자취를 되밟으며』. 상록수문예원.
안산시(2009). 『최용신 기억속에서 아시아로 걸어 나오다』. 안산시.

[영화]

상록수(1961).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
상록수(1978). 임권택 감독. 한혜숙 주연.

[기타]

디지털안산문화대전, <http://ansan.grandculture.net/?local=ansan>

1. 활동 개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1919년 삼일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수원에서 기생의 신분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김향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기생의 신분은 천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신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았던 시기에 만세운동에 천하게 취급받았던 여성이면서도 당당하게 나라의 독립을 외친 김향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2. 인물 학습



김향화(金香化)는 경성부의 어느 마을에서 1897년 7월16일에 태어났다. 순이(順伊)라는 순박한 이름을 가진 아이였다. 가족은 아버지 김인영(金仁永), 어머니 홍금봉(洪今鳳), 7살 차이나는 오빠 창환(昌煥)과 4살 어린 여동생 점순(点順)이가 전부였다. 구한말 일제초기는 사회적 혼란과 수탈 속에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생계마저 위협받던 시절에 김순이(김향화)라는 어린 처녀는 입이라도 하나 줄여 보겠다는 생각으로 수원군 북수리 48번지에 사는 정도성(鄭道成)과 결혼을 감행한다. 남편은 부모라고 해도 믿을 만큼 나이차이가 났고 김순이보다 6살이나 나이가 많은 딸도 있었다.

남편 정도성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었거나 아들을 얻기 위해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김향화는 15살이나 16살 쯤에는 결혼을 했을 것이다.

1911년이나 1912년경에 이미 수원으로 와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 일제식민지 시대 가난한 집 딸이 살아가는 법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어 생계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그녀의 결혼생활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던 듯하다. 18살이 되던 해인 1914년 12월10일에 남편과 이혼을 했다. 결혼한 지 불과 몇 년 만의 일이다.

그해 5월에는 아버지 김인영이 사망을 했고 생계가 막막해진 가족들은 그나마 의지가 될 만한 여동생을 따라서 남수리 202번지로 이주를 해왔다. 남수리 202번지는 김향화가 수원의 대표기생으로 활동하던 1919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알 수가 없다. 김향화는 이혼 후에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당시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어쩔 수없이 기생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 기생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이름이 필요했고 순박한 순이(順伊)에서 향화(香化)로 변경한 듯하다.

기생이 되기 위한 기예는 수원지역에 있던 기생조합이나 권변에 들어가서 배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설에는 1911년 15살의 나이로 기생조합에 들어갔다고 하나 기록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아마도 이혼을 하고 나서 생계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기생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나이가 18살이다. 기생이 되기 위해 훈련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10세 전후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늦은 나이에 기생이 된 것이다. 기녀 수업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1918년에 만들어진 '조선미인보감'에 의하면 검무, 승무, 정재춤,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소리, 양금 등을 잘했고 수원을 대표하는 기생으로 소개하고 있다.

당시 수원기생은 개성기생 못지않은 기예와 풍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늦은 나이에 기생이 된 김향화가 수원의 대표기생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동안의 눈물나는 노력의 결과였을 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어린 처자의 눈물이 느껴진다.

“온갖 계책으로 봄을 머무르게 하되 봄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만금은 꽃을 애석해 하지만 꽃은 사람을 애석해 하지 않아, 나의 푸른 쪽진 머리, 주홍 소매를 쥐고서 한번 넘어지면 이십 광음이 끝나도다.

누가 가곡이 근심을 능히 풀 수 있다 말하는가. 가곡은 일생의 업원이로다. 본디 경성 성장으로, 화류 간의 꽃이 되어, 삼오 청춘 지냈구나. 가자가자 구경 가자, 수원산천 구경 가자, 수원이라 하는 곳도, 풍류기관 설립하여, 개성조합 이름 쫓네, 일로부터 김행화도, 그 곳 꽃이 되었세라, 검무, 승무, 정재춤과,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소리, 양금치기, 막힐 것이 바이없고, 가름한 듯 그 얼굴에, 죽은깨가 운치 있고, 탁성인 듯 그 목청은, 애원성이 구슬프며, 맵시동동 중등 키요, 성질 순화 귀엽더라.”

(조선미인보감 김향화)

■ 천한 기생도 대한의 딸이다.

김향화는 1919년 2월25일 남수리 202번지에서 201번지로 분가를 했다. 기생으로서 자리도 잡았지만 기생이라



2009년 포상된 김향화 표창장과 메달

는 직업자체가 뒤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가족의 생계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분가를 한 것 같다.

그러나 1919년 운명적인 사건이 그녀의 삶을 바꿔 놓았다. 23살이 되던 해인 1919년에 고종임금이 승하하셨는데 소문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고종임금을 독살한 것이라고 한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나라가 망하니 임금도 독살을 당한다는데 민초들의 삶이 고단하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기생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1919년 1월27일에 고종임금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이었다. 이날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생동기들 20여명과 함께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덕수궁 대한 문 앞에 백성들과 함께 곡을 했다.

김향화도 기생이기 이전에 조선의 딸이기 때문이었다. 3월1일에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수원에서는 3월 16일 만세시위가 시작됐고 27일에는 수원역에서도 그리고 시장상인들이 상점 문을 닫고 만세시위를 벌였다.

김향화와 수원기생 33인도 여기에 지지 않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3월29일 기생들을 대상으로 자혜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위생검진이 이뤄지는 날이다.

김향화와 일행은 자혜의원으로 가는 길에 경찰서 앞에 이르러 대담하게 독립만세를 불렀다. 검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다시금 만세를 불렀는데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을 지켜본 사람들이 합세하면서 시위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만세를 부르던 날 김향화는 망해가는 조선의 딸이었고 독살 당했다는 고종임금에 대한 의리와 절의를 지킨 신하였으며 한편으로 위생검진이란 이름하에 자행된 일제의 여성 인권유린에 분노하는 여성이었다.

1905년 소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조선인 창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성병검사가 진행됐다. 위생검사는 사람들이 보는 앞마당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검사 방법이었다.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였다.

자혜원에서 위생검사를 받은 김향화와 기생들 33인에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망국의 설움과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기생의 처지에 대한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자신들의 처지와 조선의 운명이 같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김향화와 기생들은 경찰서로 잡혀갔다. 김향화는 일제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만세를 불렀다.

2개월여의 감금과 고문 끝에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 분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녀들의 만세운동은 1919년 6월 20일 매일신보에 실리기도 했다. 1919년 11월2일 김향화는 가출옥 상태로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다.

■ 소리없이 사라질 지라도 내 나라를 지키고 싶었소.

김향화는 그렇게 6개월간의 심한 옥고를 치렀다. 그녀가 기생들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탓에 가족들에게도 여파가 미쳤다.

기생이 돼야 했을 정도로 빠듯하고 어려운 살림이었는데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옥고를 치루고 나온 뒤 그녀의 행적을 추적할 만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적해 본다면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아야 할 만큼 힘들었던 것 같다.

게다가 김향화는 기생일도 그만둔 것 같다. 1925년 신문에 수원에기조합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곳에도 그녀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가 기생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가족들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다른 방편을 찾아야 했다.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가족들은 수원을 떠난 것 같다.

김향화는 1934년에 향화라는 기생이름을 버리고 우순(祐純)으로 바꿨다. 기생 시절에 사용했던 향화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지나간 시절에 대한 회한이 묻어나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시기는 다르지만 여동생 점순은 화자(和子)로, 오빠 창환은 영석(永石)으로 이름을 바꿨다.

여동생과 오빠의 경우 1940년 창씨 개명 과정에서 이름을 변경한 듯하다. 우순으로 이름을 바꾼 이듬해 1935년에 나이 39살의 늙은 중늬은이가 되어버린 김향화는 경성으로 이주를 했다. 어머니와 오빠 김창환은 1930년을 전후로 경북으로 이주를 한 듯하다.

어머니 홍금봉이 1930년에 경북 김천군에서 사망을 했고 2년 뒤인 1932년에 오빠 김창환은 경북 달성군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가 어머니 친정이었는지 선대 연고가 있었던 곳이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어쩌면 기생 여동생의 만세시위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곳을 선택했을 지도 모른다. 오빠 김창환은 나이 42세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결혼 전에 낳은 아들 동철(東澈)을 비로소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

정식 혼인 관계에서 얻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여동생 점순의 행적도 알 수 없다.

그녀는 딸 둘을 낳아 키웠는데 모두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노출된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1920년대 자혜의원(경기도립 수원병원)

김향화는 1935년까지 15년 동안을 수원에서 버텼지만 가족도 모두 떠나버린 상황에서 홀로 버티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 결국 살아보겠다고 내려온 수원행을 포기하고 20여년 만에 서울로 올라간다. 그녀의 나이 39세가 되던 해이다.

꽃 같은 나이에 수원으로 들어와 25년을 살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꽃같은 얼굴과 구슬픈 목소리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기생 김향화이었지만, 만세운동 이후에 가족은 흩어지고 일제의 끊임없는 감시에 시달렸으며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팔려가듯이 늙은 남편과 결혼을 해야 했고 이혼 후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처지는 식민지 조선의 자화상이다.

김향화는 식민지 시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가난한 집 딸이었고 천대받던 기생이었지만 조선의 독립을 당당하게 외쳤던 인물이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조선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김향화는 역사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지난 2009년 4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장과 훈장메달은 수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류현희(수원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사. 김향화 연보

1897년	서울 경성부에서 출생
1911년경	수원으로 이주
1911~1912년경	결혼
1918년	이혼
1919년	삼일만세운동 전개(자혜의원 앞)
1919년	〈매일신보〉에 기사 실림
1919년 11월 2일	6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마침
1935년	서울로 이주
2009년	독립유공자 표창

3. 교수-학습 과정안

과 목	자유학기제 활동	담당 교사	000 (인)
학 급	1학년 0 반	수업일시	2017년 10 월 00일(0요일)(5~6)교시
단 원 명	만세운동에 참가한 기생, 김향화		
학습 목표	1. 기생의 신분에 대해 정리 할 수 있다. 2. 김향화의 활동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오늘날의 인기 연예인들이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신분이었는지 서로 이야기 해 본다.		
전 개	1. 조선 시대의 연예인, 기생(15분)	조선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기생 황진이의 삶을 통해 당시 기생의 신분에 대해 정리한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전 개	2. 독립운동에 앞장 선 기생(10분)	일제강점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생들이 활약을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3. 독립만세를 외친 김향화(15분)	기생의 신분으로 나라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내용을 확인해 본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기생의 사회적 차별을 확인한다. - 오늘날과 비교해 본다.	
	생각 더하기(30분)	-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도가 없나? - 신분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리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천한 신분이라고 여겼던 기생들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통해 기생의 신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 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인물의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 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생각 더하기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4. 학생 활동지 해답

[생각 나누기]

• 기생의 사회적 위치

가) 황진이와 김만덕의 활동을 보고 이들이 오늘날 어떤 직업에 해당하는지 적어봅시다.

황진이	연예인, 예술가 등
김만덕	CEO, 자선사업가, 호텔경영인 등

나) 김향화가 고종 황제의 장례식 때 서울까지 올라와 곡을 하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종황제를 존경하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커서 등 자유롭게 기술

다) 김향화와 그 일행이 재판받을 때 많은 사람이 재판을 보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신분이 낮은 기생이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등 자유롭게 기술

[생각 더하기]

• 대한민국에서 신분이란?

1. 신분, 신분제 사회 등 ‘신분’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 지 적어봅시다.

양반, 노비, 돌쇠, 차별, 과거시험

2. 신분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쓰고 그 근거를 들어 봅시다. 정리가 끝나면 모둠원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나의 주장 : 신분제 사회는 (개인의 노력과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나쁘다, 좋지않다 등등 다양한 의견 제시) 나쁜 사회였다.

그 근거는 :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3. 현재 우리나라에도 신분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써봅시다.

나는 우리나라에 신분이 (있다고 없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는
첫째,

둘째,

자신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며, 친구들과 생각을 비교해 봄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음을 확인한다.

5. 활동 준비물

6. 교사 참고 자료

가. 황진이

역사인물 가운데 소설로, 혹은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황진이(黃真伊)만큼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인물도 흔치 않을 것이다. 소설로, 드라마로, 영화로도 수차례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은 여성은 일찍이 없었다. 그녀는 역사상 최고의 미모와 재능,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충만했던 여성이었다.

체제를 넘어 남·북한에서 널리 사랑받은 인물

역사인물로 여성을 중요시한 것은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왕비 출신이 아닌 일반 여성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신사임당과 황진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신사임당이 황진이에 비해 덜 알려진 것이 아님에도 신사임당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거의 없는 반면, 황진이는 매력적인 여성의 상징으로 세대를 달리하면서 늘 새로운 여인상을 만들어 냈다. 20세기 이후, 남·북한을 통틀어 그녀만큼 사랑받은 인물이 있었을까. 체제를 달리하는 만큼, 역사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 남·북한의 간극은 태평양만큼이나 넓다. 그러나 황진이는 사회주의 체제든 자본주의 체제든 사랑받을 수 있는 여성 캐릭터였다. 전경린, 김탁환, 최인호가 황진이를 택했고 북한의 작가 홍석중이 황진이의 일대기를 그렸다.

남성 못지않은 기개가 있었던 인물

정사이든 야사이든 과거 기록에 흔적을 남겨온 이는 남성들이다. 남성이 기록해온 역사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왕족 외에 기록을 남긴 여성들은 성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감동이나 어우동 같은 여성들이다. 이들은 남성들만의 세상에 뛰어들어 남성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마디로 악녀요 요부인 것이다. 남성들의 역사에서 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아름다움을 무기로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들로 비쳐진다. 역사 기록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현모양처 혹은 요부이다. 하지만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몇 안되었던 시기에 황진이에 대한 기록들은 성녀도 아니요 요부도 아니다. 한 명의 기인(奇人)으로서 여성이지만, 남성 못지않은 기개가 있었던 인물로 그려진다.

황진이는 정사 기록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다. 그녀에 관한 이야기들은 [송도기이(松都奇異)]나 [어우야담(於于野談)]과 같은 야사나 설화로 전해져 왔고, 20세기 이후에는 남·북한 역사소설에서 많이 다뤄지면서 이야기 살이 덧붙여졌다. 전해오는 모든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개성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어머니는 천민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는 ‘진현금’이라고 불려지던 시각 장애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황진이라는 이름 또한 본명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 ‘황진’이 이름이고 ‘이’는 접미사라는 것이다.

신분상의 운명을 버리고 자유를 택하다

황진이, 그녀의 신분은 기녀이다. 조선사회는 남성들에게 여성편력에 관한 한 관대했다. 하지만 규방의 여성들은 남성과의 접촉에서 제한적이었다. 관대함과 제한성이라는 상충된 환경에서 이 둘을 연결시킨 것이 ‘기녀’였다. 기녀는 조선사회에서 남성과 공식적으로 관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여성이었다. 기녀 출신인 황진이는 규방출신의 감동이나 어우동과 달리 음란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었다. 시와 음악은 기녀라면 갖추어야 할 재능이었고, 아름다운 외모에 재능까지 갖춘 황진이는 남성들의 권력을 무너뜨리지 않는 기녀였다.

양반의 열녀였던 황진이는 16세기 조선사회의 규범에 따라 양반의 첩이 될 운명이었다. 첩이라는 것이 정실 부인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것이지만, 사대부의 첩이라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처

럼 자식도 서출이라는 신분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황진이는 신분상의 운명을 택하지 않고 자유를 택했다. 물론 기녀로 산다는 것 또한 신분상의 운명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기녀와는 달랐다. 당시 기녀들의 소망이었던 사대부 첩 자리를 박차고 기녀라는 천한 신분을 택했고 이를 통해 사대부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양반도 상놈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이러한 황진이의 자유로움과 급진적인 성향은 남·북한 모든 소설가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덕목이었다.

황진이는 학식과 권세를 겸비한 조선사대부들을 희롱하고자 조선 최고의 군자라고 불린 벽계수(본명 충남)를 유혹했다.

청산리 벽계수야 쉬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할제 쉬어감이 어떠하리.

황진이의 격조있는 구애시 앞에 벽계수는 군자로서의 허울을 벗어 던졌다. 종친이라는 신분과 당대 최고의 호인인 벽계수를 무너뜨린 일로 황진이는 유명세를 탔다. 벽계수에 이어 불가의 생불로 통하던 지족선사를 파계시켰고 도학군자로 이름을 날리던 화담 서경덕을 유혹하기도 했다.황진이의 일생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일 것이다. 황진이는 당시 도학군자로 이름을 날리던 화담 선생이 진실한 군자인지 거짓 군자인지 밝혀보고자 했다. 모든 남성이 황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화담선생만큼은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다. 화담선생의 높은 덕망 앞에 황진이는 감복하여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고 자신과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삼절이라 칭송했다.

이사종과 6년간의 사랑, 소세양과 30일간의 사랑

황진이는 사대부의 허울만 벗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여성은 아니었다. 선전관이었던 이사종을 사랑하여 6년간 전국을 유람하였다. 한양 제일의 소리꾼이라는 이사종과 황진이와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두 사람은 거칠 것 없이 송도를 떠나 조선 팔도를 유람하며 한양과 송악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초월한 예술 동지이자 영혼의 동반자로 인생을 함께 나눴다.

연인과의 사랑을 바탕으로 시를 지을 때면 조선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 그녀가 이사종과의 열정적인 사랑을 읊은 [동짓날 기나긴 밤]은 오늘날까지도 애송되는 옛시조이다.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어드란 구뽀구뽀 퍼리라

이별 없는 사랑이 없었지만, 잦은 이별은 그녀의 마음을 멎들게 했을까. 소세양과의 30일간의 사랑은 참으로 애틋하다. 황진이와 사랑을 나눈 소세양은 종종 4년에 등과하여 시문에 능했고, 벼슬이 대제학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소세양은 젊어서부터 여색을 밝혔다고 전한다. 송도의 명기 황진이가 절세 미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소세양은 “황진이가 절색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녀와 30일만 함께 하고 깨끗하게 헤어질 것이다. 만약 하루라도 더 머물게 된다면 너희들이 나를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황진이를 만난 소세양은 30일의 약속으로 동거에 들어갔다. 마침내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소세양은 황진이와 함께 이별의 술잔을 나누었다. 황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시 한수를 소세양에게 써주었다. 그녀의 시 한수는 소세양의 마음을 움직였고, 친구들은 약속을 어긴 소세양을 인간이 아니라고 놀렸다 한다.

소세양과의 이별을 맞이하며

달빛 아래 뜰에는 오동잎 모두 지고
찬서리 들국화는 노랗게 피었구나.
다락은 높아 높아 하늘만큼 닿았는데
오가는 술잔은 취하여도 끝이 없네.
흐르는 물소리는 차기가 비파소리
피리에 감겨드는 그윽한 매화향기
내일 아침 눈물 지며 이별하고 나면
넘그린 연모의 정 길고 긴 물거품이 되네.

‘선녀’이며 ‘천재’라 칭송

소세양과의 연정을 끝으로 황진이는 40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언대로 개성 어느 길가에 묻혔다. 세월이 흘러 개성에서 그녀의 무덤을 발견한 평안감사 임백호는 그녀의 부재를 슬퍼하며 시 한수를 읊었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난다 누워난다
홍안을 어데 두고 백골만 묻혀난다
잔 잡고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설워하노라.

신분은 비록 미천한 기녀였지만 학식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황진이는 선비들과 대등하게 사귄 수 있었고, 그들

과 어울려 금강산을 비롯한 산천을 감상하며, 조선시대 여성으로는 남다른 삶을 살았다. 황진이는 개성 땅에서 이미 여류명사였다. 1604년 압행어사 신분으로 송도에 갔던 이덕형은 개성 땅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진이의 미모와 명성을 전해 듣고 이를 [송도기이]라는 책에 남겼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황진이는 아리따운 외모를 지닌 선녀였고 천재 소리를 듣는 시인이자 절창(絶唱)이었다.

시인 황진이에게 헌사된 많은 칭송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작품은 시조집 [청구영언(靑丘永言)]과 [해동가요(海東歌謠)]에 오른 시조 4수와 한시(漢詩) 2수뿐이다.그녀가 남긴 시들은 시조시인이 꼽은 최고의 시에 여러 편이 올라있을 정도로 문학작품성을 자랑한다.

글 정성희 |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

나. 자혜의원[慈惠医院]

일제강점기에 세운 관립 병원이다. 전국에 40여 곳을 두고 광복이 될 때까지 환자들을 치료했다.

- 1) 유형 : 역사적 병원
- 2) 설립 시기 : 1909년
- 3) 설립 목적 : 나라에서 세운 의원을 통해 지방에 있는 서민들의 건강을 돌봄
- 4) 규모 : 46개 의원, 총 1629개 병상
- 5) 주요활동 : 입원 및 외래환자를 치료하고 약을 처방

1909년(융희 3년) 8월 전주, 청주, 함흥 등 3개 지방에 세운 관립 병원으로 처음 세울 때 이름은 자혜병원이다. 1910년 수원, 공주, 광주, 대구, 진주, 해주, 춘천, 평양, 의주, 경성 등 10곳에 자혜의원이 생겼다. 그 수는 계속 늘어나 1937년에는 41곳, 1942년에는 46곳이 됐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사업 중 하나로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3.1운동이 일어나자 이름을 도자혜의원으로 바꿨다.

도자혜의원은 작게는 20병상, 크게는 200병상까지 규모가 다양했으나 대부분 50병상 이내였다. 전국에 있는 도자혜의원의 병상 수는 총 1629병상으로 의관 144명, 의원 128명을 비롯해 약 2천 명의 인력이 전국의 도자혜의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약을 처방했다. 광복 후 여러 도자혜의원이 각각의 도립병원으로 바뀌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혜의원 [慈惠医院]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자혜의원



자혜의원으로 바뀌기 전 행궁 봉수당 건물

수원자혜의원은 1910년 각 도에 설치되었던 관립의원 중 하나로 1910년 9월 5일 개원하였다. 이후 1925년 4월 1일 「조선도립의원관제(朝鮮道立醫院官制)」및「도립의원규정(道立醫院規程)」이 시행되면서 도립의원으로 개편되어 운영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수원자혜의원에 관련된 37매의 도면이 소장되어 있다.

수원자혜의원은 평양자혜의원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의 왕실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한 의료시설이다. 1910년 정조의 위패를 모시고 어진을 봉안하던 정조의 사당이었던 화령전(華寧殿)에서 개원을 하였다. 그러나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협소한 부지로 인하여 곧 이웃해 있던 화성행궁(華城行宮)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개원 당시의 도면은 남아있지 않아 화령전에서의 운영 모습을 알 수 없다. 반면, 행궁으로 이전한 이후의 모습은 여러 도면에서 확인되는데, [도판1]에서 정전 건물이었던 봉수당(奉壽堂)의 사용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을 자혜의원의 본관으로 사용하였는데 가운데에 대합실을 두고 왼쪽에 사무실, 오른쪽에 약국을 두었다. 뒤에 있던 장락당(長樂堂)에는 진료실을 두었는데 부인(婦人)진료실은 따로 두었다. 병원시설로 변경하면서 벽체와 창호들이 교체되었다. 우측 도면이 이를 위한 계획도이다. 건물 오른쪽의 마공실(磨工室)은 기존 건물을 확장해서 사용하였고 그 모습은 도면의 우측 하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도판2]에서는 본관 주변 건물의 사용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관 왼쪽의 복내당(福內堂)과 행각은 조선인 병실과 부인병실로 사용하였고, 오른쪽의 득중정(得中亭) 영역은 일본인 병실로 사용하였다. 본관 뒤로는 수술실 건물을 신축하여 복도로 연결하였다. 복내당 앞의 유여택(維與宅) 건물은 특별병실로 사용하였다.

수원행궁의 건물을 병원으로 전용해 운영되던 수원자혜의원은 1923년경에 이르러서는 대대적인 시설의 변화를 계획하였다. 대부분의 행각을 헐어내고 기존의 본관 앞에 새로운 본관 및 병실을 건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도판3]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흐린 선이 헐려나간 행각들을 보여주며, 진한 실선이 신축건물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본관은 병실로 용도를 바꾸었고, 특별병실로 사용되던 유여택 일곽은 전염병동으로 바뀌었다. 일본인 병실은 간호부 기숙사로 바뀌었다. 본관의 변화는 [도판4]에서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다. 벽의 위치를 조정하여 각 실의 배치를 바꾸어 병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신축하는 본관과 연결하는 복도가 추가되었고, 우측의 병동과도 복도로 연결되었다. [도판5]는 기숙사와 다른 병실의 변경계획이다. 간호부 기숙사의 경우 날개채 한쪽을 헐어내고, 각 실과 복도의 위치를 뒤바꾸어 실을 재배치하였다. 시료병실에서는 처마 밑으로 복도를 덧달아내 건물을 확장하는 계획을 볼 수 있다. [도판6]은 '수원자혜의원본관신축설계도'이다. 목조 2층 건물로 외벽은 벽돌로 치장하여 마감하였는데, 이러한 계획 방식은 보기 드문 특이한 사례로 당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던 형식이다.([도판7], [도판8] 참조) 좌우로 긴 장방형의 건물로 전면 중앙 현관부분은 돌출시키고 상부에 박공을 구성하여 장식하였다. 출입문과 상부의 창문에는 원형아치로 꾸며 입면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지붕에는 돌출창을 두었고 난방을 위한 벽난로 굴뚝이 곳곳에 솟아 있었다. 1층에는 각과의 진료실과 약국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시료 진료실을 두어 일반 진료구역과 구분하였다. 특이한 점은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을 보관하는 공간(下足長)이 있어 본관 내에는 신발을 벗거나 갈아신고 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며, 다른 자혜의원 본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방식이다. 2층에는 원장실, 식당, 각종 시험실, 의국 등이 배치되었다. 건물의 난방을 위

해서는 벽난로가 계획되었다. [도판9]는 신축병동의 도면이다. 목조 단층 건물이며 시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외벽을 마감하였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창고와 함께 건물 오른쪽 끝에 배치되었다.

수원자혜의원의 건축도면은 비록 충분하게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평양자혜의원과 함께 한옥을 수선하여 근대적 의료시설로 사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참고도판]

도판1. 수원자혜의원수선공사도/25, 1919년 추정

도판2. 수원자혜의원수술실증설급모양체수선공사도/26, 1919년 추정

도판3. 수원자혜의원부지배치도/34, 1923

도판4. 수원자혜의원병실기타증축모양체공사설계도/14, 1923

도판5. 수원자혜의원병실급속사증축모양체지도/16, 1923

도판6. 수원자혜의원본관신축설계도/1, 1923

도판7. 수원자혜의원본관신축공사설계도/4, 1923

도판8. 수원자혜의원상가복기타지도/2, 1923

도판9. 수원자혜의원병실신축지도/13, 1923

출처 : 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medical.do?flag=9>

다. 조선 상징이 일제때 병원으로 ‘화성행궁의 수난’

〈1910년 강제합방 직후 화령전에 자혜의원 설치〉

[근대 수원의 역사문화 공간]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수원일보 2010. 03. 25

●행궁을 파괴하고 병원을 세우다

올해는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오래된 병원에 대한 명칭과 기억은 사람들에 따라 수원의료원, 수원도립병원, 수원도립의원 혹은 수원자혜의원(慈惠醫院)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물리적 나이로 따져볼 때 자혜의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10년 8월 29일 강제합방을 강행한 일제는 조선인에게 자애로운 은혜를 베푼다는 미명 아래 전국의 주요 지역에 자혜의원이라는 것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급하게 개원된 각지의 자혜의원은 약품과 의사들이 태부족하였다. 이에 소용되는 약재 및 위생재료는 서울과 함경도 나남(羅南)의 육군 창고에 보관하던 것들이 보급되었고, 의사들 역시 육군 군의(軍醫)들로 충당되면서 병원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는 의병전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뒤에 소용없게 된 넘쳐나는 군용 의약품과 군의들을 용도 변경한 것에 불

과한 것이었지만 일제는 식민지 의료기관을 설치해 주었다는 시혜적 입장에 서 있었다. 일제는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모와 의료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것이었지 조선의 일반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으로 수원지역 최초의 근대적 공립의료기관이었다.

일제가 수원에 자혜의원 자리로 첫 번째로 뽑았던 곳은 연무대였다. 그러나 읍내에서 거리가 멀고 난방시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다음으로 선택된 곳은 화령전이었다. 덕수궁 선원전으로 정조 어진을 이안하고 난 뒤 비어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1910년 9월 5일 수원 자혜의원이 화령전에서 개설되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조선인의 민심이반을 두려워해서인지 화령전의 정전인 운한각에는 직접 설치하지 못하고 좌우의 부속건물을 병원으로 활용하였다. 즉 화령전 정전의 오른쪽 어정(御井) 앞의 전사청(典祀庁)과 그 부속건물 및 좌측의 풍화당(風化堂) 등 3동을 병원 건물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풍화당은 1병실, 전사청은 서무·약제·치료과 및 숙직실로 사용하고, 문간의 부속건물은 2병실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뚜껑이 없는 원통형의 우물이던 어정(御井)의 끊임없이 샘솟는 양질의 물은 음용수로 활용될 수 있었다.



화성행궁 전경

● 화성행궁의 변화와 자혜의원 설치

1910년 10월 화성행궁의 경기도관찰부가 서울로 이전되어 갔다. 이에 따라 노천진료를 할 정도로 협소하다는 이유로 화령전에 설치되었던 자혜의원을 옮기게 된다. 경기도 관찰부가 떠나감에 따라 일제는 화성행궁의 넓은 건물들을 주목하였다.

일제의 속마음은 화성행궁을 헐고 일제 통치기구를 거들먹하게 세우고 싶었겠지만 재정문제와 더불어 민심 이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기존의 화령전에 웅색하게 들어선 자혜의원을 드넓은 화성행궁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이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넓은 건물과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수원의 중심적 행정기구를 근대적 의료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선의 멸망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화성행궁의 가장 중요한 정궁 역할을 하는 봉수당(奉壽堂)에 자혜의원을 설치함으로써 행궁의 건물을 이용함과 동시에 조선왕실의 권위와 그 표징

이었던 화성행궁을 허무는 이중의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황실 및 관청 건물에 대한 사용을 학교 또는 의료 시설로 활용했던 일제의 고도의 술책은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발달한 일본의 근대적 신문명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선전이 가능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곧바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청사를 병원 기능에 맞게 다시금 수리 개축하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11년 5월 28일 자혜의원은 화령전에서 화성행궁으로 옮겨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화령전의 정전 운한각을 병원 건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화성행궁의 정전이던 봉수당을 병원의 본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선의 몰락을 확연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이 때 좌익문과 봉수당 사이에 있었던 중문인 중앙문(中陽門)을 효율성을 빙자하여 철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이로써 화성의 심장이자 조선의 상징이었던 화성행궁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나라가 망한 마당에 화성행궁의 훼손은 어찌면 마땅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경복궁이 철저히 훼손되어 조선총독부가 건립되는 양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화성행궁 자리에 들어선 수원도립병원

화성행궁의 훼손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이미 신평루 양 옆의 북군영과 집사청의 일부는 경찰서로 사용되었고, 남군영과 서리청 역시 헌병분견소와 그 숙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좌익문 남쪽의 비장청과 회랑은 시료부(施療部)·진찰소, 외정리소는 간호부 기숙사 및 시료실(施療室), 유여택 북쪽 회랑은 약품창고, 유여택 남쪽 회랑은 전염병실이 되었다. 좌익문과 중앙문을 잇는 북쪽 회랑은 창고, 중앙문과 봉수당을 잇는 북쪽 회랑은 내과병실이었다. 봉수당 옆의 경룡관과 유여택의 일부는 남병실(南病室)이었고, 장락당에는 진찰실 및 수술실이 위치해 있었다. 본관으로 활용된 봉수당은 서무과·진료과·약제과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봉수당에서 득중정으로 이어지는 회랑은 북병실(北病室)로 활용되었고, 봉수당 뒤쪽 득중정과 이어지는 서회랑은 병리시험실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낙남헌은 자혜의원과 상관이 없는 다른 용도의 건물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혜의원은 좌익문을 정문으로 하고 봉수당을 중심으로 좌우의 회랑을 양쪽으로 하는 구역 모두가 활용되었던 셈이다. 다만 신평루 양 옆과 낙남헌 일대 및 반대편의 별주 지역만이 제외되었다.

● 화성행궁의 파괴와 낙남헌

화성행궁의 건물을 재활용하며 운영되었던 자혜의원은 15년이 지난 즈음, 1925년 경기도립 수원의원으로 개칭되었다. 이미 수원자혜의원은 1923년 5월 화성행궁 봉수당을 헐어 3,751평의 대지에 총 공사비 78,000원을 들여 2층 벽돌 건물로 본관을 높다랗게 지었다. 그리고 주변의 행궁 건물들을 훼손하고 763여 평의 건물을 새롭게 지었다.

그리고 이후 1928년 남병동(南病棟) 49평(목조)과 1935년 서병동(西病棟) 25평(연와조)을 증축함으로써, 1923년 이래 병원 확장은 화성행궁 정당한 봉수당을 비롯한 장락당·유여택·복내당 등을 헐어내고 새로운 건축물들을 신축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 왕조의 상징적 건축물인 화성행궁을 헐어내고 일본의 힘과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써 근대적 병원이 완성되어 갔다.

결국 화성행궁은 일제 강점기 수원경찰서 및 토목관구 그리고 신평공립소학교 및 수원자혜의원 등이 설립되면서 일제 통치를 옹호하는 주요한 기구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는 조선의 몰락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576칸 규모의 화성행궁 가운데 유일하게 낙남헌(落南軒)만을 남긴 채 왜소한 조선식 단층건물과 높은 근대적 병원 건축물을 배치함으로 우월한 일본을 은연중 과시하며 조선인에게 열등감을 자아내게 했던 기제로 활용하였다.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 머물던 별궁(別宮), 이궁(離宮)으로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다. 왕이 항상 머무르며 국사를 주관하는 본 궁궐(正宮)을 나와 전란·휴양·왕릉 참배 등 지방에 머물 때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로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이 가운데 화성행궁은 화성의 중심으로 조선시대 행궁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행궁은 평상시에는 수원부사(화성유수)가 집무하는 지방행정의 관아로 사용하다가 왕의 원행 때에는 왕의 거처로 이용되었다. 정조 이래 모든 임금에 찾았던 화성행궁은 다른 지방의 행궁보다 그 규모나 건축구조·기능 면에서 압도적이었던 조선의 상징이었다.

전통적 한옥의 가옥구조는 넓은 마당과 함께 해야 온전하게 그 맛과 멋을 음미할 수 있다. 단층의 한옥은 넓은 마당과 어울려야 그 단단한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덩그러니 낙남헌 하나만을 남기고 모조리 헐어버렸다. 따라서 덜렁 남겨진 낙남헌과 높다란 벽돌 건물의 자혜의원은 초라하고 낙후된 조선과 발전하고 위용에 찬 일본을 의연 중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일제는 일본인보다 높은 문화의식과 자부심을 지닌 조선인들을 폭력과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보다 발달된 물질문명을 조선의 그것과 비교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우월한 일본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시나브로 조선인들의 저항을 무마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경찰과 군대와 사뭇 다른 또 다른 일제 통치의 유효한 무기가 교육과 의료를 통한 통치방침과 연결된다. 하여 그렇게 남겨진 낙남헌은 일제시기 수원군청(水原郡庁)으로 활용되면서 힘겹게 조산을 지켰던 셈이다. 해방 뒤에는 신평학

교 교무실로도 사용되었다.

1989년 10월 화성행궁복원추진회(추진위원장 김동휘)가 구성되어 행궁복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갔다. 이에 따라 수원의료원이 정자동으로 신축이전 되었고, 1996년 7월 19일 화성행궁 중건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렇게 낙남헌은 수원자혜의원이 1911년 5월부터 화성행궁 자리를 차지한 이후 1992년 정자동에 의료원을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까지 82년 동안 화성행궁을 홀로 씩씩하게 지켰던 것이다.

봉수당 등이 중건된 화성행궁에서 낙남헌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봉수당에서 혜경궁홍씨 진찬연이 재현되고 있다.

수원일보 webmaster@suwon.com

다. 조선미인보감에 실린 김향화



8. 참고 문헌

[도서]

- 이동근(2014). 『역사는 삶이다』. 블루씨.
이동근(2016). 『신작로 근대를 품다』. 블루씨.
신현규(2010).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 어문학사.
이수광(2014). 『조선을 뒤흔든 16인의 기생들』. 다산북스.